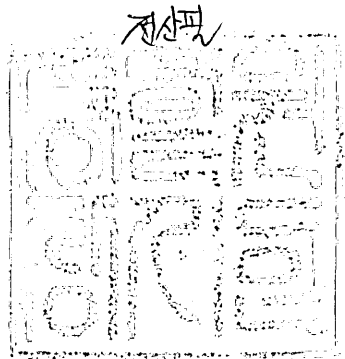


본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情勢動向 등을
綜合整理한 것으로서 南北韓의 統一對
話 過程에서 研究資料로 活用될 수 있
도록 作成한 것임.

南北對話年表

(1995. 1. 1~12. 31)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目 次

1月	1
2月	40
3月	74
4月	110
5月	141
6月	177
7月	206
8月	238
9月	269
10月	299
11月	332
12月	357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	<p>0 金泳三 大統領 新年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實을 다지고 力量을 키 워 우리의 오랜 僞원인 民族統一을 만드시 성취 해야 함. - 동족간의 불신과 대립이 라는 비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함. - 세계사의 흐름에 맞게 南과 北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함. - '95년이 나라의 선진과 변영, 민족의 통일과 영광을 앞당긴 『참다운 광 복의 시대』를 열어나간 해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새해에 적극적으로 南北對話 재개에 힘을 쏟을 것임. 	<p>0 黨報·軍報·青年報 共同社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 우리는 全黨·全國·全軍에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 앙위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 고 金正日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 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남조선 통치배들은 파쇼폭압 과 배신의 길로 나감으로써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발전 하던 北南關係를 다시금 반목 과 대결에로 되돌려 세웠음. - 우리와 미국사이의 停戰協定 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새로 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 야 하며 北南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 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와 야 합하여 벌이는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과 군사적 도발책동,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함. - 文民政權이란 허울뿐이고 실 제로는 역대 군부독재정권 보 	<p>0 美의회, 北核청문회 早期開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 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발언 - 우리는 북한과의 합의내용을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곧 열 것을 촉구할 것 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		<p>다도 더욱 굴욕적인 사대매국 정권이고 파쇼독재정권, 분열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聯邦制 方式으로 통일하는 것임. -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때 朝·美사이의 비정 정상적인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될 것이며, 그것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대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로 이어지게 될 것임. <p>0 金正日, 새해 맞아 214 군부대 방문</p> <p>* 영접 : 최광, 이봉원, 남상락, 박재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是 인민군대가 일당 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 강화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人民軍隊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		<p>○ 金正日, 새해맞아 朝總聯에 교육원조비·장학금 1억 35만 엔 전달</p> <p>* 총누계 129회 422억엔 전달</p> <p>○ 金正日, 새해 즈음 북한주민들 에게 친필서한</p> <p>* 1.18 中·平放 발표</p> <p>- 『위대한 수령님의 戰士, 위 대한 수령님의 弟子답게 내나 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 다.』</p> <p>○ 中放, 金泳三 大統領 新年辭 비난 論評</p> <p>- 국제화나 세계화는 외세의 압 력에 굴복해서 감행한 매국반 역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것임</p> <p>- 감히 우리를 걸고 들면서 和 解와 協力에 대해서 떠벌이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의 언 동임.</p> <p>- 新年 녀두리는 사대매국적이 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 며 분열주의적인 정체를 다시 금 만천하에 드러낸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3	<p>0 金憲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關係 실질개선추진 방침 언급</p> <p>* KBS 사회교육방송회견</p> <p>- '95년 對北政策 기조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될것임.</p> <p>- 北韓이 아직도 변화를 과감히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나 생각됨.</p> <p>-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수 있을 것임.</p> <p>- 가공적인 논리나 당위성 차원에서의 논의를 그치고 이제 하나라도 실천해가는 통일과정을 시작해야 함.</p>	<p>0 中·平放, 汎民聯 광주·전남 연합창립준비위원장 구속 非難</p> <p>- 문민분열 독재자들의 추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드러내주는 반역적 범죄행위임.</p> <p>- 남조선에서는 이 통일운동 조직을 근원적으로 탄압 말살하고 확대 발전하는 통일운동을 가로막아 보려는데 목적이 있음.</p> <p>0 金正日 중심 일심단결 및 새해 총진군 촉구 궐기모임 진행</p> <p>* 순천탄광연합기업소 직장종업원 궐기모임, 조선인민군 경비대 군인 궐기모임 등</p>	<p>0 뉴스위크誌, 北韓, 對美군축협상 시도 가능성 보도</p> <p>- 북한은 미군 조종사 석방과정에서 마련된 직접 대화 통로를 통해 국방비 감축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p> <p>0 부트로스 갈리 UN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건설적 역할 용의 표명</p> <p>* 연합통신 회견</p>
1. 4		<p>0 社會民主黨 委員長 김병식, 공동사설 지지 談話</p> <p>-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물은 분열주의적이며 반민족적인 김 〇 〇 괴뢰정권임.</p>	<p>0 日방위청, 安保對話 다각화 추진</p> <p>* 도쿄신문 보도</p> <p>- 냉전후 일본과 아시아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韓·러·中 등 주변국</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시설에 밝혀진 제반 노선과 정책들을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함. - 조선사회민주당이 金正日의 현명한 영도를 높이 받들고 아버지 수령의 통일유혼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대행진에 동참할 확고한 결의를 표명함. <p>○ 金正日 중심 일심단결 및 새해 총진군 촉구 인민무력부 군인들 궐기모임</p> <p>* 참석 : 최광, 김봉률, 김광진</p>	<p>과의 안보대화를 추진키로 했음.</p> <p>○ 무라야마 日本총리, 對北 국교정상화 적극 추진시사</p> <p>* 駐日 한국특파원들과 회견</p> <p>- 戰後 50년 가까이 北韓과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1. 5	<p>○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통일정책 추진에 국민적 합의·신뢰 확보 강조</p> <p>* 통일고문회의</p> <p>- 統一政策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와 신뢰 확보가 필수적임.</p> <p>- 새해에는 南北關係의 실질적 개선을 모색하여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임</p> <p>- 世界化 추진은 통일과업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p>	<p>○ 天道教 靑友黨 위원장 유미영, 공동시설 지지 談話</p> <p>- 공동시설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방침을 열렬히 지지환영함.</p> <p>- 김○○ 일당의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야만행위를 우리 천도교인들은 천추를 두고 잊을 수 없으며 피맺힌 한을 풀 수 없음.</p> <p>○ 『祖平統』서기국, 세계화 구상 비난 報道</p> <p>- 남조선 경계를 송두리채 외세에 예속시키고 남조선 시장을</p>	<p>○ 美 국방부, 北 공급중유 1.21까지 북한 도착 발표</p> <p>- 1차로 예정된 선적분 5만t이 1.21까지 북한 선봉항에 도착할 것임.</p> <p>○ 페리 美 국방장관, 駐韓美軍 후방배치否認</p> <p>* 美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p> <p>- 韓半島에 전진배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5	<p>다는 점에서 北韓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p> <p>○ 李洪九 國務總理, '95년 南北關係 중대 전기 마련 가능성 언급</p> <p>* 통일고문회의</p> <p>- 光復과 分斷 반세기를 맞는 금년에는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p> <p>- 南北經協問題에 있어 북한은 아직 소극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민간기업들은 계속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임.</p> <p>- 북한이 對南誹謗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둬.</p> <p>- 南北頂上會談은 북한에 頂上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북한이 얘기해 오는게 순서일 것임.</p> <p>-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핵심이고 이것</p>	<p>외국의 독점재벌에 통채로 내맡기는 매국행위임.</p> <p>- 괴뢰역도야말로 을사5적이나 선행 통치배들을 찌꺼먹을 특등매국노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음.</p> <p>○ 종군위안부 피해자 성토모임 (平壤)</p> <p>* 정부 사죄 및 피해보상 촉구 日本 수상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채택</p>	<p>된 美軍 일부를 후방으로 철수시켜 북한의 상응조치를 유도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추측』이라고 일축</p> <p>○ 日산케이신문, 對北경수로 자금 한국 50%, 일본 30% 분담 보도</p> <p>- 韓·美·日 3국은 對北경수로 건설자금을 한국이 50% 이상, 일본이 30%를 각자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음.</p> <p>○ 레이니 駐韓美대사, 헬기사건 불구 한반도 긴장완화 진전 언급</p> <p>* 워싱턴 세계문제협회 포럼 연설</p> <p>- 헬기 추락사건에도 불구,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완화의 국면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5	<p>만이 南北간에 진실한 협력을 가져올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합의사항중 중요한게 남북간의 대화이며 이것이 전제되어야 함. <p>0 호남정유, 對北공급 증유 5만t 1.11 선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국방부 유류공급처가 對北 공급 증유의 선적 개시일을 1.11로 통보해 왔음. 		<p>0 美국방부, 對北공급 重油 1차분만 부담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브리핑 - 1차 선적분 5만t에 소요될 470만달러는 美 국방부가 부담할 것임. - 이후 공급 비용은 KEDO가 부담할 것이며, 美 국방부는 향후 공급에 돈을 내지 않을 것임.
1. 6	<p>0 金泳三 大統領, 年頭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국정의 중요한 과제는 南北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일임. - 統一은 世界化의 목표이자 수단임. - 北韓이 고립과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혁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야 함. 	<p>0 北·日,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관련 觀光協定 체결 (중앙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 국제체육문화축전(4.28~30)과 관련한 觀光協定이 최근 조선국제여행사와 日 쯔카이여행사·일본교통공사 사이에 서명되었음. - 쯔카이여행사와 일본교통공사는 관광객 모집 단일창구가 될 것이며, 관광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됨. 	<p>0 모스크바방송, 한반도문제 해결위한 국제회의 소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제의한 국제회의 소집문제도 절박성을 띠고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것임. - 民族의 福利를 증진하기 위하여 南北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음. -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한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南北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수적임. <p>○ 北韓 군인 1명 귀순</p> <p>* 안기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예술선동대 소속 정성산(26) 상사가 동남아 제3국을 통해 김포공항을 통해 귀순 <p>○ 김동완 KNCC 총무, 남북교회교류 확대 표명</p> <p>* 신년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統一 禧年의 해를 맞아 제4차 글리온 대회 등 南北教會의 활발한 교류, 	<p>○ 民民戰, 金泳三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감언이설로서 올해에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강화하려는 속심을 드러내 놓은 것임. - 반통일분자가 그 무슨 남북화해와 협력을 운운한 것 자체가 역겨운 것임. <p>○ 中放, 미군헬기 격추로 인민군대의 일당백 전투력 과시선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계선에서는 불법침입한 미군직승기를 단매에 목사발내는 우리 인민군대의 필승불패의 일당백 전투력이 과시되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6	<p>공동행사를 통해 희년사업을 벌여나갈 것임.</p>		
1. 7	<p>0 金壽煥 추기경, 訪北 용의 표명</p> <p>* 카톨릭신문과의 신년 특별대담</p> <p>- 광복 50주년을 맞아 南北統一에 도움이 된다면 올 해안에 북한을 방문하겠음.</p>		<p>0 美, 한반도 우선의 新인-인(WIN & WIN) 전략 마련</p> <p>* 美 디펜스 위크誌</p> <p>- 美정부는 한반도와 중동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에 먼저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방기획지침(DPG)』을 '94.5 마련했음.</p>
1. 8	<p>0 남북경협업체 二溫 해외통상, 4월 평양축전에 외국인 관광객 5천명 모집 북측과 합의</p> <p>* 합의서한 공개</p> <p>-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에 美·日·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5천명을 모집, 평양으로 수송한다는데 北韓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와 합의했음.</p>	<p>0 勞動新聞, 金泳三 大統領 연두 기자회견 비난</p> <p>- 세계화 구상이란 한푼의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 요설에 불과함.</p> <p>- 통일의지가 전혀 없을 뿐더러 그 자신이 통일문제에 대한 아무런 견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 보였음.</p> <p>- 변화니 개혁 개방이니 하는 내정간섭적이고 도발적인 언</p>	<p>0 北, 4월 평양축전에 외국인관광객 1만명 入國 허용 방침</p> <p>* 北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이종혁 기자회견 (日本)</p> <p>- 4월 平壤 개최예정인 국제체육문화축전에 약 1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임.</p> <p>- 외국인 관광객들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8		<p>사만 잔뜩 내뱉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민주·통일을 열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준 것밖에 없음. <p>○ 『祖平統』부위원장 정신혁·『祖國戰線』의장 정두환, 공동사설 지지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 50돌이 되는 올해에 자주 평화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음. 	<p>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임.</p>
1. 9	<p>○ 李洪九 국무총리, 南北間 政治的 協定 필요 언급</p> <p>* 獨 디 벨트紙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전선을 오가는데 따라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南北 政治的 協定이 마련되어야 될 것임. <p>○ 韓·美·日, KEDO발족 관련 실무회의(1.9~, 워싱턴)</p> <p>* KEDO 협정 및 운영방안 협의</p> <p>○ 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개최</p>	<p>○ 政務院, 美國 商品 반입제한조치 및 무역선박 입항금지조치 해제 결정</p> <p>* 외교부 대변인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은 朝·美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상품의 우리 나라 반입제한조치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에서 미국 무역선박의 우리 나라 입항을 금지 하던 조치를 1월 중순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해제조치로서 우리는 朝美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무역 투자장벽 완화와 관련한 조항 	<p>○ 美 공화당 의원들, 美·北 핵합의 재협상촉구 결의안 마련</p> <p>* 美 의회소식통 (1.10 중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터 등 美공화당 의원 3명은 北韓核 재협상 개시, 對北核 불사용 약속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한 對정부결의안을 준비중이며 빠르면 금주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和解·協力の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세계화 구상과 연결하여 추진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1.20경 정식 가동 - 南北和解·協力を 실현하는 길은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南北當事者間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견지 - 韓·美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p>에 따라 지닌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職盟』 중앙위원장 주성일, 공동시설 지지 談話 - 전체 직맹원들은 조국통일을 90년대에 이룩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앞장설 것임. ○ 中·平放, 일본 縣의회 의 2차 대전 전몰자 추모 결의안 채택 비난 論評 - 일본 인민들속에 군국주의 사상 독소를 깊이 주입시키고 청장년들을 해외침략의 길로 내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그룹 訪北 조사단, 北韓 向發 - 姜晉求 삼성전자 회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조사단이 1.11 入北 예정 ○ 權寧海 안기부장, 金正日 5월승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通信, 테일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의 對北 단호조치 주장 비난 - 美의회 강경보수세력은 요즘 미군헬기 사건과 관련해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을 반대하는 비방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테일러는 이에 맞장구를 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국무부, 연락사무소 설치실무반 1.31 平壤 파견 발표 - 린 터크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이끄는 실무반이 1.31~2.4 平壤을 방문, 연락사무소 설치부지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0	<p>* 국회 정보위</p> <p>- 오는 5월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p> <p>- 金正日이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징후는 있으나 집무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p> <p>0 金壽煥 추기경, 日 총리에 종군위안부 사죄 촉구 書翰</p> <p>-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p>	<p>- 4차례나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그가 태도를 바꿔 단호한 조치를 주장한 것은 주견없는 얼뜨기라는 것을 말해줌.</p> <p>0 中央通信, 밥돌 美공화당 상원의원의 美·北합의문 이행중지 주장 비난</p> <p>- 밥 돌은 직승기 사건을 통해 조선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못된다는 것이 증명됐으므로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떠벌였음.</p> <p>- 美 강경보수세력의 거두인 밥돌의 이 발언이야말로 우리를 극도로 자극하는 심히 도전적인 망언임.</p> <p>- 朝·美 기본합의문은 두 나라 국가수반들이 보증한 무게있는 문건으로 지금 실천적 이행단계에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음.</p>	<p>를 물색할 것임.</p>
1.11	<p>0 金泳三 대통령, 신중한 대북정책 추진 지시</p> <p>* 통일·외교·안보관련 4개부처 업무보고</p>	<p>0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94년도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전개평가 通報 발표</p> <p>- 지난해 비전향장기수들을 공</p>	<p>0 美·日정상회담, 제네바 합의 이행문제 논의 (워싱턴)</p> <p>- 제네바 美·北합의</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대남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중시 신중한 판단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 경수로 건설지원은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함. - 효과적인 대북경협방안을 개발하되 경협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美·北 합의 이행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신뢰에 기초하여 대원칙에 합의, 그원칙을 지켜나가야 함. - 북한내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 때 대남차원에서 오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군사대비태세에 완벽을 기해야 함. <p>0 통일원, '95년도 주요업무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화해·협력의 실질적 진전 노력 - 美·北 제네바합의 이행 	<p>화국 북반부로 돌려보낼데 대한 조선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의 정의의 목소리는 높아졌으며 인류공동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은 내외인민들과 공정한 사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송환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임. <p>0 中放, 미전향장기수 김선명 석방 촉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〇 〇 파쇼악당이 김선명 노인에게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오랜기간 독감방에 가두어두고 박해하고 있는 것은 천만번 부당한 일이고 역사상 유례없는 파쇼탄압 만행임. - 김 〇 〇 일당의 처사야말로 국제법의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 김 〇 〇 일당은 내외인민들의 요구대로 비전향장기수 김선명 노인을 즉시 무조건 석방하여야 함. <p>0 平放, 金泳三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을 개혁 개방으로 변화시 	<p>이행과 관련, 일본이 재정분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합의</p> <p>0 北, '94.12월 平壤서 김정일·김평일 세력간 총격전說</p> <p>* 美 안보회의(ASCF) 한국안보연구 책임자 金暎勳박사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2.12~17 평양시내에서 親김정일그룹과 김평일 추종세력간 권력암투가 총격전으로 변져 주요인사 8명이 사망했음. <p>0 日교도통신, 北경수로 분담금 韓·美·日 원칙합의 보도</p> <p>* 외무성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日 3국은 △경수로 건설비용은 주로 韓·日 양국이 부담△중유공급과 폐연료봉 보관·처리비용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한다는데 기본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1	<p>과정을 남북한 관계개선 계기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지원 - 북한의 ADB, IBRD 등 국제경제기구 가입 추진시 적극 협조 	<p>켜서 흡수통합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p> <p>0 『汎民聯』 공동사무국, 새해 즈음 『7천만겨레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을 '통일마중 대행진의 해' 로 빛내이자고 주장하면서 北과 南, 해외 각계각층에게 통일마중 대행진에 동참할 것을 호소 	<p>적인 합의를 봤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건설 비용 40억달러중 일본의 부담액은 약1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임.
1. 12	<p>0 統一院, 北이산가족에 제3국 통한 소액송금 가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안내서』를 통해 외환 관리법 허용범위내에서 제3국을 통한 북한내 이산가족에 대한 소액송금 가능 확인 <p>0 統一院, 4개 기업 訪北 추가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그룹, 동양그룹, (주)신원, 대우그룹 등 4개기업에 대해 訪北승인 <p>0 대우그룹 訪北조사단, 북한 향발</p>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군사도발행위 규탄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 첫날부터 매일같이 감행되는 군사적도발행위는 김 0 0 괴뢰도당이 '95년에도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려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남조선 현 통치배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려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p>0 『농근맹』위원장 최성숙·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서기국장 강태무, 공동사설 지지 談話</p> <p>0 金正日, 在日조선학생소년예술단 위해 연회 마련 (목란관)</p>	<p>0 日마이니치신문, 金正日, 7.8경 주식지침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정부소식통 인용 <p>0 베이커 前 美국무장관, 美·北 핵합의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 과거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美·北 핵합의는 잘못된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	<p>* 단장 : 李景勳 부회장</p>	<p>* 참석 : 김용순, 최용해</p> <p>○ 亞太평화위 대표단, 日本 방문 마치고 귀환 (1.3~12)</p> <p>* 단장 : 부위원장 이종혁</p>	
1.13	<p>○ 金憲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송금 세부지침 마련 표명</p> <p>-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해온 제3국을 통한 북한내 가족에 대한 송금의 규모와 횟수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있음.</p>		<p>○ 亞·太의원포럼, 南北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p> <p>* 제3차회의(멕시코)</p>
1.14	<p>○ 관세청, 板門店에 세관 설치 추진</p> <p>* '95년도 관세 행정운영 방향 발표</p> <p>- 南北물자교류 확대에 따라 30개 세관에 南北교역 물품 전담반을 두고, 육로 직교역에 대비 板門店에 세관 신설 추진</p>	<p>○ 외교부 대변인, 日·北韓 수교 협상 관련 기자회견</p> <p>- 우리는 최근 日本과 그 어떤 접촉도 한 것이 없으며 또 일본측으로부터 그러한 제의를 받은 바도 없음.</p> <p>- 이제와서 일본이 더이상 회담에 장애를 조성할 구실은 없으며, 공은 우리가 아니라 이미 일본측이 받아안고 있음.</p> <p>-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회담에 그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음.</p>	<p>○ 北韓 4월 평양 축전 앞두고 美洲교포 유치 추진(1.14 서울)</p> <p>- 뉴욕 중국계여행사 T&P그룹은 교포 언론에 평양축전 500명의 관광객 모집 광고 게재</p> <p>○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對北관계개선 준비완료 언급</p> <p>* CNN방송 회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日회담이 재개되는가 못 되는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 본측에 달려있음. ○ 中放, 미전향장기수 김영태의 UN인권위원장에게 보낸 便紙 ('94. 11) 전문 보도 ○ 릴리 前주한미대사 등 美전문가 4명, 平壤 도착 * 김영진 美조지워싱턴大 교수, 오버도퍼 美존스홉킨스大 명예연구원, 패터슨 국방안보전문가 등 ○ 노동신문, 黨창건 5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진군축구 社說 - 우리 혁명에서는 黨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 - 黨원과 근로자들은 金正日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黨창건 5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함. ○ 『民民戰』, '95년 통일구국 선언과 투쟁구호 발표 * 民民戰중앙위 전체회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매우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완전히 돼있음. - 김정일은 권력을 장악, 정책적 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4		- 반정부투쟁, 분단장벽 철폐, 외세지배와 간섭 배격,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연방제 통일 등 5개항의 통일구국선언과 52개항 투쟁구호 발표	
1. 15	0 北공급 重油, 여수항 출발 - 北제공 증유 2만2천5백t 을 선적한 중국선적 다킹 94호가 1. 15 여수항을 출항, 1. 17 先鋒港 입항할 예정		0 美, 미국내 北자산 週内 동결해제 방침 * 日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 對北 통상 및 금융 거래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금주중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해제 조치를 취할 것임. 0 리처드슨 美 하원의원, 金正日 권력장악 확인 언급 * 워싱턴 포스트紙 -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김정일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북한 군부는 북한 권력내부에서 강력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5			<p>하고 불확실한 세력으로 모든 논의와 쟁점은 군부에서 결정함.</p>
1. 16	<p>0 外務部·UN고등판무관실, 北난민발생 대비책 마련위한 워크샵 공동개최 (1.16~20, 서울)</p> <p>0 삼성그룹 투자조사단, 북한 방문 종료 (1.11~16)</p> <p>* 단장 : 姜晉求 삼성전자 회장</p> <p>- 羅津·先鋒 공단조성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참여 문제 논의</p> <p>0 大宇그룹 투자조사단, 북한 방문 종료 (1.12~16)</p> <p>* 단장 : 李景勳 부회장</p> <p>- 남포 직물공장의 기술교 육문제와 가동시기 등 논의</p>	<p>0 외교부 대변인, 경수로공급 계약서에 韓國型 명기 거부 표명 기자회견</p> <p>- 美·日·남조선 3자 실무협상에서 경수로 제공계약서에 경수로의 璽을 남조선璽으로 명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함.</p> <p>- 여기에는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에 浬방을 놓으려는 남조선 당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음.</p> <p>- 우리는 미국이 국제연합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수로 발전소 설비를 보장한다는 것외에 다른 것은 모르고 있음.</p> <p>- 남조선형을 계약에 명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朝·美合意에 따르는 경수로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음.</p> <p>0 『汎民聯』북측 본부, 文益煥 사망 1돌즈음 부인 박용길에게 便紙</p>	<p>0 네덜란드 국제은행 (ING), 외국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北韓 진출</p> <p>* ING 서울지점 확인</p> <p>- ING는 1.25 北고려 연방보험공사와 합작은행 설립계약을 체결할 예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통일운동단체들과 연대, 연합을 실현하여 통일의 새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여사의 의로운 애국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공급 重油 2차 선적분, 여수항 출발 - 北제공 중유 2만7천5백t 을 선적한 라이베리아 선적 라크 레이크호가 여수항 출항 ○ 한화그룹 투자조사단, 북한 항발 * 단장 : 魚在弘 한화전자 정보통신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放, 美·北 전문가회담 참가 미국대표단 平壤 도착 보도 -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제2차 朝·美전문가협상에 참가할 미국 전문가 대표단이 平壤에 도착했음. ○ 北韓정부 문화대표단, 중국·베트남 방문차 平壤출발 * 단장 : 장철 문화예술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퍼 美국방정보 국장, 한반도 최고 안정기 언급 * 美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 - 北核합의와 북한의 권력이양은 과거 10년동안의 어느때보다도 한반도가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 -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 외부와의 대결보다는 경제향상과 정치경제적 관계개선 추구전략으로 체제의 생존을 추구하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 - 중국은 조선 인민들이 김정일의 지도아래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7			있어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기를 바라고 있음.
1. 18	<p>0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데이니 駐韓美대사 접견</p> <p>- 美·北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韓·美간 강력한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하며, 실질적 남북대화 추진이 필수적이라는데 공동 인식</p> <p>- 金應 부총리는 대북정책의 초점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 방지 및 평화유지 △北韓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고 공존·교류협력의 장으로 인도하는데 두고있다고 강조</p> <p>0 朴成喆 신원그룹 회장, 평양에 기업사무소 설치합의 언급</p> <p>* 1. 10~17 訪北</p> <p>- 平壤에 기업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거의 합의를 보았음.</p>	<p>0 中放, 美·日 합동지휘소훈련 관련 北을 압살하려는 침략적 전쟁연습이라고 비난</p> <p>- 美·日 군부세력의 협력밑에서 아시아 사회주의 나라들을 견제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데 초점을 맞춘 침략적인 전쟁연습임.</p> <p>-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일의 완전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확립하자는데 목적이 있음</p> <p>0 金正日, 일본 지진관련 조총련 의장 한덕수에게 위로 전문</p> <p>- 한덕수 동지를 비롯한 총련 중앙상임위와 피해지역 동포들에게 심심한 위문과 애도의 뜻을 포함.</p> <p>0 중앙통신, 폐연료봉 처리 관련 제2차 美·北 전문가회담 개최 보도</p> <p>- 협상에서는 '94. 11 제1차 협상에서 미결되었던 기술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음.</p>	<p>0 北, 4월 평양국제축전관련 臺灣 전세기 취항 추진</p> <p>* 대만 소식통 (1. 18 중앙)</p> <p>- 北韓은 '94. 12 대만정부에 조선국제여행사 명의의 공문을 발송, 4. 18부터 전세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p> <p>0 北공급 중유 1차분, 북한 선봉항 도착</p> <p>* 쉘리 美국무부 부대변인 발표</p> <p>- 현시점에서 중유의 인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첫 선박이 북한에 도착, 하역을 시작했음.</p> <p>0 李鵬 중국 총리, 김정일 승계지지 표명</p> <p>* 北韓정무원 부총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8		0 강성산, 일본 지진관련 무라야마 일본 총리에게 위로 전문 - 지진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람.	장철 접견 (1. 19 중앙) - 중국은 金正日이 김일성의 권좌를 계승하는 것을 지지함.
1. 19	0 제18차 통일관계장관회의 - 북한이 南北對話 분위기를 조성해 성의를 보임으로써 경수로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 - 南北經協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 - 南北經協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문제 적극 검토 - 우리 내부의 감상적 통일논의 제기 및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강화 가능성에 철저 대비 -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을 1. 23 정식 발족	0 노동신문, 日·北 협상재개는 일본측에 달려있다고 論評 - 일본 당국자들이 朝·日회담 재개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목적은 중단책임을 남에게 넘겨 씌우자는데 있음. - 우리는 회담재개에 그 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않았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함. - 재개여부는 전적으로 일본측이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용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음. 0 김영남, 릴리 前駐韓美대사 일행과 담화 0 金正日, '94. 10. 16 김일성 사망 백일 중앙추도회에서 『김일성 통치방식 고수』 천명 (1. 19 국제방송) - 나는 앞으로 수령님께서 혁명	0 美 상원 에너지委, 北核 청문회 * 美·北기본합의문 문제점 집중 추궁 <머코스키 위원장> ·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했음. · 남북대화의 적정한 진전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메케인 의원> · 테러국가에 대해 중유 및 경수로 제공보장은 미국의 법정신에 위배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9	<p>0 韓·美합참의장, 연합방위 체제 지속강화 합의</p> <p>* 金東鎭 합참의장-살리카 시빌리 美합참의장 회담 (서울)</p> <p>- 韓·美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p> <p>- 향후 정전체제내에서 정전협정 관련사항이 모두 수행돼야 한다는 점 강조</p> <p>- 북한이 제네바 美·北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T/S훈련 강행</p> <p>* 살리카시빌리 美합참의장은 미군조종사 승환 노력은 한반도 휴전체제와 군정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정전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p>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해결 위해 韓·美공조체제 중요 강조</p> <p>* 살리카시빌리 美합참의장 접견</p>	<p>과 건설을 영도해 오면서 역사적으로 하신 교시를 몇 백, 몇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함.</p> <p>0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규탄 해주시 군중집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韓·美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나라를 이간시키려는 北韓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 ○ 韓·美·日, KEDO 설립 관련 실무협의 * 趙昌範 외무부 연구관,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다케우찌 日아주국심의관 참석 (1. 19~20, 도쿄) - 對北 경수로지원에 있어 한국표준型 채택과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 KEDO 설립협정 문안에 한국표준型 채택을 적절히 반영(duly reflected)키로 합의 ○ 李基澤 민주당 대표, 平壤 방문 초청 관련 정부측과 협의 표명 -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음. - 북한방문을 추진하는 과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9	<p>정에서 정부방침을 배제할 생각은 없음.</p>		
1.20		<p>0 『祖平統』서기국, 굴업도 핵 폐기장 반대시위 노인 심장마비 사망관련 규탄 報道</p> <p>- 김 〇 〇 일당의 파쇼적인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직접적인 살인만행임.</p> <p>- 민족을 살리고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려면 김 〇 〇 과 같은 파쇼살인마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함.</p>	<p>0 美 國 무 부, 對 北 경 제 제 재 완 화 조 치 발 표</p> <p>- 美 · 北 기 본 합 의 문 이 행 을 위 해 다 음 과 같 이 對 北 경 제 제 재 완 화 조 치 들 을 취 할 것 임.</p> <p>- 통 신 및 정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화 및 전 신 연 결 관 련 거 래 허 용 · 개 인 여 행 및 여 행 시 신 용 카 드 사 용 허 용 · 언 론 기 관 사 무 소 개 설 허 용 <p>- 금 용 거 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 에 서 개 시 되 거 나 종 료 되 지 않 은 금 용 거 래 청 산 을 위 한 북 한 의 美 銀 行 시 스템 사 용 허 용 · 북 한 정 부 의 물 권 이 아 닌 동 결 자 산 해 제 <p>- 여 타 무 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 그 네 사 이 트 의 북 한 으 로 부 터 수 입 허 용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조치들 · 연락사무소 개설 및 운영 관련 거래 허용 · 경수로사업, 대체 에너지 공급 및 폐연료봉 처리에 미 국기업의 참여 사안별 검토 - 추가적인 對北경제 제재 완화는 핵문제 해결의 진전 및 여타 관심분야에서의 진전에 따라 고려될 것임. ○ 고노 日외상, 북한에 수교회담 재개 촉구 의회연설 - 국교정상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태이블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 EU, 北경수로 건설공사에 유럽업체 참여 추진 * 길포드 EU 집행위 대변인 언급 - 북한경수로 건설공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0			<p>사에 유럽 核관련 업체의 참여를 성 사시키기 위해 다 각도로 南北韓 당 국과 접촉중임.</p>
1.21	<p>0 외무부 대변인, 美國의 대 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관련 論評</p> <p>- 북한의 核활동 동결 등 의무이행에 맞추어 취해 진 초보적 조치임.</p> <p>- 韓·美는 향후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위해서는 남 북대화,의 진전을 포함한 제네바 합의사항의 이행 및 여타 관심분야에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음.</p> <p>- 금번 완화조치가 북한의 개방 및 성실한 美·北합 의 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p>	<p>0 金日成 『광복의 천리길』70돌 기념 중앙보고회 (2.8문화회관)</p> <p>* 참석 : 박성철,김영남,계응태 최태복,백학림,김중린,전문섭</p> <p>< 최용해 보고 要旨 ></p> <p>-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두 리에 일심단결하여 영도를 충 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함.</p> <p>- 모든 청소년 학생들은 김일성 에게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 성을 김정일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함.</p> <p>0 IAEA 대표단, 핵동결문제 협의 차 平壤 도착</p> <p>0 『韓民戰』중앙위선전국, 구국 전선 신문과 구국의 소리 방송 특파원 平壤 상주결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전 중앙위 상무위 결정에 따라 '95.1 부터 구국전선 신문과 구국의 소리방송 특파원들을 平壤에 상주시키기로 하였음. 0 릴리 前駐韓美대사 일행, 북한 방문 마치고 離平(1. 14~21) * 1. 19 김영남·김용순 면담 0 北·美 제2차 폐연료봉 전문가 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 평양에서 1. 18-20 진행된 협상은 유익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의의있는 진전을 이룩하였음. - 5MW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처분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 발족 -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설치하여 對北경수로사업 지원관련 실무 전담 0 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 對北경수로지원- 남북대화 연계방침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외교부 대변인, 동북아 多者 안보대화 반대입장 표명 談話 - 동북아지역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는다고 해도 기대할 것은 없으며 도리어 복잡성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일본은 지역문제를 들고다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제4차 NPT연장 준비 회의 개최 (뉴욕) * 본회의 일정및연장 방법 등 협의 0 허바드 美국무부 副 차관보, 말聯 등에 北공급 중유 10만t 제공요청 기자회견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경수로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제네바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함. -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이는 경수로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것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나 바로해야 하며 주변나라들과 쌍무적 신뢰를 도모하는데 전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동북아지역에 냉전의 후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일부 세력들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 그 어떤 다무적 성격의 안보대화 출현도 반대함. - 亞·太지역에 이미 아세안지역 연단과 같은 포괄적인 안보대화 연단이 나온 실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 <p>○ 『祖平統』서기국, 좌경폭력혁명불가담 서약 관련 朴弘 서강대 총장 비난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산유국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北韓에 공급할 원유 10만t을 제공하기를 바람. ○ 포드 前 美대통령, 北韓 核합의 불이행 우려 표명 *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 북한이 약속을 어길 때에 대비한 보다 확고한 준비가 필요함. - 북한정권의 지난 50년동안의 신뢰성 없는 군사·외교정책으로 미루어볼때 협정 이행은 회의적임.
1. 24	<p>○ 俞在賢 경실련 사무총장, 북한『국가적 실체』인정 주장</p> <p>* 經實聯 통일협회 주최 토론회</p> <p>- 金正日 정권의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p>	<p>○ 정당·단체 연합회의, 8.15 공동경축 및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p> <p>* 참석 : 양형섭, 김용순, 유미영, 문경록, 주성일, 최용해, 염태준, 백인준, 백남준</p> <p>* 의제 : 『조국해방 50돌을 맞</p>	<p>○ 北·IAEA, 핵동결및 사찰이행을 위한 協商 재개 (평양)</p> <p>○ 조셉 나이 美국방부 차관보, 주한 미군향후 10년간 현수준 유지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4	<p>다음 정권과 다시 대화를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 상대인 하나의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 함. <p>○ 趙源一 駐UN차석대사, NPT 무기한연장 지지 政府 입장 표명</p> <p>* NPT연장회의를 위한 제4차 최종준비회의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함. - 핵보유국은 NPT 4조와 6조에 따른 의무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함 	<p>이하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p> <p>< 黨비서 김용순 보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해방 50돌을 北南, 해외의 각당 각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공동으로 경축할 것을 제의함. - 8.15 민족공동의 경축행사를 계기로 北과 南, 海外의 각당 각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대민족회의』를 열고 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할 것을 제기함. - 北을 방문할 것을 원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정치인들과 인사들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들, 개별인사들과도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음. <p><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 정당·단체 연합회의는 8.15에 板門店에서 해내외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해방 50돌을 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경축할 것을 남조 	<p>* 요미우리신문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10년간 駐韓 및 駐日美軍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동북아 다국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東아시아전략을 마련했음. <p>○ 美上院외교위, 北核 청문회 개최</p> <p>< 크리스토퍼 美國무장관 연설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문 타결은 韓·日의 안전보장 동북아 核군비경쟁 방지, 전세계적 핵확산방지체제 유지 등 미국의 모든 전략적 목표들을 충족시키고 있음. - 관계정상화의 출발점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 군사분계선에 집중배치돼 있는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논의 부터 시작돼야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4		<p>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정중히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 海外가 조국해방 50돌 경축 대축전장에서 해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열고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할 것을 제의함. - 온 민족이 8월의 대축전장에 자리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 하여야 함. <p>○ 종교인 및 학자대표단, 미국방문차 平壤 출발</p> <p>* 단장 : 장재철(조선종교인협회 회장)</p> <p>○ 외교부 대변인, 미국측의 기본합의문 이행조치 관련 『報道』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은 중유 5만t을 1.17과 1.19 선봉항에 운반해 왔으며 1.23까지 하선작업을 전부 끝마쳤음. - 1.20 美국무성은 재산동결 해제 등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를 발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의 실현은 美·北합의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 북한이 核합의 이행과정에서 속임수를 쓰는지 여부를 미국이 판별할 능력을 갖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25	<p>○ 宋榮大 통일원 차관, 북한 의 8.15공동경축 및 대민 족회의 개최 제의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는 남북관계의 실질 적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북한측이 광복 5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하자고 제 의해온 것을 환영함. - 광복절 공동경축행사를 포함한 南北간의 현안문 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 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 라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 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쌍방 당국이 次官級을 수 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 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 주앉게 되기를 기대함. -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北韓側이 정하여 우리에 게 알려주면 될 것임. <p>○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 의사 표명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한반도에서의 평 	<p>○ 中放, 주한미군 향후10년간 현 수준 유지방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기본합의문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朝·美 두 나라에 다 이롭지 못한 것임. -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아무 리 제동을 걸어도 이제 朝·美관계는 결코 달리는 되지않 을 것임. -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계속 호전적 망발을 하면서 우리에 게 위협과 압력 일변도로 나 간다면 우리도 제 갈길을 따 로 가면 될 것임. <p>○ 金正日, 지진피해 재일동포에 위문금 100만달러 송금</p> <p>< 한덕수 앞 電文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 동포들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가시고 안정된 정 상적인 생활을 이룩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문금으 로 미국돈 100만달러를 보냄. <p>○ 강성산, 『호주의 날』즈음 키 팅 수상에게 祝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정상화 시사 -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현 국 	<p>○ 美 민주당·공화당 의 원 7명, 對北결의안 상·하원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름스, 머코스키, 사이먼, 매키니스 의원 등 <p>< 결의안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행정부는 기본합 의문 실천이 남북 대화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진전과 연 계돼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취해 야 함. - 행정부는 남북한간 긴장완화 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특별 일 정표를 개발해야함 · 남북정상회담 개최 · 북한 핵재처리시설 즉각 해체 · 남북 상호핵사찰 시작 ·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 단계적 군축 등 긴 장완화조치들을 논 의하기 위한 南北 공동군사위 창설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25	<p>화체계 구축,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천명해 놓은 북한방문을 조속히 실현시키도록 하겠음. - 남북 정부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야당 대표라도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국익을 위해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임. 	<p>제정세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롭게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이한 급의 대표들과 정치인들사이에 쌍무적이던 다무적이던 대화와 접촉을 활발히 가져야 함. <p>○ 北韓 적십자회 중앙위, 지진피해 관련 日本 적십자사에 위문금 20만달러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고위관리를 특사로 임명, 북한정부와 남한 및 관련 우방들과 이 조치들에 대해 협의토록 해야 함. <p>○ 美 NYT紙, 한반도 군축및 신뢰구축조치 필요성주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과 미국 3자는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양측의 군비감축과 군사훈련의 규모 축소, 병력이동 사전통보, 군사령부 간 핫라인설치 등 신뢰장치의 구축이 필요함.
1. 26	<p>○ 孔魯明 외무부장관·탈보트 美국무부 副장관 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건설 등 美·北합의 이행과정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일치 - 앞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p>○ 美·北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북한대표단 평양 출발</p> <p>* 단장 : 김정우(대외경제위 부위원장)</p> <p>○ 『汎民聯』북측본부 중앙위 총회 (平壤)</p>	<p>○ 페리 美 국방장관, 美·北합의 이행경비 韓·日부담 언급</p> <p>* 美상원군사위 北核 청문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기본합의문 이행에 소요되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6	<p>위해 양국 긴밀협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지원 관련 韓國型 경수로가 공급돼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정전협정은 南北당사자간 직접 협의를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원칙 재확인 	<p>* 안건 : '94 사업결산 및 '95 과업, 의장단·중앙위원 보선 문제</p> <p style="text-align: center;">〈 결의문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내외 모든 동포들과 함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어나갈 것임 - 외세의존·사대매국적 행동과 군비경쟁, 분파행동, 반복대결소동을 중지시키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鬪爭할 것임. - 올해 8.15를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을 성대히 마련하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대전진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올해를 汎民聯 조직을 강화하고 범민련 운동을 보다 거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력을 다할 것임. <p>○ 美·北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북한대표단, 베를린 도착</p> <p>* 단장 : 김정우(대외경제위 부위원장)</p>	<p>경비는 5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그 대부분의 경비는 韓·日이 지불하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KEDO 운영 경비와 對北 중유 공급 등에 연간 2천만~3천만달러의 경비를 부담하게 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7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동포도 자유·인권 누리도록 최선 언급</p> <p>* 비폭력 평화상 수상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이 깃드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 - 남북이 하나가 되어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더욱 크게 기여하는 시대를 열겠음. <p>0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탈보트 美국무부 副장관 接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와 美·北관계 개선은 병행·조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재확인 - 對北경수로 지원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대화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일치 - 韓·美간 확고한 공조체제 재확인 - 金 부총리는 대북정책은 변화를 경계하는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 	<p>0 노동신문, 南側의 차관급회담 제의 거부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이 당사자들인 정당·단체들과 각계대표들이 의사표시도 하기전에 제면져 나서서 그것을 가로막는 언동을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분별없는 망동임. - 남조선 당국이 8.15 공동경축 행사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대민족회의는 통일전선방식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공동경축 자체도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논리임. - 남조선 당국이 이번 성명에서 취한 태도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민족의 염원에 도전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p>0 4월 平壤축전 관련 일본 관광 고찰단 訪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평양 국제체육문화예술 축전취재 서방기자단 60명을 포함 총 120명으로 구성 <p>0 조선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 폐막</p> <p>* 참석 : 최광, 김광진</p>	<p>0 귀노네스 美국무부 한국과 담당, 北, 폐연료봉 점검 협조 언급(平壤)</p> <p>* 리 이타르타스통신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폐연료봉 보관상태 점검 등 핵기술분야에서 미국측에 잘 협조하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p>한 작은 것부터라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언급</p> <p>- 北韓의 대민족회의 제의는 비현실적이며 아직까지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한 성의와 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는데 공동인식</p> <p>0 金泳三 대통령, 韓·美 동맹관계 결속 강화 강조</p> <p>* 탈보트 美국무부 副장관 접견</p> <p>- 韓·美 동맹관계를 강화, 강한 결속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韓·美 이간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p> <p>0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제3국 이산가족상봉 적극 지원 표명</p> <p>* 실향민대표들과의 간담회</p> <p>- 남북 적십자회담을 재개, 고향방문 등이 우선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도 적극 지원하겠음.</p>	<p>- 김정일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채택하고, 미군헬기 격추 군인에게 『정예군사』 칭호 수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십자사의 尋人사업 등 국제기구를 적극활용,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 시키는데 성의를다하겠음 ○ 孔魯明 외무부장관, 경수로 제공 관련 南北對話 필수 강조 * 지역정책연구원 조찬 강연회 - 경수로가 북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직접대화가 필수적임. - 現정전체제는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할수없음.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이기택 대표 平壤방문 초청 談話 - 平壤방문 의사를 다시금 밝힌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기회에 이기택 대표를 평양에 초청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 - 平壤방문이 실현되면 공화국 북반부의 책임있는 정당대표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아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美·北경수로 전문가회담 개막 (베를린) ○ IAEA 협상대표단, 訪北일정 마치고 平壤 출발 * 핵문제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논의 ○ 北·러, 인권조항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8		<p>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결상태에 있는 北南관계를 개선하는 출로를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임.</p> <p>○ 『祖平統』, 통일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안내서』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민들이 그 따위 몇푼의 달러에 현혹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자들의 가소로운 망동에 불과함. - 인민들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내부를 교란시켜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빚어낼 것이 없음. - 우리에게 황색바람을 불어넣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반공화국 책동으로 인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함. <p>○ 사회민주당 위원장 김병식, 아시아 국가 순방차 平壤 출발</p> <p>○ 『朝總聯』, 북한정당·단체연합회의 호소문 지지 聲明</p>	<p>포함된 새별목협정 타결</p> <p>* 외무부 고위당국자 언급</p> <p>- 러 정부는 북한측과 인권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별목협정 개정협상 타결 사실을 1월초 한국 정부에 전해 왔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28		0 金正日, 조선인민군 선동원대 회 참가자 접견 및 軍협주단 공연 관람	
1. 30		0 『祖平統』서기국, IAEA관리의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계속 추진 권고 비난 談話 - IAEA의 관리의 희미운 소리가 김 〇〇 일당에나 통할줄 모르 나 민족자주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음. - 남조선의 반민족적이고 도발적인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 하지 않을 것임. - IAEA의 관리들도 민족 내부분 제에 함부로 개입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1. 31		0 종교인 및 학자대표단,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으로 미국 방문 * 장재철(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등 종교계인사 4명과 군축 및 평화연구소 관계자 2명 0 中央通信, 나진·선봉지역 외국 기업·금융기관 적극 진출보도	0 北·필리핀, 외교관계 수립 협상 * 이도섭 태국 주재 북한대사-세베리노 필리핀 외무차관 회담 (마닐라) - 외교관계 수립에 의견접근 및 상호 공식방문 확대키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31		<p>- 외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국제기구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p>	<p>합의</p> <p>0 허바드 美 국무차관 보, 南北對話 재개 최우선 추진 언급</p> <p>* 美헤리티지재단 주최 세미나</p> <p>- 미국은 현재 美·北합의 이행과 관련해 남북대화 재개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있음</p> <p>- 美헬기 사고로 美·北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음.</p> <p>0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참가 미국대표단 平壤 도착</p> <p>* 단장: 린 터크 美 국무부 副과장</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	<p>0 朴銖吉 유엔대사, 남·북한 간 즉시 이행가능사업 유엔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해 5월 남북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남북한 양측에 제시한 20개사업 가운데 우리 정부가 즉시 이행가능하다고 선정한 것임. - 선정·통보된 4개분야 11개 사업은 <p>i) 산업분야 :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p> <p>ii) 환경분야 : 남북한간 환경규정조화, 기후변화 영향 분석, 해양오염 공동대처, 생물다양성지도작성, 환경감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고, 동북아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성</p> <p>iii) 교통분야 : 동북아지역 교통기간시설 건설(남북한 철도연결 등)</p> <p>iv) 과학분야 : 기상정보교류, 남북한간 과학용어 통일</p>	<p>0 제2차 美·北경수로 전문가회담 종료 (1.28~2.1, 베를린)</p>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보도문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는 '95.1.28~2.1 베를린에서 조선에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한 경수로발전소 제공에 관한 제2차 협상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朝·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의 사항들에 부합되게 조선에 경수로 대상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쌍방은 협상에서 일련의 전진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경수로제공 협정체결을 위하여 합의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에는 원자로型과 제공범위, 재정문제들, 계약체결방식, 핵안전과 책임 그리고 경수로 대상과 관련한 필요한 담보들이 포함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음. - 쌍방은 또한 핵안전문제에 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음. - 경수로 대상에 관한 다음번 협상은 '95.3월중에 가능한한 	<p>0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對北관계 개선점진적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전면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청신호가 있지만 우리는 이 작업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음. - 한국 정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음. <p>0 美국무부, 北韓인권 탄압 불변 강조</p> <p>*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관련,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에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 북한에는 형법 52조등이 동원돼 체제저항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12개의 오지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		<p>빨리 진행함.</p> <p>0 사회민주당 김병식 위원장, 李基澤 대표에게 정당간 회담 제의 放送便紙</p> <p>- 8.15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실현하는 여기에 90년대 통일의 열쇠가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는 北과 南의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만나야함.</p> <p>- 北과 南의 정당들이 우선 만나 흥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게 되면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임.</p> <p>-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귀당에 접촉을 실현할 것을 정중히 제의함.</p> <p>- 시일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장소로는 평양·서울이나 혹은 板門店도 좋고 제3국도 무방할 것임.</p> <p>※ 『祖國戰線』 중앙위, 민자당·신민당·새한국당에도 정당간 회담제의 방송편지</p> <p>0 제2차 美·北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개막(平壤)</p>	<p>수용소에 약 15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돼있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전언임.</p> <p>- 한국관련,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지 않고 노동운동이 여전히 제약을 받는 등 문제점이 남아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고 노사분규에 보다 중립적으로 대처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도 계속 되는 진전이 있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			<p>0 클린턴 美대통령, 北韓 종교인·학자 대표단장 장재철 면담</p> <p>0 고노 日외상, 핵합의 불이행때 경수로 지원 중단 대북경고</p> <p>* 日 중의원 답변</p> <p>- 북한이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수로 지원을 중단할 것임.</p> <p>0 머코스키 美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美北핵합의 재검토 언급</p> <p>* 美외교위원회 주최 세미나</p> <p>-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타결한 핵합의의 재협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p>
2. 3	<p>0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의 대북성명</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측이 1.25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업을 공동추진할 것을 제의함. - 4월 개최예정인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에 해외 동포들만이 아니라 남쪽의 이산가족들과 함께 관케하여, 그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이루어지기 기대함. - 북측이 4월 평양축전개최 준비와 관련 다수의 외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바 있음에 유의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한국 언론인들의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방북취재활동을 전면허용할 것을 촉구함. - 우리기업들의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와 필요한 경우 나진·선봉지역만이 아니라 그 어느지역도 방문할수 있는 긍정적 조치가 뒤따라기를 기대함. -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들이 서울·평양·판문점 등 어디서든 빠른 시일내에 마주 앉을 수 있기 희망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3	- 고위당국자의 수준과 회담개최시기 및 장소의 선정문제는 북측에 일임함.		
2. 5		0 金正日, 291군부대 여성해안포 중대 시찰 - 영접: 이하일, 이봉원, 김명국	
2. 6		0 勞動新聞, 남측의 고위당국자 회담 제의 거부 論評 - 이산가족 상봉이니 뭐니하며 끼여들어보려 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상식이하의 무례한 행동임. - 고위당국자회담 문제도 남조선 당국자들은 회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이나 빨리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음. -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죄, 국가보안법 철폐조치 없이 아무리 무슨 참가요, 취재요, 래왕이요, 회담이요 해야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 0 北韓, 국제항공기구(ICAO)에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 수락서를 제출 0 金正日, 해군 제155부대 시찰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7	<p>0 韓·美, 駐韓美軍 현수준 凍結 확정 (워싱턴)</p> <p>* 孔魯明 외무장관, 페리 美 국방장관 회담</p> <p>- 北·美 제네바 核합의에 도 불구하고 北韓의 재래 식 무기에 의한 위협이 계속 되고있고, 韓半島의 정세가 불안정한 점등을 감안 駐韓美軍을 추가감 축하지 않고 現水準으로 동결기로 함.</p> <p>- 韓·美同盟關係는 한반도 에서의 전쟁재발 방지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亞·太지역 안보유지의 근간으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 다는데도 의견일치</p> <p>0 孔魯明 외무장관, 北韓 한 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시 對北경수로 지원거부 경고</p> <p>*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의원합동간담회(워싱턴)</p> <p>- 北韓이 한국표준형 경수 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對北경수로 지원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임.</p>	<p>0 北韓 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南韓 여러단체들에 발송 便紙</p> <p>- 조선기자동맹 제1부위원장 최 영상은 한국기자협회 안재휘 회장에게, 조선기독교연맹 위 원장 강영섭·서기장 이천민 은 한국기독교협의회 오충일 회장과 김동완 총무에게, 조 선종교인협의회는 민족의 화 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협의회 합세옹 공동의장에게, 조선교 육문화일꾼직업동맹 위원장 남춘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해숙 위원장에게 便紙</p> <p>0 중앙인민위, 金正日생일(2.16) 을 '민족최대의 명절' 제정 政令 발표</p>	<p>0 무라야마 日本총리, 한반도分斷 책임없 다고 발언</p> <p>- 식민지지배를 한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韓半島分割 은 전승국이 한 것 이며, 日本에 法的 책임이 없음.</p> <p>0 美 WP紙, 美北合意 이행 霧散 가능성 보도</p> <p>* 美행정부 관리들의 발언 인용</p> <p>- 北韓이 한국형 경 수로의 공급을 끝 내 拒否한다면 제 네타합의가 이행될 수 없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8	<p>○ 孔魯明 외무장관, UNDP사업에 北韓참여 촉구</p> <p>* 부트로스 갈리 UN사무총장 회담 (뉴욕)</p> <p>- 孔魯明 외무장관은 오는 9월 초청방한때 北韓도 동시에 방문, UNDP가 제안한 사업에 北韓도 參與하도록 촉구해줄 것 당부</p> <p>- 갈리 총장은 서울과 평양에 있는 UNDP사무소를 이용해 南北韓 關係改善 및 協力事業을 위해 할 수 있는일을 하겠다고 답변</p>	<p>○ 『祖平統』대변인, 南北對話재개여부는 南側態度에 달려있다고 기자회견</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지난 4일 외무부장관을 직접 미국에 보내어 南北對話 再開問題를 구걸하는 이른바 청탁외교를 벌이고 있음.</p> <p>- 북과 남 대화문제는 民族内部 문제로서 남에게 청탁할 일도 아니며 또 누구에게 청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대화의 좋은 분위기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對話를 再開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에게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謝罪하는 일부터 해야하며, 동시에 國家保安法과 같은 반대화, 반통일악법을 廢棄하여야 함.</p> <p>○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 대변인, 南韓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北側代表團 서울 招請관련 談話 발표</p> <p>- 제3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우리측 대표단을 보낼 것임.</p> <p>-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편리한</p>	<p>○ 러시아, 러製 경수로 주장 (2.8 중앙)</p> <p>* 갈루치 美핵담당대사와 파노프 러외무차관 회담</p> <p>- 러시아는 北韓에 적합한 경수로기술은 러시아뿐이며 북한측도 러시아製 경수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고 주장</p> <p>○ 로드 美국무부 東亞 太 차관보, 北韓, 한국형 경수로 拒否時 제네바합의 무산 경고</p> <p>- 北韓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한다면 제네바合意가 霧散될수 있음.</p> <p>○ 셸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對北추가지원 계획없다고 언급</p> <p>- 우리는 정상적인 경수로供給의 공급 밖에 있는 부수항목에 同意한다거나 또는 경수로 事業</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8		<p>장소에서 필요한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재의하면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 기대함.</p> <p>○ 외교부 대변인, 美국무성의 북한 인권문제관련 연례보고서 비난 談話</p> <p>- 미국이 이번에 들고나온 우리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것으로서 인권적 견지에서 논의할 한 톨의 가치도 없으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규탄하며 배격함.</p> <p>○ 北韓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재의관련 南韓 여러 단체들에 방송 便紙</p> <p>- 『조국전선』정두환의장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성균이사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경석사무총장에게, 『사로청』최용해위원장은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유기홍의장에게,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는 천주교중앙협의회 상임위원회 김수환의장에게,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은 전국불교운동연합 최지선 상임의장에게 편지</p>	<p>경비를 크게 늘리는 부수항목에 합의할 생각이 없음.</p> <p>- 그러나 원자로의 安全稼動을 위한 설비지원문제만을 재검토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8		<p>○ 北韓, 金日成 사망 추모기념 鑄貨 발행 발표</p> <p>* 중앙인민위원회 정령</p> <p>- 기념주화는 금화와 은화로 발 행하게 됨.</p> <p>- 금화의 크기는 직경 35mm, 은 화의 크기는 직경 40mm임.</p>	
2. 9	<p>○ 統一院 대변인, 北韓의 서 을 종군위안부會議 參席 용의 表明관련 論評</p> <p>- 政府는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제 3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 아연대대회(2.27-3.1)에 北側代表團의 參席허용여 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임.</p> <p>○ 統一院 대변인, 종교인 등 訪北許容문제 관련 論評</p> <p>- 政府는 종교·학술·문화 분야에서의 北韓방문 허 용 등은 現時點에서 검토 하고 있지 않음.</p> <p>○ 外務部대변인, 訪美 北韓 종교인대표 단장 장재철의 클린턴 美대통령面談(2.2) 확인 발표</p>	<p>○ 北韓, 中立國監督委 폴란드대표 단에 대해 2.28 까지 撤收토록 최후통첩</p> <p>*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박임수 대좌, 폴란드 대표단사무소 방문·통보</p> <p>- 北韓은 2.9 판문점 중립국감 독위원회 폴란드대표단에 대 해 오는 2.28까지 철수토록 최후 통첩하고, 폴란드대표단 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 무장지대내 불법체류 단체로 규정·의법처리하겠다고 위협 하였음.</p> <p>○ 北韓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제의관련 南韓 여러 단체 들에 방송 便紙</p> <p>- 『조국전선』정두환 의장은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과</p>	<p>○ 로드 美국무부 차관 보, 北韓, 한국형 경수로 수용 가능 언급</p> <p>* 美하원 亞·太소위 청문회</p> <p>- 北韓은 현재 韓國 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고 있으나 결국 한국 형을 선택할 수 밖 에 없을 것임.</p> <p>- 이는 정치·경제 및 기술적 요인들 을 고려한 끝에 내 린 判斷임.</p> <p>○ 페리 美 국방장관, 美北合意 이행시 주한미군 增強추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9	<p>- 클린턴 美대통령은 기도회가 열린 힐튼 호텔의 기도회 직전 각계대표 33명과 별도 面談을 가졌는데 그중 장재철도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었음.</p>	<p>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김근태 공동의장에게, 『직맹』 주성일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종근 위원장에게, 『농근맹』 최성수위원장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강춘성회장에게,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은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송월주회장에게, 조선기독교연맹 이천민서기장은 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강문규사무총장에게,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연맹 남순희위원장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진균·장임원 공동의장에게 便紙 발송</p>	<p>언급</p> <p>* 美상원 군사위 청문회</p> <p>- 美·北韓間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履行되지 않는다면 駐韓美軍 增強계획을 추진키위해 議會에 추가예산을 요청할 것임.</p>
2. 10	<p>○ 孔魯明 외무장관, 對北경수로 비용外 追加지원 없다고 기자회견</p> <p>- 北韓이 美國에 대해 追加支援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경수로 자체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사가 없음.</p> <p>- 우리는 경수로 供給 自體에만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다만 KEDO 구성후 참가국사이에 논의는 될 수 있음.</p>	<p>○ 평방, 국방부장관의 對北 발언 非難 論評</p> <p>- 국방부장관이 서울신문과 대담해서 북의 재래식 무력이 위협으로 된다니 하면서 괴뢰들이 흑백을 전도하면서 생트집을 잡아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저들의 도발적인 북침전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교활한 속심에서 출발한 것임.</p> <p>○ 北韓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제의관련 南韓 여러 단체들에 발송 便紙</p> <p>- 『조국전선』 정두환 의장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0	<p>0 金憲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原子力協定』필요성 강조</p> <p>* 관훈토론회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관계가 경색된 일차적 이유는 北韓권력체제가 안정을 찾지 못한 연유임. - 김수환추기경은 대민족회의 호응으로 오인되는 때 아닌 시기를 訪北시기로 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진호 선원을 보낸다면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음. - 國家保安法은 문민정부 들어 法개정과 함께 법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 北韓이 혁명과 통일목표를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로서 법폐지는 상당한 모험임. - 南北對話를 미국에 구걸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앞으로 중재를 구걸할 생각은 없음. 그러나 당분간 韓美共助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함. - 南北정상회담문제는 北韓에 새主席이 응립되면 자 	<p>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이창복 김상근·박순경 공동상임의장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서경순 상임의장,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 최중현회장에게, 조선천도교회 유미영위원장은 천도교 중앙총부 김재중 교령과 단군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에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박명옥 부위원장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이효재·윤정옥·김희원 공동대표들에게 便紙 발송</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0	<p>연스럽게 재논의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현재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으며, 팀스피리트 訓練문제는 北美合意이행과 연계되어있음. - 平和協定問題를 미북간의 논의로 생각할수 없으며, 2+2 方式타결문제는 우선 남북간 締結後, 국제적 보장문제는 그 뒤의 일임. - 韓國이 한국형 경수로의 공급자가 되면 南北間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이 불가피함. 그 時期는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5년 이내가 될 것임. - 실질적인 한국형 採擇이 보장되면 기종을 표현하는데 있어 명기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형 이외의 다른 것으로 誤解될 소지는 없어야 함. 		
2.11	<p>○ 金泳三 대통령, 3. 2-15 유럽 5개국 巡訪 예정</p> <p>* 청와대대변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p>○ 北韓, 對中경협요청</p> <p>* 2.7-11 김복신 副總理 극비 訪中 (3.2 서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1	<p>『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3.11-12, 덴마크 코펜하겐』參席전후에 프랑스·체코·독일·영국·벨기에 등을 방문함.</p> <p>0 韓·日, 對北경수로 지원 원칙 不變 재확인</p> <p>* 孔魯明 외무장관과 고노 요헤이 외상 회담</p> <p>- 한국형경수로가 採擇되지 않으면 북·미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p> <p>- 北韓이 한국형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합의이행을 再檢討해야하는 중대한 상황이 올 것임.</p>		<p>- 金부총리가 극비리에 이봉총리와 만나 앞으로 3년간 1천만톤이 넘는 원유와 석탄, 쌀등 생필품들을 유리한 조건하에 北韓에게 제공해줄것을 요청</p>
2.12		<p>0 北韓천주교회, 韓國司祭 派北및 聖堂건립 희망 (2.12 평화신문)</p> <p>- 北韓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장재철이 빌리 그레이엄목사의 초청으로 訪美中이던 지난 2.5 나진·선봉지구의 聖堂建立과 司祭派遣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였음.</p> <p>0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p>	<p>0 美 기업대표단 18명 向北</p> <p>- 美기업대표단 18명은 北京을 거쳐 2.14-18 平壤을 방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2		위한 대책위원회, 공개질문장 발표	
2. 13		<p>○ 『平祝』 관련 TV 中繼 등 6개 항 합의서 조인 (평양)</p> <p>* 서명: 北 김용순, 日 이노끼</p> <p>- 4. 28-30 축전 평양에서 진행, 4. 28 『5·1 경기장』 개막식, 4. 29 프로레슬링 경기·예술 공연·폐막식, 4. 30 '조선의 날' 제정·민속놀이·집단체조 진행</p> <p>- 축전행사 TV실황·녹화 중계</p> <p>- 축전참가 손님·관광객들의 백두산·묘향산·금강산·평양·개성 등 관광 편의보장</p>	<p>○ 中國, 한반도 統一 반대 입장 표명</p> <p>* 黃秉泰 駐中대사 기자간담회</p> <p>- 中國은 北韓 核문제에 한고비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韓半島 統一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음.</p> <p>- 中國과 北韓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제 調整 단계를 맞고 있으며, 北韓이 對美 接近을 하면서 中國과 거리를 두려하고 있음.</p> <p>○ 北韓, 對南경협창구 『高民發』에서 『國際協力總局』으로 변경</p> <p>* 黃秉泰 駐中대사 기자간담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對南창구였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의회(高民發)가 최근 없어지고 대신 국제협력총국이 그 業務를 承繼한 것으로 보임. - 국제협력총국은 對外經濟委 소속으로 나진·선봉지역에 韓國企業이 진출하는 문제도 다루게 될 것임. - 지난해 5월에도 對南경협창구를 금강산개발에서 고민발로 바꾼바 있음.
2.14	<p>0 金泳三 대통령, 『통일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 언급</p> <p>* 민주평통 업무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北韓이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사회일각의 잘못된 對北觀을 바로잡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할 것임. 	<p>0 平放, 金泳三 대통령의 世界化論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 세계화를 떠들면서 민족의 사활적 문제인 조국통일보다 우위에 놓고 감히 조국통일이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이라고까지 떠들고 있음. - 이것은 세계화를 위해 조국통일을 희생시키겠다는 궤변으로 세계에서 저들의 위상을 높여 승공통일을 해보겠다는 수작임. 	<p>0 美·北 핵연료봉 보관방법 합의</p> <p>* 日니혼게이지이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간에 8천개의 핵연료봉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2백개의 특수 컨테이너를 도입함. - 컨테이너는 건식보관과 액체보관 2종류로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임. - 統一에 대비한 國論형성과 범국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선도적 役割을 다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이 우리와 대결하겠다는 공공연한 대결선언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희생시키려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 중통, 美 기업대표단 평양도착 보도 - 미국 제너럴 모터스 아시아태평양회사 사장 토마스 S. 맥대니얼과 줌왈트 자문회사 부사장 제임스 줌왈트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미국 실업계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로의 移轉 보관은 금년 가을 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대북 추가원조 배제 언급 * 美상원 외교위 - 美北간에 합의된 협정은 전체를 통합하는 완벽한 합의서이며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추가경제원조도 말지 않을 것임.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憲 부총리, 南北經協지침 위반기업 제재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 - 일부 대기업들이 經協추진과정에서 방북목적을 벗어나 대규모사업을 복한과 협의하는등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경협추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經協협약에서 준수해야할 지침을 명확히 제시해 이를 어길경우 승인철회와 협력사업불허 등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강요뎐 核합의 파기 기자회견 - 美國이 무조건 한국형이라는 이름까지 강요하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 경수로型 문제와 관련한 압력 수단으로 T/S 혼련 재개 소문까지 내돌리고 있음. - 이러한 처사는 朝·美합의문 이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합의문을 파기에로 끌어가려는 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5	<p>조정해 나갈 것임.</p> <p>- 일부기업들의 對北투자협 의과정에서 북한쪽에 뇌 물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것임.</p>	<p>- 만일 이것이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부 득불 결심을 달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될 수 없음.</p> <p>- 이때문에 설사 朝·美합의가 깨진다해도 그리고 T/S 훈련 때문에 모든것이 朝·美회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해 도 우리는 잃을 것이 없음.</p> <p>- 미국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기본합의문이 이행되지 못할 바에는 경수로 제공논의로 세 월을 보내는 것보다 초기단계 에서 합의문이 깨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올수 있음.</p> <p>0 金正日 생일 53돌 경축 중앙보 고 대회(2.8문화회관)</p> <p>* 참석 :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p> <p>< 黨비서 계응태 보고 ></p> <p>- 金正日是 전민족대단결과 조 국통일위업 실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나가는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하고 있음.</p> <p>-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聯邦制방식으로 90년대에 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5		<p>어이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어버이수령의 필생의 신념을 온삼천리 강산에 꽃피워야 하겠음.</p>	
2. 16	<p>0 金憲 통일부총리, 북한대표 서울방문 승인 언급</p> <p>- 오는 27일 부터 열리는 "중군 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할 북한 대표 5명의 판문점 통과 허용할 예정임.</p> <p>0 金憲 부총리, 우리의 『2. 3제의』호응 대북촉구</p> <p>*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연설</p> <p>- 올해가 광복50주년이 되는 해만큼 北韓이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南北 대화의 재개와 실질적 개선에 성의있게 호응해오기를 기대함.</p> <p>-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는 것은 美·北 합의구도의 이행에 장애로 될 것이며 한국형경수로를 받는것이 안정성은 물론 民族공동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함</p>	<p>0 노동신문 사설, 『金正日노선과 방침을 철저관철』보도</p> <p>- 金正일이 당과 혁명을 영도하게 된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에 양양한 미래가 펼쳐진 뜻깊은 사변임.</p> <p>- 金正일의 사상은 金日成의 사상이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곧 김정일의 사상임.</p> <p>-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그대로 구현한 金正日 동지의 노선과 방침, 우리당의 결정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해야 함.</p>	<p>0 허바드 美國務 副차관보, 한국형 경수로 유일방안 재천명</p> <p>* 한국경제연구소와 美메릴랜드대 공동 주최 세미나</p> <p>- 한국형 경수로만이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北韓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北 美합의가 진전될수 없음.</p> <p>0 력 駐韓美軍사령관, 對北제공 重油군용 轉用 가능 증언</p> <p>* 美상원 군사위</p> <p>- 일부 重油가 北韓 군부에 의해 빼돌려졌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어,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北韓측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계속 미·북한평화협정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 - 북한이 平壤祝典에 해외 동포와 외국의 언론인들은 초청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참관과 우리측 언론인의 訪北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다시한번 촉구함. ○ 외무부 당국자, 북한의 핵합의 파기위협 관련 논평 - 北韓의 미북합의 파기 시사는 상투적인 벼랑끝 교섭전술에 불과함. - 美北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北韓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것임. ○ 『民主平統』, 당국간 회담 호응촉구 對北聲明 - 南北기본합의서와 韓半島非核化공동선언 철저준수 - 美北연락사무소 개설비롯 		<p>그들은 轉用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함.</p> <p>○ 美, 對北韓 규제완화 조치 공식發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재무부의 1.20 對北韓 제재완화 조치 발표에 이은 後續措置로서 이를 정식발효시킴. - 발효된 規定에는 北美間 단체여행 및 여행관련 사업을 허용하고, 平壤에 언론사 지사를 설치할 경우 북한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美北間 거래가 허용된 정보관련 물품가운데 콤팩트 디스크, CD 롬, 미술품, 뉴스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6	<p>美北관계개선·경수로건 설지원은 南北關係增進과 병행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등 人道的 문제해결을 위 해 南北對話에 자세전환 - 통일전선전략 지양, 南北 고위급회담 등 當局者間 對話에 즉각 호응 		
2.17	<p>0 南北기본합의서 발효 3주 년 기념 세미나 개최</p> <p>< 金憲 부총리 기념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이며, 남과 북은 올해를 민족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南北韓은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성실 히 지켜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 가야 할 것임. <p>< 鄭元植 前總理 基조연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내용들이 하 	<p>0 이종옥 부주석, 태국 자유정의 당 당수 우라이라트 면담 (평양)</p>	<p>0 슬로컴 美국방차관, 北韓 重油 轉用 걱정안한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重油는 군 사용 연료로 전용 될 수 없는 것임. - 北韓이 美北합의를 잘지켜왔으며 그들 이 美國으로부터 공급받은 重油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걱정하지 않음. <p>0 中國, KEDO 不參결정</p> <p>* 中國 고위관리발언 (2.18 경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은 KEDO 참여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7	<p>나하나 실행됐더라면 지금쯤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됐을것이며 北韓이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타개의 길은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있음.</p>		<p>문제를 놓고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檢討한 끝에 참여치 않기로 最終結論을 내렸음.</p> <p>○ 셸리 美국무부 대변인, 對北 경수로 韓國型 외 대안없다고 발언</p> <p>- 한국型 경수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p>
2.18	<p>○ 金惠부총리겸 통일원장관, 『中國, 2개 한국정책』 전망</p> <p>* 세계화 추진위원회 4차 회의</p> <p>- 中國은 한반도정세안정과 북한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2개 한국정책이 가시화될 것임.</p> <p>- 이와관련 우리는 韓中間 긴밀한 정치·경제관계를 도모하고 한반도 안정화</p>	<p>○ 중방, 김大統領 『민주평통』 자문회의시 발언 비난</p> <p>- 김 〇 〇이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며 북남사이에 물리적,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겹겹히 쳐놓고 일체 대화와 접촉을 가로 막으면서 세계화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임.</p> <p>- 김 〇 〇이 南北對話의 다양성을 운운하는 것은 해방50돌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거부해나서는 반민족적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임.</p>	<p>○ 日교도통신, 北韓 소형 잠수정 48척 보유 보도</p> <p>* 中國 군사전문誌 『현대군사』 2월호</p> <p>- 이 소형 잠수정은 74년부터 제조됐으며 수중배수량25t, 연장 20m로 소형 어뢰발사관 2문을 가지고 있으며 7명의 전투요원이 승선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8	<p>를 위한 中國의 긍정적 기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北中同盟관계의 무력화를 추진해야 함.</p>		
2.20	<p>○ 李時榮 외무차관, KEDO 美國 주도운영 발언</p> <p>-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한국이 北韓을 지배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월초 설립될 KEDO 내에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美國이 이같은 역할을 할 것임.</p> <p>- 北韓은 현재 단지 한국형이라는 名稱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이 主기업체가 되는 형태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임.</p>	<p>○ 北韓 종군위안부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서울 제3차 종군위안부 연대회의 參加 통보</p> <p>*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 電文</p> <p>- 대표단은 종군위안부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함.</p> <p>- 2.26, 10시 판문점을 통하여 나가려하니 신변안전담보각서를 속히 보내주기 바람.</p> <p>< 대표단 명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홍선옥(상무위원) · 성원: 최금춘(상무위원) <li style="padding-left: 20px;">리은심(위원) <li style="padding-left: 20px;">박성옥(부서기장) <li style="padding-left: 20px;">강덕순(위원) <li style="padding-left: 20px;">김성립(위원) <li style="padding-left: 20px;">박영심(전종군위안부) <p>○ 북한軍 병사 40여명, 자동화기로 무장한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진입(06:00~06:30)</p>	<p>○ 訪北 美기업대표단, 위성통신 등 설치 協議</p> <p>* 美 WP紙</p> <p>- 지난 14일 平壤 방문한 美國 기업대표단의 일부가 北韓의 나진 선봉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위성통신 설치 문제를 논의했음.</p> <p>- 대표단과 동행한 홍콩의 한 企業은 5억달러 상당의 공항 및 부두건설 계약을 체결했음.</p> <p>○ 셸리 美國무부 副대변인, 對北제공 重油 軍전용 가능성 일축</p> <p>* 정례브리핑</p> <p>- 우리는 난방 및 발전 목적으로 선적한 重油 중 매우 작은 양의 전용가능성에 대해 일부 우려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0		0 평방, 南韓 학생들에 통일대축전 성사 위한 鬪爭煽動 -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통일대축전을 가로막는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을 반대해서 견결히 투쟁해야 함.	표명했으나 그 重油가 북한군장비에 사용됐느냐에 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음.
2.21	0 金泳三 大統領,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 羅雄培 국회외무통일위원장 임명 - 金 憲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羅雄培 국회외무통일위원장을 임명 0 李洪九 국무총리, 對北경수로 지원은 韓國 중심 역할 不變 천명 * 임시국회 국정보고 - 南北關係는 아직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北韓이 조만간 남북관계 改善에 적극 호응해 나올 전망은 밝지 않음. - 北韓은 정부 조치를 비난하면서 민간기업인을 초청하는 二重的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南北經協을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0 아시아태평양평화위 金容淳 위원장, 대민족회의 관련 金大中 『亞·太財團』이사장에게 接觸提議 放送 便紙 - 빠른 시일안에 우리 委員會와 貴이사회 代表들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것에 대하여 정중히 提議함. - 상봉 場所로는 平壤도 좋고 서울이나 제3국도 무방함.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최영삼 제1부위원장은 민주언론 운동 협의회 정동익 회장에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김병훈 위원장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송기숙 회장에게,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박태호 위원장은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박진관에게 同 내용의 방송 편지	0 北 노동당 간부 등 4명 美國 방문 예정 (2.21세계) - 美國 민간단체초청으로 北韓해외동포위원장 전경남, 아태 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등 4명은 美國 방문위해 평양을 출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1	<p>- 경수로지원은 民族共榮과 南北관계의 장기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며, 우리의 중심적 役割이 없는 경수로지원은 있을수 없음.</p> <p>- 北·美間의 제네바合意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北韓 核문제 해결과 南北經協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트는데 注力해 나가겠음.</p>		
2.22	<p>○ 羅雄培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經協 통해 關係改善 주력 방침 표명</p> <p>* 취임사</p> <p>- 北·美간의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북한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트는데 주력해 나가겠음.</p> <p>○ 李養鎬 국방장관, '95 T/S 訓練 중단대비 代替訓練 검토 발언</p> <p>* 외교안보기자클럽 주최 토론회</p>	<p>○ 『聯盟』중앙위, 노동운동 탄압 비난 聲明</p> <p>-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 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려는 김○○일당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단호히 규탄함.</p> <p>○ 駐中대사 주창준, 『平祝』에 남한국적 한국인 訪北不許 표명 기자회견</p> <p>- 오는 4월 平壤국제체육문화축전 기간중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시민권을 가진 韓國人을 포함해 美國·日本 등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北韓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韓國</p>	<p>○ 駐韓 UN司, 中監委 폴란드대표단 강제 철수 항의書翰 발송</p> <p>- 停戰委에 참가하고 있는 代表를 바꾸는 문제는 停戰協定에 기술된 절차를 제외한 어떤 다른 방법도 거절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韓중인 로드 美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협의해서 올해 T/S 訓練을 하지 않게되면, T/S훈련을 대체할 제2의 韓·美 聯合訓練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崔東鎭 경수로지원 기획단장, KEDO이사회 滿場一致 制방식 운영인급 - KEDO는 韓·美·日 3국이 중심이 된 이사회의 滿場一致制 방식으로 운영함. - 제네바합의에 따라 KEDO의 사무총장은 韓國과 日本측에서 각각 맡을 예정이며, 韓國企業이 경수로 공급의 主계약자가 되는 데는 이견이 없음. ○ 『亞·太財團』, 北韓 아·태평화위원회의 접촉提議 拒否 - 지금으로서는 北側제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 - 먼저 南北當局間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재단의 일관된 입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籍의 한국인의 訪北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이번 축전에는 金正日도 참가할 것임. ○ 북한軍 병사 40여명, 자동차기로 무장한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진입 (07:15~07:50)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2	0 統一院, 제3차 일본군위안 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의 北 韓側참가단 南韓訪問 승인		
2. 23	0 李俊求 남북연락사무소 남 측소장, 제3차 일본군위안 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의 관련 對北電通文 - 우리측 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요청에 의해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하는 북 측대표단의 板門店통과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便 宜제공등에 관한 협의 및 身邊安全保障覺書 수교를 위하여 2월 26일(일)오전 9시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에서 쌍방連絡官 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 우리측에서는 남북연락사 무소 남측연락관 2명이 나갈 것임. 0 韓美양국, 美北合意 이행 문제 관련 高位실무회의의 진행(서울) * 李在春외무차관보·로드 美국무차관보 참석 - 韓美양국은 美北 합의서	0 北韓, 사회개발정상회의(3.11 덴마크, 코펜하겐)에 副主席 김병식 참가 공식 通報 (2.23 경향) 0 중방, 南北對話 재개전에 국가 보안법 폐기 등 주장 - 남조선이 진정으로 대화를 재 개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사죄 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대 화·반통일 악법을 폐기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제기한 조 국해방 50돌 북과남·해외 통 일대축전의 성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말아야함.	0 日 아사히신문, 美 국방부, 駐韓美軍 3만 7천명 維持확인 보도 * 東아시아 전략보고 (EASR)초안 - 美軍은 약3만 7천 명의 美軍을 韓國 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며, 北韓이 침 략할 경우 韓美양 국은 이길수 있을 것임. 0 美국무부, 폴란드 中監委철수문제 관 련 聲明 - 정전협정을 평화협 정으로 바꾸는 문 제는 韓國과 北韓 이 직접해야할 사 안이며, 북한주장 대로 美國과 北韓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 상에는 결코 응할 생각이 없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3	<p>이행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일단 T/S訓練을 잠정 유보키로 입장을 정리</p> <p>- 한국뿐외에 대안이 없으며 北韓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한국뿐이라는 점이 경수로 공급협정에 명기돼야 하고, 北美合意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南北對話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p>		<p>0 갈루치 美국무부 核대사, 北, 폐연료봉 보관작업이 봄부터 시작 전망</p> <p>* 美하원 亞·太小委 청문회 증언</p> <p>- 北韓의 폐연료봉의 안전보관과 국외반출을 위해 폐연료봉을 용기에 보관하는 작업이 금년 봄부터 시작되어 내년 가을에 完了 될 수 있음.</p> <p>0 허바드 美국무부 副차관보, 미북연락사무소 開設 연기시사</p> <p>* 美하원 亞·太小委 청문회 증언</p> <p>- 韓國이라는 우방을 희생하면서 北韓과 연락사무소를 開設하거나 關係改善을 하지 않을 것임.</p> <p>- 기술적인 현안들을 妥結했을때 연락사무소문제를 進展시킬 계획이나 아직</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3			<p>그 시점이 아님.</p> <p>○ 中監委 폴란드·스웨덴·스위스 3국 대표단, 北韓의 폴란드대표단 撤收압력 관련 共同聲明</p> <p>- 北韓 정부에 대하여 폴란드대표단에 대한 위협을 撤回할 것과, 現 한국 정전협정의 기능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한 同 協定과 관련한 규정을 철저히 존중할것을 요청함</p>
2. 24	<p>○ 外務部대변인, 폴란드 中監委 撤收문제 관련 論評</p> <p>- 北韓측의 행위는 정전협정 자체는 물론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現 정전협정의 준수를 명시한 南北基本合意書 기본정신에 정면위배되는 것임.</p> <p>- 우리는 北韓側의 이와같은 정전체제 와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대로 平和體制로 전환될 때까지는 現 停戰協定體制를 확고</p>	<p>○ 외교부대변인,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문제관련 談話</p> <p>-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임.</p> <p>- 더욱이 우리와 北南合意書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남조선 당국이 분수없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간참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외에 아무것도 아님.</p>	<p>○ 워너 美國방부 차관보, 1개여단 증장비 韓國에 추가 배치 언급</p> <p>* 美하원 亞·太小委 청문회 증언</p> <p>- 美國은 北 核문제와 상관없이 北韓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하고 유사시 신속증원을 위해 올해 駐韓美軍 제2보병사단에 1개 여단이 사용할 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4	<p>히 준수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北韓側이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일방적 철수위협을 즉시 撤回함으로써 現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것을 촉구함. <p>○ 金泳三 대통령, 南北頂上會談 서들지 않겠다고 언급</p> <p>* 독일 언론인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은 서두르지 않을 것임. 北韓정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나 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본노선을 변경했다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음. - 獨逸정부가 平壤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상주하고 있는 독일 이익대표부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것은 권장할만한 일이 못됨. <p>○ 李在春 외무부 차관보, 停戰委 폴란드대표단 강제철수 강력對應 대북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폴란드대표단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美國이 법률적 견지에서나 남조선에 있는 현 무력의 실태의 견지에서보나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의 실천적 담당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 平放, 한국형 경수로채택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 ○일당이 이른바 한국형 경수로를 北에 들이밀려는 것은 그것을 공화국 북반부로 뚫고 들어오기 위한 교류창구로 악용해 보려는 불순한 기도와 관련있음. - 경수로를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사자인 우리에게 달려있음. <p>○ 金正日, 오진우 병문안 위로</p>	<p>있는 추가 중장비를 사전배치키로 하였음.</p> <p>○ 로드 美 국무부차관보, 경수로 韓國하청 OEM 방식 제공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에 제공될 경수로를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이나 韓國업체에 하청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北韓에 제공될 경수호가 한국형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음. <p>○ 러 이타르타스통신, 北韓 벌목공 人權보장관련 새 林業協定 체결보도</p> <p>* 北 임업부 부부장 이은섭, 러 공업정책위 부위원장 칼린 서명(平壤)</p> <p>○ 美 共和黨 의원들, 美·北韓의 條約化 요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4	<p>끝내 축출할 경우 엄청난 외교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임.</p> <p>- 停戰委 소속 국가와 유엔 참전 16개국들과 協議, 對應할 것임.</p>		<p>(2.27한겨레)</p> <p>- 스펙터, 헬름스, 머코스키 등 美 공화당 중진의원 3명은 돌 상원 원내총무에게 書翰을 보내 美·北 합의문 조약화를 촉구</p>
2.25	<p>○ 國防部 대변인, '95 T/S 훈련 중단발표</p> <p>- 정부는 그간 美國과 긴밀한 협의하 北韓 核관련 제네바 협의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면서 '95 T/S훈련의 실시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왔음.</p> <p>- 제네바 합의사항은 현재 이행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韓·美 양국은 北韓이 同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하에서 금년 3월중 실시키로 계획되었던 T/S訓練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음.</p>	<p>○ 北韓,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사망 발표</p> <p>*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 공동명의</p> <p>- 오진우가 '95.2.25, 2:30 암성질환으로 서거하였다는 것을 알림.</p> <p><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p> <p>- 김정일,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선실, 김철수, 김병식, 유미영,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外(총245명)</p> <p>- 오진우영구는 '2.8문화회관'에 안치하며, 3.1 발인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5		<p>○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 대표단, 서울종군위안부문제연대회의 불참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표단이 회의성격상 판문점에 있는 적십자통로를 이용하여 실무적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함. -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나서서 신변안전담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며 회의참가를 방해하였음. - 우리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와같은 불순한 책동을 반민족, 반통일 행위로 인정하며 강력히 규탄함. - 부득이 회의에는 참가 못하지만, 준비된 토론문들과 결의문초안을 주최측에 보낼것임. <p>○ 金正日, 오진우 빈소 問喪</p> <p>* 수 행 : 최 광, 이을설, 백학림, 김광진, 김봉을</p>	
2.26	<p>○ 統一院 대변인, 제3차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北側代表 남한 방문 취소 유감 論評</p>		<p>○ 比외무장관, KEDO가 입 발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은 우리측이 신변안 전보장각서 대신 방문증 명서를 발급한 것처럼 왜 곡하면서 이를 불참 사유 로 내세우나 이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임. - 南北간의 판문점을 통한 인원왕래시 연락관 접촉 을 갖는 것은 20여년간 지속되온 오랜 관례임에 도 불구하고 당국개입 운 운하면서 연락관접촉 자 체를 시비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北側이 모처럼 마련된 민 간교류행사에 사실과 다 른 이유를 들어 방문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 러운 일임. 		
2. 27	<p>○ 金泳三 대통령, 南北統一 은 南北協議에 따라 단계 적 推進 포명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은 北韓이 그들 내부 사정으로 연기 를 요청해온 것임. 따라 서 공식적인 權力承繼가 이루어진 후 그들이 입장 을 表明하는 것이 순리라 고 생각함. 	<p>○ 勞動新聞, 南側이 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北側 대표단 參席妨害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표단의 회의참가를 막 아나선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 동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 하려는 전체 조선여성들과 온 민족의 염원에 배치됨. 	<p>○ 美 國 방부, 駐韓美軍 減縮 영구중단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國 際 안보국(OISA) 東亞太地域 전략 보고서 - 美 國 은 주한미군을 減縮하고자 했던 계획을 영원히 중 단했으며 駐韓美軍 의 현대화와 함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統一은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南北間 協議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정부의 基本立場에는 변화가 없음. - 南北經協은 지난해 11.7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소규모 경협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南北當局間에 경협에 필요한 각종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협의가 있어야 보다 의미있는 經協이 進展될수있음. 		<p>한국군의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적극 支援하고 있는 중임.</p>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務部 대변인, 북한의 美北韓間 平和協定체결 주장 관련 聲明 - 北韓은 외교부대변인 담화(2.24)를 통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에 있어 大韓民國의 當事者地位를 부정하고 美國과 平和協定 策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북한 주장은 法的, 現實의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인 우리 지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전혀타당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交部 대변인, 中監委 폴란드 대표단 철수관련 談話 - 우리는 지난해 4월 공고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제안을 내놓고 그 과정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軍停委에서 자기대표단을 주동적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음. - 中監委에 와있던 뿔스카 대표단의 철수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필수적 요구임. - 뿔스카 政府가 우리의 권고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監委 폴란드 대표단, 판문점 철수 *외무부 당국자 확인 - 군사정전위원회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北韓의 압력을 받아들인 중립국 감독위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6명이 2.28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철수했음. ○ 게리 렉 駐韓美사령관, 北도발 격퇴에 큰 희생 예상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8	<p>- 韓美양국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문제가 南北韓間에 解決되어야할 사안이며, 미북간에 논의될수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함.</p> <p>- 정부는 當事者解決 원칙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平和體制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現 停戰協定을 준수해 나갈 것임.</p>	<p>이해를 표시하고 中監委에 와 있던 자기대표를 철수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과정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될 것임.</p> <p>○ 中放, 金대통령 취임 2돌 기념식 비난 보도</p> <p>- 金 0 0역도가 2.25 취임 2돌을 계기로 지난 2년간 남조선에서 그 무슨 변화와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데 이는 자화자찬이 아닐수 없음.</p> <p>- 金 0 0역도가 집권2년 동안에 한 것이란 외세의존정책과 북남대화를 모두 차단시키고, 정세를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몰아넣은 것임.</p>	<p>* 美 하원 안보위 청문회</p> <p>- 과거와 마찬가지로 韓美공동방위체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테러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p> <p>- 그러나 北韓의 공격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人命과 기간시설의 희생이 예상됨.</p> <p>○ 력 유엔軍 사령관, 北韓의 증감위 폴란드 대표단 逐出관련 安保理에 특별보고서 제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게 비방증상 중지 촉구</p> <p>* 3·1절 기념사</p> <p>- 南과 北은 이제 統一의 큰길을 활짝 열어야하며 먼저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함.</p> <p>- 우리는 北韓의 경수로 건설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經濟協力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北韓과 교류, 협력태세를 갖추고 있음.</p> <p>- 이제는 北韓이 변화해야 하며, 민족자존과 민족단합의 3.1 정신에 반하는 같은 민족에 대한 비방증상을 中止해야 함.</p>	<p>0 故 吳振宇 장례식 거행 (2.8 문화회관)</p> <p>* 참석자: 金正日,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광, 계응태 등</p> <p>* 장지: 대성산 혁명열사능</p>	<p>0 파노프 러 外務次官 정전체제 폐기부당 언급</p> <p>- 北韓이 停戰體制를 폐기하려는 것은 적절치못한 조치이며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소집되어야 함.</p> <p>0 러 모스크바 방송, 北韓의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逐出은 북한의 韓·美 이간책 보도</p> <p>- 이 조치는 美國과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며 韓美사이에 썩기를 막으려는 北韓의 의도에 따른 것임.</p>
3. 2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갈루치 美 核담당대사 앞 서한 (3.9 중앙)</p> <p>- 4.21까지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核동결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5MW급 실험로와</p>	<p>0 北韓-유엔司, 中監委 폴란드대표단 撤收 관련 대령급 接觸 (군정위 회의실)</p> <p>* 참석 : 유엔司側 움스 대령, 北側 박임수 대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		<p>같은 1.2개 核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게 될 것임.</p> <p>- 그러나 4.21이후 協定이 체결 되면 그 단계에서 동결해제한 시설을 다시 동결하게 될 것임.</p> <p>0 중방, 미국측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재차요구 논평</p> <p>- 美國이 조선반도의 北과 南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며 현실적으로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황된 주장임.</p> <p>- 지금 停戰機構는 미국측이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 파괴 했기때문에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음.</p> <p>- 美國은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체약 쌍방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를 樹立하는데로 나와야 함.</p>	
3. 3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統一은 역사적 필연 발언</p> <p>* 파리 특파원 간담회</p>	<p>0 중방, 8.15 대민족회의 보장 위해 國家保安法 철폐 보도</p> <p>- 조국해방 50들을 공동으로 기</p>	<p>0 력 駐韓UN군사령관,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철수관련 金正日에 항의 書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라진 민족끼리 統一은 역사적 必然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시간문제임. - 北韓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對北 接觸을 전개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며칠전에 北韓에서 기가막힐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사실도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임. ○ 李洪九 국무총리, 광복 5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관련 언급 * 임시국회 답변 - 南北共同紀念事業을 위해 지금이라도 北韓이 협의에 응해온다면 적극 추진할 것임. ○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KEDO설립협정 文案에 한국 표준型 明示 기자회견 - 輕水爐공급협정은 KEDO가 북한과 체결하고, KEDO는 다시 한국과 상업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될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념하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하기 위한 대민족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로 나서고 있음. ○ 北韓 반핵·환경보호단체들, 남한 굴업도핵폐기장 건설계획 관련 비상연합회의 진행 - 조선반핵평화위원회·조선반핵평화의사협회·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국가환경보호위원회·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 등은 남한굴업도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관련 비난 共同聲明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지난 53년에 체결된 休戰協定에 어떠한 변화도 동의한바 없음. - 정전협정 승계권자로서 귀하와 본인은 정치적차원에서 平和體制가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할 책임이있음 - 귀하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 中監委 폴란드대표단이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措置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갈루치 美국무부 核대사, 한국型 거부편협정체결 연기 기자회견 - 北韓이 제네바합의문 조건들을 준수하고 核계획 동결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設立協定 문안에는 한국표준형이 적절하게 표기될 것이며,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에도 한국형은 명확히 들어가야 할 것임. - 北韓에 제공될 원자로는 한국회사가 설계·제조·건설하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이며, KEDO의 주계약자가 한국기업이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음. 		<p>을 계속하여준다면 경수로 문제를 별도로 타결할 필요성이 없을 것임.</p> <p>0 코지레프 러 外相, 北·美合意 성공 불투명 발언</p> <p>- 北美합의는 복잡한 구도로 되어있어서 더욱 論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현상태로는 성공이 保障되리라고 생각지 않음.</p>
3. 4	<p>0 韓國·체코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하벨 체코 대통령(프라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인권상황개선에 양국은 공동노력을 기울임. - 北韓의 核무기 개발저지, 한국의 유엔安保理 비상임이사국 進出에 긴밀히 협의키로 함. 	<p>0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과 세계 각국 정부·정당·단체들에 보내는 告發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保安法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악법,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영구분열악법, 민주와 인권을 말살하는살인악법, 범죄와 모략사건 조작의 악법임. - 國家保安法의 철폐를 위한 투쟁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4		0 부주석 김병식, 사회개발정상 회담(3.6 덴마크) 참석차 平壤 출발	
3. 5		0 金正日, 집단체조 『영원히 높이 모시리』관람 (평양체육관) * 참석: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등	0 李 鵬 중국총리, 한반도문제 對話를 통한 解決 발언 * 全人大 보고 - 中國은 이전부터 계속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음. - 中國은 주변에 위협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對話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3. 6	0 韓國·獨逸 정상회담 * 金泳三 대통령, 콜 독일 수상(본) - 兩國頂上은 한반도정세안정을 위해서는 北韓의 核武器개발저지가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北美 제네바 合意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공동인식		0 美 디펜스 뉴스紙, 최근 北韓 대규모 冬季군사훈련 實施 보도 - 北韓은 수년 이래 최대규모의 연례 冬季訓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美國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北韓에 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6	<p>- 北韓이 폴란드 대표단을 중감위에서 축출한 것은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이며, 平和協定 체결여부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協議·決定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p> <p>- 金泳三大통령은 北核問題 해결을 위해 獨逸의 KEDO 참여 등을 요청하고 독일과 북한수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우리와 事前協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음.</p>		<p>공한 重油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임.</p>
3. 7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 곡물·원자재 提供用意 천명</p> <p>* 獨逸 외교3단체 초청연설 (베를린)</p> <p>- 우리는 北韓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北韓에 곡물을 비롯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用意가 있음.</p> <p>- 南北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불신과 반목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交流·協力</p>	<p>0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거부입장 재표명 기자회견</p> <p>- 우리는 경수로 제공협정이 조미사이 합의된 4.21까지 체결될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경수로에 대한 기대마저 허물어지고 있음.</p> <p>- 우리 核시설들의 동결과 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의 재개, 담보협정의 완전이행, 폐연료의 안전한 보장과 궁극적인 처분, 핵연료와 연관시설들의 해체 등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전반은 경수로 협정체계를 기</p>	<p>0 KEDO 설립협정 관련 韓·美·日 3자회의 (뉴욕)</p> <p>* 참석: 韓國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美 갈루치 핵담당 대사, 日 엔도대사</p> <p>0 셸리 美국무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관련 北韓과 協商안 하겠다고 발언</p> <p>* 정례 브리핑</p> <p>- 美國은 경수로문제 해결을 위해 3.9</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7	<p>하는 길을 터나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南과 北이 급격한 통일에서 오는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며 점진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民族共同體를 건설하기위해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3단계 과정을 축소하기위해 요구되는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것임. <p>○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KEDO지원은 경수로에 국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제네바合意 문안대로 경수로支援에 국한할 것이며 송배전 시설은 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KED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는 韓·美·日 3국 각각 거부권을 갖는 전원합의제로 運營될 것이며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나 자문위원회는 권고적 기능만 가짐. 	<p>준으로 하여 맞물려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남조선형을 고집하는 미국 태도로 말미암아 경수로협정이 합의된 기간내 체결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결심을 내리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 <p>○ 『8.15 통일대축전』 관련 북한 정당·단체대표협의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통일대축전을 북과 남해외가 공동추진하려는 염원에서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성원 선출 · 준비위원장: 김용순 · 부위원장: 4명의 정당·단체 책임일군 · 위원: 20명 	<p>KEDO협정 서명이전에 北韓과 사전접촉할 의사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한국형 경수로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다시 표명한 것은 北韓의 통상적인 의사표명 방식의 하나라고 간주함. <p>○ 베이컨 美 국방부 대변인, 北韓의 동계 軍事訓練이 이전과 크게 차이 없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이번훈련은 과거 실시했던 것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것은 아님.
3. 8	<p>○ 韓國·英國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메이지 總理 (런던)</p>	<p>○ 平放, 南韓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 실시계획 취소 요구 논평</p>	<p>○ 韓·美·日 3국, KEDO 발족 관련 說明會 개최 (뉴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상은 南北對話를 포함한 미북 核합의문의 합의사항을 北韓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로 공동인식을 했음. - 金泳三 대통령은 英國이 KEDO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음. ○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金대통령의 對北韓 곡물·원자재 提供 提議 관련 기자간담회 - 金대통령이 독일 演說을 통해 대북 곡물, 원료, 물자 제공 용의와 민간차원 교류·협력의 적극 권장은 남북간의 實質的 關係改善과 화해·협력, 신뢰회복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에 대해 北側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함 - 政府는 작년 11월 經協활성화 조치를 기조로하여 일관성 있는 原則과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질서 있고, 단계적인 경협을 지속적으로 推進해 나갈 것임. - 곡물 등의 물자를 장기저리로 提供하는 것은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국방부가 오는 4.3-8 까지 육·해·공군 합동군사 연습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임. -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려는 목적은 일종의 군사적인 압력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경수로 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양보를 받아내려는데 속심임. - 김 ○ ○일당은 심사숙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하며 모험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무조건 건어치워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원회원국인 韓·美·日 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러시아 등 20 개국과 유럽 연합 대표 참석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8	<p>차원 보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간 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별도의 새로운 對話提議보다는 이미 열어놓은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해 북측이 呼應해 올 경우 언제든지 이의 실현을 뒷받침할 것임</p>		
3. 9	<p>○ KEDO 공식 발족(뉴욕)</p> <p>- KEDO 설립협정은 韓國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美國 갈루치 국무부核대사, 日本 엔도 대사 등 3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음.</p> <p>< KEDO 設立協定 요약 ></p> <p>▲ 目的 및 機能: 1천메가와트 용량의 韓國型 경수로 2基로 구성되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 對北 대체에너지 공급 등 北美 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履行을 위함.</p> <p>• KEDO는 北韓에 이전되는 核물질·장비 및 기술이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과 평화적 목적으로만 안전</p>	<p>○ 미전향장기수 출소자 송환문제 관련 법률가·적십자일군 공동 토론회 진행 (평양)</p> <p>* 참가: 백남준, 차문빈, 백영호</p>	<p>○ 沈國放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平和協定으로 대체 지지 기자회견</p> <p>- 韓半島 停戰協定은 여전히 유효하나 한반도 주변변화에 따라 평화협정체제로 代替해나가는 것이 발전 추세임.</p> <p>- 그동안 韓半島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한반도 停戰協定당사국들은 한반도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變化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창조해 나가야함.</p> <p>○ 폴란드 중감위 대표단, 韓國서 役割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9	<p>하계 이용되도록 北韓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장을 받아야 함.</p> <p>▲ 構成: 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원회원국은 韓·美·日 3국이며, 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로 구성됨.</p> <p>·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韓·美·日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3국 全員合意를 통해 이루어짐.</p> <p>▲ 財政 및 法的地位: 각 회원국은 적절한 資金提供 등으로 KEDO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며, 기여금은 KEDO뿐 아니라 KEDO의 계약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p> <p>○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韓國이 輕水爐 설계, 제작, 건설 擔當 기자회견</p> <p>- 한국형이란 韓國이 경수로 공급에서 中心役割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기업이 설계와 제작, 건설을 담당하는 것</p>		<p>행 희망</p> <p>* 駐中 폴란드 대사관 관계자</p> <p>- 폴란드 정부는 板門店 중감위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아래 韓國에 派遣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사를 韓國·美國 등에 이미 전달했음.</p> <p>○ 日 교도통신, 北·日 지난달 국교정상화 協商재개 비공식 협의 보도</p> <p>- 北韓과 日本은 중단상태인 양국 국교정상화 協商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극비로 비공식 協議를 시작했음.</p> <p>○ 갈루치 美 국무부 核대사, 『경수로 협정 4.21은 時限이 아니라 目標』 기자회견</p> <p>- 제네바 核합의문에 는 경수로공급협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9	<p>이며 외국기업은 하청만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이란 올진 3.4호기에 붙은 명칭이며 정확한 명칭은 한국표준형 임. - 미북경수로 전문가會談은 베를린에서 3월하순 만나기로 한 합의사항으로서 美國이 KEDO의 위임을 받아 協商에 임하고 다음부터는 KEDO가 협상주체가 될 것임. - KEDO 사무총장은 美國人이며 韓國과 日本은 사무차장에 임명되었음. 		<p>을 4.21까지 체결토록 밝히고있으나 이는 목표일자이지 최종시한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北韓이 核합의를 깨고 5메가와트 원자로를 再稼動한다면 이는 핵동결을 파괴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유엔安保理에 회부하는 것도 선택방안에 포함될 것임. - 지난해 10.21 核합의가 이루어지기전 한국형경수로 제공 문제는 양측간 이미 해결된 것임.
3.10	<p>0 정부, 北·日 修交교섭 재개 관련, 아직 時期가 적절치 않다고 反對 시사</p> <p>* 정부 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日本·北韓교섭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남북대화 재개등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北韓과 修交교섭을 서두르는 것은 바 	<p>0 平放, 金泳三 대통령의 對北물자 제공 제의 거부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제·북남관계 문제를 장사꾼의 더러운 솜씨로 해결해보려는 김o o이나 나o o의 너절한 처사는 온 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하며, 통일문제·남북관계문제는 결코 물건잔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님. 	<p>0 日 요시로 자민당 간사장, 日北修交협상단 派北 결정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등 집권聯立與黨은 KEDO발족이후 북한과 대화창구개설을 위해 訪北團을 파견키로 했으며, 방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0	<p>탐직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총리 나 〇 〇이 3.8 기자간담회에서 北에 대한 그 무슨 물자지원 제의라는 말갈지도 않은 수작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우면서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느니 呼應을 期待한다고 입방아를 찧었음. - 김 〇 〇이 북남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각종 형태의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야 함. 〇 중통, 한국형 경수로 수용不可 관련 보도 - 美國은 최근 경수로형을 남조선형으로 한다는 공동보도문까지 발표하였으며, 3.9에는 남조선형 경수로 2기의 제공을 설립협정안에 명기한 조선반도에네르지기개발기구를 정식 발족시켰음. - 조선반도에네르지기개발기구는 美國의 필요에 따라 조직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인정한 바 없으며, 美國이 남조선형 경수로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다니는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도전이며 압력임. - 우리는 합의문 이행을 위한 	<p>북단團長은 와타나베 의원(前 外相)으로 決定됐음.</p> <p>〇 로드 美國무부 차관보, 核합의 파기때 安保理 제재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동결 약속을 깨고 영변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 美國은 여러 대안을 韓國·日本과 함께 검토할 것이며, 이 가운데는 유엔安保理에 再회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0		<p>美國의 의지를 의심하며 경수로 提供協定 時限인 4.21까지 경수로 제공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가에 깊은 우려를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남조선형을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로 인하여 경수로 협정이 기간내에 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 갈길을 갈 것임. 	
3.11	<p>○ 韓·日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무라야마 日本首相 (코펜하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정상은 北韓에 대한 경수로지원을 위해 설립된 KEDO운영에 있어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한반도 문제의 當事者 解決原則에 따라 남북한간에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협의·결정해야 한다는데 공동인식 - 무라야마 首相은 일본이 對北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한 事前協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언급 	<p>○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수용불가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남조선형 경수로를 반대하는 입장을 끝내 무시하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구의 목적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실상의 도전이며 조미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같음. - 만일 미국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機構를 우리와 맞붙혀 놓으려하거나 그 무엇을 강요하려 한다면 경수로 협정은 아무때가서도 성사될 수 없게 될 것임. - 남조선 모자를 씌운 경수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납입될 수 없으며, 우리는 경수로 사업에 美國만을 우리의 기본협상자로 간주할 것임. 	<p>○ 佛 르포앵紙, 北韓 스키드미사일 자이르에 引導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2	<p>0 韓·中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李鵬 中國 總理 (코펜하겐)</p> <p>- 양국 정상은 北韓의 核무기 개발저지와 실질적인 南北對話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앞으로 韓·中 두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p> <p>- 金泳三 대통령은 중국이 대화를 통한 北核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점에 비취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p> <p>-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當事者 解決原則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 現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음.</p>	<p>0 祖平統 서기국, 南韓 육·해·공군 합동군사훈련 실시계획 비난 報道</p> <p>- 남조선 괴뢰들이 4.3부터 8일간 군사분계선 가까에서 북침을 가상한 또 한차례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조·미 기본합의이행에 찬물을 끼얹어보려는 계획적인 책동임.</p> <p>- 남조선 괴뢰들이 각종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정세를 긴장시킨다면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은 설사 중지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p>	
3.13	<p>0 金泳三 대통령, 美·北관계 개선과 南北관계의 조화 강조</p> <p>* 벨기에 르스와르紙 회견</p> <p>- 개방을 통한 北韓의 국제사회편입이 한반도의 안</p>	<p>0 노동신문, 國家保安法 철폐 및 미전향장기수 송환 촉구논평</p> <p>- 김 〇 〇일당은 반공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는 미전향장기수들을 모두 석방하여야 하며 김인서·함세환·김영태들</p>	<p>0 日산케이신문, 경수로 核心부품 日製로 供給 보도</p> <p>- 日本정부는 다음달 말 KEDO와 北韓間의 경수로공급계약 일 전후에 열리는</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3	<p>정과 평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南北關係의 진전과 조화되고 병행하는 北·美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음.</p> <p>- 美國이 일부 對北제재를 완화하기는 했으나 아직 北韓에 대한 포괄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네바 合意에 따른 核문제해결뿐 아니라 남북대화·군축·미사일 수출·화학무기생산·테러·인권 등 問題의 解決이 선행되어야 함.</p> <p>○ 統一院, 8개 기업 訪北 승인</p> <p>- 政府는 해태 익스프레스 등 8개 기업 13명에 대해 北韓訪問을 추가 승인하였음.</p> <p>- 政府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94.11.8)이후 지금까지 訪北이 承認된 기업은 1차('94.12.10) 6개기업과 2차('95.1.10) 4개기업을 포함하여 總18개사임.</p>	<p>을 가족 친척의 품으로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함.</p> <p>○ 조선亞·太평화위원장 김용순, 訪北 도교방송 사장 이소자키 면담</p> <p>○ 인민무력부, 金日成의 5대훈련 방침 제시 20돌 기념 보고회 진행</p> <p>* 참석: 최광, 김봉률, 김광진</p>	<p>KEDO 이사회에 경수로 노심등 核心공급을 日製로 제공할 방침을 정식 전달할 예정임.</p> <p>○ 美國무부, 3.25 美北 경수로 전문가 會談 베를린서 再開 발표</p> <p>○ 린 데이비스 美國무차관, 미사일 수출 中斷 대북촉구</p> <p>* 태평양회의 연설</p> <p>- 美國은 北韓의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이 中斷되지 않으면 北韓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p> <p>- 北韓이 南韓에 대해 가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美國은 우려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4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核 합의 破棄時 강력 對應 발언</p> <p>* 기자간담회 (브뤼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일부라도 北·美 합의를 파기할 경우 美·日 등 우방들과 충분히 협의 강력히 對應하겠음. -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미국을 통해 북한에 이미 전달했으며, 北·美 합의가 파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北韓에 통보해 놓은 상태임. <p>0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KEDO-北韓 공급협정에 올진 3·4호기 명문화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日 3국은 KEDO가 북한과 체결할 供給協定文에 올진 3·4호기가 참조 원자로라는 점을 명시할 것임. - KEDO의 공급 협정안에는 설립협정 보다 더욱 발전된 爐型명기가 포함되어 있음. 		<p>0 갈루치 美 核대사, 核연료 再稼動時 유엔안보리 회부 대북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영변에 있는 두개의 核연료를 재가동함으로써 核동결을 파기할 경우 美國은 北韓 核문제를 韓·日과 협의, 가능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유엔 安保理 회부를 고려하고 있음. <p>0 日 도쿄신문, 北韓 원자로 再稼動준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4.21까지 KEDO와 경수로제공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凍結中인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을 再開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 이는 영변에 사찰관을 派遣하고있는 IAEA도 확인했음.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合意 不이행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4			<p>국방비 추가 요청 발언</p> <p>* 上院 세출위 국방 소위 증언</p> <p>- 北美 제네바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방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예산전용을 요청할 계획임.</p> <p>- 제네바합의가 이행되지않아 작년 6월과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駐韓美軍 증강 등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임.</p>
3. 15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문제와 統一문제관련 유럽우방들이 우리의 政策을 支持했다고 발언</p> <p>* 유럽순방 귀국인사</p> <p>- 北韓 核문제와 統一문제에 관해서도 유럽의 우방들은 우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協議해 나가기로 약속하</p>	<p>0 북한軍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 개막 (평양체육관)</p> <p>* 참석: 金正日, 최광, 김광진, 김봉률, 이봉원</p> <p>< 당 중앙위 축하문 ></p> <p>-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소대·분대들의 전투조직을 더욱 완성하고,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들의 보관관리를 빈</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5	<p>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의 현장에서 平和統一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歷史의 거대한 힘이 우리의 통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確信을 가질 수 있었음. ○ 統一院, 北韓經濟 5년제 『마이너스』성장기록 발표 * 『'94년도 하반기 북한 경제 동향』자료 - 농업부문의 穀物작황은 전년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영농자재 부족 등으로 平年作에 크게 未達 - 건설부문은 재정부족으로 고속도로·발전소 등 대규모 建設事業은 사실상 中斷상태 - 對外貿易 부문은 전년도 26.4억달러보다 30.7% 減少한 18.3억달러를 기록 - 지난해 北韓經濟는 '90년대 들어 계속된 『마이너스』성장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음. 	<p>틈없이 하며, 초소와 진지를 철벽의 요새로 다져 원수들이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한다면 단호한 징벌을 가할수있게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어야 함.</p> <p>○ 『祖平統』서기국장 백남준, 南韓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확정 발표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이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합의서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 - 만일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후대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6	<p>0 박 弘 서강대총장, 北韓의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외신에 보도된 북한 의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는 사실이며, 자신을 암살 하기 위해 북한이 포섭한 학생을 만난바 있음. - 북한이 지난해 7월이후 정부요인을 비롯해 주사 파를 비난하는 우익인사 들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노동신문에 수차 례 보도된 바 있음. 	<p>0 평방, 金大統領과 박 弘 총장 의 암살기도설은 허황된 반복 모략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〇 〇일당은 허황한 모략을 꾸민데 대해 비싼대가를 받드 시 치르게 될 것이며, 시간은 반복모략소동의 대가가 얼마 나 비싼대가인지 보여줄것임. <p>0 8.15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 회 대변인, 남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전국연합의 8.15 통일민족 대회 개최결정 환영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의 결정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려 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를 환영함. -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제3국에서 접촉을 가 질 것을 제의함. <p>0 북한軍 중대장·중대정치지도 원대회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에 대한 맹세문 채택 <p>0 北韓의원동맹 대표단(단장: 최 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이몽호), 국제의회동맹 제93차 총회참석차 스페인 향발</p>	<p>0 中國외교부 대변인, 核합의 이행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美사이에 달성 한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중국정부는 각 당 사자들이 어렵게 얻은 이 성과를 소 중히 여기고 對話 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희망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7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企業의 北韓訪問 계속 許容 발언</p> <p>* 국회 통일외무위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지원사업이 우리의 中心的 역할하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북한이 끝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美·北합의 이행이 차질을 빚게되는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함. - 북한의 이중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民間次元의 南北經協은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 企業들의 북한방문은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따라 계속 승인해나갈 것이며, 示範的經協도 선별적으로 허용해 나갈것임. - 경제교류협력 뿐만아니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 	<p>0 駐유엔 대사 박길연, 4.21은 경수로 협정체결 최종시한 아니라고 기자회견 (3.18 연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한 제네바 核합의에 따라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 협정 체결시한으로 4.21은 최종시한이 아니라 목표일자임. 	<p>0 고노 日외상, 북한에 쌀제공 가능성 일축</p> <p>* 참의원 외무위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여론이 북한에 쌀제공을 지지하더라도 日本은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에 지원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움.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7	<p>력도 그것이 비정치적이고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음.</p> <p>○ 國防部, 북한軍 대규모 훈련 실시 발표</p> <p>* 국회 국방업무보고</p> <p>- 북한軍은 현재 冬季訓練中으로 공군의 경우 전술기의 對地공격, 저공침투용 경비행기인 AN2기 공수 투하 훈련, 야간훈련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p> <p>- 北韓 지상군도 여단급 규모의 동계훈련을 진행중이며, 해군은 동계정비기로 예년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음.</p>		
3.18	<p>○ 政府, 日 연립여당의 訪北時期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전달</p> <p>* 金夏中 외무부 아주국장, 가와시마 日 외무성 아시아 국장 회담</p> <p>- 金夏中國장은 日연립여당의 방북은 시기가 적절하</p>	<p>○ 중통, 美國의 한국형 경수로 강요 비난 보도</p> <p>- 美國이 우리에게 남조선형 경수로를 받아들여도도록 강요하는 행동은 대화 쌍방간에 예기치 않은 위험한 정세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임.</p> <p>- KEDO가 남조선형 경수로 공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8	<p>지 못하다고 지적</p> <p>- 이와 관련 日 가와시마국장은 여당연합의 訪北案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언급</p>	<p>을 목표로하고 있는한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지 않을 것임.</p> <p>-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KEDO를 우리의 대화상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협상자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조·미합의문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생각치 않을 수 없음.</p>	
3. 19		<p>○ 평방, 南韓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비난논평</p> <p>- 공화국 북반부에 가까운 경기도 용진군 굴업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발표한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원자전쟁 포고나 다름없음.</p> <p>- 이런곳에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는것은 우리의 턱 밑에 핵시한탄을 묻어놓으려는 것 같으며, 결국 우리에게 핵폐기물 피해를 입히려는 책동의 다른 것이 아님.</p> <p>- 만약 우리의 경고와 거래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p>	<p>○ 美, 北韓에 옥수수 輸出 (3.19 중앙)</p> <p>- 美國 곡물수출회사인 바트래트社가 3.15 北韓에 수출하기 위해 옥수수 5만4천톤을 선적했으며, 수출대금은 달러로 결제키로 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0	<p>0 統一院, 남북교역상담地方窓口개설 발표</p> <p>- 4월1일부터 지방무역업체의 南北交易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貿易協會 부산지부등 10개지역에 지방상담창구를 開設할 예정이다.</p> <p>0 統一院 代辯人, 굴업도 핵폐기물 처분장 관련 모략 중지 및 당국간 對話 呼應 촉구 聲明</p> <p>-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원자력의 平和的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安全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북측이 시비할 아무런 이유없음.</p> <p>-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의 입지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檢證과 確認을 받은 바 있음.</p> <p>- 北韓이 굴업도 시설에 대해 『새로운 불집을 조성하는 원자 핵공격 작전 개시』라고 날조하고 있는 것은 중상모략이며, 도발적 행위임.</p> <p>- 北韓이 『남북 합의서의</p>	<p>0 외교부 대변인, 美國의 駐韓美軍 장비증강 비난談話</p> <p>- 미국은 남조선 미군현대화 계획에 따라 지난 두달동안 이미 20대의 다목적 고속이동차량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앞으로 500대의 고속이동차량을 더 끌어들인다고 함.</p> <p>- 이러한 대대적인 무력증강 행동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공약한 조·미 기본합의문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동임.</p> <p>- 미국은 긴장완화의 현 국제적 추세와 조·미 기본합의문 정신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력시도를 포기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 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함.</p> <p>0 노동신문, 金대통령의 유럽순방중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요청 비난 論評</p> <p>- 김 〇 〇이 영국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속셈은 유엔안보이사회를 악용하여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에서 분열과 대결의 분위기를 고취하려는데 있음.</p>	<p>0 日산케이신문, 『韓·美·日 3국, 경수로 시한내 계약 안 되면 유엔서 對北제재논의 합의』 보도</p> <p>- 韓·美·日 3국은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해 KEDO와 경수로공급계약이 4.21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음.</p> <p>0 폴란드, 中監委 추방관련 곧 對北보복 조치 시사</p> <p>* 포미아노위스키 폴란드 외무부 아시아 국장 언급</p> <p>- 폴란드는 北韓의 이번 추방조치가 양국간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이미 통보했으며, 2주안에 對應措置를 북한측에 전달할 예정이다.</p> <p>0 美上院 외교위, 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0	<p>전면백지화』운운은 남북 당국간 對話를 계속 회피하고 기존의 남북합의 사항을 파기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意圖에서 나온 것임.</p> <p>- 南北基本合意書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장전이며,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엄숙한 민족적 약속으로 이를 破棄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p> <p>- 북한은 우리측에 대한 중상모략과 비방선동행위를 중단하고 當局間 對話에 呼應해 나올것을 촉구함.</p>	<p>- 김 〇 〇은 비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양탈을 부림으로써 서방나라들과 다른 유엔성원국들의 요구까지 무시하며 그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괴뢰들은 더욱 커다란 창피를 당하기전에 어리석은 놀음을 견어치워야함.</p>	<p>북대화 촉구 관련 對北결의안 의결</p> <p>- 헬름스 美上院외교위원장등 여야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共同決議案은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개최, 남북간 핵시설 상호 사찰도입, 남북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공동 군사협약의 재개, 남북 상호여행자유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促求했음.</p>
3.21		<p>0 외교부 대변인, 美國의 경수로 관련 대북 유엔제재시 자위조치로 對應 기자회견</p> <p>- 미국이 합의문 이행의 첫단계에 불과한 지금 대화상대방에 대한 제재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누구의 충동으로 입장을 변경시켰음.</p> <p>- 美國이 남조선型 경수로를 고집하는 것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입장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1		<p>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협정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묵인하고 일방적으로 核 동결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 만일 이 문제와 관련 부당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에 대처해 자위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며, 우리는 경수로 공급에 관한 3단계 協商에서 올바른 자세로 나오기를 주시할 것임. 	
3.22	<p>0 金泳三 대통령, 核합의 이행시 세계의 대북 응징 警告</p> <p>* 육사 임관식 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만약 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전세계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임. - 北韓은 오래전부터 올해를 統一의 해로 정해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최근에는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우리 政府에 대해 격렬한 誹謗과 군사정전협정의 무력화 	<p>0 중방, 통일원 대변인의 굴업도 핵폐기장 관련 對北聲明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업도는 核폐기물 처리장으로서 안전성 담보가 전혀 없는 장소이며, 거기에 건설공사를 벌이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원자전쟁포고나 다름없음. - 우리가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합의서가 전면백지될 수 있다는 경고는 응당함. -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업도 核오물장 건설을 강행한 	<p>0 北·中, 한국형경수로문제 관련 견해차 노정</p> <p>* 중국 소식통 (3.23 중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北美合意의 성실한 이행이 한반도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북한에게 현실적 태도를 취하기를 권유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2	<p>기도를 계속하고 있음.</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南北經協은 남북관계 進展에 따라 擴大</p> <p>* 기자간담회</p> <p>- 南北經協은 임가공·생필품 교류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소 엄격한 현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가 進展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음.</p> <p>- 人的交流는 김일성생일과 평양축전 등이어서 時期적으로 부적절하므로 5월 이후 추진이 바람직함.</p> <p>- 당분간 停戰協定을 지켜 나가되 남북간에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정착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p> <p>0 朴 弘 서강대 총장, 北의 암살說 관련 證言</p> <p>* 독일간첩단사건 공판</p> <p>- 나에 대한 北韓의 암살기도설은 사실이며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유예</p>	<p>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함.</p> <p>0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등,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 저지 관련 南韓 반핵 단체들에 발송 편지</p> <p>-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는 것은 북과 남의 반핵운동가들과 환경보호 단체들의 절박한 과제이며 민족적인 의무임.</p> <p>- 우리 조선자연보호연맹과 반핵평화옹호단체들은 남조선 전국반핵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반핵 및 환경보호단체들에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기 위한 공동투쟁대책을 협의할 것을 提議함.</p> <p>- 雙方代表들의 협의장소는 양측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되, 귀측이 제기하는 임의의 장소라도 무방할 것이며 접촉날짜는 빠를수록 좋음.</p> <p>0 중·평방, 統一院 대변인의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對北聲明 비난 논평</p> <p>- 남조선 통일원 대변인이란자</p>	<p>- 北韓은 이에 대해 韓·美가 한국형경수로문제를 빌미로 북한을 곤경으로 몰고있으며, 궁극적으로 北韓政權을 붕괴시키려하고 있다고 拒否했음.</p> <p>0 日 연립여당, 3.27 합동의원단의 訪北을 最終合意</p> <p>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NPT연장회의 1년연기 가능성 발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2	<p>판결을 받은 한병훈이 독일 유학생으로 北韓에 들어가 암살교육을 받고 지령에 따라 나를 암살하려는 장본인임.</p>	<p>의 불순한 언동과 남조선 방송보도는 우리에게 대한 또하나의 도발로써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p> <p>- 불은 저들이 질러놓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 무슨 위협적 언사니 유감이니 하면서 시비할 것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날강도 논리임.</p>	
3.23	<p>0 자수간첩 한병훈, 朴 弘 서강대총장에 대한 암살기도 공개 기자회견</p> <p>- 北韓의 지령에 따라 박총장 암살을 기도한 것이 사실이나, 朴총장을 접촉한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오히려 이 사실을 朴총장에게 털어놓았음.</p>	<p>0 경수로관련 北·美 전문가회담 北側 단장 김정우, 한국형 논의 배제 주장</p> <p>* 베를린 도착 기자회견</p> <p>-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한국형 채택문제는 의제조차 될 수 없으며, 협상진전여부는 경수로 선정에 관한 미국측 태도에 달려있으며,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일자인 4.21은 완료일자임.</p> <p>< 북측대표단 도착성명 ></p> <p>- 이번 협상의 진전여부는 경수로 爐型 선정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北美 기본합의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임.</p>	<p>0 美國, 한국형경수로 관련 북한에 양보 시사</p> <p>* 국무부 보도자료</p> <p>- 北韓이 현재와 같이 핵동결을 계속 유지할 경우 KEDO-북한간 경수로供給協定을 조속한 시일안에 타결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4.21은 目標시한이지 確定시한이 아님.</p> <p>- 한편 갈루치 국무부核대사도 '경수로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국형이면 명칭에는 구애받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이번 협상을 실제로 합의문 이행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간주하고 있음. ○ 중·평방, 南韓 해군이 北韓 영해에 불법침입 주장 보도 - 3.23 10시 12분경 괴뢰군 전투함선 2척이 어선을 납치할 목적으로 황해남도 응진군 서남쪽 우리측 영해 깊이 침투했음. - 백주에 감행된 해상침범행위는 북남대결을 고취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어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책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않겠다고' 언급하였음. - 현재 NPT연장을 위한 다수표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이번 會議가 1년간 연장될 수 있으나, NPT는 이기간동안 계속 維持될 것임. ○ 데이비드 존슨 美國 무부 대변인, 北韓이 원자로 再가동시 對北제재 경고 論評 - 만약 北韓이 핵동결약속을 파기하면 우리는 유엔안보리에 이문제를 상정해 제재를 논의할 것임.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 대통령, 北核문제 관련 재차 對北경고 * 해사 임관식 치사 - 북한이 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할 경우 세계의 응징을 면치못할 것임을 분명히 警告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放, KAL기 폭파범 김현희 고백록 책자관련 論評 - 김 〇 〇일당이 낡은 모략문서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은 일본 집권 여당들의 일조 관계개선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음. ○ 『祖平統』, 金大中이사장 조문발언 관련 聲明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나의 이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임. - 북한은 동구공산주의 몰락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와 악화일로의 경제난, 그리고 체제모순이라는 三重苦를 맞고 있음. - 북한이 이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韓半島에 緊張을 조성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p>○ 韓美, 韓國型 경수로 관철 再확인</p> <p>* 워싱턴 韓美고위실무자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韓 제공 경수로 기종은 韓國型으로 한다는 종전의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했음. - 北韓이 만일 현재의 핵동결상태를 깨고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데 同意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아·태재단 이사장 金大中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라기 보다는 수령의 서거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했던 남조선의 민심을 반영한 것임. - 金00은 저들이 저지른 야만행위를 뉘우칠 대신 통일원장관과 민자당대변인을 내세워 저들의 대응태도가 적절한 조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음. - 민족앞에 저지른 대죄를 사죄하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합리화해보려는 김 0 0일당의 망발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분노와 격분을 일으키고 있음. <p>○ 中放, 金泳三 대통령의 육사졸업식 발언 非難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 0 0의 도발적인 폭언은 조선반도의 현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수작임. - 金 0 0이 이번에 우리를 걸고 든것은 朝·美합의문의 이행에 따라서 저들에게 불리하게만 되어가는 정세의 흐름에서 불안을 느끼고 한 소리임. - 오늘 우리인민과 인민군대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굳게 뭉쳐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4		<p>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p> <p>○ 노동신문, 韓半島 임의시각 전쟁발발 경고 論評</p> <p>- 美국방성은 美軍의 단계적축감계획을 취소하고 무력증강책동을 노골화 하고있음.</p> <p>- 美國의 무모한 군사적 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음.</p> <p>- 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軍事的 소동이 임의의 시각에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함.</p>	
3. 25		<p>○ 조국해방 50돌경축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제2차 회의 진행</p>	<p>○ 미·북 경수로 전문가 회담 개최 (3. 25- , 베를린)</p> <p>-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과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국무부 비핵확산국 부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p> <p>- 첫날회의는 북한측의 한국형 수용절대불가 입장 고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5			에 따라 아무런 진 전없이 종결
3.26		<p>○ 『조국전선』중앙위 의장 정두 환·『범민련』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김대중 아·태재단 이 사장의 조문발언 관련 담화</p> <p>- 이번엔 또다시 궤변으로 저들 의 죄행을 정당화하려하고 잘 못을 지적한 사람을 위협·공 갈하여 나섬으로써 동족간에 화해·단합의 의사가 없고 북 남관계를 더욱 엄중한 대결국 면으로 끌고갈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음. 이것은 결국 북남대화 거부선언이고 대결 선언임.</p> <p>○ 평방, 자수간첩 한병훈의 암살 지령 관련 논평</p> <p>- 증거를 밝히려는 내외의 목소 리가 높아지자 급해맞아 이따 위 놀음을 벌여놓았지만 연극 치고는 유치하고 어설픈 각본 으로 연출해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3.27	<p>○ 國防部, 韓美해상연합훈련 실시 발표</p> <p>- 3.21-24일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한국해군 소속</p>	<p>○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聲明</p> <p>- 남조선의 안기부가 연변지구를 비롯한 동북 3성일대에 첩자들을 파견하여 교포들 사이</p>	<p>○ 미상원 의원, 금년 하반기중 남북한 국 회의원 동시 초청 의사 표명 (3.27 조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7	<p>합정과 美國의 항모함대가 연합훈련을 실시함.</p> <p>- 美항모 인디펜던스호가 훈련일정에 따라 한국해역을 지나게 되어있어 韓美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임.</p> <p>○ 北送僑胞 일가 5명등, 제3국 통해 歸順</p> <p>* 歸順者: 오수룡(61), 김초미(54) 오명선(31), 오인화(4) 오수화(2), 박철만(28)</p>	<p>의 이간과 반목,대결을 조장시키는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음.</p> <p>- 김○○ 일당이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대결책동을 더욱 감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화해할 생각도 없고 대화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p>	<p>- 지난해 12월 서울, 평양을 동시방문한 바 있는 폴 사이먼 의원은 최근 미국 무부와 협의를 거쳐 개인차원의 남북한 의원 동시 초청 의사를 우리 국회와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밝혀짐.</p> <p>○ IAEA 정기이사회 개막 (비엔나)</p> <p>- 금번 이사회에서는 영변핵단지 등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결과 평가와 함께 북한·IAEA간 핵동결 기술상 문제점들을 지적, 적절 대응조치 촉구 예정</p> <p>-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동결상황을 대체로 긍정 평가, 그러나 일부부문관련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시기술상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고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8	<p>0 金泳三 大統領, 비방 중상 중지 대북촉구</p> <p>* 空土 임관식</p> <p>- 韓半島에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를 중상비방하는 모든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 北韓만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외면하고 남쪽동포를 겨눈 군사력을 끊임 없이 증강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가열시키고 있음.</p> <p>- 北韓이 核合意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경우 세계의 단호한 응징을 면치 못할것임을 거듭 경고함.</p>	<p>0 北노동당 대표단·日연립3여당 대표단, 日·北 관계개선을 위한 會談 개최(3.28~30, 평양)</p> <p>* 참석 : 김용순, 와타나베 미치오, 구보 와타루, 하토야마 유키오</p> <p>0 평양시, 金日成사망시 우리정부 대응태도 적절 발언 관련 규탄 군중집회 (청년중앙회관)</p> <p>< 박남기 연설요지 ></p> <p>- 김 0 0이 통일원 대변인을 내세워 지난해 우리의 유고당시 저들의 대응태도가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다는니, 발언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니 하고 도전해 나선데 대해 지금 전체 조선 인민은 거세찬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음.</p> <p>- 우리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저들의 죄행을 사죄할 대신 조의예절 문제마저 정치화하여 사람들을 위협공갈하는데 대해 엄중시 하지 않을수 없음.</p> <p>* 『직맹』위원장 주성일·『사로청』위원장 최용해·『농근맹』위원장 최성숙, 조문관련 남측행위 비난담화 각각 발표</p>	<p>0 美·北경수로전문가 회담 조기종결 (3.28 중앙)</p> <p>- 노형선정문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3.27조기종결된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형은 수용할 수 없지만 한국기업도 경수로제작과 시공에 참여가능하다는 신축적 입장을 미측에 전달</p> <p>- 양측은 회담을 일단 종결한뒤 그 내용을 양국정부에 보고키로 했으며, 미국은 한·일양국과 협의 예정</p> <p>0 日연립여당 대표단, 북한 항발</p> <p>-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소속의원 11명으로 구성, 3일간 방북예정</p> <p>0 美 WP紙, 韓·美 北에 主계약자명기 양보 시사 보도</p> <p>- 北美경수로 회담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8			<p>관련하여 한국이 경수로 공급에 있어 중심적 역할만 한다면 한국을 주계약자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시사했다고 보도</p>
3. 29	<p>○ 朴弘 서강대총장, 중요 기관에 親北세력있다고 주장</p> <p>* 光復50주년 범민족대토론회 연설</p> <p>-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관속에 잠입한 친북동조세력이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p> <p>- 우리사회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체제 불안정의 조짐증세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것은 바로 이들 세력의 공작과 활동에 기인한 것임.</p> <p>-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비를 가릴수 있는 민주정치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이 본격 실시 되어야 함.</p>	<p>○ 외교부대변인, 美·北 경수로 협상결과 관련 기자회견</p> <p>- 우리측은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 획기적 제안 』을 내놓았으며, 미측은 우리 제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음.</p> <p>- 이에따라 양측은 협상을 일시중지키로 하고 다음협상은 4월 중순에 베를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음.</p> <p>- 우리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문제해결은 대화상대방의 진지한 자세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p>	<p>○ 美정부, AT&T社의 미·북간 직통전화 연결신청 승인</p> <p>- 美연방통신위원회(FCC)는 美전신전화회사(AT&T)의 미·북간 국제상용전화 연결신청에 대해 특별임시허가 형식으로 承認</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9	<p>0 統一院, 기업인 3명 북한 향발 발표</p> <p>- 효성물산 홍콩유한공사 박교우 사장등 일행 3명 이 투자 타당성 조사차 북한 방문</p>		
3.30		<p>0 北노동당·日연립3여당, '朝· 日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採擇</p> <p>- 4黨은 두 나라간에 존재하였 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p> <p>- 두 나라간의 대화재개와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철저히 관계개선을 위 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인 정함.</p> <p>- 두 나라사이의 회담이 철저히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에 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p> <p>- 집권당의 책임으로부터 각기 자기 정부가 두 나라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30		<p>0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김상현 민주당 고문 등 南韓각계 인사들에게 접촉제의 서한 발송 (4.1 중방)</p> <p>* 대상자: 김상현, 이현재, 백낙청, 박용길, 박형규</p> <p>- 남조선 여러인사들과 8.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중에 제3국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함.</p> <p>0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장 유미영, 南韓 당국의 조문거부 정당화 비난 談話</p>	
3.31	<p>0 金泳三 대통령, 한국형 채택안되면 한푼도 내지 않겠다고 警告</p> <p>* 부산시 각계인사 오찬 연설</p> <p>- 韓國이 中心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국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한푼의 돈도 대지 않을 것임. 그렇게되면 경수로 지원사업도 무산되고 美·北合意 전부가 깨질 것임.</p>	<p>0 노동신문, T/S훈련 대체 군사훈련 실시계획 비난 論評</p> <p>- 미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공백을 메꾸기위해 새로운 군사연습을 벌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p> <p>0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장 강영섭·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장 장재철, 남한 당국의 조문거부 정당화 비난 談話</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	<p>0 南北기독교인, 광복절 板門店서 공동예배 합의</p> <p>*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국제협의회 (3.28-31 일본 교토) 공동발표문</p> <p>- 한국기독교협의회(오충일 회장), 조선기독교연맹(위원장 강영섭)은 南北韓 교회가 평화와 통일희년의 날로 선포한 올해 광복절에 南北韓 敎會가 8.15희년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드리기로 합의했음.</p> <p>- 板門店 공동예배에는 해외의 다른 교단들도 참가하도록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에서 兩側실무대표들이 준비회의를 가질 것임.</p>	<p>0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대변인, 南韓 정당·단체들에 접촉제의 호응촉구 담화</p> <p>- 우리는 조국해방 50돌 경축 민족통일대축전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3.7 정당·단체대표들로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주관하에 축전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p> <p>- 민족통일대축전을 겨레의 염원에 맞게 개최하자면 북과 남의 정당·단체 및 각계인사들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직 민족애와 자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서로 접촉하고 협의하여야 함.</p> <p>- 우리는 남조선의 정당·단체들이 우리의 민족통일대축전 제의에 호응하여 우리와 쌍무적 및 다목적 접촉의 길에 나설 것을 기대함.</p> <p>0 北·中 '95-'97년도 문화교류 계획서 조인(북경)</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		<p>0 북한 군사대표단,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방문차 평양출발 * 단장 : 인민군 총참모장 최 광</p>	<p>0 레이니 駐韓美대사, 경수로 관련 韓國의 강경자세 自制 언급 * 광주 재야인사환담</p> <p>- 南韓과 北韓이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입장이 어렵게 되고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안됨.</p> <p>0 고노 日외상, 日·北 수교협상 5월중 再開시사(4.3 세계) * NHK-TV일요토론</p> <p>- 政府間 교섭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兩側정부의 준비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빠르면 5월중에 교섭에 들어갈 생각임.</p> <p>0 北韓, 경수로문제 해결보다 미군철수·평화협정에 역점 전략說 * 4.2 동아일보, 지난 3월초 北韓외교부가 駐유엔 북한 대표부에 내렸다는 『訓令』 인용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서 基本은 남조선 美軍을 撤收시키고 조미사이에 새로운 평화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輕水爐問題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와 미군철수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인 攻勢를 벌임.
4. 3	<p>0 李洪九 국무총리, 對北政 策 일관성 유지 강조</p> <p>* 訪韓 日의원대표단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關係에서 우리가 북 한에 양보하는 것이 북한 개혁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一貫性을 공고하 게 유지하는 것이 개혁과 를 도와주는 길임. -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합의에는 다소 애매한 부 분이 있기 때문에 合意를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풀 어가는 내용도 중요하지 만 수순이 더 중요함. 	<p>0 평방,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시 강력 대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0 0일당이 거둬지는 경고 와 남북인민들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굴업도 핵오물장 건설 을 기어이 감행해나선다면 우 리는 그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p>0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개막</p> <p>* 참석 : 박성철, 김중린, 장 철</p> <p>0 『朝總聯』중앙상임위, 북·일 회담 재개 합의서 채택 지지 聲明</p>	<p>0 사이토 日외무차관, 日·北 수교 협상재 개는 경수로협상과 별개라고 발언</p> <p>*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 여당3당과 北 韓노동당간 4당합 의에 따른 대북수 교 협상재개문제는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기와 관계없 이 추진할 방침임.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3	<p>- 오부치 副總裁는 일부 언 론이 日本이 북한 주장에 따라 '북한과 수교협상을 전제조건없이 자주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 보도 했지만, 訪北대표단은 북 한 核문제와 南北對話의 중요성도 논의하였다고 언급</p> <p>○ 孔魯明 외무장관, 한국형 거부시 對北유엔제재 언급 * EU등 16국 대사들에 韓國 입장 전달</p> <p>- 北韓이 끝내 한국형 경수 로를 거부하고 제네바 합 의를 파기, 국제사회에 긴장을 조장할 경우 制裁 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p> <p>- 유엔安保理를 통한 제재 가 있을 경우 각국이 적 극 協調해 주길 바람.</p>	<p>○ 駐유엔 北韓대표부, 경수로 관 련 訓令說(4.2字 보도) 부인</p>	<p>○ 셸리 美 국무부 대 변인, 한국형 불변 강조</p> <p>- 美國정부는 KEDO주 계약자가 한국외에 도 가능하다는 것 을 배제한 적은 없 으나 이것이 韓國 외에 다른 나라가 주계약자가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p> <p>○ 美國무부, 美北연락 사무소 개설 협의차 北韓대표단 워싱턴 도착 발표</p>
4. 4	<p>○ 金泳三 대통령, 한국형 경 수로 원칙 불변 입장 재강 조 * 韓·美·日 고위실무협의 회 참가 대표단 조찬 및 자유총연맹 간부 다과회</p> <p>○ 윤용남 육군참모총장, 전 투준비태세 만전 특별지시</p>	<p>○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 비위, 남측인사들에게 접촉 제 의 편지 발송 (4.6 中放) * 대상 : 이종찬, 강희남, 문규현 이소선, 한완상</p> <p>○ 노동신문, 이기택 민주당대표 방북 실행 촉구 논평</p>	<p>○ 美·英 정상회담, 대북 핵합의 이행 촉구</p> <p>○ 손성필 駐러 북한대 사, 북한은 최소한 경수로 1基는 러시 아의 기술로 건설 희망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4	<p>- 북한의 전쟁불사 위협에 대비, 언제 도발을 자행해 오더라도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어 지시</p>	<p>-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통일도상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임</p> <p>- 남조선의 정치인들이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북의 정치인들과 협의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어떤 난국도 뚫고 나가려는 신념과 결단이 요구됨.</p>	<p>* 리 이타르 타스 통신 보도</p>
4. 5		<p>○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2돌 기념보고회(인민문화궁전)</p> <p>< 양형섭 기념보고 요지 ></p> <p>-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압력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p> <p>- 남조선 인민들은 김 〇 〇일당을 제거하고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비롯하여 민족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을 벌여야 할 것임.</p>	<p>○ 英, 1백만달러 KEDO 운용비 출연 방침 * 주한 영국대사관 발표</p> <p>○ 美하원 아·태소위, '한국 경수로 중심 역할' 결의안 의결</p> <p><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문에 관한 공동 결의안』요지 ></p> <p>-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공급계획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5		<p>0 김용순, '朝·日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3.30)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는 앞으로 열리게 될 조·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3당 공동선언에 의해 열렸던 조·일 두나라 정부간 회담의 계속으로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음. - 합의서 1조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 조기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 정식화 되어 있음. - 합의서 2조는 핵문제, 이른해 문제 등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3조에는 미국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음. <p>0 외교부 대변인, 폴란드주재 대사 등 현지공관원 감축 발표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측이 자기대표단 철수 문제를 인위적으로 쌍무관계와 연계시켜 부당한 조치를 취한 조건에서 우리도 바르샤바 주재 대사를 포함해 현지 일군들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p>임을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의안은 또한△남 북대화 재개△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군사분계선 일원의 북한군사력 감축△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 등을 對北관계 격상의 조건들로 제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5		<p>○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2 돌 즈음 불교도연맹중앙위, 확 대 전원회의 진행 * '남조선과 해외동포 불교도들 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p> <p>- 남조선과 해외동포 불교도들 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8.15민족통일대축전 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 적극 떨쳐 나설 것을 호소함.</p> <p>- 아울러 남조선에서 반통일· 반민족적인 김○○일당을 제거 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조국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열 의 콘크리트장벽을 없애고 새 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 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기를 바람.</p> <p>○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 비위, 남한 각계인사에게 편지 * 대상 : 박찬중, 계훈제, 김성훈 이해학, 홍근수, 김종배 김 선, 노향기, 이태복 정동성 등</p> <p>○ 북한 군사대표단 단장 최 광,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과 회담</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6	<p>0 孔魯明 외무부장관, 韓國型 안되면 對北경수로 지원 불참 표명 * 국회 統一外務委 답변</p> <p>- 정부는 한국형이 배제되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對北경수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p> <p>- 오는 21일까지 협정체결이 안된다고 해서 북한이 5메가와트 재장전등 핵동결 의무를 파기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p>	<p>0 범민련 북측본부의장 백인준, 제3차 범민련 의장단회의 참가차 中國 향발</p>	
4. 7	<p>0 韓·美·日고위실무협외, 한국형경수로 관철 재확인 *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발표(뉴욕)</p> <p>- 한·미·일 3국은 경수로 사업에 있어 爐型은 한국형이어야 하며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하는 등 두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재확인</p>	<p>0 외교부 대변인, 폴란드의 북한 대사관 인원 감축조치 관련 기자회견</p> <p>- 폴란드의 졸렬한 조치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음.</p> <p>- 폴란드 대표단의 철수로 정전기구가 완전히 깨진 조건에서 그 공백을 메꾸는 문제는 우</p>	<p>0 카터 前美대통령, 남북한 지도자회담 주선 용의 표명 * 카터센터 언론 브리핑</p> <p>- 北核 긴장상태 완화에 관한 남북한 지도자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 한반도를 다시 방문할 뜻이 있다고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7		<p>리와 우리의 기본대상인 미국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음.</p> <p>- 지금 우리와 미국사이에 이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임.</p> <p>○ 朝·日우호협회대변인, 日경찰청장 저격사건에 北韓 관련 보도 비난 담화</p>	
4. 8	<p>○ 金泳三 대통령, 한반도 非核 지원 요청 * 한스블릭스 IAEA사무총장 접견</p> <p>- 金대통령은 접견에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IAEA의 핵확산금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IAEA가 남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서도 공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p> <p>- 이에대해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는등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언급</p>	<p>○ 비전향출소자 가족대표단, 南韓의 출소자들과 전화 통화 (北京) * 4.21 中放 보도</p> <p>- 제3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자들에게 요청문을 제출하기 위해 베이징에 간 김인서의 딸 김화심, 김영태의 아들 김용재, 함세환의 조카 백정권으로 구성된 비전향 장기수 가족대표단이 4.8 남조선에 있는 아버지들, 외삼촌과 전화로 상봉했음.</p>	<p>○ 喬石 中國全人大 상무위원장, 남북대화 촉구 * 기자회견</p> <p>- 중국은 남북한 쌍방이 대국적 견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화를 통해 과거의 긴장을 푸는 관계개선노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p> <p>○ 레이니 駐韓美대사, 韓·美간 경수로 관련 전적인 의견일치 언급 * 동아일보 회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8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울진원자로 北에 공개 용의 표명</p> <p>* 울진3호기 원자로설치식 격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오직 남북대화를 통해 동족인 우리가 한국 표준형경수로를 제공할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것임. - 정부는 북한측에게 이곳 울진의 한국표준형경수로를 참관할 것을 허용할 용의가 있음. - 북한은 이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받아들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 마다할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때가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형 경수로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북한이 끝까지 한국형을 반대한다면 경수로거래는 없는 것이고 북한은 경수로를 얻지 못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9		<p>0 金正日 국방위원장 추대 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2.8문화회관)</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김광진(보고)</p> <p>0 제1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4.9-4.18, 2.8문화회관)</p> <p>0 제3차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4.9-4.10 베이징)</p> <p>* 4.23 中放 보도</p> <p>- 범민련 '95사업계획, 해방50돌 민족공동 기념사업, 제6차 범민족대회 개최, 범민련조직 강화, 기타 제기되는 문제 등을 토의하고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과 보안법철폐 특별결의문 채택</p> <p>- 올해 제6차 범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만일 6월말 까지 남한 당국이 개최를 허용치 않을 경우 판문점에서 진행키로 확정</p> <p>0 북한 군사대표단,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p> <p>* 단장 : 인민군 총참모장 최 광</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0	<p>0 統一院 대변인, 江原道의회 의원 김일성 애도편지관련 당국 승인사항 위반이라는 입장 발표</p> <p>- 강원도의회 의원3명이 김일성사망 위로편지를 김정일에게 보낸것은 그것이 설사 북한측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북한주민 접촉신청 및 승인사안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있을수 없는 일임.</p> <p>- 그러나 제3국에서의 학술·문화등 교류는 앞으로 도 계속 허용할 방침임.</p>	<p>0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통보모임</p> <p>* 8.15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부위원장인 조평통 서기국장 백남준의 준비사업 정형보고</p>	<p>0 美·北직통전화 개통</p> <p>* 美AT&T사 발표</p> <p>0 갈루치 美核대사, 미·북 고위급회담 재개 가능성 시사</p> <p>* 조지워싱턴大 초청 강연</p> <p>- 강석주와 다시 만나 경수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폐제하는가라는 질문에 '작년 제네바에서 강석주와 헤어질때 필요하다면 다시 만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주고 받은적이 있다고 답변</p>
4. 11	<p>0 統一院, 安浩相 대중교 총전교의 訪北에 대한 입장 발표</p> <p>- 대중교측의 방북계획은 경수로문제와 북측의 각종 행사를 감안,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정부는 5월이후로 방북일정을 연기토록 만류한 바 있음.</p>	<p>0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남한인사에게 편지발송 (4.11 중방)</p> <p>* 대상 : 김복동, 고 은, 신도성 강연준</p> <p>-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키 위해 빠른 시일내 제3국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고 그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같은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방북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孔魯明 외무부장관, ‘北이 特區설정해서라도 한국형 경수로 수용’ 촉구 * 외신기자클럽 회견 - 韓國型은 트로이 목마가 아니며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공업지대로 개방했듯이 한국형경수로 단지를 설정하여 한정적으로 개방하면 체제유지에 문제가 없을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했음. ○ 조평통 서기국, 한총련 등 사법처리 비난 報道 -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북녘학우들과 자주적인 교류와 접촉을 주장하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위업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심에서 출발한 것으로써 극구 찬양받아야 할 일임.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 金泳三 대통령 7.25-28 미국 방문 발표 ○ 金泳三 대통령, 도 무오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 양국 정상은 폐쇄적이고,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北韓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민련 북측본부 대표단(단장: 백인준) 중국에서 귀환 ○ 남조선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부위원장 백남준,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기자회견(인민문화궁전) - 남조선 당국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비전향장기수들을 계속 억류해두고 있는 것은 인간윤리와 도덕에 대한 모독이고, 국제법규에 대한 도전임. 	○ 미·북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 속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2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핵합의 파기않을 것이라고 언급</p> <p>* 국회 통일대비의원 연구 모임 간담회</p> <p>- 金正일은 북·미제네바 합의를 자신의 大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만큼 쉽게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임.</p> <p>- 북한이 핵문제를 카드화 하고 있는 진짜 목적은 對美관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보임.</p>	<p>0 김정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 분광산 당세포 당원들에게 친필서한</p> <p>* “당은 우리 노동계급을 굳게 믿습니다”</p>	
4.13	<p>0 한국-이집트, 대사급 外交 관계 수립</p>	<p>0 勞動新聞,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문제 해결 촉구 論評</p> <p>- 美國이 협상에서 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경우 조미합의문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음</p> <p>- 朝·美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자면 우선 그에 맞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와 미국사이의 적대관계부터 해소시켜야 함.</p>	<p>0 美WP紙, 美國이 작년 北영변 폭격 검토 보도</p> <p>- 페리 美國방장관이 北韓의 서울불바다 발언이후 영변지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확신이 서지않아 채택되지 않았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3		<p>- 미국이 합의문 이행을 원한다면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의문 이행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p> <p>0 당·정간부들, 다부적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관람(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최 광</p>	
4. 14	<p>0 統一院 대변인, 북한 천도교 중앙위 대변인의 談話 관련 발표문</p> <p>- 北側 발표에 의하면 안호상 일행은 단군릉을 돌아보고 어천절 기념제를 가졌다고 하고 있으나 당초 방문 예정지인 구월산 방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p> <p>- 政府는 이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는 대로 訪北경위와 방북시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처리할 것임.</p>	<p>0 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대변인, 방북 안호상·김선적 귀환관련 답화</p> <p>- 일행은 건강한 몸으로 방문일정을 뜻깊게 보내고 있으며,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4.16 11:30에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게 될 것임.</p> <p>0 金日成 생일 83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평양체육관)</p> <p>* 참석자: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p> <p>0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남한 대종교 총전교 일행과 회담(인민문화궁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4	<p>○ 정부, 訪北 안호상일행 사법처리 방침 확인 * 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p> <p>- 이번 정부의 처리가 향후 유사사태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과 法適用의 형평성을 감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p> <p>-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 일치</p> <p>-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북한이 아직도 본질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로 함</p>		
4. 15		<p>○ 외교부 대변인, 美·北 경수로 제공협상 관련 기자회견</p> <p>- 경수로 제공에 관한 조·미간 제3차 두번째 협상이 4.12~4.13 베를린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음 협상을 4.18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5		0 김일성 생일 83돌 기념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 참석자: 강성산, 박성철, 최태복, 백학립, 김중린 외 0 김정일, 조총련에 교육원조비, 장학금 8,333만엔 송금 * 도합 131차례, 423억9천668만 2,433엔 송금 주장	
4.16	0 訪北 안호상일행 판문점 통과 귀환	0 안호상 일행 訪北動向 종합 (4.11~4.16) - 4.11 평양 도착 - 4.12 단군릉 방문 - 4.13 동명왕릉, 서해갑문 참관 - 4.14 어천절 기념제 " 조선천도교회 성원들과 회담 - 4.15 부주석 박성철과 담화 "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 관람 (김일성경기장) - 4.16 판문점 통과 귀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務部, 한국-이집트 외교 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 발표(카이로) ○ 喬石 중국全人大 상무위원장, 黃路周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카네기재단 해리슨 연구원, 對北 경수로 사업 日 중심 추진 주장 * WP紙 기고문 - 한국은 KEDO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 가운데 한국형 경수로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교착상태타개의 유일한 방안은 日本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수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NPT 재검토 및 시한 연장회의 개막 (유엔본부) - 170여개국 대표가 참가한 이번회의는 5.12까지 계속되며 군축과 안전보장조치 및 핵의 평화적 이용 등 의제별 위원회 활동을 가진 뒤 최종보고서 채택 예정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8	<p>0 金泳三 대통령, 中國에 北核해결 위해 對北韓 설득 노력 요청</p> <p>* 中전인대 상무위원장 喬石 접견시(청와대)</p> <p>- 北美제네바합의가 철저히 이행돼 北韓의 핵의혹이 해소돼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對北설득 노력을 당부</p> <p>- 이에대해 喬石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한 만큼 중국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p>	<p>0 조선천도교회 중앙위원장 유미영, 안호상일행 사법처리 비난談話</p> <p>- 안호상일행의 평양방문은 민족종교인으로서 단군민족의 녀을 되찾고 동포애의 정을 나누려는 지극히 응당한 민족적 감정의 발현임.</p> <p>- 김00일당이 안호상일행을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걸어 탄압하려는 것은 민족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겨레의 염원에 대한 도전이자 반인륜적 행위로 민족앞에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임.</p> <p>0 제1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4.9-4.18, 2·8문화회관)</p> <p>0 4·19 35돌기념보고회 개최 (청년중앙회관)</p> <p>* 참석자: 최태복, 유미영, 염태준 최용해 外</p>	<p>0 미·북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 회담 재개</p> <p>0 대만 중화항공 대변인, 평양-대북 전세기 취항 발표</p> <p>- 대만 교통부가 전세기 취항을 승인했으며 4.26, 5.1, 5.6, 5.11등 4차례 취항 할것임.</p> <p>0 블릭스 IAEA사무총장, 北核 확실한 검증위해 추가접근 필요 언급</p> <p>* NPT평가 및 연장회의 연설 (뉴욕 유엔본부)</p> <p>- 北韓은 아직도 핵안전협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미국과의 핵합의 이행 진전과 핵안전협정 완전 준수를 연계시키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p> <p>- 북한이 NPT의무 준수를 위해 IAEA가 검증할 수 있도록</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8			<p>추가 접근조치가 있기를 기대함.</p> <p>○ 中國 錢其琛 외교부장, NPT 25년 연장 제안</p> <p>* NPT연장회의 연설 (뉴욕UN본부)</p> <p>- NPT가 다단계 시한부로 연장된다면 각 단계의 최소한 시한은 25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언급</p>
4. 19	<p>○ 朴銖吉 유엔대표부 대사, 한국 NPT연장 지지 입장 공식 표명</p> <p>* NPT평가 및 시한연장회의 기조연설(뉴욕)</p> <p>- 핵확산방지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NPT의 無期연장이 바람직 함</p> <p>- 北核문제는 NPT체제에 대한 큰 도전이며 이문제는 IAEA체제내에서 해결되어야 함.</p>	<p>○ 외교부 대변인, 韓·美 합동군사훈련 실시계획 비난 談話</p> <p>- 만일 미국이 朝美 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대로 우리와의 관계개선으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우리 역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다만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동결한데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될것임.</p> <p>- 朝美 사이의 적대적 교전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며,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임.</p>	<p>○ 美스탠턴社, 북한에 화력발전소 10基 건설 방안 타진중 (4.20字 서울신문)</p> <p>* 당국자 언급</p> <p>- 美 발전설비회사인 스탠턴그룹이 최근 북한측에 가동중지 중인 정유공장을 수리·가동하는 방안과 함께 함북 은덕 탄광지역에 20만KW용량의 火電10基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문제해결의 기본방도인 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적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임.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참모본부, 3軍 合同訓練 10월 실시 발표 - 하반기 합동전술훈련을 육군 2개군단을 포함한 육해공군 1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訪北 안호상일행 사법처리 비난 논평 - 안호상일행의 평양방문기간의 활동에서 위법으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유익한 일을 할 데 대해 논의했음. - 김00일당은 온 민족과 인류양심의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호상일행에 대한 탄압을 당장 견어치워야 함. ○ 외교부장 김영남,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향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드 IAEA 대변인, 北영변 査察활동 정상적이라고 언급 * 중앙일보 전화인터뷰 - 현재 통상적인 사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北韓은 영변에 머물고 있는 IAEA사찰관 활동을 제약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美國, 北 核장전시 對北제재 경고 * 백악관 긴급대책회의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1	<p>0 金泳三 대통령, 韓·美·日 공조체제 불변 강조</p> <p>* 憲政會초청 오찬</p> <p>- 對北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韓·美·日간의 공조체제는 매우 확고함.</p> <p>- 北韓은 아직도 권력승계가 이뤄지지 않을만큼 내부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음.</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경수로회담 한국배제는 잘못이라고 언급</p> <p>*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講演</p> <p>- 美·北경수로회담 결렬은 당초 제네바합의 이행의 구도가 美北간회담 형식으로만 진행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남북한 및 미국과의 회담구도로 진행됐어야 문제가 잘 풀릴수 있었을 것임.</p> <p>- 제네바 합의의 기본목표</p>	<p>0 평양축전준비위 사무국장 김관철,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초청 편지 (중앙통신)</p> <p>- 나는 의장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단체 인사들이 평양축전에 참가할 용단을 내린것을 열렬히 환영함.</p> <p>- 나는 평양축전 준비위를 대표해서 강희남의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단체인사들을 명예손님으로 초청하는 바임.</p> <p>- 일행의 평양방문은 판문점을 경유해도 좋고 제3국을 거쳐도 무방하리라고 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1	<p>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의 평화정착·교류의 활성화이며, 이를위해 남북대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럴경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바를 지원할 수도 있음.</p>		
4. 22	<p>○ 外務部 대변인, 美·北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美·北간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정부는 4.21이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목표일자에 불과하다고 보며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구애되어 核동결을 해제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고려,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계속 임하기를 촉구함. - 韓美양국은 북한이 核동결을 유지하는 한 언제든지 協商문호는 열려 있음을 闡明하는 바임. 	<p>○ 外交部 대변인, 美·北경수로 회담결렬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부당하게도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마지막 까지 내려먹이려 한것으로 해서 협상은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될 수 없었음. - 베를린 경수로 제공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美 국무성 순회대사 갈루치는 우리에게 5월 첫주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하자고 제기했음. <p>○ 美·北베를린 경수로회담 北韓 대표단, 평양 귀환</p>	<p>○ 中 외교부 대변인, 美·北경수로회담 결렬 관련 대화해결 촉구 論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2	<p>0 대한불교조계종 대표단, 북한종교인회 위원장 장재철과 5.7법요식 공동개최 논의(북경)</p>	<p>- 우리는 정부급에서 美國측의 진의를 더 알아본데 기초하여 필요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게 될 것임.</p> <p>-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 될 대책은 우리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p> <p>0 祖平統 서기국, 국가보안법 철폐와 안기부 해체 주장 白書 발표</p>	
4. 24		<p>0 인민軍창건 63돌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2.8문화회관)</p> <p>* 참석자: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최 광</p> <p>0 조선종교인협의회, 訪北 안호상 일행 사법처리 관련 규탄 聲明</p> <p>- 안호상 일행의 평양방문은 남조선의 대중교인들을 대표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써 결코 탄압과 박해의 대상으로 될 수 없음.</p>	<p>0 臺灣, 북한과 정부간 공식교류 확대방침</p> <p>* 대만 외교부관계자 언급</p> <p>- 대만은 지금까지 민간에만 국한해왔던 북한과의 교류를 정부간 공식교류에까지 확대하는 對北개방정책을 확정했다고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5	<p>0 金泳三 대통령, 이젠 北 人權에 관심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p> <p>* 근대司法 1백돌 기념식 致辭(사법연수원)</p> <p>- 우리는 금세기가 다가기 전에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통일은 민족적으로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임.</p> <p>- 北韓 주민들은 아직도 진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들의 人權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p> <p>0 孔魯明 외무부장관, 北 강석주 對美서한 사실 확인</p> <p>* 기자간담회</p> <p>- 4.24 강석주 명의의 답신이 한성열 UN대표부 공사를 통해 美국무부에 전달됐음.</p> <p>- 만일 미국형 논의가 전제 조건이라면 회담은 어려울 것임.</p>	<p>0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제 4차 기독교국제협의회 회의 진행(일본 교토)</p> <p>- 8.15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북남, 해외교단들이 참가하는 희년공동예배 개최기로 합의</p> <p>0 金正日, 인민군창건 63돌즈음 인민군 제1017군부대 방문</p> <p>* 영접 : 최 광, 이을설, 김광진 이하일, 조명록, 이봉원</p> <p>0 당·정 고위간부들, 인민군 창건 6돌 맞아 군부대 방문, 김정일 선물 전달</p> <p>* 참석 : 박성철, 한성룡, 서운석, 홍성남, 홍석형, 연형묵, 황장엽, 김중린 외</p>	<p>0 옴차렉 波 中監委 대표, 中監委 역할 지속 입장 표명</p> <p>- 남북간협의를 통해 정전협정이 平和協定으로 대체시까지 중감위 기능을 유지할 것임.</p> <p>0 美WP紙, 北 核개발 중단 보도</p> <p>* 美CIA 비밀보고서 인용</p> <p>- 北韓이 초기단계에서 核시설폐기와 폐연료봉을 이전키로 한 기본합의문 내용에 반발하거나 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p> <p>- 北韓이 핵분열물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은밀히 개발했을 경우에 한해 기존 핵무기계획을 폐기할 것임.</p> <p>0 갈루치 美핵대사, 北 강석주에게 답신</p> <p>* 4.26 번스 美 국무부대변인 확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爐型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두문제에 관한 적당한 타협은 없을 것임 ○ 海軍, 對潛초계기 P-3C 첫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식(포항) - 海軍은 지난 91년 美록히드社로부터 도입키로한 P-3C機 8대중 최근 2대 인수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 대통령, 對北경수로 제공 관련 韓國의 중심적 역할 원칙 재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간담회 - 경수로는 반드시 한국형이어야 하며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것임. - 강석주부부장이 갈루치국 무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낸것과 관련 美國측에 무조건 만나 얘기하도록 답신을 보내도록 했음. - 경수로 문제는 21일이 절대적 시한은 아니며 시간이 걸려도 결과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보호위원회 대변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구상 비난 談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찾아다니며 부산을 떨고 있음. - DMZ에 대한 관할은 우리와 美國만이 할수 있으며, 미국은 우리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함. - 남조선은 진정 우리와 DMZ를 공동개발하고 평화지대화하기를 바란다면 분열의 장벽인 콘크리트장벽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臺灣여객기 평양 첫 취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6명의 대만인 관광객과 승무원15명 등 총241명을 태운 대만의 보잉전세기가 26일 상오 7시 55분 평양에 도착 ○ 갈루치 美핵대사, 美北고위회담의제 경수로문제에 국한방침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방송 회견 - 고위회담이 열리면 경수로문제에 국한할 것이며 北측이 미북기본합의의 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가 중심이 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남북대화가 이뤄질 것임. ○ 金泳三 대통령, 北韓 결국 한국형 수용 전망 * 美 CNN 특파원 인터뷰 - 美·北간 경수로 협상과 관련 北韓이 우리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북한은 매우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받아들일 것임. - 北韓이 이번에는 核협상의 조건들을 규정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北韓이 核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상실해도 될 만큼 여유있는 것은 아님. - 韓國의 중심적역할과 의미있는 南北對話가 필수적이며 이같은 대화가 없을 경우 모든 사업계획이 불가능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아태평화위·新日本프로레스링주식회사, 평양축전 관련 共同記者會見(고려호텔) ○ 祖平統 서기국, 韓·美 합동훈련 실시계획 비난 보도 	<p>정이나 변형을 요구하거나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거론해올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核동결을 유지하는한 경수로 문제가 타결되지 않더라도 美國과 北韓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절충이 계속될 것이나 北韓이 核합의를 깨고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美國은 유엔을 통한 단호한 제재를 취할 것임을 北측에 통보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7	<p>0 國防部, 北측의 의도적 정전협정위반 對北 경고문 전달</p> <p>* 4.28 서울신문 보도</p> <p>- 北韓軍의 최근 남측지역 침범과 관련 정전협정위반이 재발될 경우 北韓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對北 경고문을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발송했음.</p>	<p>0 勞動新聞, 美·北경수로협상 결렬 책임 美國에 전가 論評</p> <p>- 美國이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집하며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사항들을 강요하여 나선것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끼고 우리를 압살하지는 것임</p> <p>- 美國이 우리에게 정치협상을 제기해 왔는데 우리는 그 진의를 알아보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p>	<p>0 유엔주재 北韓대표부 한성열공사, 核동결 일부 해제 시사</p> <p>* 연합통신 전화 인터뷰</p> <p>- 美國이 경수로爐型 문제에서 입장변화가 없으며 고위회담이 열리더라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핵동결을 일부 해제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임.</p> <p>0 카터 前美대통령, 南北정상회담 주선용의</p> <p>* 크릭모어 카터 센터 프로그램 책임자 브리핑(워싱턴)</p> <p>- 南北韓 당사자들이 요청하고 유용한 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카터 前대통령이 남북정상 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음.</p> <p>0 갈루치 美 核대사, 北, 美업체와 경수로 상담 사실 확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7			<p>* 美민주당 전국여성 클럽 초청강연 (워싱턴)</p> <p>- 우리는 해당업체들이 北측과 경수로 판매상담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음.</p> <p>- 北韓이 한국형 경수로를 피하기 위해 美國뿐만아니라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경수로 생산업체들과 접촉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p>
4.28		<p>0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개막 (5·1 경기장)</p> <p>0 金正日,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 수행 : 계응태, 전병호,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p>	<p>0 美국무부, 北韓을 국제 테러지원국 분류</p> <p>* 월콕스 反테러담당 조정관 정레브리핑</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9		<p>0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폐막(5·1 경기장) * 참석: 박성철, 홍성남, 황장엽, 김중린, 김용순</p> <p>0 平北학생위원회와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 『共同聲明』 발표 * 5.4 中·平放 보도</p> <p>- 北南의 청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맞아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p> <p>- △국가보안법 철폐△朝美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방안 지지 등 주장</p> <p>0 외교부장 김영남, 비동맹 외상회의 참석후 귀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30		<p>0 당 중앙위, 노동당 창당 50돌 즈음 '구호' 발표</p> <p>-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체제결속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총 281개 구호를 발표</p> <p>0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가족들, 평북취재 외국기자들과 會見</p> <p>- 우리측은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美軍유골까지도 돌려보내 주었으나 미군측은 아직도 살아있는 포로들을 돌려 보내지 않고 있음.</p> <p>- 지난해 말 美軍직승기 조종사 송환과 관련한 우리와 미국간 회담에서 美國측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에 협력키로 약속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오늘 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음.</p> <p>0 5·1절 10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강성산, 이종욱, 김영남, 한성룡</p> <p>* 남조선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		<p>0 黨·政간부들, 5.1절즈음 각지의 공장 방문 근로자 위문 * 참석 : 이종욱, 박성철,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철만, 최영림, 양형섭</p>	<p>0 번스 美국무부 대변인, 北, 고위급회담 개최 수락 발표 * 정례브리핑</p> <p>- 강석주 副부장이 갈루치 核대사에게 보낸 회신을 접수했으며, 北韓이 전제조건없이 고위회담개최에 동의했음</p> <p>0 허바드 美국무 副차관보, 기술적 문제 해결시 연락사무소 개설 언급</p> <p>- 連絡事務所 개설이 경수로협상, 南北대화등 여타요소들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連絡事務所를 개설할 것임.</p> <p>0 갈루치 美국무부 核대사, 한국형경수로 관철 방침 언급 * 중앙일보 회견</p> <p>- 美國은 경수로문제의 경우 韓國이 설계·제작·건설·재원조달을 담당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			<p>고 KEDO에서 중심적역할을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음.</p> <p>- 北韓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韓國이 이를 수용한다면, 美정부는 경수로 공급방식에서 적절한 용어의 선택과 사용을 추진할 것임.</p>
5. 2	<p>○ 外務部, 北 고위급회담 수락 관련 당국자 論評</p> <p>- 北韓이 美國의 고위급회담 제의에 전제조건없이 동의해 온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회담 개최 시기, 장소에 관해서는 美·北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p> <p>- 정부는 동 회담에서도 對北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한국형과 우리의 중심적 역할 입장을 고수할 것임</p>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경수로문제 해결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언급 * 기자간담회</p>	<p>○ 勞動新聞,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문민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방</p> <p>○ UN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한성렬, 美·北회담서 평화협정 체결문제 제기 방침 언급 * 日 요미우리신문 전화회견</p> <p>- 이번 정치회담에서는 美대통령 서한을 통해 약속했던 경수로 제공 보증의 발동, 朝·美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미군철수 문제 등이 토의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核동결 합의를 깨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급회담이 기약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나, 문제 해결을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院, 종교인 8명 訪北 승인 - 김상진 신부, 홍정길 목사 등 천주교와 기독교 남북나눔운동관계자의 방북을 승인 - 5.15~6.20기간중 일주일간 예정으로 제3국 경유, 북한을 방문하여 나진·선봉지역의 교회와 병원 건립 등을 협의할 예정 ○ 宋月珠 조계종 총무원장, 北에 조국통일기원법회 관련 실무협의 提議 * 平佛協 방북대표단 기자회견 - 北韓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오는 8.15판문점에서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를 갖자고 제의해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軍 판문점대표부, 중감위 사무실 폐쇄 및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출입제한 조치 聲明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미국측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제안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과 휴게실, 오락실을 완전히 봉쇄함. - 미군측 성원들과 기자들, 중감위 성원들이 허가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일체 금지함. - 미국측이 비무장지대 남측지대에서 남조선의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鵬 中國총리, 美·北핵협상 지원 용의 표명 * 무라야마 日本총리와 회담(북경) - 美·北고위급회담 재개를 환영하며 필요하다면 中國이 核합의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의사가 있음. - 중요한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배척하지 않고 동료로서 가입시키는 것임. ○ 레이니 駐韓美대사,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 * 美 Asia society 초청 연설 (워싱턴)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23일 北京주재 北韓 대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명칭·참가대상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 ○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 위, 제3차회의 개최 -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북, 남, 해외의 민족공동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협의 ○ 汎民聯 해외본부 사무총장 임민식, 내외신 기자회견 (인민문화궁전) - 汎民聯은 올해 진행하게될 조국해방 50돌경축 대축전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민족공동의 대화로, 90년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는 역사적 통일대축제로 되게 하기 위해 힘을 집중할 것임. - 범민족대회는 統一原則을 확인하고 통일방도인 聯邦制를 천명하고 당면 통일투쟁을 결의하는 장임. - 50돌경축 통일대축전은 7천만 동포들의 통일의 열의를 올리고 통일에 합심하자는 목적임 ○ 『祖平統』서기국, 대구 가스 폭발사고 관련 대남비방 報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對北정책의 근간은 北韓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南北對話가 중요함. - 南北접촉 재개는 반드시 정상회담일 필요는 없으며, 문화, 학술교류나 경제인 방문 등의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임. ○ 美프리티덤하우스, 北, 非언론자유 國家群에 분류 * 각국별 언론자유 실태보고서 발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4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주석 취임시 南北頂上會談 가능 언급 * 駐韓 일본특파원 기자간담회</p> <p>- 정상회담은 北韓이 편지를 보내 유고로 연기한다고 했으므로 北韓에 새주석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임.</p> <p>- 日·北 수교는 통일에 도움이 되고 남북대화가 이뤄지는데 따라 생각할 문제임.</p> <p>0 統一院 대변인, 北韓의 中監委 사무실 폐쇄 聲明 관련 論評</p> <p>- 北側의 이번 조치는 現정 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보장 체계를 美·北간에 교섭해 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임.</p> <p>- 南北간에는 이미 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現군사정 전협정을 준수키로 합의 하였음.</p> <p>- 따라서 남북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평화</p>		<p>0 中監委 폴란드·스위스·스웨덴 대표단, 중감위활동 계속 수행 공동결의문 채택</p> <p>- 北韓의 축출로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철수한 폴란드대표단은 바르샤바에서 활동을 계속함.</p> <p>- 中監委는 폴란드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음.</p> <p>- 폴란드대표는 앞으로 3개월마다 또는 필요시 한국을 방문, 中監委회의에 참석함.</p> <p>0 英 국제전략연구소, 金正日 주석승계 않으면 장기집권 가능성 희박 전망 * 94-95 연례보고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4	<p>체제로 전환될때까지 정전협정 위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수 없으며 정전협정 무효화 책동을 즉각 중지해야 함.</p> <p>0 駐韓 유엔군사령부, 北中監委사무실 일방폐쇄 관련 경고 聲明</p> <p>- 北韓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의 토대를 허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임.</p>		
5. 5		<p>0 당중앙위 구호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김일성 광장)</p> <p>* 참석 : 이종옥, 한성룡, 최태복, 홍성남, 홍석형 外</p> <p>0 勞動新聞, 90년대 통일실현 강조 (社說)</p> <p>- 분열장벽을 허물고 90년대에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은 험난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임.</p>	<p>0 번스 美國무부 대변인, 北韓의 中監委 사무실 일방폐쇄 관련 論評</p> <p>* 정례브리핑</p> <p>- 北韓의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 의도를 보여주는 일방적조치로 우리는 이에 찬성할 수 없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6		<p>0 勞動新聞, 베를린 경수로 협상 결렬 책임 美國에 전가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집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들을 강요해 협상이 결렬되었음. - 우리는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합의문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임. <p>0 平放,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는 자들은 대화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p>	
5. 7		<p>0 中·平放, 『범청학련』공동의 장단회의(3.31~4.2) 합의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총련 제3기출범식을 계기로 94년도 운동평가 및 95년도 사업기조와 방향, 정치·조직적 과제 제시 <p>0 勞動新聞, 美國무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목 관련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려는 속심' 이라고 비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8	<p>0 韓·美 합동전개훈련 (5.8~5.21)</p> <p>- T/S훈련 대신 『美軍의 한반도 전개훈련』(RSOI)의 규모를 확대해 실시하며, 8천여명의 미군과 4천5백여명의 한국군 병력 참여</p>	<p>0 외교부 대변인, 美·日の 전역 미사일 방위체계 구상 비난 기자회견</p> <p>- 요즈음 미국과 일본의 보수세력들이 우리의 이른바 미사일 문제를 걸고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음.</p> <p>- 이것은 저조해 가는 저들의 군수산업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임.</p> <p>- 전역미사일 방위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朝·美 기본합의문과 朝·日회담 재개를 위한 4당합의서의 정신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p> <p>0 中放, 韓·美합동군사훈련 실시 비난</p> <p>- 이번 전쟁연습은 평화를 유린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더욱더 이끌어 가기 위한 모험적인 불장난임.</p> <p>- 만일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인민은 도발자들에게 천백배의 준엄한 징벌을 안길 것임.</p>	<p>0 갈루치 美핵대사, 美北고위급회담 협의차 來韓</p> <p>0 브릭스 IAEA 사무총장, 북, IAEA 핵협정이행 계속 거부 보고</p> <p>* UN안보리 서면보고</p> <p>- 북한측의 거부로 5MW 실험용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연료봉에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내기 위한 측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음</p> <p>0 갈루치 美국무부 핵대사, 美·北회담 평양 개최제안 거부 對北 서한</p> <p>* 셀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확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9	<p>0 金泳三 대통령, 北정세 혼미 挑發 적극대비 지시</p> <p>* 청와대 확대국무회의</p> <p>- 北韓의 내부정세가 계속 혼미한 상황을 보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韓·美군사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p> <p>- 北韓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對美 외교공세를 전개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자극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p> <p>- 北韓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안보부처간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南北간 해결문제라고 언급</p> <p>*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위원 다과회</p> <p>- 平和는 힘이 있을때만 가능하며 우리는 단호한 힘의 우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p>	<p>0 조선 아·태평화위 대변인, 평양축전 관련 談話</p> <p>- 나는 평양축전의 성과를 헐뜯어 보려하는 남조선의 모략책 등을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로 인정, 이를 단호히 규탄함.</p> <p>0 北韓 불교도연맹 중앙위, 訪北 안호상 일행의 구속관련 비난 談話 발표</p> <p>- 안호상 총선교 일행에 대한 金00일당의 탄압행위를 반종교적,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또 하나의 엄중한 죄악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렬히 규탄함.</p> <p>0 『汎靑學聯』북측본부, 『韓總聯』前의장 징역 구형과 관련 비난 聲明</p> <p>- 金00이 아무리 날뛰어도 韓總聯의 애국위업은 멈춰 세울수 없으며 청년학생들의 성스러운 반정부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명함.</p>	<p>0 유엔주재 北韓대사 박길연, NPT회의 不參 通告</p> <p>* 5.10 조 실즈 유엔 대변인 확인</p> <p>- 박길연은 자안타 NPT회의 의장에게 書翰을 보내 이번 회의가 일부 불순 세력에 의해 北韓을 반대하는데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不參을 通告해 왔음.</p> <p>0 中國, 北특파원 골동품 밀반입혐의 강제추방</p> <p>* 5.10字 서울신문 보도</p> <p>- 中國외교부는 北韓 노동신문 韓京魯북 경특파원을 불상2점을 中國에 밀반입 하려한 혐의로 강제추방령을 내렸다고 보도</p> <p>0 日 국회, 『戰後 결의』 채택</p> <p>* 중의원 본회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9	<p>- 北韓은 최근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對南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은 물론 비무장지대를 두 번씩이나 침범,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있음.</p> <p>- 北韓은 경수로보다 美國과의 평화협정체결 및 美軍撤收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은 南北韓 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임.</p> <p>○ 金泳三 대통령, 北核문제 해결 中國협조 당부 * 郭超人 中 신화통신사 사장 접견</p> <p>- 北韓은 核문제해결을 위해 韓國型 원자로를 받아들이고 韓國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것이라며 中國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p> <p>○ 政府, 전염병 예방백신 北에 무상지원 검토 * 주경식 보건복지부차관 발표</p> <p>- 北韓이 최근 홍역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백신</p>		<p>○ 케네스 美國방부 대변인, 北 핵동결 지속 확인 * 정레브리핑</p> <p>- 北韓이 현재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비점검은 계속하고 있으나, 核연료 재장전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9	<p>25만달러 상당을 향후 5 년간에 걸쳐 무상지원 해 줄것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요청했으며, WHO본부는 韓國이 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타진해와 정부는 이에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전달했음.</p> <p>○ 李洪九 국무총리, 李鵬 총리 초청으로 중국 공식 방문 (5.9~5.15)</p>		
5.10	<p>○ 李洪九 국무총리, 對北경수로 제공 관련 中國측에 對北설득 요청</p> <p>* 李鵬 총리와 회담 (북경)</p> <p>- 양국 총리는 회담에서 北 韓核과 경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아·태지역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평화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p> <p>- 경수로와 관련, 韓國型和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기존입장을 中國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p> <p>- 또한 北韓이 中監委사무실을 일방폐쇄 한데 대해</p>	<p>○ 勞動新聞,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p> <p>- 다당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합할 수 없는 모순을 은폐하고 피착취계급에 대한 착취계급의 지배를 확립하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양식을 적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음.</p> <p>- 자본주의 정치양식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에 도입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인민정치 구조를 파괴하고 자본주의 정치구조를 부활시키는 반혁명적 행위임.</p>	<p>○ 갈루치 美 핵대사, 對北경수로 공급 主계약자로 韓電 선정 시사</p> <p>* 기자회견</p> <p>- 경수로제공 관련 주계약자는 KEDO가 선정할것이며 KEDO는 이미 한국전력과 협의에 들어갔음.</p> <p>○ 中 全人大 상무위, 北核 대화해결 촉구 보고서 채택</p> <p>* 喬石 상무위원장 韓 日순방결과 보고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0	<p>우려를 표시하고 中國측이 적극적으로 對北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p> <p>0 韓·美·日, 미·북회담 대비 고위실무협의</p> <p>*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갈루치 美국무부 핵대사, 앤도 日외무성 대사 참석</p> <p>< 공동언론발표문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정부는 美·北합의가 완전하고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 美·北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생산적이고 일관된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3국 정부는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 韓國의 중심적 역할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 3국 정부는 또한 대화를 통한 南北韓 관계의 개선이 美·北합의의 완전한 이행 및 韓半島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核문제와 관련, 관계 당사국들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0	<p>하였음.</p>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정상 회담 가능성 언급 * 日마이니치신문 사장 회 견</p> <p>- 北韓은 지도력 공백상태 하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對南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南北관계개선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p> <p>- 北韓 주석이 취임하면 南北정상회담도 가능할것임</p> <p>0 金壽煥 추기경, 訪北 의사 표명 * 기자인터뷰 (독일)</p> <p>- 귀국하는 대로 訪北절차 등을 統一院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임.</p> <p>- 광복50년인 올해 北韓의 신자들을 만나보겠다는 것이 나의 계획이며, 北韓이 초청장을 보낼 경우 미사집전등 신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명시해야 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1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한국형 명칭 양보 불가 표명 * 기자간담회</p> <p>-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로는 韓國型을 의미하며, 참조발전소로 올진 3·4호기가 명시되고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제약자로 되어야 함.</p> <p>- 北韓이 한국형을 받아들인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명칭을 양보할 수는 없으나, 韓國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된다면 표현법은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p> <p>- 평화협정문제는 南北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美·北고위급회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회담 재개 관련 記者會見</p> <p>- 우리는 미국측의 입장을 고려해 회담에 응하기로 했으며, 현재 쌍방은 회담장소와 시일 문제에 대해 토의중에 있음.</p> <p>- 우리는 앞으로 열리게 될 회담에서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에 관한 미국측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경수로형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p> <p>- 미국측이 어떤 태도로 회담에 임하는가에 따라 회담결과가 좌우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p> <p>- 우리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잠정적으로 핵동결을 더 유지하게 될 것임.</p> <p>0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방북 안호상 구속 비난 聲明</p> <p>0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 송환운동 전개 관련 '통보' 발표</p> <p>0 『韓民戰』중앙위 청년학생국, 반정부투쟁 선동 '격문' 발표</p> <p>0 北韓, 최근 『보험법』 제정 * 5.11字 민주조선 보도</p>	<p>0 NPT연장회의, NPT조약 無期限 延長결정 (뉴욕 유엔본부)</p> <p>0 조셉 나이 美국방차관보, 北 제공 경수로로 韓國型 고수입장 강조 * 일본 Society 초청 연설 (뉴욕)</p> <p>- 美國은 北韓이 제네바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을 것임.</p> <p>- 특히 北韓은 필히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야 하며 경수로 건설에 있어서도 韓國의 중심적 역할을 수용해야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2	<p>0 李洪九 국무총리, 北韓은 대세를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p> <p>* 기자간담회(북경 釣魚臺)</p> <p>- 韓·中양국이 한반도정전 체제 유지 및 군사교류확대에 합의한 것은 北韓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지만 대세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p> <p>- 北韓도 대세가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하고 살길을 찾아야 할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조치 강행 표명 談話</p> <p>- 美國이 국무성대변인과 유엔 군사령부 대변인을 내세워 마치 우리가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있으며, 자기들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가 아닌 듯이 여론을 오도하며, 우리의 조치를 걸고든 것은 어이없고 온당치못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p> <p>- 현시기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보다 더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없으며 우리는 美國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 함.</p> <p>- 美國이 우리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을 무시하고 남조선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응조치가 있게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함.</p>	<p>0 랜더 國際赤十字社 연맹 총재, 南北이 산가족상봉 주선의사 표명</p> <p>* 기자회견</p> <p>- 12일 金泳三大통령을 만났을때와 몇달전 평양을 방문해 北韓의 이종욱 부주석을 만났을때에도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음.</p> <p>- 국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南北韓離散家族들이 서로 만날수 있도록 연맹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3	<p>0 金泳三 대통령, 北 인권·언론상황 관심 당부 * 국제언론인협회(IPI) 회장단 접견</p> <p>- 세계적인 자유화, 민주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자유가 남아있는 북한에 대해 IPI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p>	<p>0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 訪北 안호상 일행 구속 비난 성명</p> <p>0 勞動新聞, 세계식량위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報道</p> <p>- 식량위기는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 있음.</p> <p>0 中放, 국제공조체제가 아니라 '민족공조체제' 채택 주장</p> <p>- 남조선의 김○○ 괴뢰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외세와 공조체제 수립이 아니라 우리와 민족공조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길로 나와야 함.</p>	<p>0 日산케이, 北 해외 관광객 入國 중단 조치 보도 * 외교소식통 인용</p> <p>- 日本내의 北韓창구인 조총련은 지난 8일부터 北韓입국 희망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지했음</p>
5.15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 곡물 및 물자 제공 용의 표명 * 국제언론인협회(IPI) 제 44차총회 개최식 연설</p> <p>- 北韓주민의 人權문제는 국제언론인협회의 理想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함.</p> <p>- 北韓체제의 안정과 질서 있는 변화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그런차원에서 우리는 北韓이 필요</p>	<p>0 『祖平統』, 자유민주주의체제 하 통일론 비난 聲明</p> <p>- 남조선 당국자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이미 파산한지 오래인 승공통일론의 재판임.</p> <p>-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론을 자기 입으로 취소하여야 함.</p>	<p>0 번즈 美 국무부 대변인, 美·北 준고위급회담 5.19 콜라뽀르 개최 발표 * 정례브리핑</p> <p>0 美국무부, 美·北 準고위급회담시 평화협정문제 논쟁의 입장 확인 * 對언론 설명자료</p> <p>-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간 해결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5	<p>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임.</p> <p>- 우리는 南과 北이 함께 번영하는 한민족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北韓核문제에도 불구하고 對北경제협력을 확대하고 北韓의 경수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키로 한 것도 이런 취지임.</p> <p>○ 孔魯明 외무부장관, 北 한국형경수로 수용의 대안 不可 강조 * IPI주최 세미나 연설</p> <p>- 北韓은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거부하고 있으나 韓國이 경수로 건설비의 큰부분을 부담하는 이상 北韓이 한국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p> <p>- 北韓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탈피를 위한 서방과의 관계개선은 불가능할 것임.</p> <p>○ 外務部 대변인, 中國의 核 실험 유감 論評</p>	<p>- 남조선 당국자가 감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꿈꾸고 국제공조체제와 국가보안법에 매달리면서 분별없이 반공화국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용납못할 민족반역행위임.</p> <p>○ 『韓民戰』선전국, 굴업도 핵 폐기물처리장 건설관련 호소문 발표</p>	<p>문제임. 美國은 남북한이 원한다면 이를 도울 용의가 있으나 결코 북한과의 兩者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p> <p>- 현 軍事停戰委가 군사접촉을 위한 적절한 채널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현재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고 지난 5.11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된 이후에 中國이 오늘 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정부는 세계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핵비확산 및 핵군축 노력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함. 		
5.16	<p>○ 統一關係長官會議 개최 * 8.15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방침 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 회의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문제 관련, 한국표준형 제공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보장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 - 對北교류 및 통일관계 행사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指針 마련 	<p>○ 中放, 남한당국의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방침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北과 南의 그 어떤 사소한 접촉도 차단하고 北과 南을 완전히 격폐시키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임. - 김 〇 〇 일당은 조국통일의 극악한 원수라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보였음. - 北南對話요, 뒤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사가 털끝만치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음. 	<p>○ 北, 對서방 교역액 中·러 추월</p> <p>* 대한무역진흥공사 발표, 『94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5.17字 서울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94년 對서방 교역액은 12억4천만달러로 中·러 등 옛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액(8억3천만달러)을 처음으로 추월했음. <p>○ 갈루치 美핵담당 대사, 北 핵동결 유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경제협력은 극도의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승인해나간다는 기존입장 재확인 - 北韓 주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대책 실무조정회의』를 구성·운영 ○ 統一院, 대북교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 -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북교류 및 통일관련 행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對北접촉·교류 허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논의내용의 순수성 ② 대표성 ③ 범질서 존중 ④ 남북관계 개선 기여 - 민간통일 논의·행사추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치성 행사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民戰』평양대표부, 광주 민주화운동 15돌즈음 반정부투쟁 선동 記者會見 ○ 北,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을 캄보디아 대사로 임명 * 5.16 中放 보도 ○ 『祖平統』서기국, 김숙희 교육부장관 해임 비난 報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면 여타 합의사항 계속 이행 언급 * 조선일보 회견 - 北韓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核동결만 계속 유지한다면 연락사무소 개설등 다른 합의이행은 계속 진행될 것임. - 영사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美·北 연락사무소는 개설될 수 있을 것임. ○ 국제언론인협회, 북한개방·언론자유 촉구 결의문 채택 * 제44차 연례총회 (서울) - 북한정부에 대해 △사회를 개방하고 모든 언론인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여행보장 △언론과 의사소통의 자유 허용 △이산가족간 공개적인 교신보장을 강력히 촉구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6	<p>② 전국규모 옥외행사 불허</p> <p>③ 판문점 행사 불허</p> <p>0 韓·카자흐 정상회담, 韓半島비핵화 공동노력 합의</p> <p>* 金泳三大통령-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회담(서울)</p> <p>- 양국의 核비확산정책이 지역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p>		
5.17	<p>0 統一院, 남북경제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p> <p>* 對北직접투자 첫 승인</p> <p>- 高合物産의 의료·봉제, 직물, 이불·솜, 수지병 등 4개사업의 協力事業者 신청과 大字의 남포공단 내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사업의 協力事業 신청을 승인</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板門店을 남북교류 통로로 활용 언급</p> <p>* 판문점 시찰시</p> <p>- 판문점을 남북간 경제·</p>	<p>0 『祖平統』대변인, 金泳三大통령의 IPI총회 등에서의 발언 비난 聲明</p> <p>- 北의 대외개방이 어떠하다느니, 대남적대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느니, 지어 人權이라는 것을 걸고들면서 극히 도발적이고 오만불손한 망발을 늘어 놓았음.</p> <p>- 朝·美회담을 앞두고 우리를 헐뜯는 방법으로 상전의 회담 자세를 사전 견제해 보려는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음.</p> <p>- 현실은 김○○ 역도를 가지고서는 남조선의 내부문제는 물</p>	<p>0 北, 태국쌀 5만t 도입說</p> <p>* 동아일보, 방콕소식통 인용 보도</p> <p>- 금년초 태국으로부터 30만t의 쌀을 도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5월사이 1차로 5만t의 쌀을 수입했다고 보도</p> <p>0 獨한스블라트誌, 독일기업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7	<p>사회문화 교류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정전협정을 잘 이행해서 판문점을 평화보장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긴요함. - 군사지역인 판문점에서 공동예배 등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됨. <p>○ 海軍, 5번째 국산 잠수함 『李從武함』진수</p> <p>* 1천2백t급 최신 디젤함, 최대속력 시속 22노트</p>	<p>론 北南관계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줌.</p> <p>○ 정무원, '黨중앙위 구호' 관철 위한 『결정』 채택 (최근)</p> <p>* 5.17字 민주조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구호 관철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 등 분야별 수행과제·방법을 제시 <p>○ 『광주인민봉기』15돌 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평양체육관)</p> <p>* 참석 : 이종옥, 최태복, 양형섭, 김용순, 박남기, 유미영, 이정상, 백학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기업간 경험 단체인 동아시아협회(OAV)는 연방상공회의소 및 8개기업의 공동지원을 받아 평양에 곧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임.
5.18	<p>○ 政府, KEDO 한국분담금 첫 집행 결정</p> <p>* 차관회의, 예비비지출 승인안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에 대한 우리측의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금 1백80만달러를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결정 <p>○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北韓인권·이산가족대책특별위원회』설치 방침</p> <p>* 朴相範 사무총장 발언</p>	<p>○ 노동신문, 對美 평화협정 체결 재주장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사이에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미국의 호전계층이 전쟁모험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합의문이행을 가로막고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것임. - 평화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p>○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對北 중유 추가제공 연기 언급</p> <p>* 상원 세출위 대외 활동소위 증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제공계획이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타결될 때까지, 우리는 중유제공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지 않고 추가적인 重油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8	<p>- 北韓의 인권향상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음.</p>	<p>를 수립하는 것임.</p> <p>-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여기에 朝·美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음.</p> <p>○ 美·北회담 참가 북한대표단, 평양 출발 * 단장: 김계관(외교부 부부장)</p>	<p>※ 美 국무부, 크리스토퍼 장관 발언 공식 해명</p> <p>-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음.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계속하는한 美國은 기본합의문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임.</p> <p>○ 와타나베 前日외상, 對北 쌀 수출 시사 * 자민당 자파 연구모임 발언</p> <p>- 일본의 남아도는 쌀을 파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음. 당시 북한과의 회담에서 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2백만t 가량 부족한 것 같았음.</p> <p>○ 베이커 前美 국무장관, 美·北 핵합의는 실패작이라고 비판 *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찬 강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9	<p>○ UN司, 북한에 군정위틀내 장성급접촉 제의 * 5.21 국방부 대변인 확인</p> <p>- 5.19 판문점 일직장교 접촉을 통해 장성급 접촉을 5.23 군정위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UN司 스미스 소장의 書翰을 전달</p> <p>○ 韓·러 국방장관, 정전협정 준수 합의 * 李養鎬 - 그라초프 장관 회담 (서울)</p> <p>-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남북한간의 직접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동 인식</p> <p>- 그라초프 장관은 61년 北·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명시된 『자동개입조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낡은” 조항이라며, 오는 8월 북한에 이같은 뜻을 통보하겠다고 발언</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팔라툼푸르 도착 聲明</p> <p>- 이번 회담은 결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결심을 내리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p> <p>○ 노동신문, 판문점 남북공동집회 불허조치 관련 반정부투쟁선동 (論評)</p> <p>- 민족의 염원과 인민의 지향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삼는 김 ○ 일당을 전민족적으로 징벌하고 타도해 버려야 함.</p>	<p>○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평화협정 논논의 언급 * 팔라툼푸르 도착 회견</p> <p>-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 해결할 사안임.</p> <p>- 美·北 연락사무소 문제는 제네바 합의 이행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0	<p>0 金泳三 대통령, 北의 정전 협정 무력화 우려 표명 * 그라초프 러 국방장관 접견시</p> <p>- 최근 북한은 판문점 중감위와 군정위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p> <p>-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p>	<p>0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관련 비상회의 개최 (평양) * 참석 : 김용순, 백인준, 안병수, 유호준, 백남준</p> <p><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採擇></p> <p>- 통일대축전의 앞길에 내려진 차단봉을 단호히 제거하는 것은 北과 南,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 겨레앞에 나서는 당면과제임.</p> <p>- 투쟁으로 문민파쇼의 간악한 책동을 짓부시고 투쟁으로 통일대축전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자.</p> <p>0 『祖平統』서기국, 남한당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학생 단속 비난 보도</p> <p>0 黨·政 간부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관람 (2.8문화회관) * 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최 광, 전병호, 김철만 外</p>	<p>0 美·北 준고위급회담 개막 (칼라룸푸르) *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김계관 北외교부 부부장 참석</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1	<p>○ UN司, 對北 장성급 접촉 제의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停委 구조를 통한 정전 체제의 유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 국과 수개월간 협의해 왔 음. - 우리는 장성급 접촉이 긍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믿음. 		<p>○ 日지지통신, 美, 주 한미군 증강 착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정부소식통 인용 - 美國은 핵협상을 둘러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군사력 증강계획의 첫단계에 돌입했음.
5. 22		<p>○ 노동신문, 한국형경수로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들이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조차도 기술과 능력이 떨어져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를 빚어내어 개코망신만 당 하는 주제에 표준형원자로요, 중심적 역할이요 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유명광고를 내돌리는 것으로서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에 장애를 조성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짓임. <p>○ 北, UN司측의 장성급접촉 제의 에 추후 연락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3日 서울신문, UN司 관계 자 인용 보도 	<p>○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일직장교접촉에서 “제 의에 대해 답변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므로 평양의 지침을 받는대로 연락하겠다”고 통보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會議, KEDO 운영비중 한국분담금 1백80만달러 지출 의결 - KEDO의 95년도 운영비중 우리나라가 부담기로 한 13억7천7백90만원(1백80만달러)을 예비비에서 지출기로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민주당 중앙위, 남한당국의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비난 聲明 - 궁지에 몰려 앞날이 없는 자들의 또하나의 용납못할 반통일적 파쇼폭거임. - 김○○ 일당은 그어떤 모략과 권모술수로서도 민족통일대축전을 가로막으려는 저들의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음. - 남조선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리라 고 확신함. ○ 평양경공업대학을 『한덕수경공업대학』으로 명명 ○ 『조총련』결성 40돌기념 중앙 사진전시회 개막식 (인민문화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준고위급회담 전문가회담 개최 * 세이모어 美국무부 핵대사 보좌관, 이영호 北외교부 부국장 참석 ○ 北, 對중국 교역규모 94년 31% 감소 * 중국 海關總署 통계(최근 공개) (5.23 동아) - 北·中 94년 전 체무역량은 6억2천4백만달러를 기록, 93년의 9억달러보다 30.7% 감소 ○ 김계관·허바드, 말聯에 對北 중유제공 참여 타진說 * 5.24字 문화일보 보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3		* 참석 : 김용순, 장 철, 염태준 김수익, 최병조 0 美 CNN방송 톰 존슨 사장 일행 平壤 방문	- 김계관 부부장과 허마드 부차관보는 말聯 외무부의 알 마드 사무총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對北중유제공사업에 말聯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
5. 24	0 宋月珠 조계종 총무원장-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북경에서 접촉 - 송월주 총무원장의 訪北 및 南北불교교류 추진 합의	0 北, 美·北 단독 장성급접촉 제의 * 5. 25 국방부 확인 - 북한측은 일직장교접촉을 통해 UN司측 제안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이찬복 중장과 UN司 스미스 소장이 5. 25 만날 것을 제의 0 金正日, 조총련 결성 40돌 즈음 書翰 * '재일조선인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 총련은 동포 상공인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조국과의 합영 합작과 교류사업을 강화하도록 적극 밀어주어야 함.	0 美·北 준고위급회담 전체회의 재개 0 갈루치 美국무부 핵대사, 한국형 수용 않으면 중유 추가제공 不可 언급 * 5. 24 美외교정책협의회 초청 연설 -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로 중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련을 민단체 동포들과의 統一戰線을 강화함으로써 조국 통일운동을 70만재일동포들의 거대한 애국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함. - 총련에서는 노간부들이 계속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새로 자라나는 젊은 일꾼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함. ○ 『朝總聯』결성 40돌기념 중앙 보고대회(2.8문화회관) * 참석 : 강성산, 박성철, 최태복, 최병조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남한당국의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비난 聲明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司, 북한의 단독 장성급 접촉 제의 거부 통보 * 5.26日 동아일보, UN司관 계자 인용 보도 - UN司측은 일직장교접촉을 통해 단독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보도 ○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美·北 제네바합의 이행 낙관 못한다고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조국전선 중앙위,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비난 聲明 ○ 平放, DMZ의 평화지대화는 '황당무계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망발' 이라고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 ○ 번스 美국무부 대변인, '중유제공-경수로문제' 不연계 방침 재확인 ○ 국제사면위, 북한당국이 정치범 수감을 시인했다고 발표 * 국제사면위 聲明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5	<p>*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축사</p> <p>- 북한은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고 우리의 중심적 역할 배제를 고수, 美·北 합의 구도의 이행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질 수만은 없게 됨.</p>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宋月珠 조계종 총무원장 방북허용 검토 언급</p> <p>* 기자회견</p> <p>- 핵문제로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는 한 사회문화분야 南北交流를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임.</p> <p>- 月珠 스님의 방북은 순수한 종교교류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임.</p> <p>○ 李養鎬 국방부장관, 對北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p> <p>* 전군 주요지휘관회의</p>		<p>- 북한당국은 5월초 訪北한 국제사면위 대표단에게 3개 수용소에 반국가행위자 240명을 포함, 8백~1천명 정도가 수용돼있다고 밝혔음.</p> <p>○ 파노프 리외무차관, 對北 경수로 제공 준비 언급</p> <p>* 이타르 타스통신 회견</p> <p>- 경수로제공 문제 토의가 궁지에 빠지는 경우에 러시아가 여전히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할 준비가 돼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6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 곡물지원 제의 *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 - 제공할 곡물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수송 및 운반수단 등 절차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협의하기를 희망함. -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 대표들이 북측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의함.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교류 지속추진 방침 언급 * 범종단 남북교류추진협의회 기념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화해·협력단계 진입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종교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통일 정책을 펼 것임. - 우리는 북한을 결코 흡수 통일하지 않을 것이며 북 	<p>0 국제무역촉진위원장 이성득, 조건없다면 남한쌀 수용 검토 표명 (5.27字 서울신문) * 와타나베 등 日연립여당 방북 대표단과 회담 (도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이 남는 쌀을 일정량,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함. 이 요청은 김용순, 강성산 등 黨·政 수뇌부의 승인을 얻은 것임. - 남쪽으로부터도 아무런 전제와 정치적 조건없이 원조하거나 대여한다는 제의가 있다면 검토하겠음. <p>0 『民主戰線』중앙위, 남한당국의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비난 聲明</p> <p>0 『祖平統』서기국, 현대자동차 및 한국통신 노사분규 관련 남한당국 비난 報道</p> <p>0 『汎靑學聯』해외본부, 서울 개최 南·北·海外 청년학생대회에 대표 12명 파견 발표</p>	<p>0 무라야마 日총리, 對北 쌀 공급 신속 검토 지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6	<p>한이 존속하면서 민주적 사회로 변해가기를 바람.</p> <p>○ 金重緯 환경부장관, 남북 환경공동체 구축추진 언급 * 기자간담회</p> <p>- 북한과 함께 남북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임.</p> <p>- 우선 비무장지대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개설, 남북한간 단절된 자연생태계를 함께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함.</p>		
5.27	<p>○ 孔魯明 외무부장관, 일본 측에 對北곡물 한국 先지원 협조 요청 * 야마시타 駐韓일본대사에 입장 전달</p> <p>○ 정부, 對北 곡물지원 관련 國務總理 주재 관계장관 회의 개최</p> <p>- 민족의 복리·복지에 관한 사안은 민족내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게 소망스럽다는 原則을 설정</p>	<p>○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명칭 거부, 경수로 생산지 不問' 입장 표명 記者會見</p> <p>- 일부 언론들이 남조선형 경수로를 우리측이 아예 통채로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잘모르는데서 출발한 억측에 지나지 않음.</p> <p>- 우리는 첫시기부터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제품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해오는 것이지 어디에서 만들어지</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 국제선명회, 對北 지원 옥수수 5백t 북한 도착</p> <p>- 국제선명회가 대북 지원을 약속한 20-30만t의 곡물중 1차분인 옥수수 5백t 도착</p> <p>* 국제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하는 첫</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7		<p>는가 하는데는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음.</p> <p>- 문제는 美國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경수로에 남의 이름을 따다 우리에게 제공하겠다고 고집하는데 있음.</p> <p>○ 『社勞靑』 중앙위원장 최용해, 남측이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 談話</p>	<p>번재 사례</p>
5. 28		<p>○ 노동신문, 한국형 경수로 존재 부인 (論評)</p> <p>- 남조선형 경수로란 빈말에 불과하고 남조선제 경수로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명적 존재임.</p> <p>○ 『汎靑學聯』 북측본부·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관련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해외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便紙 발송</p> <p>- 민족통일대축전 및 8.15 공동예배를 성사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勤盟』 중앙위원장 최성숙, 남측이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 談話 ○ 외교부장 김영남, 이란 방문차 평양 출발 ○ 中放, 남한주민들이 84년 수재 물자를 보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주장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對北 곡물지원 관련 유관부처 실무회의 개최 * 통일원차관 주재 - 곡물지원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황점검과 수량·방법 등 절차문제 협의 - 對北 곡물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사용 검토 결정 ○ 孔魯明 외무장관, 한국 배제된 일본 쌀제공 반대 입장 표명 * 國會 외무통일위 보고 - 북한이 우리의 쌀 제공 제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日本이 쌀을 제공할 경우, 이는 한국 배제와 韓·日이간이라는 북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장 김영남, 한국뿐 경수로 거부입장 재확인 * 테헤란 기자회견 - 우리는 경수로가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제품인가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경수로가 어디서 제작되었는가는 개의치 않음. - 남조선은 美國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경수로를 저들의 이름을 붙여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입장을 반대하고 있음. - 남조선제 경수로라는 것은 없을 뿐 아니라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 ○ 사이토 日외무차관, 먼저 한국쌀 받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언급 * 기자회견 - 북한에 대한 쌀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北韓이 먼저 한국쌀을 지원 받는 것이 전제조건임. ○ 유엔개발계획, 제5차 두만강개발계획 관리위원회 개최 (5.29~6.2 북경)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9	<p>정치적 의도를 도와주는 것임.</p> <p>- 북한의 핵동결은 모든 대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해제할 경우 즉각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미국측은 분명히 했음.</p>	<p>○ 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美·北 회담 관련 記者會見</p> <p>- 미국의 경수로에 남조선 모자를 씌워 우리에게 넘기겠다는 주장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데 불과함.</p> <p>○ 북한 무역대표단, 미국 방문 (5.29~6.9)</p> <p>* 단장 : 조선국제무역촉진위 서기장 오태봉</p>	<p>-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국 대표들은 『두만강지역개발 조정위원회 설립협정』에 가서명</p>
5.30	<p>○ 國防部, 제86우성호 북한군에 나포 사실 발표</p> <p>- 인천선적 저인망어선 『제86 우성호』(1백3t급, 승선인원 8명)가 서해 북방한계선 28.8km 해상에서 북한경비정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나포</p>	<p>○ 中放, 북한군 경비정이 서해상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을 나포했다고 발표</p> <p>-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이 우리나라 서해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한 정체불명의 선박을 나포했음.</p> <p>- 해군경비정은 단속에 응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선박에 대하여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예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함으로써 결정적인 조치로서 나포했음.</p> <p>- 지금 해당기관에서는 이 선박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음.</p> <p>○ 범민련 북측본부·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조선불교도연</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 로드 美국무차관보, 對北 식량지원계획 없음을 시사</p> <p>* 정례브리핑</p> <p>- 이웃들인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함</p> <p>○ 고노 日외상, 한국 쌀 수용이 전제조건임을 재확인</p> <p>* 참의원 외무위 답변</p> <p>○ 駐韓 美대사관, 컴버스천 엔지니어링</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30		<p>맹 중앙위,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관련 남한과 해외단체들에 便紙 발송</p> <p>○ 대외경제추진위 부위원장 임태덕, 나진·선봉과 중국국경 지역을 『自由通行地域』으로 선포계획이라고 언급 * 기자회견(北京)</p> <p>- 나진·선봉지역과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비자 등의 절차없이도 통행할 수 있는 자유통행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며, 中國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임.</p> <p>○ 사회민주당 중앙위, 남측이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 聲明</p> <p>○ 『朝總聯』중앙상임위,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비난 聲明</p>	<p>사의 北접촉설 부인 聲明</p> <p>-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ABB-CE)는 KEDO 프로젝트에 관해서 북한과 결코 접촉한바 없음.</p> <p>○ 美정부, 국제선명회의 對北 곡물 추가 공여분 반출 승인</p> <p>- 美재무부는 국제선명회가 제출한 對北 10만t 양곡지원건에 대해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5.30자로 승인</p>
5.31	<p>○ 姜英勳 한적 총재, 피랍 『86 우성호』와 승선어부 송환요구 對北 방송통지문</p> <p>- 관계당국에 의하면 5.30 하오 12:50경 백령도 북서방 25마일 지점 해상에서 우리측 민간어선 『86 우성호』가 귀측의 경비</p>	<p>○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訪北 안호상 일행 징역형 구형 비난 聲明</p> <p>- 김○○ 일당의 극악무도한 파쇼적 폭거를 단군민족의 슬기로운 애국애족의 넋을 짓밟는 야만행위로, 반종교적 탄압행위로 준렬히 규탄함.</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 로드 美국무차관보, 남북대화 재개 강조 * 기자회견</p> <p>- 어떠한 평화협정에 관한 회담도 남북</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31	<p>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고 함.</p> <p>- 이번 사건은 선장 김부근 외 7명의 어부들이 中國 산둥성 영성항에서 인천항으로 귀환하는 도중 항로착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p> <p>- 貴 적십자회가 적십자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 쌀지원에 정치 조건 없다고 언급</p> <p>* 국회 통일외무위 답변</p> <p>- 정부의 제안은 인도적 견지에서 北韓에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이 없음.</p>	<p>0 조선천주교인협회, 남한 당국이 반민족적·반통일적 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 聲明</p> <p>0 『직총』·『사로청』·『농근맹』위원장,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비난 談話</p> <p>0 국제아동절 45돌기념 중앙보고대회 (만경대 학생소년궁전)</p> <p>* 참석 : 최태복, 김중린, 김복신</p>	<p>한간에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南北對話의 재개가 중요함.</p> <p>- 北·美관계나 北·日관계는 남북한관계가 평행적으로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음.</p> <p>재개 가능성 시사</p> <p>- 최근 북한측이 수교협상 재개와 관련해 새로운 자세를 보였음.</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 直교역 확대추진 방침 표명</p> <p>* 취임 100일즈음 경향신문 특별회견</p> <p>- 남북한간의 直교역 확대를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음.</p> <p>- 북한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쌀을 요청해온 만큼 민족적 인도주의에 입각해 제의한 것임.</p> <p>- 핵문제는 美·日과의 공조체제에 의해 풀어가고 민간교류는 별도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할 것임.</p> <p>- 北韓의 정전협정 무력화 관련, 정부는 앞으로 관련국가와 긴밀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음. 필요하면 국제보장체제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음.</p>	<p>○ 노동신문, 한국형 경수로 거부 재확인 (論評)</p> <p>- 있지도 않은 남조선형 경수로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에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p> <p>- 남조선이 노린 것은 어떻게 하나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에 끼어들어 제동을 걸려는 것임.</p> <p>○ 불교도연맹 중앙위, 남측이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 聲明</p> <p>○ 문학예술총동맹·기자동맹·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비난 談話</p> <p>○ 『祖平統』서기국, 남한당국이 미군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 報道</p> <p>○ 北·이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테헤란)</p> <p>* 외교부장 김영남-알리 아크바르 이란 외무상간 회담</p> <p>○ 정무원총리 강성산, 사할린 지진피해 관련 러시아 수상에게 위로 電文</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p>0 金泳三 대통령, 『6.25 전쟁』정당 평가 강조 * 국가유공자단체간부 초청 다과회</p> <p>- 6.25 한국전쟁은 침략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인간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켜낸 값진 전쟁, 승리한 전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p>	<p>0 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美와 현안 합의 기대 언급 * 이타르 타스통신 회견</p> <p>- 현재 팔라룸푸르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朝·美 양측이 현안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함.</p> <p>0 노동신문, 對美 평화협정 체결 촉구 論評</p> <p>- 미국의 군사적 모험책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한 전쟁국면이 조성되고 있음.</p> <p>- 이러한 사태를 가시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 함.</p>	<p>0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0 셸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北 핵동결 계속되는한 협상 계속 언급 * 정레브리핑</p> <p>0 北, 평양시민 百萬명 지방 강제이주說 * 6.2字 서울신문 보도</p> <p>- 최근 340만~350만명에 이르는 평양주민가운데 1백여만명을 줄인다는 목표아래 대규모 강제이주작업을 진행하고있다고 報道</p> <p>0 국제선명회, 對北 식량 추가제공 추진 * 뉴턴 국제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확인</p> <p>- 5.29 중국産 수수 470t을 기차편으로 북한에 제공했으며 추가적인 식량제공 문제를 北대외경제협력추진위측과 협의중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만강개발계획 참여 5개국, 『개발조정위 사무국』설치 합의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차드슨 美하원의원, 방북 (6.3~6) * 6.4 양형섭, 6.5 김용순 면담 ○ 平放, 美 한국전쟁기념비 제막식 관련 전쟁열을 고취하는 행위라고 비난 ○ 中放, 『6.3시위』30돌 즈음 反정부투쟁 선동 - 남조선 인민들은 외세와 그 주구 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함차게 벌어나감으로써 자주·민주·통일의 새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고야 말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 ○ 교도통신, 日정부, 對北 수교협상 의제로 4개분야 결정 보도 - 일본 정부는 중단 당시의 8차교섭 골격을 이어받아 기본문제, 경제문제, 국제문제, 기타문제 등 4개분야를 의제로 삼기로 했음.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계윤 동양그룹 부회장 등 9명, 經協논의차 訪北 (6.4~9) - 나진·선봉지역에 1만t 규모의 시멘트유통기지를 건설키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放, ‘對話 의사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 하라고 주장 - 남조선 괴뢰들이 진실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파쇼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 ○ 『民民戰』방송, 지자제 선거 관련, 민주세력 후보에 표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아사히신문, 北, 이란에 정유소 현대화지원 요청 보도 - 北외교부장 김영남은 이란 방문중 라프산자니 대통령등을 만나 北韓의 정유소 현대화 지원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4		<p>몰아주자고 선동</p> <p>○ 北무역실무대표단, 워싱턴 도착</p> <p>* 조선무역추진위 서기장 오태봉 등 5명</p>	<p>을 요청했다고 보도</p>
6. 5	<p>○ 李洪九 국무총리, 2002년 월드컵 南北韓 공동주최 고려 언급</p> <p>* 외국 언론인 접견시</p> <p>- 대회유치가 확정된다면 북한과 공동개최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음.</p> <p>○ 韓美연례안보협의회 4개 분과위 회의 개최(워싱턴)</p> <p>* 朴庸玉 국방부 정책실장, 캠벨 美국방부 부차관보 참석</p>	<p>○ 외교부 대변인, 경수로 부대시설 제공 주장 記者會見</p> <p>- 미국이 응당 경수로발전로 일체를 책임지고 제공하게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에 필요한 부지정리, 하부구조 건설 등 공사전반에 대해서도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p> <p>- 경수로 제공문제가 朝·美사이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만큼 여기에 일반적인 상업거래의 규범이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 이가라시 日 관방장관, 北韓, 쌀문제관련 한국과 회담용의 표명 언급</p> <p>* 日지지통신 회견</p> <p>- 北韓으로부터 사실상 한국과 쌀문제에 관해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음.</p>
6. 6	<p>○ 宋榮大 통일원차관, 對北 곡물제공 관련 북한당국의 직접 호응 촉구</p> <p>* 발표문</p> <p>- 정부는 日本 정당측으로부터 북한이 한국의 쌀을</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북한대표 2명 철수</p> <p>* 외교부 미국담당국장 이형철, 외교부 연구원 김명길</p> <p>○ 『汎靑學聯』 북측본부 산하단체들, 『통일대축전』개최 관련</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 리처드슨 美 하원의원, 北, 권력체제 관련 중대발표 언급</p> <p>* 북경 기자회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6	<p>받겠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으나, 오늘 현재까지 이러한 통보를 북한측으로부터 직접 받지못했음.</p> <p>- 아무런 정치적 조건없이 쌀과 다른 식량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바임.</p> <p>- 우리는 쌀제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에게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국자접촉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므로 北韓이 직접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주기를 바람.</p>	<p>남측본부 산하단체들에 便紙 발송</p> <p>- 김일성종합대 학생위, 자강도 학생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이 남측본부 산하단체들에 8.15 통일대축전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투쟁을 호소하는 便紙를 발송</p> <p>0 외교부장 김영남, 이란 방문 마치고 平壤 귀환 * 5.29~6.2 이란 방문</p>	<p>- 7월초 金日成 사망 1주기가 지나면 이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임.</p> <p>0 沈國放 中외교부 대변인, 黨·政대표단 訪北 관련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일부분' 이라고 언급</p>
6. 7	<p>0 외무부 대변인, 美·北회담 '원칙적 합의' 보도 부인</p> <p>- 美·北회담 결과발표문안에 대해서는 韓·美·日 3국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따라서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회담에서 '원칙적 합의 이룩' 발표 (記者會見)</p> <p>- 6.6 오후 회담에서 드디어 경수로형선정 계약체결방식, 미국의 책임문제, 부지정리, 비용부담문제 등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였음.</p> <p>- 우리는 대화 상대방이 이미 합의된 원칙들을 존중하는 한 회담은 곧 결속되리라고 생각함.</p>	<p>0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0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국형 명시되어야 합의문 서명 언급 * 美 NYT紙 보도</p> <p>-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겨야만 합의문에 서명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7		<p>- 우리는 부지정리를 비롯한 초 기단계로부터 시작해 경수로 건설이 끝나고 그 운영에 필 요한 모든 조건이 마련될 때 까지 단 1전의 돈도 낼수없음</p> <p>○ 노동신문, 핵무기 완전 철폐 주장</p> <p>- 핵무기 보유국들은 세계앞에 핵무기시험을 중지한다는 것 을 선포, 영원히 포기해야함.</p> <p>-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철폐되고 조선반도 가 비핵지대화되면 그것은 세 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p> <p>○ 『汎靑學聯』 북측본부 산하 대학학생위원회들, 『통일대축 전』 관련 남측 대학총학생회들 에 便紙 발송</p> <p>○ 中國 공산당 당일꾼대표단 및 외교부 친선대표단, 平壤 도착 * 단장: 徐靑 당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唐家璇 외교부 부부장</p>	<p>○ 리처드슨 美하원의 원, 北, 우성호선원 송환 시사 언급 * 기자회견</p> <p>- 최고위층이 선원들 의 송환문제를 인 도적 차원에서 고 려하겠다고 밝혔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0 金泳三 대통령, 클린턴 美 대통령과 美·北협상 주요 현안 전화협의</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곡물지원 관련 日本측에 신중대처 촉구 * 발표문</p> <p>- 우리 정부는 쌍방 당국자 접촉을 제의하고 북한측이 직접 통보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北韓으로부터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음.</p> <p>-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이 곡물을 북한에 먼저 제공할 경우,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韓·日관계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됨을 강하게 지적해 두고자 함.</p> <p>- 南北 당국사이의 직접 접촉에 의해 우리의 대북 곡물지원이 이루어질 때 까지 日本측이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강력히 요망하는 바임.</p> <p>0 韓·美·日, 준고위급회담 관련 實務協議 * 張在龍 주미공사, 허바드</p>	<p>0 노동신문, 경수로 부대시설 제공 미국측 책임 주장 (論評)</p> <p>- 미국이 경수로발전소 일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것을 美國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p> <p>- 우리는 마땅히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돈을 댈 필요를 전혀 느끼고 있음.</p> <p>0 平放, 남북대화 재개 거부입장 재확인</p> <p>- 김○○ 일당에게는 북남대화를 재개할 의사도 없거니와 대화에 대해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음.</p> <p>- 지난 3월 동족의 유고와 관련하여 감행한 반민족적 야만행위를 다시금 정당화해 나선 것은 공공연한 반통일 대결선언임.</p> <p>- 역사와 민족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신성한 대화마당에 절대로 마주 앉을 수 없음.</p> <p>0 『職總』중앙위, 한국통신 노조원 연행 비난 聲明</p>	<p>0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0 美, 갈루치 핵대사와 로드 국무부차관보 한국 파견</p> <p>- 美·北준고위급회담 잠정 합의사항 협의차 파견</p> <p>0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北, 남북한 쌀 회담 북경개최 용의 표명 보도 * 日연립여당 소식통 인용</p> <p>- 북한은 남북한 쌀 문제회담을 북경에서 갖되, 정부간 협상이 아닌 公社나 公團차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日연립여당측에 전달해왔음.</p> <p>0 美하원, 對北지원 규제내용 포함 法案 의결</p> <p>- 對北 경수로 공급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 하고 KEDO나 북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미국무부 부차관보, 다케우치 日외무성 심의관 참석</p>	<p>0 中放, 범청학련 남측본부 주최 통일대토론회에서 『공동합의문』, 『공동선언문』 채택 보도</p>	<p>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첨부된 『국무부종합수권법안』 의결</p> <p>0 美하원 세출소위, 對北중유제공 예산 1천만달러 승인</p> <p>0 이집트, 北 쌀요청 거부說 * 도쿄 소식통</p> <p>- 북한은 1월 약10만 t의 쌀을 무상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집트는 무상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p>
6. 9		<p>0 『祖平統』서기국, 한국통신 노조원 연행 비난 報道</p>	<p>0 IAEA 안정성평가단, 한국형 원자로 안정성 우수평가 * 로젠 박사 기자회견</p> <p>0 日本 국회, 『전후 결의』 채택 * 중의원 본회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0	<p>0 외무부 대변인, 日本 국회 『戰後決議』 채택관련 유감 論評</p> <p>- 우리 정부는 日本이 진실한 반성의지를 갖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해 가면서 이를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함.</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회담 지연때 폐연료봉 '조치' 경고 記者會見</p> <p>- 폐연료봉 보관문제는 반드시 경수로 제공문제의 진전과 병행해 해결돼야할 성격의 문제임.</p> <p>- 지금 계절변화로 말미암아 폐연료의 부식작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망을 가늠할 수 없는 회담에 발목을 묶여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음.</p> <p>- 회담이 지연되는 것으로 하여 곧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부득이하고 당연한 것으로 될 것임.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p> <p>0 『汎靑學聯』 북측본부 산하 대학학생위원회들, 『통일대축전』 관련 남측 대학총학생회들에 便紙 발송</p> <p>0 불교도연맹 중앙위, 한국통신 노조원 연행 비난 聲明</p> <p>0 『6.10만세 시위투쟁』 69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 * 참석 : 장 철,유미영,정두환 김영호,백남준</p>	<p>0 美·北 준고위급회담 계속</p> <p>0 갈루치 美 국무부 핵 대사, 한국型 관철 없이 합의不可 확인 * 訪韓 기자회견</p> <p>- 美·北합의문에는 韓·美·日 3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표현도 포함되지 않을 것임.</p> <p>0 美 미네날 테크놀로지社, 북한産 마그네사이트 수입계약 체결 발표</p> <p>- 수만t의 북한産 마그네사이트를 북한 마그네사이트 수출입사업소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1		<p>0 中放, 합참 지휘소훈련 실시 (6.19-24) 비난</p> <p>- 단순한 지휘소훈련이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를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모의전쟁임.</p> <p>0 黨중앙위, 러시아 국경절 즈음 엘친 대통령에게 祝電</p>	<p>0 日산케이신문, 北, 日本쌀 받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보도</p> <p>* 日·北관계자 발언 인용(6.12字 중앙)</p> <p>- 지난달 중순 중국 랴오닝省의 한기업에 20~30만t의 쌀을 수출하고 싶다고 의사타진을 했음.</p>
6.12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에 조건없이 식량제공 언급</p> <p>* 이북 5도민 대표 초청다과</p> <p>- 北韓 당국이 직접 대화에 응해올 경우 우리는 아무 조건없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음.</p> <p>- 南北對話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며 북한도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라는 역사의 대세앞에 결국 문을 열게 될 것임.</p>	<p>0 北韓, 금수산기념궁전에 김일성 시신 영구 안치 발표</p> <p>* 黨중앙위·黨중앙군사위·국방위·중앙인민위·정무원 『결정서』 채택</p> <p><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대 대하여 ' 要 旨 ></p> <p>-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하여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되게할 것임</p> <p>- 금수산기념궁전안에 김일성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안치할 것임.</p> <p>- 금수산기념궁전안에 주체사상 조각관을 새로 꾸릴 것임.</p>	<p>0 美·北 준고위급회담, 합의문 타결</p> <p>0 IAEA 정기이사회 개최 (6.12~, 빈)</p> <p>- 北核동결감시상황 및 IAEA 관련조치 사항 논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2		0 부총리 겸 외교부장 김영남, 중국 외교부 친선대표단 면담 0 黨비서 최태복, 중국 당일꾼대표단 면담	
6.13	0 姜英勳 한적총재, 피랍 우성호 선원 신상자료 전달 위해 연락관 판문점 파견 통보 對北 방송통지문 - 5.31 귀하에게 『제86 우성호』와 그 선원들이 즉각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그 선원들이 순수 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전달을 위해 6.15, 10: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2명의 적십자연락관을 내보낼 것임. 0 외무부, 美·北경수로협상 타결 지지 聲明 - 금번 美·北합의는 대북 경수로 사업진행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지지함.	0 美·北 준고위급회담 종료, 합의내용 발표 (5.19~6.12, 팔라툼푸르) < ‘朝·美공동보도문’ 要旨 > - 쌍방은 朝·美기본합의문을 이행할 정치적 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특히 경수로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1. 美國은 美대통령의 94.10.20 담보서한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함. 美國의 주도하에 KEDO는 기본합의문에 따라 조선에 제공되는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함. 미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의 기본상대자로 됨. 기본상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국민들이	0 美 클린턴 대통령, 美·北 준고위급회담 타결 관련 聲明 - 팔라툼푸르 美·北 경수로 합의는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지속시켜주는 장치가 될 것임. - KEDO의 경수로형과 주계약자는 모두 한국측이 될 것임을 확인함. 0 日 산케이신문, 日 정부, 한국정부 반대 불구 對北 쌀제공 추진 보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의 2대 원칙인 『한국형 경수로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관철 되었음. - KEDO와 북한간 경수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궁극적으로 북한핵문제의 완전 해결을 기대함. - 경수로 사업의 이행관련 남북대화의 조속 재개가 필수불가결하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함. <p>○ KEDO 집행이사회 제3차 회의 (서울)</p> <p>< 공동언론발표문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을 조속체결하고 관련 조치를 위한 논의 개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대북제공 경수로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로 하고, 그 참조발전소는 울진 3, 4호로 할 것을 결정하였음. - 주계약과 관련 한국전력과 협의를 시작토록 KEDO에 지시하였음. 	<p>KEDO측 대표단과 실무단의 단장으로 됨.</p> <p>2. 경수로 대상은 각각 약 100만KW 발전능력의 이중냉매고리식 가압경수로 2기로 이루어짐.</p> <p>KEDO가 선정한 원자로형은 현재 생산에 도입된 미국 설계와 기술의 개량형임.</p> <p>3.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대외경제위원회와 KEDO는 열쇠넘겨주기 조건으로 경수로 제공에 관한 협정을 빠른 시일안으로 체결함.</p> <p>조선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으로 KEDO와 경수로제공협정의 미결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p> <p>KEDO는 경수로 대상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수요를 확정하기 위하여 부지조사를 진행함.</p> <p>부지조사와 부지정리 비용은 경수로 대상의 제공범위에 포함됨.</p> <p>경수로대상을 집행할 주계약자는 KEDO가 선정함.</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등 향
6.13	<p>0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클린턴 대통령의 親書 내용 공개</p> <p>- 클린턴대통령은 친서에서 대북경수로 제공은 한국 형이 될 것이며 『참조발전소』는 올진 3, 4호기 임을 확인하였음.</p> <p>- 주계약자는 한국회사로서 설계, 제작, 시공, 사업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경수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음.</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美·北합의는 남북 경협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p> <p>* 全經聯 오찬간담회</p> <p>- 美·北경수로회담 타결은 남북경협의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p> <p>- 현재 북한이 정부를 배제한 채 개별기업 단위로 경쟁을 유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p>	<p>미국 회사가 KEDO를 도와 경수로 대상의 전반이행을 감독하는 계획조정자로 되며 이 계획조정자는 KEDO가 선정함.</p> <p>조선 회사는 경수로 대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이행조직 사업들에 참가함.</p> <p>4. 쌍방은 경수로 대상 이외에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음.</p> <p>쌍방 전문가들은 6월중 가장 빠른 시일안으로 조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중유납입의 단계별 일정과 그를 위한 협조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이룩함.</p> <p>KEDO는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차제로 중유 1차분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즉시 취하기 시작함.</p> <p>폐연료의 안전보관에 관한 95.1.20 朝·美전문가협상 기록문을 시급히 이행함.</p> <p>이와 관련 미국 전문가대표단이 빠른 시일안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이행사업에 착수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3	<p>바람직함.</p> <p>○ 대한무역진흥공사-北조선 삼천리총회사, 對北 쌀제 공 관련 接觸 (6. 13~16, 北京)</p> <p>- 남북당국간접촉 개최에 합의</p>	<p>○ 美·北회담 북측대표단장 김계관, 협상타결 관련 記者會見</p> <p>- 경수로형의 선택권은 우리가 가지며 朝·美사이에 결정할 문제임.</p> <p>- 한국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경수로형은 미국설계와 기술의 개량형으로 합의하였음.</p> <p>- 朝·美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함.</p> <p>○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 한국통신 노사분규 관련 비난 聲明</p>	
6. 15	<p>○ 姜英勳 한적총재, 우성호 선원 송환촉구 對北聲明</p> <p>- 북한측이 5.30 나포한 『제86 우성호』는 민간어선으로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입장에서 지체없이 송환되어야 함.</p> <p>- 나포과정에서 발생된 사상자의 신원통보와 시신을 가족들에게 즉시 인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임.</p>	<p>○ 외교부대변인, 美·北 공동발표문 관련 談話</p> <p>- 우리에게 제공될 경수로는 미국설계와 기술의 개량형이라고 명기된 것으로 하여 『한국형』이란 실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p> <p>-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KEDO가 주 계약자를 선정한다해도 미국의 의지를 따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대상이 될 것임.</p>	<p>○ 美, 중유전용 감시협상팀 북한 向發</p> <p>* 갈루치 美국무부 핵대사 확인</p> <p>- 중유전용방지를 감시하는 방법등에 관해 북한측과 협의할 팀이 6.15 평양으로 떠났음.</p> <p>○ 무라야마 日총리, 對北 경수로 및 중유제공 지원 약속</p> <p>* 美·日정상회담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은 오늘 판문점에서 전달하려했던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접수마저 거부하였음. - 피납선원들이 순수민간인임을 알 수있는 신상자료와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북한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함. ○ 金泳三 대통령, 남북관계 중요한 시점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해·공군부대 방문 - 美·北韓간 경수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남북관계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함. - 쌍방 합의내용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심적 역할을 하기로 되어있으나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어렵고도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음. ○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대북경협 확대방침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클럽 조찬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KEDO를 어떻게 운영하든 관여치 않을 것이며, 우리는 KEDO를 대표하는 미국을 『기본상대자』로 대할 것임. - 만일 KEDO에 그 어떤 3자가 앉을자리 설자리도 모르고 중뿔나게 간섭한다면 일은 복잡하게 될 것임. - 우리는 지금까지대로 동결의 무만 이행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는 이에대한 미국의 입장과 행동 여하에 달려있음. ○ 김정일, 해군절 즈음 제853군부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 김기남, 이하일, 김일철, 김명국 	<p>클린턴대통령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對北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없더라도 임가공, 생활필수품 등 경제협력은 확대시켜 나갈 것임. - 경수로 사업으로 남북간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되면 남북대화 재개가 불가피하며 남북 경제협력 역시 가속화될 것임.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스위스, 정기항공로개설에 관한 협정 조인 (평양)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쌀제공문제 협의 南北 당국간접촉 시작 (6.17~21, 북경) * 李錫采 재정경제원차관, 전금철 北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참석 ○ 全經聯 남북경협특별위원회 발족 * 위원장 : 張致赫 高승그 립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증유인도 전문가협상 개최 (6.17~24, 평양) * 증유제공 관련 단계별 일정과 협조조치들 협의 ○ 노동신문, 美·北합의 관련 남한측 반응 비난 論評 - 잠정합의를 반대해 나섰던 괴뢰들이 회담이 일단 결속되고 朝·美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적극 지지하는데로 방향전환을 하였음. - 더욱 가소로운 것은 김○○ 일당이 朝·美 공동보도문이 마치 저들의 뜻대로 되더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정상회담, 경수로 KEDO주도 지지 표명 * 聲明 (캐나다 헬리팩스) - 美·北경수로 회담 결과 및 KEDO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 ○ 美워싱턴포스트紙, 이란, 北노동미사일 구매추진 보도 * 美관리발언 인용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7		<p>한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임.</p> <p>○ 中放, '남에게 손내밀면 경제예속' 주장</p> <p>- 나라의 경제가 제발로 걸어나가지 못하면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예속됨.</p> <p>○ 美·北 준고위급회담 북한대표단 일행, 平壤 귀환</p> <p>* 단장 :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p>	
6.18			<p>○ 美 폐연료봉처리 기술진, 平壤 향발</p> <p>* 6.19 美 국무부 발표</p> <p>- 美군축국과 에너지부의 핵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진이 사용후연료봉의 안전처리를 위해 평양으로 출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9	<p>0 金泳三 대통령, 金正日 주석직 취임때 정상회담 재거른 언급 * 美 타임誌 회견 (6.26字 보도)</p> <p>- 金正일이 언젠가 주석직에 오를 것으로 봄. 그때가 되면 頂上會談 개최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거론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함.</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쌀회담 관련 정치적 의도 없다고 언급 * 기자간담회</p> <p>-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민족내부차원에서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것임</p> <p>0 合參, 평시작전통제권 환수후 첫 한국軍 단독 지휘소훈련(CPX) 실시 (6.19~24)</p>	<p>0 金正日,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題下 논문 발표 * 6.21字 中·平放 보도</p> <p>-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 남긴 가장 심각한 교훈은 社會主義의 변질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중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채 맡아먹게 된다는 것임.</p> <p>- 사상사업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사회주의의 공고 발전과 그 운명이 달려 있음.</p> <p>-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은 온 사회를 사회주의사상으로 一色化하는데 복무해야 함.</p> <p>-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을 노동계급의 黨의 영도밑에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여야 하며 사상개조사업을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함</p> <p>0 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美·北 합의 관련 記者會見</p>	<p>0 美국무부, 남북쌀회담 지지 표명</p> <p>- 남북한간 직접접촉을 전폭 지지하며 격려함.</p> <p>0 사이토 日외무차관, 日·北 정부간 교섭으로 쌀제공 언급 * 기자회견</p> <p>-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며 국교가 없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합의가 성과적으로 이 행되자면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朝·美관계의 건전한 진전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보장체계를 마련 하는데 마땅한 역할을 해야함 ○ 金正日 당사업시작 31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 *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영남 최 광 外 ○ 平放, 金正日이 84년 수재물자 제공지시 보도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프랑스 핵실험 재개발표 비난 記者會見 - 핵실험을 재개발하기로 한 프랑 스의 결정은 핵무력에 의거한 대국적 지위를 부지해보려는 야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 ○ 北무역대표단, 日연립여당 초 청으로 訪日 * 조선종합설비무역회사 부사장 이영수, 국제무역촉진위 지도 위원 한성춘 등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키 日참의원 의 원, 김용순이 북송 일본인妻 訪日허용 시사했다고 언급 * 訪北후 북경 기자 회견 - 日·北 수교협상이 진척을 보일 경우 일본인妻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1	<p>0 對北 쌀제공문제 협의 남북당국간 접촉 종료 (6.17~21, 北京)</p>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 요지 〉</p> <p>①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t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함.</p> <p>② 합의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첫선박을 출항시킴. 해상을 통해 남측 선박으로 청진, 나진항 등에 인도함.</p> <p>③ 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음.</p> <p>④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남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에서는 조선삼천리총회사로 함.</p> <p>⑤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함.</p> <p>⑥ 남과 북은 '95.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함.</p> <p>⑦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함.</p> <p>※ 李錫采 재정경제원차관,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 서명</p>		<p>0 美 국무부, 한국의 對北 쌀지원 환영 논평</p> <p>- 이것이 南北간의 보다 직접적인 접촉들로 이어지길 바람.</p> <p>0 고노 日외상, 남북 쌀회담 타결 환영 담화</p> <p>- 日本도 인도적인 관점에서 빨리 북한과 회담을 열고 싶음.</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 곡물제공 합의 발표</p> <p>- 북한에 대한 이번 쌀제공은 南北간에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동족간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음.</p> <p>- 이번 합의는 아무런 전제</p>	<p>0 平放, 남한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p> <p>- 올해에 들어서면서 경제위기는 새로운 형태로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p> <p>- 남조선 경제의 심화되는 위기를 통해서도 김 〇 〇 괴뢰역도의 反인민적인 정치에 대해서 다시금 잘 알 수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1	<p>조건없이 北韓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동포애적 차원의 조치였음.</p> <p>- 政府는 합의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p>	<p>0 폐연료봉 보관 관련 제3차 美·北전문가회담 참가 미국대표단 평양 도착</p>	
6.22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 쌀 추가제공 용의 표명 * 6.25 종군연예인 초청 오찬</p> <p>- 동포애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있는 北韓에 쌀 15만t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지만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 줄 것임.</p> <p>- 우리가 가진게 없으면 외국에서 사서라도 줄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 쌀 지원 만전 지시 *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p> <p>-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쌀지원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p>	<p>0 『汎民聯』북측본부, 민족통일 대축전 해외본부 결성 축하 電文 발송</p> <p>0 노동신문, 韓·日협정 무효 주장 論評</p>	<p>0 갈루치 美국무부 핵대사, 7월중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불가능 언급 * 내셔널프레스 클럽 브리핑</p> <p>-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남아 있음. 7월중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p> <p>0 日정부, 對北쌀제공 공식 결정 * 무라야마 총리주재 고위당정회의</p> <p>< 이가라시 관방장관 발표 要旨 ></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2	<p>보다 우선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p> <p>○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 北, 당초 쌀 100만t 요구 언급 * 기자회견</p> <p>- 북측은 처음부터 1백만t을 요구하고 南北간에 합의한 15만t에 대해서도 무상제공을 원했음.</p>		<p>- 남북한이 쌀지원문제에 정식으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p>
6.23	<p>○ 金泳三 대통령, 金正日 주석직 승계후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시사 * 기자간담회</p> <p>- 시기가 언제냐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일 비서가 주석직을 승계할 것으로 생각함. 그렇게 되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따를 것으로 믿음.</p> <p>- 이번 쌀지원을 계기로 북한이 생산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함.</p> <p>- 가능한한 우리쌀을 지원하고 재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제시장에서 사서라도 보내겠음.</p>	<p>○ 勞動新聞, 지자체 선거 관련 反민자당 투표 선동 (論評)</p> <p>- 남조선 인민들은 이번 선거를 명실공히 김 0 0 역도의 죄악을 결산하는 재판장으로 만들어야 함.</p> <p>- 각계층 인민들은 저주스러운 민자당 패거리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세력의 후보들에게 지지표를 몰아주어야 함</p> <p>○ 외교부 대변인, 日本 衆의원의 『戰後決議』비난 談話</p> <p>- 日本이 감행한 전시죄행을 가리우고 과거청산의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것임.</p>	<p>○ 北·日 쌀지원협상 사작 (도쿄)</p> <p>* 北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이종혁, 호리일자민당 정조회장 대리 등 참석</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3	<p>0 南北韓, 쌀인도절차 협의 實務接觸 (북경)</p> <p>* 朴鎔道 KOTRA 사장, 김봉익 北삼천리총회사 사장 참석</p>	<p>- 日本이 아직도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줌.</p> <p>- 우리 공화국정부는 일본이 자기의 과거죄행을 똑똑히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p>	
6.24	<p>0 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요구로 쌀수송 연기 발표</p> <p>- 북한은 6.23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삼천리총회사간 북경실무협상을 통해 대북쌀수송 연기를 요청해 왔음.</p> <p>-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6.24 동해항 출항을 2~3일 늦추기로 했음.</p>	<p>0 노동신문, 사회주의 인권은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라고 주장</p> <p>*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제하 장문 논설</p> <p>-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최대한 존중시되는 인덕정치하에서는 사소한 인권침해 현상도 있을 수 없음.</p> <p>-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인권론을 만능기준으로 내들리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음.</p> <p>-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자면 그를 침해하는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는 짓부셔야 함. 	
6. 25	<p>0 南北韓 쌀인도절차 협의 實務接觸, 쌀제공 계약서 합의·서명 (6.26字 조선)</p> <p style="text-align: center;">〈 계약서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남측은 첫 선박을 출항시키며, 나머지 잔량은 8.10 이내에 북측에 제공함. - 제공되는 쌀의 품질은 습도 15.0% 이하, 파쇄율 5.0% 이하로 함. - 수송조건은 5천톤 이상급의 남측 선박으로 수송하고, 청진항·나진항 등의 북측에 인도하며, 필요시 제3국 선박도 이용가능함 - 북측은 남측 선박 선원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무사 귀항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북측은 매선박별 인수확인서를 하역완료 7일 이내에 남측에 통보토록 함. 	<p>0 노동신문,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對美 호응 촉구 (社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진정으로 6.25 재난의 되풀이를 바라지 않는다면 朝·美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여 적대관계를 종식시켜야 할 것임. -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행동으로하여 군사정전체제가 마비되었으므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5	<p>○ 대북쌀제공 첫 선박 『씨아펙스호』출항 (동해항)</p> <p>- 북한에 제공기로 약속한 쌀 15만톤 가운데 2천톤을 선적한 『씨아펙스』호가 동해항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청진항 항발</p> <p>○ 李洪九 국무총리, 대북 쌀 지원은 남북화해와 신뢰 계기라고 언급</p> <p>* 출항 격려사</p> <p>- 南과 北이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 내었음.</p> <p>- 對北 쌀지원이 남북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p>		
6.26	<p>○ 政府, 한일합섬·국제상사의 『南北경제협력사업자』 신청 승인</p> <p>- (주)한일합섬은 스웨터, 봉제, 모포분야 등 3개사</p>	<p>○ 北기독교대표단, 美장로교총회 초청으로 미국 방문</p> <p>* 단장 :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영섭</p>	<p>○ 北·日 쌀지원협상 계속</p> <p>○ 日 『週刊現代』誌, 金正日이 자본주의를 배울 용의를 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6	<p>업 5백80만달러, (주)국 제상사는 신발생산사업에 3백50만달러 규모</p> <p>○ 對北 쌀 첫제공분 2천톤, 청진항 도착</p> <p>- 對北제공 쌀 2천t을 실은 씨 아펙스호가 6.26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p>		<p>명했다고 報道</p> <p>- 金正일은 6월초 日 ·佛 등 서방방문 객들을 평양초대소 로 불러 경제문제 를 논의한 자리에 서 “우리는 자본 주의사회에서 가능 한 많은 것을 배 우고 싶다”고 밝 혔음.</p>
6.27		<p>○ 프랑스 경제사절단, 訪北 (6.27~7.4)</p> <p>* 단장 : 세이라크 구라파 · 조 선관계촉진협회 부위원장</p> <p>○ 駐러대사 손성필, 정전협정 파 기 부인</p> <p>* 러시아방송 회견</p> <p>-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탓으 로 하여 정전협정이 마비상태 에 빠져들고 있음.</p> <p>- 조선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파기할 예 정이 아님.</p>	<p>○ 北·日 쌀지원협상, 기본합의 도달</p> <p>○ 로드 美·日 무차관보, 東北亞 안보대화 창 설 방침 표명</p> <p>* 美하원 亞太小 청문회</p> <p>- 남북한과 美·日· 中·러가 참여하는 동북아안보대화(N- EASED) 창설을 구 상중임.</p> <p>- 북한이 남북대화 의무를 이행토록 단호히 주장해 나 갈 것이며, 남북대 화는 美·北관계의 속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8		0 문익환목사 부인 박용길, 불법 訪北 (6.28~) * 영접 : 유미영, 여연구, 백인준 김영호, 백남준, 장재철 박태호, 이천민	
6.29	0 政府, 『씨 아펙스호』人 共旗 게양관련 북당국 공 식사와 없으면 쌀지원 중 단 발표 *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 - 지난 6.25 씨 아펙스호가 北韓측의 강요로 인공기 를 게양하게 됨으로써, 북한측은 북한 항구에 입 항시 쌍방의 깃발을 모두 달지않기로한 북경회담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음. - 政府는 북경 당국간회담 당사자인 전금철 명의의 공식사과가 없는 한 추가 선적과 출항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미 출항해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회항토록 지시하였음. 0 정부, 對北 쌀지원 경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 로 결정 * 제29차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 의결	0 외교부, '새로운 평화보장체 계' 수립 주장 『備忘錄』발표 - 정전체제는 복구할 수도 재생 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었으 며 이제는 새로운 체계로 교 체하는 길밖에 없음. - 美國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 거시키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단을 내려야 함. - 美國이 당장 그렇게 할 수 없 는 형편이라면 유엔군사령부 라도 해체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이 외면하는 길로 나간다면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냉전의 유물을 깨끗이 청산하 기 위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하나하나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0 갈루치 美 국무부 핵 대사, 美·北간 폐 연료봉 안전보관 합 의 확인 * 조찬모임 - 북한측과 폐연료봉 의 안전보관을 위 해 필수적인 사항 들을 합의했으며 저수탱크의 냉각 및 정화작업을 이 미 시작했음. 0 美하원 국제관계위, 北 재래식병력 감축 前 美·北관계개선 자제 촉구 결의 채택 - 北韓이 재래식병력 을 줄이고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중 단하지 않는한 연 락사무소 개설이상의 관계개선을 자 제토록 클린턴 대 통령에 촉구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 쌀15만t 지원에 소요되는 양곡대금 및 수송비 등 부대경비 일체 - 지원형식 : KOTRA에 대한 남북협력기금법상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보조금 지급 - 지원절차 : 쌀15만t 지원 완료후 KOTRA의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p>0 統一院 대변인,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불법 방북 관련 관련법규 따라 처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 문익환 목사의 부인인 박용길(76)은 김일성 사망 1주기 조문을 표방하여 6.28 북경경유 입북하였음. - 同 방북은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방북으로서 귀환후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30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 당국의 사과없으면 쌀제공 중단 표명</p> <p>* 기자간담회</p> <p>-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쌀지원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함.</p>	<p>○ 北韓당국, 『씨 아펙스호』人共旗계양사건 관련 대남 공식 사과</p> <p>*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 전금철 명의 對南電文</p> <p>- 나는 남측의 첫 선택이 우리측 항구에 입항하면서 서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아래 일꾼들의 실무적 착오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호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대하여 언명하는 바임</p> <p>○ 노동신문, 지자체 선거 결과 관련 '문민파소독재에 대한 심판장' 이었다고 論評</p> <p>- 이번 선거는 김○○ 문민파소독재에 대한 엄정한 심판장으로 되었음.</p> <p>- 김○○ 정권은 北南관계를 동결시키고 완전한 격폐상태에 빠뜨려 자그마한 인도주의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p> <p>- 남조선 인민들은 이번 승리를 계기로 反김○○, 反민자당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여야 할 것임.</p>	<p>○ 北·日 쌀지원협상 타결 (6.23~30)</p> <p>< 이가라시 관방장관 합의요지 발표 ></p> <p>- 긴급수입재고쌀 15만t이 긴급 인도적 지원의 관점에서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北韓적십자회에 무상공급됨.</p> <p>- 긴급수입재고쌀 15만t이 일본식량청과 北韓국제무역촉진위간 유상매각계약에 의거 공급됨.</p> <p>· 지불기간: 10년거치 30년이나</p> <p>· 이자: 10년간 연2%, 그이후 3%</p> <p>- 공급된 쌀은 民生用 소비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증되었음.</p> <p>- 쌍방은 금후 필요에 따라 긴급수입 쌀의 재고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유상지원을 하기위해 협의할 용의가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	<p>0 통일원 대변인, 북한측의 『씨 아펙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사과 관련 '수용 여부 신중검토' 언급 * 브리핑</p>	<p>0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장 이성호, 日本의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창설계획 비난 談話</p> <p>- 과거죄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패전 50년을 어물쩍 넘겨보려는 교활하고 어리석은 기만술책임.</p> <p>0 폐연료봉 안전보관 관련 제3차 美·北 전문가회담 참가 미국 대표단 訪北 종료 (6.20~7.1)</p> <p>0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준비사업정형 통보모임 개최 * 보고 : 백남준</p> <p>0 노동신문,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비 제막식관련 '일부 세력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 비난 論評</p>	
7. 2		<p>0 김일성 사망 1주년 즈음 문화 예술부문 연구토론회 (평양국립극장) * 참석 : 장철</p>	
7. 3	<p>0 宋榮大 통일원차관, 對北 쌀지원 재개 발표</p> <p>- 정부는 北韓측의 회신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p>	<p>0 외교부장 김영남, 갈리 UN사무총장에게 駐韓 UN司 소환 협조 요청 便紙 * 7.21 평양방송</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3	<p>은 결과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일단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기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단되고 있는 對北 쌀지원을 위한 도정, 포장, 선적, 수송 등 모든 작업은 곧 재개될 예정이며, 회항한 운송선박에 대해서는 다시 출항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 - 정부는 이번 對北 쌀지원이 南北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p>0 南北언론인회담 개최 제의 * 李亨模 『言勞聯』위원장 회담제의를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北韓의 조선기자동맹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南北언론인회담』을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낡은 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는데서 방해로 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유엔이 개입되어 있는것임 - 유엔 성원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유엔과 불미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임. - 연합군으로 하여금 유엔 깃발을 사용토록 허용한 조건에서 그것을 내리우고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p>0 駐中 북한대사관 참사관 최한춘, 김정일 승계지연은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 때문이라고 주장</p> <p>0 平放, 지자제선거 결과 관련 반정부 투쟁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거둔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그날까지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야함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4	<p>0 政府, 對北 쌀수송 선박 재출항 및 선적작업 재개 조치</p> <p>*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p> <p>- 북한측과 쌀지원재개문제를 협의한 결과, 北韓 삼천리총회사가 도착항을 청진항으로 하고 재개시점을 7.4일로 해줄 것을 통보해옴에 따라 회항했던 3척의 선박을 오늘 18시 출항시키기로 하였음.</p> <p>- 政府는 쌀도정·포장·선적·운송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반 작업을 재개토록 하였음.</p>	<p>0 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표 이찬복, 美·北 장성급접촉을 위한 실무접촉 결렬 관련 UN司 스미스 소장에게 便紙</p> <p>* 7.5 중앙통신</p> <p>- 美國측이 실무접촉을 결렬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임</p> <p>- 쌍방이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p> <p>- 美國측이 끝내 반대한다면 우리도 다른 방도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음.</p> <p>0 平放, 김일성 사후 7만명의 제대군인과 청년들이 광산·농촌으로 진출했다고 보도</p> <p>0 프랑스 경제사절단, 訪北일정 종료 (6.27~7.4)</p> <p>* 단장 : 구라파·조선관계촉진협회 부위원장 세이리크</p> <p>0 김일성 사망 1돌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평양체육관)</p> <p>* 참석 : 김기남</p>	<p>0 日마이니치신문, 김정일 10월 黨창건일 주석추대 가능성 보도</p> <p>- 북한은 김일성 사망 1주기를 계기로 金正日 추대작업에 들어가 10.10 당창건기념행사에 맞춰 새 체제를 발족할 것으로 보임.</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5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2차쌀회담에서 남북 관계진전 계기 마련 언급 * 기자간담회</p> <p>- 제2차 남북 쌀회담부터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임.</p> <p>0 李春九 민자당대표, 남북 직교역전환 적극지원 언급 * 제176회 임시국회 연설</p> <p>- 민자당은 對北교역을 직 교역으로 전환하며 기업 의 對北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p> <p>0 對北 쌀수송선 『돌진』호, 南北국기계양 없이 청진항 입항</p>	<p>0 노동신문, 금수산지구는 '주체의 최고성지' 라고 주장</p> <p>-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며 주체의 태양인 김일성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고 주체의 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최고성지가 이땅에 생겨난 것은 위대한 사변임.</p> <p>0 김일성 사망 1돌즈음 중앙연구 토론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이종옥,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장 철</p> <p>0 재일본조선인 추모대표단(단장 한덕수), 평양 도착 * 영접 : 박성철, 김용순</p>	<p>0 보스워스 KEDO 사무 총장 내정자, 비공식 訪韓</p>
7. 6	<p>0 統一院, 기술자 訪北 첫 승인</p> <p>- 남포공단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株)大字의 기술자 13명에 대한 訪北을 승인</p> <p>0 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 부지조사단에 美기업 참여 언급</p>	<p>0 노동신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식민지 예속경제의 취약성 반영' 이라고 비방</p> <p>- 남조선의 식민지 예속경제의 반인민성, 취약성이 백화점 붕괴라는 참사를 빚어내게 했음.</p> <p>- 현실은 김 〇〇 정권을 두고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민주</p>	<p>0 沈國放 中외교부 대변인, 김일성 1주기 행사에 대표단 파견 계획없다고 언급 * 브리핑</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6	<p>*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 내정자와 협의후 회견</p> <p>- 본격적인 부지조사는 발주자인 KEDO의 책임아래 탐사전문 미국기업에 용역을 줄 것임.</p> <p>○ 李基澤 민주당대표, 對北 쌀지원 계기 민족내부거래 국제인정 노력 언급</p> <p>* 제176회 임시국회 연설</p> <p>- 對北쌀지원을 계기로 WTO 이행특별법상의 남북간 민족내부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함.</p>	<p>의 염원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재난하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p> <p>○ 政務院 간부들, 김일성의 경제 부문책임일꾼협의회 지도 1돌 즈음 결의모임 (만수대)</p> <p>* 참석 : 강성산, 홍성남, 김윤희 공진태</p>	
7. 7		<p>○ 김일성 사망 1돌 중앙추모대회 (평양체육관)</p> <p>* 참석 : 金正日,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성애, 김철만, 최영림 外</p> <p>< 양형섭 추모사 要旨 > * 金正日 위임</p> <p>-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합쳐 金正日을 더 잘 받들며 당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함.</p>	<p>○ 中 당중앙위, 김일성 사망 1돌 즈음 北당중앙위앞 電文</p> <p>- 中·朝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이 만고에 푸르기를 축원함.</p> <p>○ 北, 청진·김책시 '개방지구' 선포계획說</p> <p>* 중앙일보, 중국소식통 인용 보도</p> <p>- 북한이 가까운 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의 나라로, 김일성민족이 사는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함. 	<p>일내에 김책시의 개방을 선포하고 11월이후 청진시도 개방지구로 선포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음.</p>
7. 8	<p>0 통일원 대변인, 對北 지원 쌀 인도港 다변화 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등 서해항에서 출발하는 쌀 수송선의 경우 북한의 해주·남포항 입항을 추진할 방침임. - 금명간 KOTRA와 삼천리총회사 관계자가 만나 이같은 항구다변화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p>0 金日成 시신 안치 『금수산기념궁전』 개관</p> <p>* 참석 : 김정일,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p> <p>< 최광 개관사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되게 한 것은 金正日이 지닌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도덕의리심의 숭고한 발현임. - 우리는 金日成을 영원히 높이 모심으로써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어지럽혀 놓은 공산주의 미덕을 복구하며 혁명적 지조를 온세계에 과시하여야 함. - 전당·전국·전군에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의 영도를 확고히 세우며,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p>0 金正日, 黨·政·軍간부 및 항일혁명투사들, 재일조선인 추모대표단, 박용길 등 接見</p>	<p>0 무라야마 日총리, 金正日에게 사회당 위원장 명의로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당 두나라 사이의 우호친선관계의 발전과 日·朝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임. <p>0 日교도통신, 北 폐연료봉 컨테이너 저장작업 95.9~96.2 진행 보도</p> <p>* 美군비관리군축국(ACDA) 당국자 발언 인용</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8		0 黨중앙위, 김일성 사망 1돌 즈음 연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한덕수, 박용길	
7. 9	0 안승운 목사 사건 발생 - 중국 延邊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50세)가 북한에 誘引·拉北된 것으로 추정	0 李仁模,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7.10	0 李洪九 국무총리, 북한 새 지도자 등장 이후 南北정상 회담 논의 기대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 - 정부는 그동안 긴장완화와 상호신뢰회복, 특히 핵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南北정상회담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왔음. - 北韓의 새 지도자 등장 이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0 마카오 北韓대표부 부대표 한명철, 金正日 국가주석·당비서 모두 취임할 것이라고 발언 * 홍콩 스탠더드紙 보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1	<p>0 자유지성 300人會(공동대표 李漢彬), 對北쌀 한국민 제공 명확화 주장</p> <p>* '쌀 복송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p> <p>- 北韓동포들에게 한국민의 동포애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北送 쌀에 한국민이 제공한다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함.</p>	<p>0 사회민주당 중앙위, 남한의 민주당에 통일대축전 동참 촉구 便紙</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그무슨 적화통일이니 내부교란이니 하는 황당한 구실로 8.15 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향하는 남조선의 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음.</p> <p>- 이념이 다르고 주의주장이 같지 않다고 하여 대축전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투쟁에서 발걸음을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p> <p>- 남조선의 민주당이 北과 南, 海外的 광범한 통일애국역량과 보조를 같이함으로써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함.</p> <p>0 平放, 北·中 친선발전·협력 증진 강조</p> <p>-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이 이룩한 경제건설 성과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p> <p>- 오늘 朝·中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며 신념임.</p>	<p>0 美·베트남 修交</p> <p>- 클린턴 美대통령, 관계정상화 공식 발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2		<p>0 『祖國戰線』중앙위, 통일대축전 성사 투쟁 촉구 남한단체들에 便紙</p> <p>* 대상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p> <p>0 미전향출소자 가족, 6.23 도쿄에서 김인서·김영태와 電話通話</p> <p>* 7.12 중앙통신</p> <p>-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관한 동경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인서의 딸과 김영태의 아들이 6.23 남조선 광주에 있는 아버지들과 전화로 감격적인 상봉을 했음.</p> <p>0 中放, 韓·美해군합동군사훈련 실시(7.8~8.6) 비난</p> <p>- 조선반도 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대세를 역전시켜 보려는 극히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임.</p> <p>0 노동신문, 사회주의체제에서 공개성은 '반혁명적' 이라고 주장 (최근)</p> <p>0 密入北 박용길, 이인모와 상봉</p>	<p>0 日요미우리신문, 日정부, 북한에 쌀 20만t 추가지원 검토 보도</p> <p>- 일본 정부는 북한에 20만t의 쌀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중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3	<p>○ 孔魯明 외무부장관, 유엔 통한 남북이산가족찾기 적극추진 방침 언급</p> <p>* 국회 통일외무위</p> <p>- 유엔인권위로부터 최근 북한측의 이산가족 49명이 한국측의 방해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확인을 요청한 진정서중 샘플 3개를 통보받았음.</p> <p>- 북한측 진정인들의 가족을 찾아 유엔인권위를 통해 통보하는 대신 유엔인권위가 가족간 연락 및 상봉을 주선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임.</p>	<p>○ 노동신문,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미룰 수 없는 현실적 요구라고 주장</p> <p>- 현 정전체제의 실패, 조선반도의 정세상황, 국제정세의 발전의 흐름으로 보나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성숙된 요구임.</p> <p>- 美國이 진실로 우리와의 교전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의사가 있다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나설 용단을 내려야 함.</p> <p>○ 中放,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사회주의 붕괴 주장 (논설)</p> <p>-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사회주의 건설을 망쳐버릴 수 있음.</p> <p>- 자본주의 방법을 끌어들이면 정치·경제·문화·도덕을 비롯한 모든분야에서 일대 혼란을 조성하게 됨.</p> <p>○ 외교부 부부장 최우진, 동남아 각국 방문차 평양 출발 (7. 13~8. 1)</p> <p>*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방문</p>	<p>○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실무접촉</p> <p>* 터크 美國무부 북한담당관, 北 UN대표부 공사 한성렬 참석</p> <p>○ 키신저 前美國무장관, 한미간 對북한관 상당 부분 이견 언급</p> <p>* 美상원외교위 증언</p> <p>- 클린턴 행정부는 접촉 확대를 통해 北韓의 고립감을 완화시켜줄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것 같은데 한국측은 상당 부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p> <p>○ 日산케이신문, 獨, KEDO 자금출연 의사 표명 보도</p> <p>* 日외무성 소식통 인용</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4	<p>0 權寧海 안기부장, 北주민 들사이 남한쌀 제공 소문 확산 언급 * 국회 정보위</p> <p>- 북한의 민간인들사이에는 남한쌀을 먹고 있다는 소문이 저변에서 확대되고 있음.</p>	<p>0 『祖平統』 서기국 대변인, 對北 쌀제공 관련 남한측 언동 경고 記者會見 (中央通信)</p> <p>- 얼마되지도 않는 쌀을 제공하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 바치는 것처럼 생색을 낼 필요는 없음.</p> <p>- 우리측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겠다고 하고 제공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임.</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불필요한 언동을 계속하며 우리를 자극한다면 그들에게 결코 좋은 결과가 차레지지 않을 것임.</p> <p>0 金正日, 재일조선인 추모대표단 위해 연회 (목란관) * 연설 : 김용순, 허종만</p>	
7. 15	<p>0 제2차 南北당국간접촉 개막 (북경) * 李錫采 재정경제원차관, 北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 전금철 참석</p>	<p>0 직업총동맹·조선천도교회 중앙위, 통일대축전 성사 투쟁 촉구 남한단체들에 便紙</p> <p>* 대상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 천도교 중앙총부 대종교 총본사</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5		<p>○ 中放, 제네바 군축회의(6.29)에서 한 북한대표 연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대결을 막는 유일한 방도의 하나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교전측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폭적인 군축을 실현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임. - 朝·美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선이 유엔 성원국으로 된 이상 남조선에서 유엔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하며 유엔과 조선사이의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함. <p>○ 여성폭행에 관한 UN특별보고자 보좌관들, 평양 도착</p>	
7. 16			<p>○ 江澤民 중국주석, 亞·太집단안보체제 반대 표명</p> <p>* 獨인론과의 회견 (人民日報)</p> <p>- 亞·太지역의 상황</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6			<p>은 유럽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는 다름. 다른 지역의 안전合作의 모델을 따를 수 없음.</p> <p>- 中國은 협상·합의의 점진적 방법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과 亞·太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를 원함.</p>
7.17		<p>0 『職總』중앙위, 통일대축전 성사투쟁 촉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에 便紙</p> <p>- 현실은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 책동을 짓부셔 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생존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p> <p>- 귀단체가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통일대축전을 개최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7		0 黨·政고위간부들, 다부작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 관람 * 참석 :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최 광 0 여성폭행에 관한 UN특별보고자 보좌관들 및 北韓 역사·법률 학자 좌담회 (평양고려호텔)	
7.18	0 UN인권위 증군위안부 조사 단 來韓 * 쿠라마스와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0 韓·美, 『韓美주둔군지위 협정(SOFA)』 개정 합의 * 孔魯明 외무부장관, 레이 니 駐韓美대사 합의	0 平放, 미전향출소자 송환 촉구 (기자대담) -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들을 남조선에 계속 억류해 두는 것은 법적 견지에서 보 나, 인류의 양심과 도덕적 견 지에서 보나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 남조선 통치배들은 비전향장 기수들의 송환을 가로막아 나 선 행위가 北南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0 金正日,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참여 軍장병등과 기념촬영 * 참석 : 최 광, 이을설, 이봉원, 김명국, 김두남, 박재경 0 여성폭행에 관한 UN특별보고자 보좌관들 訪北 종료(7.15~18)	0 허바드 美국무부 副 차관보, 對北정책, '한국주도-美지원' 형태 바람직 언급 * 워싱턴 조지타운大 워크샵 특강 - 北韓의 인권·테러 활동·미사일의 생 산과 판매 등의 문 제가 해결되지 않 고서는 완전한 美·北관계 정상화는 어려움. - 이제 北韓 문제는 서울이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0 日,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 금』 발족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들에게 지급 키로한 위로금 모 금사업, 의료·복 지사업 등을 담당 0 보스워스 KEDO 사무 총장, 8월초 訪北 타진 - 박길연 北 UN대표 부대사를 만나 경 수로사업문제를 협 의하기 위해 8.5 평양 방문의사를 전달
7.19	<p>0 제2차 북경회담 종료 (7.15~19)</p> <p style="text-align: center;">< 우리측 '발표문' (7.19字) 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차 회의에서 쌀 추가지원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남 북경협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2. 우성호문제에 대해 北側은 관계당국의 조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송환하기로 약속하였음. 3. 쌀 제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4. 제3차 당국간 회의는 8.10 개최하기로 하였음. 장소는 우 선 잠정적으로 北京으로하기로 하였음. 제3차 회의에서는 쌀문제와 南北간 경협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日, 對北제공 쌀 첫 출항 - 북한에 제공키로 한 쌀의 첫 선적분 8천t을 실은 북한 화물선 삼일포號가 동경에서 남포항을 향해 출항 0 허바드 美국무부 副 차관보, 美기업 對 北투자 시기상조 발언 (브리핑) - 아직은 美기업들이 북한에 자유롭게 투자할 단계가 아 니라고 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9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 적극 모색 언급</p> <p>*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주최 조찬세미나 강연</p> <p>- 실현가능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접촉을 통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함.</p> <p>- 北韓이 안정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첩경이 될 것임.</p> <p>- 北韓에 대한 추가적인 쌀 지원 협의는 남북관계 개선, 국내 쌀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p> <p>0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 회담종료후 記者會見</p> <p>- 당국자간 합의를 전제로 경공업분야의 투자확대, 비료와 농약제공, 무연탄 제공문제 등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p>	<p>0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봉률 (77세) 死亡</p> <p>* 現 당중앙위원, 국방위원, 인민군 차수</p> <p>0 平放, 남한은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비방 (대답)</p> <p>- 오늘 남조선 사회는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더욱더 전락되고 있음.</p> <p>-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인민을 등진 사대매국정권이 파멸될 날은 멀지 않았음.</p> <p>0 『농근맹』중앙위, 통일대축전 성사투쟁 촉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 便紙</p> <p>0 美록펠러재단 대표단, 北 아·태평화위 초청으로 평양 도착</p> <p>- 골드마크 재단 총재, 스칼라 피노, 애저튼, 야스오 등 美日 인사 19명으로 구성</p> <p>0 中 당대외연락부 대표단, 평양 도착</p> <p>* 단장 : 부부장 유경흠</p>	<p>0 무라야마 日총리, 종군위안부 징집 여성에 사과 聲明</p> <p>- 위안부로 징집돼 큰 상처를 입은 여성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은 제공받은 쌀은 민생용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음. - 對南 비방증상 증지에 대해 북측은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對北경협 지침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가공 우선지원, 업체간 과당경쟁방지, 신속한 북한정보 제공 등 포함 		
7.20	<p>○ 金泳三 대통령, 3차 북경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새 국면 접어들 것'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당 당직자 및 당무위원 초청 조찬 - 8.10 제3차 회담에서는 南北간에 보다 깊이있는 협상이 이루어져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임.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 추가 쌀지원은 북측의 상응조치에 따라 신중 추진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당정회의 보고 	<p>○ 平放, 통일대축전에서 고려연방제안 협의·확정 주장 (논평원 문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南,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은 8.15 민족통일대축전장에서 바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p>○ 『사로청』중앙위, 통일대축전 성사투쟁 촉구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에 便紙</p> <p>○ 『祖平統』대변인, 최근 남한 내 외국인 범죄 관련 報道</p>	<p>○ 요르단, 北외교관 2명 담배밀수 혐의로 체포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한』誌, 외무부소식통 인용보도 - 요르단 세관당국은 7.16 북한대사관 상무관과 1등 서기관을 외교관차량을 이용, 담배를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추가 쌀지원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북측의 상응한 조치를 봐가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임. - 쌀추가지원문제를 남북경협차원에서 여타의 경제 문제와 함께 다뤄나갈 것임. <p>○ UN司, 美·北 장성급접촉 거부 對北편지 * 일직장교접촉 통해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司 스미스 소장 명의로 북한 이찬복 중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美·北 간 군사접촉은 군정위 틀 내에서만 가능하며 직접적인 접촉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 		
7.21	<p>○ 金泳三 대통령, 수개월내 남북 중요대화 개최 전망 * 美 비즈니스위크誌 회견 (7.31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개월내에 남북한 간에 중요한 對話가 있을 것임. - 현재 북한에는 金正日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 그 	<p>○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부위원장 백남준, 北·南·海外 준비위 『공동합의문』 발표 *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합의문 要旨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족통일대축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해방50돌 민족통일대축전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p>○ 로드 美국무차관보, 韓·美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주의제로 논의 언급 * 아시아 소사이어티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방문에서는 남북한관계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하며 또 될 것으로 믿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1	<p>가 주석직에 올라 대화를 갖게 되면 한반도 평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부족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쌀제공을 비롯 北韓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는 北韓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음. <p>0 통일원 대변인,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의 판문점 기념행사 不許 발표</p> <p>*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16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접촉승인을 不許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팩시밀리 회담을 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 했음. <p>0 통일원 대변인, 8.15 즈음 평화체제관련 획기적 對北 제의 보도 부인</p> <p>* 브리핑</p>	<p>2. 민족통일대축전은 95.8.12~17 까지 진행함. 北·南·海外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는 8.15에 함.</p> <p>3. 3자 공동행사는 판문점에서 하며 그밖의 행사들은 北·南·海外가 각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함.</p> <p>4. 민족통일대축전의 명칭은 행사의 계기와 거족적 성격, 통일지향의 뜻을 담아 각지역 실정에 맞게 정함.</p> <p>5. 공동행사로는 개·폐막식, 통일음악회와 사진 및 미술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와 단체별·부문별 행사로 함. 이와함께 공동행사의 하나로 대민족회의 또는 통일대토론회를 가짐.</p> <p>6. 남측준비위원회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참가시킴.</p> <p>0 『여맹』중앙위, 통일대축전 성사투쟁 축구 한국여성단체연합에 便紙</p> <p>0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봉률 國葬</p> <p>* 참석 : 최 광, 이을설, 백학림, 김광진, 김익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에서의 실종 미군, 북한의 미사일수출, 군사력 전진배치, 인권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대화의 진전 등이 해결되지 않는한 美·北관계의 개선은 불가능함. - (쌀제공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南北韓간 非關稅교역은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2	<p>0 金泳三 대통령, 韓·美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와 美·北관계 진전문제 논의 언급 * 訪美 출국인사</p> <p>- 최근의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안보문제, 남북 대화와 美·北관계 진전 등은 韓·美頂上간에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 현안임.</p> <p>0 대우그룹 기술자 13명, 평양 도착</p> <p>- 申洪祚 이사를 단장으로 생산담당 7명과 설비담당 6명으로 구성</p>		
7.23	<p>0 金泳三 대통령, 3차 북경 회담에서 南北경협 논의 언급 * 교민초청다과회(샌프란시스코)</p> <p>- 오는 8.10 제3차 남북쌀 회담에서는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임. 특히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임</p> <p>- 北韓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음. 북</p>	<p>0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통일원 대변인의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발표 비난 聲明</p> <p>- 분열주의적 흥심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은 것으로서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파쇼 폭거임.</p> <p>- 김 〇 〇 일당이 민족통일대축전을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임.</p>	<p>0 北, 캄보디아 쌀경작지 임차 요청說 * 캄보디아 공보부 대변인 기자회견</p> <p>- 캄보디아주재 北대사 송호경은 7.14 생구르 농업장관과 회담에서 북동부 라타나키리주에 고무농장 2만ha, 남부 칸달주에 쌀경작지 2천ha를 사용토록 허용해 줄 것</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3	<p>한의 이같은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임.</p> <p>0 金泳三 대통령, 핵융합 기술개발 착수 언급 * 在美 과학기술자 초청 다과</p> <p>-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융합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나갈 것임.</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對北투자 확대 허용 언급 * 全經聯 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 특강</p> <p>- 현재는 對北투자가 5백만 달러이하의 경공업과 생필품으로 제한되었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중화학분야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임.</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축전행사의 어느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것이 어떻게 법에 위반되는지 똑똑히 밝혀야 함</p> <p>- 北과 南, 해외를 망라한 민족 준비위원회가 발족된 이상 판문점 통일대축전은 반드시 성황리에 개최하게 될 것임.</p>	을 제의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4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민간차원 對北 쌀지원 검토 표명 * 기자간담회</p> <p>- 1차 쌀지원이 마무리되고 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p> <p>0 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 『韓電-美ABB-CE社간 양해각서』 관련 한국 중심적 역할 손상시 불수용 표명 * 언론설명회</p>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 訪美 관련 '사대매국행각' 이라고 극렬 비난 (論評)</p> <p>-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떠드는 괴뢰역도가 우리를 빗대고 도발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괴뢰군과 경찰에 경계령을 편 것은 우리에게 대한 도발이고 대결선언임.</p> <p>-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수립문제 는 우리와 美國사이에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며, 김○○은 거기에 끼어들 자격이 없음.</p> <p>- 김○○ 역도의 미국행각늘음은 결국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기 위한 또 하나의 사대매국의 흥정판 늘음임.</p> <p>0 조선기자동맹 중앙위·『문예총』중앙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통일대축전 성사 투쟁 촉구 便紙</p> <p>0 외교부 부부장 최우진, 카셈 태국 외무부 차관보와 회담 (방콕)</p> <p>0 조선종교인협회, 남한의 종교인협의회에 통일대축전 성사 투쟁 촉구 便紙</p>	<p>0 로드 미국무차관보, 北 식량제공 요청 관련 검토중이라고 언급 * 美내셔널 프레스 클럽 브리핑</p> <p>- 북한측이 쌀을 요청, 우리는 상황을 검토중임. 그러나 법률적·정치적으로 제약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함.</p> <p>0 파노프 리외무차관, 한반도 평화 포괄적 해결 주장 * 이타르 타스통신 회견</p> <p>- 한반도 평화정착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옛 정전체제는 새 정전체제가 들어선 이후에야 폐기되어야함</p> <p>- 새 정전체제에는 여러 국가가 국제회의의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5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공동 발전계획 추진 언급 * 美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p> <p>-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韓·美간의 공동보조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분명히 풀릴 때까지 강력히 유지되어야 함.</p> <p>- 한반도의 평화는 그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에 의해서만 정착될 수 있음.</p> <p>- 南과 北이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한국의 통일정책임.</p> <p>- 이에 는 북한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우리는 南과 北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음.</p> <p>0 金泳三 대통령, 올해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 마련 언급 * 워싱턴 교민초청 리셉션</p> <p>- 분단 50년이 되는 올해는</p>	<p>0 평양방송, 안승운 목사 '의거 입북' 보도</p> <p>0 김정일 논문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 중앙연구 토론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최태복, 김기남</p> <p>0 폐연료봉 안전보관 관련 제4차 전문가회담 참가 美國대표단, 平壤 도착 (7.25~7.29)</p>	<p>0 파노프 러외무차관, 자동군사개입조항 北 통보설 否認 * 이타르 타스통신 회견</p> <p>- 사실과 다름. 현재 러·北은 협정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중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25	<p>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것임.</p> <p>○ 金泳三 대통령, 北 중대 시기 봉착 언급 * 뉴스위크誌 회견(7. 31字)</p> <p>- 北韓이 현재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 등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시기에 봉착해 있음.</p> <p>- 현실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임.</p> <p>○ 외무부 대변인, 안승운 목사 사건 관련 언급</p> <p>- 안목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인된 것으로 판단됨. 납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p>		
7. 26		<p>○ 『조국해방전쟁 승리 4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2.8문화회관)</p> <p>* 참석 : 강성산, 이종욱, 김영남 최 광, 계응태</p> <p>< 김광진 보고 要旨 ></p>	<p>○ 클린턴 美대통령, 평화문제 관련 南北 공동案 마련엔 지원 표명</p> <p>* 워싱턴주재 한국특파원 서면 인터뷰</p> <p>- 한반도 평화를 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호전계층들은 남조선에 술한 침략무력을 증강배치하는 한편, 팀스피리트를 대신한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 위협을 감행하고 있음. - 지금 워싱턴에서는 조선전쟁 기념비 제막식이라는 놀음까지 벌여놓고 미국사회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열기를 고취하려고 획책하고 있음. - 美國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 ○ 『汎民聯』 북측본부 대변인, 판문점 공동행사 不許 비난談話 - 겨레의 발목을 얽어매놓고 민족분열의 비극적 사태를 무한정 연장시키려는 천추의 용납 못할 범죄행위임. - 北南 준비위원회들 사이의 팩스 협의마저 범죄시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부당한 처사임. ○ 중국 黨대외연락부대표단, 방북 종료 (7.19~26) * 단장 : 부부장 유경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 美國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남북한 쌍방간 수용할 수 있는 案이 마련될 경우 미국은 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 - 상호관심사항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美·北관계를 대수급으로 격상할것임 ○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 對북한 협력강화 표명 * IRNA 통신 보도 - 양국이 석유 및 기타 경제협력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7	<p>0 韓·美정상회담, 『對北공동전략협의체』구성 합의 (위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韓美안보협의회의(SCM)와는 별도로 차관급 이상의 『대북공동전략고위협의체』를 구성기로 합의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당사자 해결의 원칙에 따라 南北 韓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 <p>< 공동기자회견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 대통령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 클린턴 대통령은 “美·北 관계개선은 북한의 對 한국 관계개선 노력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 “주한美軍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주둔하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발언 	<p>0 黨·政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p> <p>* 참석 : 강성산, 이종욱, 김영남 최 광, 계응태 外</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7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문제 韓·美 공동대처 완전합의 언급</p> <p>*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p> <p>- 정상회담에서 南北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합의했음.</p> <p>- 북한과 미국간 진전되는 것이 없음. 놀랄만한 진전은 아무것도 없음.</p> <p>0 孔魯明 외무부장관, 南北 대화-美·北연락사무소 교환조건 아니라고 언급</p> <p>* 외신기자회견</p> <p>- 남북대화 재개가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 조건은 아님. 그러나 두 사안간에 조화와 평형이 유지돼야 할 것임.</p> <p>0 정부, 韓·美 『95 을지-포커스 렌즈연습』 8.21~9.1 실시 발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8	<p>0 金泳三 대통령, 8.15 對北 중대 제의 언급 * 美CNN-TV 회견</p> <p>- 8.15 광복절을 기해 북한에 대해 매우 새롭고도 중요한 제의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p> <p>- 이번 광복절이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람.</p>	<p>0 『祖平統』대변인, 안승운 목사 의거입북 주장 談話</p> <p>- 남조선 통치배들이 안승운의 의거를 납치니 뭐니하고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려고 책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궤변임.</p> <p>-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불순한 책동을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p> <p>-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모해하면 할수록 보다 비싼 댓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p> <p>0 平放, 『95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실시 비난 論評</p> <p>-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떨쳐나서고 있는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임.</p> <p>0 『祖平統』서기국, 『95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비난 報道</p> <p>0 『조국전선』중앙위 대변인,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비난 談話</p> <p>0 『汎民聯』해외본부,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비난 聲明</p>	<p>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南北 峽회담 기대 표명 * 내셔널 프레스클럽 오찬간담회</p> <p>- 南北峽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향한 희망적 진전임.</p> <p>0 길포드 EU집행위 대변인, EU, KEDO에 2천만불 지원계획 이라고 언급</p> <p>0 신화통신, 中, 北청진항 임차이용 보도</p> <p>- 中國은 최근 북한 청진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임차 사용키로 합의,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p> <p>0 美국제경제연구소, 北군사경제 GNP의 20~40% 점유 주장 * 日산케이신문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9	<p>0 金泳三 대통령, 訪美 일정 마치고 귀국</p> <p>< 귀국인사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정세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음.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수립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합의되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그때까지는 휴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음. <p>0 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 北, 한국대표 참여 시비편 경수로사업 不진행 경고</p> <p>*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앞으로 원전 부지조사단 파견과 경수로 공급협상에서 한국의 참여를 문제삼는다면, 경수로 공급사업은 진행이 안될 것임. 	<p>0 『祖平統』 등 7개단체, 朴容吉 귀환 관련 聯合聲明</p> <p>* 조평통·조국전선·직총·사로청·농근맹·여성동맹·종교인협의회 공동명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용길 여사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곧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 됨. -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화 일방에게 감히 악행으로 도전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北南관계를 보다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갈 것임. -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박용길 여사를 체포 구속한다면 백배천배의 비싼 댓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 <p>0 北韓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박용길 7.31 판문점 통과 귀환 발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용길 여사가 방문일정을 마치고 7.31 오후 3시 판문점을 거쳐 남조선에 돌아가게 됨. - 남조선 당국이 무제한 탄압기도를 당장 철회하고 그의 무사한 귀환과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것을 강력히 촉구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여러 통일민주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판문점에 나와 박용길 여사를 뜨겁게 마중하며 그의 귀환을 적극 협조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 『祖平統』서기국, 5.18 관련 자 불기소 결정 비난 報道 ○ 폐연료봉 안전처리관련 美·北 전문가회담 참가 미국대표단, 訪北 종료 (7.25~29) ○ 노동신문,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은 美·北간 문제라고 주장 (論評)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平統』대변인,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비난 談話 - 남조선 통치배들이 北南對話를 하자고 하면서도 北과 南의 정당·단체들과 인사들이 공동축전을 가지는 것마저 불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한국인 차장 포함된 KEDO 총장단 訪北제의 거부 보도 (조선일보) ○ ASEAN 외무장관회담 남북대화 재개 촉구 * 공동성명 (방콕)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南北韓간 대화재개가 극히 중요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31	<p>○ 金泳三 대통령, 한반도 평화문제 '한국주도-미국지원' 확인 언급</p> <p>* 3府요인 및 야당대표 초청 오찬</p> <p>- 이번 韓·美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며 미국은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음.</p> <p>-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南北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쐐기를 박은 것임.</p> <p>○ 孔魯明 외무장관, 남북정상회담은 현안문제라고 언급</p> <p>* 뉴스위크誌 회견(8.7字)</p> <p>-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간 현안문제 가운데 하나임. 만약 김정일이 부친의 유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정상회담은 실현될 것임.</p> <p>○ 밀입북 박용길, 판문점 통과 귀환 (6.28~7.31)</p> <p>○ 北 시베리아 벌목공 7명, 유엔고등판무관 주선으로 귀순</p>		<p>○ KEDO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막 (뉴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31	0 남북한·해외학자 통일문 제 학술회의 개최 (7.31~8.1, 북경) * 서울大 한국정치연구소와 북한 사회정치학회 공동 주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	<p>○ 李時榮 외무부차관, 張庭延 駐韓 중국대사 불러 안목사 사건 조속규명 요청</p>	<p>○ 외교부 대변인, 韓·美 정상회담 관련 비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북남관계 진전과 朝·美관계 진전에 보조를 맞추기로 하는 한편 우리에게 핵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음. - 이는 핵문제와 朝·美간의 관계해결에 관한 기본합의문 이행에 새로운 전제조건을 제기하는 하나의 기도임. - 미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北南대화 재개와 미군유골 반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 朝·美관계가 진전되면 北南관계도 자연스럽게 진전될 것임. -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는 朝·美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에 달려 있으며 이 문제는 朝·美간에 논의돼야 할 문제임. <p>○ 『조국전선』 중앙위,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자 단속 비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로운 일을 한 지식인들에게 	<p>○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남북대화 재개 촉구 議長聲明 (브루나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간의 대화재개를 촉구하며 이것이 제네바 美·北핵합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도울 것으로 믿음. - KEDO가 美·北 핵합의의 이행을 위한 기구인 만큼 이 기구를 국제적으로 지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함. <p>○ 갈루치 美국무부 핵대사, 한국 중심 역할 불변 강조</p> <p>*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사업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는 韓·美·日 3국의 태도는 분명하며 앞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		<p>총련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탄압한 것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모해하기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모략임.</p> <p>0 중앙통신, 안승운 목사 7.31 봉수교회 참관 보도</p> <p>0 외교부 대표단, 동남아국가 순방후 평양 귀환 (7.13~8.1) * 단장 : 최우진</p> <p>0 『전승컵 체육경기대회』개막 (평양탁구경기관) * 참석: 장철</p>	<p>0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남북대화 지지 표명 * 美 크리스토퍼 장관과 회담시</p> <p>- 南北韓사이의 직접 대화 원칙을 매우 강력히 지지함.</p> <p>0 美, 아·태新安보체제 구축 검토 * ARF참가 美 국무부 관리 언급</p>
8. 2	<p>0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선원의 청진항 사진촬영 사건 발생</p> <p>- 청진항에 입항한 『삼선비너스』호 1등항해사 李良天씨가 8.2 카메라로 청진항을 촬영하다가 북한당국에 적발, 억류되는 사건 발생</p>	<p>0 김정일 논문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10돌 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최태복</p>	
8. 3	<p>0 韓·日 외무장관 회담</p> <p>- KEDO 공조체제 지속 거듭 확인 및 日·北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교환</p>	<p>0 『조평통』대변인,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p> <p>- 박여사에게 탄압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일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화국과</p>	<p>0 美 상원, 북한이 향후 수년내 알래스카 등 美 영토 도달 미사일 개발 우려 표명 * 新탄도미사일 요격</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3	<p>0 외무부, 南北韓 수교국 및 재외공관 현황 발표</p> <p>* '94년도 외교백서</p> <p>- '94년말 현재 수교국은 총 175개국(북한은 133개국), 재외공관수는 총141개(북한은 76개)</p>	<p>직접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임</p> <p>- 우리와의 대화 운운하면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부치는 것도 심히 자가당착적인 행위임.</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박장로를 우리와 연결시켜 체포·구속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대화를 전면 부정하고 대화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박여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며 무조건 석방해야 함.</p>	<p>(ABM)체제 구축 촉진 진案 심의시 공화당 소속 의원들</p>
8. 4	<p>0 KEDO, 對北 중유 공급권자로 유공 선정</p> <p>* 유공 발표</p> <p>- KEDO가 실시한 北제공 중유 공개경쟁입찰에서 병커 C유 4만t에 대한 공급권자로 선정</p> <p>0 南北韓·海外 역사·고고학자 참석 국제학술회의 개최 (8.4~6, 오사카)</p> <p>* 동아시아에 있어서 원시, 고대문명의 재검토 주제</p>	<p>0 노동신문, 평화체제 수립은 美·北간의 문제라고 주장(論評)</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조선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에 끼어들려고 분수없이 놀아대는 것은 국제적 정의와 세계여론에 대한 우롱임.</p> <p>-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朝·美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美軍을 철수시키는 것임.</p> <p>- 北南사이에 이미 불가침을</p>	<p>0 北, 후쿠오카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 통고</p> <p>* 경기조직위 대변인 발표</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4		<p>확약한 북남합의서가 채택되었고 그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조건에서, 이제 남은 것은 朝·美사이에 평화보장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p> <p>0 『직총』중앙위 대변인,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p>	
8. 5		<p>0 『농근맹』중앙위 대변인,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p>	<p>0 美·베트남, 修交문서 공식 서명</p> <p>*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베트남 외무 장관 조인식</p> <p>0 日교도통신, 북한내 원폭피해자 273명 보도</p> <p>* 북한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 부회장 신형숙 발언 인용</p>
8. 6		<p>0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제22차 회의, 북측지역 행사일정 최종 확정</p> <p>* 8.7 부위원장 백인준 기자회견을 통해 行事日程 발표</p> <p>- 8.12 김일성 통일유훈 실현 결의대회 (평양)</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3 대축전 행진대 출정식 (백두산) - 8.14 행진대 평양도착 환영 군중대회(김일성경기장) - 8.15 대축전 개막식, 대민족 회의, 통일음악회, 미술 전시회, 제6차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중앙위 제1차회의, 범청학련 공동선언연단, 사진 및 미술 전시회 (판문점) - 8.16 대축전대표와 평양시민 방송야회 (2.8문화회관) - 8.17 조국통일상 수여 행사 ○ 金正日, 인민군훈련일꾼회의 참가자 接見 * 참석 : 최 광, 김광진, 이하일, 이봉원, 김명국, 오용방, 김정각, 김하규, 박재경 ○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 대변인,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7	<p>○ 韓·美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호놀룰루) * 李在春 외무부 1차관보, 로드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참석</p> <p>○ 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 KEDO·北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협상 8月末 개시 언급 * 기자회견</p>	<p>○ 平放, 안승운 목사 의거입북 주장 (시사논평)</p> <p>- 안승운 목사가 의거한 것은 스스로의 신념과 판단에 따른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납치나 유인에 의한 것이 아님.</p> <p>- 괴뢰들이 도리어 우리를 걸고 들며 혈뜬는 것은 北南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범죄적 책동임.</p>	
8. 8	<p>○ 제3차 韓·美고위협의회 종료 (8.7~8, 호놀룰루) * 李在春 외무부 1차관보, 로드 美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참석</p> <p>- 향후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p> <p>- 美·北관계 개선은 南北관계 개선과 조화 및 병행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함을 재확인</p> <p>- 제3차 南北韓 북경접촉이 무기 연기되는데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억류된 쌀 수송선박과 선원을 즉각 송환할 것을 강력히 희망</p>	<p>○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대변인,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p> <p>- 北과 南의 전기독교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임.</p> <p>- 남조선이 北과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며 통일을 원치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박용길 장로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석방하여야 함.</p> <p>○ 中放, 세계직업연맹 대표단이 8.2 갈리 UN사무총장에게 UN司해체촉구 便紙 발송 보도</p>	<p>○ 美·北, 중유전용 방지 위해 北발전시설에 계측기 설치 합의說 * 문화일보 보도</p> <p>- 6.15 평양 美·北 전문가회담에서 KEDO 비용부담으로 북측 발전시설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KEDO 직원을 派北키로 합의했다고 보도</p> <p>○ 킹리치 美하원의장, 주한미군 추가감축 반대 표명 * 조선일보 회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핵문제 관련 3국간 협의체제를 확대·발전시켜 對北투자 및 경협추진에 있어 韓·美·日 3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 ○ 孔魯明 외무부장관, 對北 쌀 민간차원 지원방안 검토 언급 * 기자간담회 -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민간의 對北 쌀지원을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봄 ※ 통일원 대변인, “연구차원에서 검토되었을 뿐,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 ○ 통일원 대변인, 제3차 북경회담에서 경협문제·우성호 송환문제 논의 언급 * 브리핑 - 회담에서는 對北 쌀지원 문제를 비롯, 경제협력문제와 우성호 송환문제 등 기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임. - 우리측은 15만t의 대북 쌀지원을 가급적 빠른 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8	<p>일내에 완료한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할 것임.</p> <p>- 우성호 송환 등 南北사이의 현안문제들이 북한측의 상응조치로써 하루빨리 해소되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임.</p>		
8. 9	<p>0 통일원차관, 北, 쌀수송선 억류 관련 政府立場 발표</p> <p>- 정부는 8.2 청진항에 입항한 『삼선 비너스』호의 1등항해사 李良天씨가 8.2 12시 카메라로 청진항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필름을 빼앗기고 북한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음.</p> <p>- 北韓측은 계획적인 정탐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政府는 현시점에서 사실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임.</p> <p>- 北韓측은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보장에 따라 우리 선박과 선원을 조속히 돌려</p>	<p>0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통일대축전 참가 남측·해외대표 신변안전보장 聲明</p> <p>-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판문점지역에 오는 남측과 해외측 대표들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따듯이 맞이할 것이며 그들의 신변 안전을 담보할 것임.</p> <p>- 행사를 성과적으로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보장할 것임.</p> <p>0 북한 反核단체들, 일본 원폭투하 50돌 즈음 핵무기 완전철폐 주장 討論會 (천리마문화회관)</p> <p>*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조선반핵평화위·조선반핵평화 의사협회·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 공동주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9	<p>보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李良天씨 문제 해결을 위한 南北대표간 접촉을 제의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p>○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 쌀수송선 억류 관련 남북 대표접촉 제의 對北電文</p> <p>* 北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 전금철 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제3차 북경회담마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우리는 쌀수송을 위해 귀측에 간 선박과 선원 전원이 귀측 당국이 보장한 신변안전보장각서에 따라 지체없이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함. - 나는 쌀수송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대표단사이에 협의 해결키로 한 제1차 북경회담 합의사항 제7항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대변인, 박용길 구속 비난 담화 ○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제23차 회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9	<p>의를 위해 南北대표간에 즉각 만날 것을 제의하는 바임.</p> <p>- 이를 위해 우리측은 8.10 (목) 대표 1명을 북경에 내보낼 것임.</p>		
8.10	<p>○ 對北 쌀지원 관련 북경실 무접촉 (8.10~14)</p> <p>- 『삼선비너스』호 선원의 귀환문제 및 제3차 북경 회담 재개문제 협의</p>	<p>○ 『祖平統』서기국, 박용길 구속 관련 記者會見</p> <p>*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장재철 발언</p> <p>- 박용길에게 가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탄압과 박해를 인륜도덕을 무참히 짓밟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 준렬히 규탄함.</p> <p>-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형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 스스로가 우리와의 對話를 부정하는 것임.</p> <p>- 국가보안법을 北에 왔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와 對話를 하려는 의사도, 하려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임.</p> <p>○ 中放, 북·남·해외 역사학자 학술회의(8.6)와 북·남·해외 동포학자 통일토론회(7.31-8.1 북경) 개최 보도</p>	<p>○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 北, UNICEF 제공쌀 해외판매說 보도</p> <p>- 북한이 최근 UN산 하 국제아동기금에 추가 쌀지원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앞서 제공받은 쌀 일부를 해외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보도</p> <p>○ 獨 한스 블라트誌, 北·獨 합작무역회사 설립 보도</p> <p>- 독일 구상무역회사와 북한 조선청산결제무역회사가 최근 北·獨 청산결제무역회사(KDCCG) 설립에 합의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0		0 조국해방 50돌 기념 중앙연구 토론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0 『社勞靑』중앙위 대변인, 박 용길 구속 비난 聲明	
8.11		0 北韓 정부, 고려연방제 발표 15돌 관련 『備忘錄』 발표 - 지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인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은 지체 없이 철폐되어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진정한 통일의사가 있다면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리는 실지 행동 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함. - 北과 南은 1991년 北南합의서 를 채택함으로써 평화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앞으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 라 北南대화가 재개되면 이미 세워진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 수 있음. - 응당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 이 정전체계를 평화보장체계 로 바꾸는 문제를 담당해야함	0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前 영사보호권 행사 합의說 (서울신문) - 연락사무소 개설때 까지 잠정적으로 平壤주재 독일이익 대표부와 UN주재 북한대표부가 자국 민에 대한 영사보 호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0 R. 매닝 美진보정책 연구소 선임연구원, 駐韓美軍 철수의 美 ·日동맹 파급효과 검토 시점 주장 * 워싱턴 퀴터리(95. 가을호) 기고문 - 美·日은 주한미군 철수가 두나라 동 맹관계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이 제 검토해야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1		<p>0 판문점 북측지역에 『김일성 친필비』 제막 * 참석 : 이종욱, 김용순, 장 철유미영</p> <p>< 김용순 제막사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그의 영도밑에 金日成이 우리에게 남긴 통일유산을 훌륭히 관철하여야 함. <p>0 외교부 대변인, 日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비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에서 가해자로서의 응당한 직접보상과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술책임. <p>0 노동신문, 韓·美 대북공동전략 추진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인 것처럼 내세우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 - 남조선을 朝·美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끼어들게 한다면 朝·美관계 개선에서 더욱 커다란 장애와 복잡성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 	<p>0 日요미우리신문, 北 일본에 쌀 추가지원 요청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이종혁은 최근 와타나베 前부총리 등에 문서를 보내 2차 쌀지원을 위한 實務協議의 조기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 <p>0 러시아방송, 北 쌀 수송선 억류 '무모한 처사' 라고 비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등 향
8. 12	<p>0 姜英勳 韓赤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조속재개 촉구 對北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적십자회측이 南北적십자간의 접촉과 대화를 다시 여는데 호응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南北의 적십자인들은 이제라도 남북이산가족들이 서로 안부소식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임. - 작년 8.12 남북적십자 쌍방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板門店에서 만날 것을 제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北韓적십자회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함. - 우리측 어선 제86우성호 선원들을 포함한 400여명의 拉北者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북한적십자회측이 인도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함. <p>0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 北 쌀 수송선 억류 관련 對北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유 	<p>0 김일성 통일유훈 관철 결의대회, '決議文' 채택 (만수대 김일성동상앞)</p> <p>* 참석 : 양형섭, 김용순, 유미영, 백남준, 서만술, 강경희, 조영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이 마련해준 조국통일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임. - 조국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것임. -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임. -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역사에 가장 뜻깊은 사변으로 장식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2	<p>감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북경협상에서 합의된 쌀 협력사업은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임. - 이양천 1등항해사를 포함한 선원 전원과 선박을 조속히 돌려보내 주기를 바람. 		
8.13	<p>○ 宋榮大 통일원 차관, 北역류 『삼선 비너스』호 및 선원 귀환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에서는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 명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표시와 재발방지대책 강구, 그리고 제공기로 합의된 쌀의 잔여분 수송 약속을 밝히며, - 북한측은 삼선 비너스호의 선원 전원과 선박의 무사귀환을 보장키로 합의하였음. 	<p>○ 중앙통신사, 역류 쌀 수송선 송환 ' 보도문 '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대행위는 어느 개인의 실책에 의하여 빚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의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도발행위임. - 우리가 취한 관용은 깊은 동족애와 인도주의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北南사이의 신뢰를 도모하고 화해를 바라는 우리의 대범한 입장의 증거임. <p>○ 北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 전금철, 역류 쌀 수송선 송환 통보 對南電文</p>	<p>○ 日아사히신문, 日, 對北수교협상 9월 재개 타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정부·여당은 日北 국교정상화협상 9월중 재개에 대해 북한의 뜻을 타진했다고 보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0 외교부, 일본의 과거 사죄 및 배상 촉구 『備忘錄』 발표 0 통일대축전 행진대 출정식 (백두산) * 참석 : 김용순, 유미영, 문경록, 조영삼	
8.14	0 金泳三 대통령, 對北문제 인내심 갖고 대처 언급 * 코리아 헤럴드紙 창간 42주년 특별회견 - 대북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함 - 대북 쌀지원은 동포애적 차원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지원문제는 이런 정신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임. 0 통일원 대변인, 對北 쌀 추가지원 검토 부인 * 브리핑 - 정부는 쌀 추가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면합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0 외교부 대변인, 對北 평화협정 제의설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다' 고 주장 (記者會見) - 남조선 당국자들이 8.15를 계기로 北과 南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들이 담보하는 '2+4' 요 '2+2' 요 하는 평화구축안이란 것을 내놓을 것이라고 함. - 이것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침을 확약한 北南합의서를 집어던지는 것으로 됨. -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될 것이며 北南합의서의 이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임.	0 였친 리 대통령, 해방 50돌 즈음 김 정일에게 祝電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4		0 중앙인민위, 해방 50돌 즈음 였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祝電 - 朝·러관계가 앞으로도 자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 명함. 0 행진대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김일성경기장) * 참석 : 양형섭, 황장엽, 김용순 박남기, 유미영, 조영삼 0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 정민주·이혜정 密入北 (8. 14~10. 3)	
8. 15	0 金泳三 대통령, 한반도 평 화정착 기본원칙 제시 * 광복절 경축사 -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 평 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 은 기본원칙을 제시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 제는 반드시 南北당사자 간에 협의·해결되어야함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함. - 南北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0 조국해방 50돌 경축 중앙보고 대회 (함흥) * 참석 :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 박성철 보고 要旨 > - 미국은 힘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 한 범죄적 책동을 계속 강화 하고 있음. -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 리를 반대하는 공조체제를 강 화하고 대결의 길로 나가려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를 준렬히 규탄함.	0 KEDO 경수로 부지조 사단, 평양 도착 - 솔로젠 美핵담당 대사실 담당관을 단장으로 韓·日· 日 전문가 등 15명 으로 구성 0 무라야마 日총리, 침략 공식인정·사 죄 談話 - 식민지 지배와 침략 으로 아시아 제국 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 통을 주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5	<p>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함. -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존중되기를 기대함. -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함. -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존중되기를 기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갑시다. ○ 통일대축전 개막식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용순, 유미영, 조영삼, 정민주, 이해정, 최정남 ○ 『대민족회의』 개최, 연방제를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인 주장 '호소문' 채택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용순, 유미영 등 정당·사회단체·통일단체 책임일꾼들 <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要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족회의에서는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이 우리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일치하게 확인하였음. - 대민족회의에서는 연방제통일론에 배치되는 제도통일론을 한결같이 반대하고 배격하였음. - 대민족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사실을 검허하게 받아들이며 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회의 마음을 표명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5		<p>- 대민족회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가 연방제 통일의 기본열쇠로 된다고 한 결같이 주장하였음.</p> <p>0 제6차 범민족대회 개최, '공동결의문' 채택 (통일각) * 참석 : 백인준, 조영삼</p> <p>0 범청학련 중앙위 제1차 회의 개최, '공동합의문' 발표 (통일각) * 참석 : 허창조, 최정남, 이해정, 정민주, 박구호, 황영식</p> <p>0 범청학련 사진 및 미술전시회 (통일각)</p> <p>0 중앙인민위, 조국통일상 수여에 대한 『정령』 발표</p> <p>- 이인모, 유미영, 백인준, 정신혁,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등 44명에게 조국통일상 수여 결정</p> <p>0 당·정간부들, 김일성 동상에 화환 진정 (함흥) * 참석 :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6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정책 전면 재검토 언급 * 국회 통일외무위</p> <p>- 북한에 대한 쌀제공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對北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겠음.</p> <p>- 北韓의 성의있는 태도와 남북관계 개선이 있을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지원문제를 검토하겠음.</p> <p>- 선원 신변안전을 위해 직접통신보장 등 장치를 마련하고 운송수단도 제3국 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대화응하면 과감한 협력조치 언급 * 세계한민족통일문제 토론회 개최사</p> <p>- 북한이 조속히 정상적인 남북대화에 응하고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협력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p>	<p>0 平放,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김일성' 주장 (정론)</p> <p>- 오늘 우리 인민들이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金日成이며 우리는 김일성민족이라고 세상높이 자랑함.</p> <p>0 당·정간부들, 용성기계연합총국 시찰 * 참석 :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p> <p>0 UN 식량농업기구(FAO) 기술협력국장 스카이에, 訪北 (8.15~19)</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7	<p>0 통일원 대변인, 북경회담 수석대표 교체 발표 * 브리핑</p> <p>- 앞으로 열릴 3차회담에서는 南北사이의 현안문제와 경협문제 등을 일관성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수석대표의 교체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음.</p> <p>0 외무부 대변인, 중국 지하핵실험 유감 論評</p> <p>- 중국이 지난 5월에 이어 핵실험을 재개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p>	<p>0 『조국통일상』 수여 모임 (만수대의사당) * 참석 : 이종옥,유미영,백인준,정리근,김화심</p> <p>※ '90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08名에게 수여</p> <p>0 『통일대축전의 밤』 진행 (청년중앙회관) * 참석 : 김용순,유미영,여연구,백인준,이혜정,정민주,최정남,조영삼</p>	<p>0 KEDO 제공 중유 1차분 2만t, 北선봉항으로 출발</p> <p>- KEDO가 제공하는 중유 1차분 2만t을 실은 중국선적 웨이산후號가 울산항을 출항</p> <p>0 노사카 日관방장관, 김용순의 '사죄차원 쌀 제공' 발언 관련 수교문제 영향 언급</p> <p>-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중대한 문제로 日·北의 국교정상화문제에 까지 발전할 것으로 봄.</p> <p>0 中, 지하 핵실험 실시 * 신강 위구르 자치구</p>
8.18		<p>0 중앙통신, 8月初 신의주지역 홍수 金正日 직접 구조작업 지휘 보도</p> <p>- 지난 8월초 압록강 연안 국경도시 신의주와 의주군의 일부 지역에 무더기비와 밀물이 들</p>	<p>0 日요미우리신문, 김용순 日쌀제공 관련 문제발언 철회 보도</p> <p>- 북한은 김용순의 발언(일본의 쌀지원은 사죄 뜻)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8		<p>이달쳐 홍수에 잠겼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은 즉시 인민군 육해공군부대들에 명령을 하달해 피해지역 인민들을 구원도록 하는 온정깊은 조치를 취해 주었음. - 구조전투는 김정일이 몸소 지휘했음. <p>○ 중앙방송, 대동강유역 큰홍수 발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평양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서 무더기비가 내려 강하천이 크게 불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음. - 거의 매일과 같이 내리는 무더기비 때문에 대동강물은 급격히 불어나 대동강유역에서 최근 연간에 볼 수 없었던 큰 물이 생겼음. 	<p>철회하고 추가 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文書를 8.10 日연립여당에 보내왔다고 보도</p>
8.19	<p>○ 정부합동조사반, 삼선비너스號 억류사건 조사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건은 1등항해사 李良天(33)씨가 개인적 호기심에 따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진촬영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함 	<p>○ 노동신문, UN군축회의에서 핵보유국들의 특별 핵실험 허용 주장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대국들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모순적이며 기만적인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p>○ 가토 日외무부 아주 국장, 對北 쌀지원 신중추진 방침 통보</p> <p>* 金夏中 외무부 亞·太국장 면담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 쌀지원문제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9	<p>으로써 빛어진 것임.</p>	<p>- 핵대국들은 핵무기들을 저들의 독점물로 계속 유지 보관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하며 완전 철폐하는 데로 나아가야 함.</p> <p>○ 黨·政간부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관람 * 참석 : 김병식,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p> <p>○ UN 식량농업기구 국장 스카이에 방북 종료(8.15~19)</p>	<p>중히 처리해 나가겠음.</p> <p>- 日·北관계개선은 남북대화 진전 등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임.</p>
8.20			<p>○ 벨로치 美國在臺協會 대표, 中, 대만 침공엔 美개입 언급 * 全美臺灣客家懇親大會 연설 (샌프란시스코)</p> <p>-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대만의 경제적 안보가 위협당하면 미국은 臺灣關係法에 따라 상관조치를 취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1	<p>0 金泳三 대통령,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조 * 제7기 『民主平統』개회사</p> <p>-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南北간에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임.</p> <p>- 北韓 동포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통일에 따른 희생과 부담을 나누어 가질 용기를 가져야 함.</p> <p>-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함.</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쌀지원사업 계속 추진 표명 * 제7기 『민주평통』개회식 보고</p> <p>- 동포애와 회해의 목적으로 시작된 쌀지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인내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p> <p>- 南北경협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그 대상과 규모</p>	<p>0 中央通信, 수재민 구호는 김정일 인덕정치의 결과라고 주장</p> <p>- 비가 제일 많이 내렸던 67년 8월하순의 강수량이 528미터 미터였다면 올해 7.26부터 10여일간 내린 강수량은 583미터 미터였음.</p> <p>- 특히 평안북도 일대에 큰 비가 내렸으며 신의주지구의 일부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었음</p> <p>- 수재를 입은 신의주지구에서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은 金正日의 사랑의 정치, 인덕의 정치의 결과임.</p> <p>0 조선중앙통신사·말레이시아 민족통신사간 '보도교환 및 호상원조에 관한 협정' 調印 (평양)</p>	<p>0 日연립여당, 김용순 쌀제공 관련 문제발언 해명요구 書翰 발송 결정 * 日연립여당 고위간부회의</p> <p>0 江澤民 중국가주석, 중국 강대국태도 주변국 불위협 언급 * 王鼎昌 싱가포르 대통령 면담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1	<p>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것임.</p> <p>○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실시 (8.21~9.1)</p>		
8.22	<p>○ 과기처, IAEA에서 한국형 경수로 안전성 확인 발표</p> <p>- IAEA는 8월초 우리 정부에 제출한 을진 3,4호기에 대한 評價報告書를 통해 '국제적으로 최상급 수준의 안전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p>	<p>○ 소망교회 郭善熙 목사 訪北 (8.22~8.28)</p> <p>○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訪北 종료 (8.15~8.22)</p> <p>○ 왕재산경음악단(단장 권혁봉), 중국 순회공연차 평양 출발 (8.22~9.24)</p>	<p>○ 臺灣, 평양전세기 운항 취소</p> <p>- 대만은 8.26, 8.31 2차례 취항키로 했던 평양전세기를 최근 중국·대만간 관계악화와 러시아 측의 항로이용 거부로 취소</p> <p>○ 레이니 駐韓美대사, 『2+2』 평화협정 美 지원 언급 * 중앙일보 회견</p> <p>- 미국은 남북당사자 원칙에 입각해 정 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할 경우 中國과 함께 보증인 역할을 기꺼이 맡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3	<p>○ KEDO 경수로부지조사단, 訪北 결과 발표 * 康允寬 경수로기획단 건설기술부장 기자회견</p> <p>- 예상부지는 신포시내에서 北으로 5~6km, 해안에서는 3km 떨어진 구릉지대임.</p> <p>- 용수를 7km 떨어진 북청 남대천에서 끌어와야 하고 냉각수도 끌어다 써야 하는 것이 문제임.</p> <p>- 舊소련의 조사자료는 요약본을 받았으며, 원본을 입수할 수 있도록 北韓과 더 협의해야 함.</p>	<p>○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의 '평화정착 기본원칙' 제시 비난 論評</p> <p>- 남조선 괴뢰들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식민지 폭두각시집단으로서 거기에 끼어들 하등의 자격도 없음.</p> <p>- 南北당사자간 해결을 떠들던 그 입으로 관련국의 협조와 뒷받침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임.</p> <p>- 南北합의서 존중과 신뢰구축이니 하는 소리는 北南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北南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임</p> <p>- 美國이 군사통수권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있고 또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조건에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은 우리와 美國이 할 일임.</p> <p>○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浮島丸호 폭파사건 50돌 즈음 談話</p> <p>- 일본은 과거 온갖 죄행들에</p>	<p>○ 北, 유엔에 水災 긴급 구호 요청 * 8.29 한국 외무부 대변인 확인</p> <p>- 北韓은 유엔대표부를 통해 긴급구호 요청을 8.23 유엔 인도적지원국(DHA) 뉴욕사무실에 신청했으며, DHA는 직원들을 平壤에 보내 수해상황 파악에 나섰다.</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23		<p>대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 공개해야 하며 책임자들에게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와 함께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할 것임.</p> <p>0 越北 정용준 부부 환영 평양시 군중집회 (중앙노동자회관) * 참석 : 백남준, 신안방</p> <p>0 中放, 전재원(34세)氏 의거 입북 보도</p>	
8. 24		<p>0 中放, 金泳三 대통령의 日아사히신문 회견(8. 8字) 비난 論評</p> <p>- 최근 김 〇〇 은 일본 아사히 신봉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日·韓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日·朝관계를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음.</p> <p>- 朝·日 관계개선에 불안과 초조감을 느낀 남조선 괴뢰들이 남조선·일본간의 조약을 재확인해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대한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보려는 비열한 음모가 깔여있음</p> <p>0 平放, 카자흐스탄 흥범도 장군 유해 국립묘지 이장 추진 관련 '후손이 있는 평양으로 옮겨져야 한다' 고 주장</p>	<p>0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북한 올해 식량부족량 260만t 추정 * 최근작성 북한식량 통계</p> <p>- 북한은 94년 412만 t의 곡물을 생산, 올해 곡물수요량 672만t에 260만t 부족 추정</p> <p>0 레이니 駐韓美대사, 한국언론의 주한미군 관련 보도 무책임 주장 * 美NYT紙 보도</p> <p>- 문제는 주한미군의 범죄증가에 있는</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4		0 中放, 경제보다 사상사업 중요 강조 - 사상사업에 힘을 넣지 않고 경제건설 일면에만 치우치거나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 수 있음.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무책임한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로 국민감정을 부추기는데 있음.
8.25	0 金泳三 대통령, 北韓 사정 어렵다고 언급 * 기자간담회 - 경제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렵고 비피해도 엄청남.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임. 0 국방부, 軍停委 수석대표로 李釋馥 소장 지명	0 中放, 신의주지구 수해현장에 구호물자 도착 보도 - 지금 신의주지구 수해현장으로는 온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갖든 지원물자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음. - 온 나라 인민이 이번 신의주지구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통해 金正日의 인덕정치의 생활력을 절감했음. 0 中放, 이찬삼 『북한잠행기』 날조 논란 관련 安企部 모략의 내막이 드러났다고 주장 0 密入北 정민주·이혜정 환영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청년중앙회관) 0 金正日, 외교관계수립 35돌 즈음 쿠바 카스트로에게 祝電	0 네덜란드 ING은행, 9月 북한에 지점 개설 예정 * ING은행 서울지점 관계자 확인 - ING은행이 서방은행으로서의 처음으로 9月 평양과 나진·선봉에 지점을 개설할 예정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6		0 中放, 金正日이 신의주지구 수재민에 의류·침구류 전달했다고 보도 0 『朝總聯』의장 한덕수, 평양 출발	0 北, 舊소련의 실포 지역 조사자료 제공대가 요구說 (경향신문) - 북한은 85년 舊소련이 작성한 실포 지역 종합평가보고서 제공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KEDO측에 요구했다고 보도
8.27		0 노동신문, 연방제 통일 거듭 주장 - 8.15 대민족회의에서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합의, 확정된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임. 0 노동신문, '당이 곧 수령' 이라고 주장 - 당이 곧 수령임. 당은 수령의 당인 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은 다름아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임. 0 칠골교회, 안승운 목사 환영 특별예배 * 참석 : 강영섭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8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협력 기금 확충 지시 * 洪在馨 재정경제원 장관 96년 예산안 보고시</p> <p>- 南北간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 확충 지시</p> <p>0 李洪九 국무총리, 核보유국 核실험 중지 촉구 * 제30차 아·태의원 연맹 (APPU) 총회 축사</p> <p>-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核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세계적 확산을 막는 일임.</p> <p>- 특히 모든 핵보유국들은 핵실험을 중지하는 등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함</p>	<p>0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결의대회 (김일성광장) * 참석 : 박성철, 최 광, 계응태 최용해</p> <p>< 최용해 보고 要旨 ></p> <p>- 모든 청년들은 金日成의 간곡한 유훈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金正日을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으로 높이 모시고 金正日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하겠음.</p> <p>0 金正日, 인민군 여성해상훈련 현지도 * 수행 :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p>	<p>0 北, 자강도 김단골 지역에 비밀 지하 核기지 공사說 * 귀순인사 강명도 언급 (중앙일보)</p> <p>- 강명도氏는 '89.1 자강도 김단골지역에서 지하 核기지 공사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며, 韓·美 정보당국은 증언한 위치에 대형 지하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p>
8.29		<p>0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안승운 목사 환영 연회 * 참석 : 강영섭, 이천민</p> <p>0 『祖平統』서기국, 학생운동 탄압 주장 對南 비난 報道</p> <p>0 유엔 인도적지원국(DHA) 대표단, 평양 도착</p>	<p>0 日, 核고속증식로 『몬주』발전 시작 * 출력 28만kw</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30		<p>0 노동신문, 日本 함대의 한국 방문 계획 비난 論評</p> <p>- 발표에 의하면 '96.4 여러 척의 일본 군함들이 남조선항에 닻을 내리고 괴뢰 해군과의 교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함.</p> <p>- 일본 반동들은 자위대 함대의 남조선 파견을 관례화함으로써 일본 무력의 남조선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재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음.</p> <p>0 재정부장 윤기정, 북경 세계여성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p>	<p>0 에토 日방위청장관, 北 노동1호 미사일 東北亞 안보 증대 위협 언급</p> <p>* 기자회견</p> <p>- 북한이 개발한 노동 1호 등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을 비롯한 東北亞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p> <p>0 갈리 UN 사무총장, 南北정상회담 중재 용의 표명</p> <p>* 한국특파원 회견</p> <p>- 南北韓 정상회담 중재를 포함,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성실한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p> <p>0 제4차 세계여성회의 개막 (북경)</p> <p>* 세계 180여개국 4만여명 참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1	<p>0 정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이행法案 마련</p> <p>* 李在春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 실무대책위원회</p> <p>-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기로 결정</p>	<p>0 中放, 金泳三 대통령의 北도발 사태 대비 지시 비난</p> <p>- 김 〇 〇 역도가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장에 나타나 폭언을 늘어놓은 것은 평화에 호적인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임.</p> <p>- 김 〇 〇 역도가 전쟁열을 고취하는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이 北南화해와 단합, 통일이 아니라 오직 대결과 전쟁, 분열 뿐이라는 것을 실증해줌.</p> <p>0 11년제 의무교육 실시 20돌 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최태복, 장 철, 지재룡</p>	<p>0 하야시 日외무차관, 對北 지원 쌀 30만t 차질없이 제공 언급</p> <p>* 기자회견</p> <p>- 김용순의 쌀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차분으로 북한에 주기로 한 쌀 30만t의 제공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임.</p> <p>0 日산케이신문, 北 콜레라 확산 230명 사망 보도</p> <p>* 日·北 관계소식통 인용</p> <p>- 북한전역에 5월부터 콜레라가 번지기 시작, 230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입원중이라고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	<p>○ 韓·美 국방장관, 『증장기 안보대화』신설 합의 (하와이)</p> <p>- 北韓의 향후 군사위협과 체제변화에 대비하고 양국 군사동맹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증장기 안보대화』추진 합의</p>	<p>○ 平放, 새학기 즈음 남한학생들의 반정부투쟁 강화 선동</p> <p>- 한총련 소속 백만 청년학생들은 더욱 굳게 결속된 힘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려야 할 것임.</p> <p>○ 平放, 영부인 孫命順 여사의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석 비난</p> <p>○ 金正日, 수해 주민을 지원한 朝總聯 조은 호카이 신용조합 성원들에게 감사 전달 및 연회 마련 (만수대예술극장) * 참석 : 김용순</p> <p>○ 黨·政간부들, 개학날 맞아 각 급학교 개학모임에 참석 * 참석 : 강성산,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김기남</p>	<p>○ 러 정부, 朝·蘇 군사동맹조항 파기 교섭 곧 착수 예정 * 이타르 타스통신 보도</p> <p>- 러시아 정부는 朝·蘇우호조약중 군사동맹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정식 교섭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p>
9. 2		<p>○ 폐연료봉 안전보관 관련 제5차 전문가회담 참가 美國 대표단, 평양 도착</p> <p>○ 세계식량계획·유엔식량농업기구·유엔아동기금 수해조사단, 평양 도착</p> <p>○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 신의주 등 수해지역 현지조사후 평양 출발 (8.29~9.2)</p>	<p>○ 국제선명회, 북한에 현금 50만弗·식량 등 수재구호품 지원 결정 * 한국선명회 관계자 확인(경향신문)</p> <p>- 북한이 8.31 긴급 지원요청을 해옴에 따라 국제선명회 본부는 현금 50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		0 黨·政간부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관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최 광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弗과 식량·의약품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음.
9. 3		0 평양 봉수교회, 안승운 목사 환영 예배 * 참석 : 강영섭	
9. 4	0 李洪九 국무총리, 모든 국가적 노력의 궁극목표는 통일이라고 언급 * 제7기 『민주평통』 해외 출범회의 축사 -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국가적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과업의 성취임. - 南北화해·협력과 北韓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기울여나가야 함.	0 中央通信, 日本이 인도적 입장에서 對北 쌀제공 보도 - 일본 산케이신문이 얼마전 남조선의 일개 잡지에 난 글을 가지고 朝·日관계를 좋게 하려는데 찬물을 끼얹고 뺨기를 치는 허위보도를 했음. - 일본측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선의의 표시로 제공하는 식량문제를 두고 흑백을 전도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朝·日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모략임. 0 나진·선봉시 원정-훈춘시 권한 국경통로 개통(중앙통신) - 이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훈춘 경제특구가 서로 경제,	0 유엔인도적지원국(DHA), 北韓 50만명 이재민 발생 발표 - 訪北중인 유엔수해조사단은 모두 10만가구(50만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물적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해왔음. 0 北韓적십자회, 수해 곡물손실 190만t 규모라고 주장 * 국제적십자연맹 제출 보고서 (9.6 서울신문) - 전국적으로 33만ha의 경작지가 침수되고, 연간 곡물생산량의 절반에 해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4		<p>문화분야에서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할 수 있게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륙의 화물이 나진항을 거쳐 세계 각지로 신속히 빠지게 되고 여러 나라의 화물과 관광객들이 동북아시아 대륙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음. - 황금의 삼각주에 투자를 희망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가들이 사증없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음. <p>○ 中放, 국군 중사 한효수가 9.4 서부전선에서 越北 보도</p>	<p>당하는 190만1천t 이상의 곡물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p> <p>○ 日산케이신문, 우성호 나포시 선원 3명 사망 보도</p> <p>* 日·北관계 소식통 인용</p>
9. 5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제3차 북경회담 개최일정 발표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회담을 9.27 북경에서 갖기로 南北韓이 합의하였음. - 의제는 대체로 南北경협 문제를 다룰 생각이나 현안문제로서 우성호 송환 문제, 안승운 목사 사건, 비방증지문제와 김용순 발언건 등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임. 	<p>○ 中放, 韓·美국방장관회담 개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모의는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를 역전시켜 다시금 긴장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책동임. <p>○ 中放, 영부인 孫命順 여사의 북경 세계여성대회 기조연설 비난</p> <p>○ 국제적십자연맹·국경 없는 의사회 수해조사단, 평양 도착</p>	<p>○ 美, KEDO에 4백만弗 지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 대통령은 KEDO에 4백만弗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p>○ 獨, 北 수해지원 발표</p> <p>* 외무부 성명</p> <p>○ 佛, 핵실험 실시</p> <p>* 태평양 무루로아 환초</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로서는 쌀 추가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 - 수해지원문제는 북측의 피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가 있고, 또한 북측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北정권 창건 47돌 경축 재일조선인 축하단, 평양 도착 * 단장: 오형진(조총련 부의장)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외무부 대변인, 佛 핵실험 관련 유감 聲明 -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함. - 프랑스 정부가 일체의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함. 0 한국시민단체협의회, 南北 홍수피해 이재민돕기 추진 발표 - 홍수피해를 입은 남한과 북한의 이재민돕기를 추진, 6개 모금창구를 통해 국민성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 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접촉통한 北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中央通信, 홍수피해 사망 68명 피해액 150억달러라고 보도 - 일부 산간지대들에서는 집중 폭우와 산사태, 저수지 파괴 등으로 68명의 사망자와 일부 실종자들, 부상자들이 났음. - 큰물피해후과로 많은 살림집, 학교, 탁아소, 병원과 기타 공공건물들, 그리고 도로, 철길, 교량, 제방, 통신, 체신, 전력, 급수망, 탄광, 광산, 공장 등 생산 및 하부시설, 농토와 산림자원, 국토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 유실, 파괴, 손실되었음. - 피해는 12개도 및 직할시에 있는 145개군 주민 520여만명에 가해졌음. 현재 초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은 150억달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北, 조총련 통해 日에 水害 지원 요청 * 9.8字 조선일보 - 朝總聯 부의장 허종만은 北韓의 수해복구를 위해 사회당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무라야마 日총리에게 전달 0 노사카 日관방장관, 北 수해지원 검토 언급 (기자회견) - UN 조사단 평가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在日 조총련단체가 사회당에 요청한 실질적인 對北 지원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6	<p>변화 유도·지속추진 언급 * 韓·美협회 초청 강연</p> <p>- 정부는 접촉을 통한 北韓 사회의 개방과 변화유도 정책을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p> <p>- 북한이 남북간에 가로놓인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p>	<p>0 노동신문, 日本 우익단체의 反 조총련 시위 관련 비난 論評</p> <p>- 일본반동들이 감행한 이번 적대행위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로, 민족적 모욕으로 간주함.</p> <p>- 우리는 이런 사태하에서 일본 당국이 朝·日국교정상화회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음.</p> <p>0 국제자원봉사기구 카리타스 국제협조국장, 수해조사후 평양 출발</p> <p>0 안승운 목사, 의거입북 주장 記者會見 (인민문화궁전)</p>	<p>0 나이 美·北 평화협정 고려 언급 * 중앙일보 회견</p> <p>-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p> <p>0 中·北 關係 증진 희망 보도</p> <p>- 김정일은 對中 關係 증진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양국간 우호증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p>
9. 7	<p>0 外무부 대변인, 朝·蘇 조약 폐기 발표 관련 환영 論評</p> <p>- 러시아 정부가 韓·러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구소련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를 법적으로 완전청산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러시아 정부의 러·北韓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p>	<p>0 外교부 대변인, 미군의 남한 '점령' 50주년 즈음 비난 談話</p> <p>- 지금까지도 정치군사적으로 대결관계에 있고 정세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임.</p> <p>-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미</p>	<p>0 러 外무부, 朝·蘇 조약 폐기 공식발표 * 마트코프스키 外무부 副대변인 (이타르 타스통신)</p> <p>- 러시아는 북한에 지난 61년 체결한 朝·蘇 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우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7	폐기조치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임.	<p>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p> <p>- 우리와 美國사이에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면 北南합의서의 이행도 추동하게 될 것임.</p>	<p>- 이미 새로운 조약 문건을 북한측에 전달했음.</p> <p>0 美, 北 수해 2만5천 弗 지원 결정 * 美國무부 성명</p> <p>- UN 조사 결과 북한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美정부의 판단이며, 이에 따라 2만 5천 弗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결정했음.</p>
9. 8		<p>0 北韓 창건 47돌 경축 중앙보고 대회(2.8문화회관)</p> <p>* 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外</p> <p>< 박성철 경축보고 요旨 ></p> <p>-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김정일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여야 하며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하겠음.</p> <p>- '90년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김일성의 숭고한 뜻이며 김정일의 드팀없는 의지임.</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8		<p>0 외교부 대변인, 朝·蘇조약 폐기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그 조약은 의의를 상실하고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측에도 밝혔으며 그후 조약에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음 - 러시아측이 최근 새로운 친선 관계의 기초에 관한 조약체결 문제를 제기해 오면서 그 초안을 보내왔으며,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있음. <p>0 北韓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北 수해규모 과장됐다는 주장 비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 통일원장관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서 수해규모 과장이요 뭐요 하였음. -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고 반목과 대결을 격화시켜 北南관계를 더욱 침예한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사기모략행위임. - 남조선 통치배들이 동족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동정은 못할 망정 험구질을 하고 훼방을 하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9		0 『祖平統』서기국, 박용길 구속기소 비난 報道 - 남조선 통치배들은 박용길을 부당하게 구속기소한 반인륜적 반민족적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조건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함. - 박용길에게 끝끝내 형벌을 들썩운다면 北南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명심하고 분별있게 대처해야 함 0 KEDO · 北 경수로공급협정 체결협상 참가 북측대표단, 팔라룸푸르 向發 * 단장 : 외교부 본부대사 허종	
9.10	0 崔英鎭 KEDO 사무차장, 對 北경수로협상 6개월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언급 * 기자회견 - KEDO · 北韓간 협상은 우여곡절이 예상되나 6개월내 반드시 협정체결을 마무리지을 방침임. - 공급협정 체결이전이라도 韓電과 약식 발주계약을 체결해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하겠음	0 UN 홍수피해조사단 訪北 종료 (9.4~9) 0 金正日, 조총련에 교육원조비 9천775만엔 전달 (중앙방송) * 총 132회 4백24억 9천4백43만엔에 달한다고 주장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1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수재지원 검토하고있지 않다고 언급</p> <p>* 고위당정회의 보고</p> <p>- 북측의 수재복구와 관련 해서도 현단계에서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p> <p>- 국제기구로부터의 참여요청이 있고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그때가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임.</p>	<p>0 『농근맹』중앙위, 제7기 25차 전원회의 (9. 11~12, 인민문화궁전)</p> <p>0 붉은청년근위대 창설 25돌기념 중앙보고회(청년중앙회관)</p> <p>* 참석 : 김철만, 김광진, 백학림, 김익현</p> <p>0 국제적십자·국제적신월사·국경없는 의사모임, 수재조사후 평양 출발</p>	<p>0 KEDO·北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관련 고위급회담 (9. 11~12, 팔라뎀 푸르)</p> <p>*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 최영진 사무차장, 우메즈 이타루 사무차장, 北외교부 본부대사 허종 참석</p>
9. 12		<p>0 중앙인민위, 조총련 제17차 전체대회에 祝電</p> <p>- 총련 제17차 전체대회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임.</p> <p>- 이번 전체대회가 재일동포들을 새로운 애국적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믿음.</p> <p>0 이철 駐제네바 대사, 제네바 각국 외교단에 수재지원 요청</p> <p>* 9. 19 문화일보 보도</p> <p>- 제네바 주재 外交團 40여명을 모아놓고 “무상이든 유상이</p>	<p>0 유엔조사단, 北수해조사결과 발표</p> <p>* UN인도지원국 등 산하기구 합동記者 회견(제네바)</p> <p>- 수해지역이 전국토의 75%에 달한다는 북한보고는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음.</p> <p>- 겨울이 닥치기 전까지 50만명의 이재민들에게 1천5백만달러어치의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2		<p>든 좋으니 빨리 도와달라” 고 요청했다고 보도</p> <p>0 IAEA 협상대표단, 北핵동결 감시 협의차 訪北 (9.12~19) * 단장 : 페리코스 사찰국장</p> <p>0 獨기독교사회동맹 의회대표단, 訪北 (9.12~16) * 단장 : 대외·국방정책위원장</p>	<p>0 北, 선명회에 식량 긴급지원 요청 書翰 * 9.14 한국선명회 확인</p> <p>- 조선삼천리총회사 사장 김봉익 명의 로 9.12 서한을 보내 식량 우선지원을 요청</p>
9.13	<p>0 姜英勳 韓赤 총재, 北수해 5만弗 지원 언급 * 중앙일보 회견</p> <p>- 北韓에 현금 5만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의약품·담요 등 구호물자를 보내기로 했음.</p> <p>- 국제적십자사연맹으로부터 對北 지원요청이 오면 구호물자와 함께 南北 공동방역을 위해 의료진도 파견할 방침임.</p> <p>0 統一院 대변인, 對北수재 지원 보도 관련 정부입장 불변 언급 * 브리핑</p> <p>- 정부는 국제기구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p>	<p>0 中放, KEDO·北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협상 결과 보도</p> <p>- 쌍방은 이번 협상이 조선에 경수로대상을 제공하는 정치적 과정의 일환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고 가능한한 가장 빠른 시일안에 경수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음.</p> <p>0 中央通信, 국방백서에 북한 主敵 명시 비난</p> <p>- 대화상대방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망동은 오직 대결과 분열만을 추구하는 반민족, 반통일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임</p> <p>-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서슴지않는 김 〇〇 일당이 南北간 대화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임.</p>	<p>0 KEDO·北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관련 전문가회담 (9.13~15, 쿼라룸푸르)</p> <p>* 세이모어 美국무부 핵대사, 이용호 北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참석</p> <p>0 日교도통신, 北, UN에 수해복구비 4억 9천만弗 원조요청 보도 (9.14字 중앙일보)</p> <p>- 북한은 UN에 홍수 피해에 따른 긴급 지원으로 4억9천만 달러 원조외에 가솔린·경유 40만t, 콜레라 백신 1천만 개 등을 요구했음.</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지켜볼 생각함. - 쌀 추가지원문제 역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總聯』 제17차 전체대회 (9.13~16, 조선문화회관) * 참석 : 한덕수, 박재로, 서만술 권순휘 외 ○ 金正日, DMZ 최전방 제893軍부대 시찰 * 영접 : 이하일, 김명국, 전재선 김하규, 박재경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수해 5만弗 지원 발표 * 기자간담회 - 우선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재정으로 5만달러의 의약품, 의류, 모포 등 생필품을 적당한 통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했음. - 정부는 國內 민간차원의 구호물자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음. -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黨·政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방, 北으로부터 콜레라 유입 보도 비난 論評 - 우리 사회에서는 전염병이란 없어진지 오래고 새 세대들은 그런 말조차 모르고 자라나고 있음. - 괴뢰들이 남조선에서 발생한 콜레라와 말라리아가 北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괴뢰들은 인민들속에 反北 의식을 고취시켜 北南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고 있음. ○ 中放, 신의주지역 수재현장 취재기자 좌담회 보도 - 이번 수재는 金正日是 우리의 운명이라는 신념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더욱 억척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헤리티지財團, 북한 1인당 국내총생산, 남한의 10%에 불과 추계 * 財團 산하 아시아 문제연구소 편찬 『美·아시아통계편람』 - 94년도 북한의 1인당 GDP는 923달러로 남한 8,950달러의 10.3% 정도라고 집계 ○ KEDO 집행이사회 (도쿄) -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에 필요한 제반 조치와 사업추진방향 논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4	<p>0 통일원 대변인, 북한 난민 수용소 설치 준비 보도 부인 論評</p> <p>- 北韓 난민의 대량 발생시를 대비하여 정부가 특정 지역에 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p> <p>- 정부는 유엔고등판무관 (UNHCR)을 통해 국제법상 난민 판정을 받은 탈북자에 한해 국내 이주 및 정착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같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p> <p>0 北 벌목공 1명 귀순 * 외무부 발표</p> <p>-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다 90년 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 탈출한 北벌목공 윤철氏(41)가 유엔고등판무관 주선으로 서울 도착</p>	<p>굳히는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음.</p> <p>- 당의 일꾼들과 사회안전원들의 헌신적인 모범은 수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속에 金正日의 인덕정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동한 체험으로 여기게 했음</p>	<p>0 국제적십자사, 北수재지원 관련 각국 적십자사에 4백만弗 지원 요청</p> <p>0 리, 北 티푸스 발병 관련 對북한 국경 봉쇄說 * 9.14 인테르 팩스 통신 보도</p> <p>0 中, 對北 쌀 10만t 제공說 (중앙일보) * 9.14 북경 소식통</p> <p>- 중국은 북한측의 요청으로 8月 약 10만t의 쌀을 북한에 긴급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p> <p>0 北·獨, 독일 켐니츠市에 기술연구센터 설립 합의</p> <p>- 이철 駐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와 자이페르트 켐니츠 시장은 자본금 7억 5천만마르크 규모의 합작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5	<p>0 姜英勳 韓赤 총재, 수재물자 제공 제의 對北 방송통지문 * KBS 제1라디오 통해 발송</p> <p>- 비록 우리 국민들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북녘 동포들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약품과 모포를 귀축에 지원하기로 하였음.</p> <p>-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국민들이 귀축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전달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모아 귀적십자회 앞으로 보내고자 함.</p> <p>- 우리측의 물품을 귀축에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람</p> <p>0 姜英勳 韓赤 총재, 對北 수재물자 제공 제의 관련 對국민 聲明</p> <p>- 北韓에 수재물자를 보내려는 대한적십자사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람.</p> <p>- 國民 여러분이 북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이</p>	<p>0 中放, 日本의 과거 사죄 촉구 '외교부 비망록' (8.13字)을 유엔총회 공식문건으로 배포했다고 보도</p> <p>0 黨창건 50돌 경축 전국인민에 술축전 중앙개막모임 (중앙노동자회관) * 참석 : 장철</p> <p>0 北대흥단군 - 中화룡간 『삼장다리』개통식</p> <p>0 황해남도 당책임비서 백범수 (72세) 死亡</p>	<p>0 리, 극동지역 육해군부대 北전염병 유입 예방조치 * 프로쿠닌 리 위생역학회장 언급</p> <p>- 北韓으로부터 전염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극동배치부대들이 본격적인 방역조치에 나섰음.</p> <p>0 北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장 박성덕, 南北韓 통일방안 상호연구 필요 주장 * 9.15~17 獨개신교 아카데미 주최 南北韓학자 통일문제 합동세미나 (아놀드하인市)</p> <p>- 박성덕은 “南北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국가연합안과 연방국가안에 근접하는 통일방안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5	<p>나 현금 전달을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하는 경우 이를 모아 北韓적십자회측에 보낼 것임을 밝혀두는 바임.</p> <p>○ 統一院, 녹십자 등 3개기업에 대해 남북경협사업자 승인</p> <p>-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 등 3개기업이 제출한 남북경협사업자 신청을 승인</p> <p>○ 北韓 근로자 1명 귀순 * 남포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근로자 박성철(34)</p>		
9.16	<p>○ 南北韓 민간 전문가들, 컴퓨터 자판배치 등 남북단일안 마련 합의 * 제2회 우리말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합의문 (연변)</p> <p>- 陳庸玉(국어정보학회 부회장), 최기룡(北 과학기총동맹 서기장) 등은 컴퓨터 자판배치, 우리말 자모순서, 코드, 컴퓨터 용어 등의 남북한 공동사용 단일안을 '96.6까지 마련키로 합의</p>	<p>○ 『祖平統』대변인, 북한 난민 수용소 건립 보도 관련 비난談話</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난민탈출이니 수용소 건립이니 하고 피해를 당한 동족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의 유고에 대해 칼질을 한 반인륜적 만고죄행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p> <p>- 우리에게 그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黨과</p>	<p>○ 北대표, 99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개최지 투표에서 남한지지說 (9.17 동아일보)</p> <p>- 9.16 日구라야키에서 열린 아시아야구연맹 총회의 투표에서 北韓 대표로 참석한 재일본 조선인야구협회장이 한국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6		<p>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을 모독하고 중상하는 용납못할 망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민은 큰물이 아니라 하늘 땅이 열백번 뒤집힌다해도 사회주의 내나라 내조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 <p>○ 보건부 대변인, 北전염병 발생 관련 러시아의 국경통제조치 비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측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자료를 가지고 초보적인 국제관례마저 무시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날조된 보도를 한 것은 朝·러 사이의 관계에 쐐기를 박고 경제협조를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의 서툰 연극에 불과한 것임. - 러시아측은 이번 사건을 조작한 책임있는 자들을 응당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p>○ 외교부 대변인, 나토의 보스니아 공습 비난 記者會見</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6		0 『朝總聯』 제17차 전체대회 폐막 (9.13~16) = 의장단 선출 · 의장 : 한덕수 제1부위원장 : 이진규 책임부위원장 : 허종만 부위원장 : 박재로, 서만술, 권순 휘, 배병두, 오형진, 김수식(신), 오수진 (신) = 강령개정 · ‘미제국주의 침략자’, ‘앞 잡이 괴뢰도당’이라는 표 현 삭제 0 공산주의 혁명투사 양성룡 60 주기 평양시 추모회 * 참석 : 박성철, 최 광, 계응태 최태복, 김복신, 장 철 0 北·KEDO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협상 참가 북측대표단 귀환 0 세계여성대회 참가 북측대표단 (단장 윤기정) 귀환	
9.18	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수해 2백만弗 지 원 언급 * 기자간담회 - 黨·政합의만 있으면 2백	0 平放, 정부의 내년도 국방비 증액편성 비난 論評 - 남조선 괴뢰들이 내년도 군사 예산을 올해보다 10.7% 늘어 난 규모로 규정한 것은 의연	0 美하원 對北결의안 채택 * 전체회의 - 남북대화 재개, 한 반도 비핵공동선언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8	<p>만달리의 對北지원은 가 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공식요청이 없어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는 다른 나라에 제공했던 만큼의 수해구호품을 북한에 지원할 것임. - 對北 경수로지원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관례나 상식선을 넘는 추가부담을 떠맡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음. - 對北 중유공급비용을 우리가 추가부담하는 일도 없을 것임. <p>○ 國會, 核실험 전면중지 촉구 결의안 채택 * 본회의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 및 프랑스 정부는 모든 핵실험 실시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p>○ 대한의사협회 (회장 柳聖熙), 對北 의료진 파견 용의 표명</p>	<p>히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준비를 다그쳐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김 0 0 도당의 흉악한 속심의 노골적인 표현임. <p>○ 中放, 남한 각지에 콜레라 환자가 계속 발생, 수백명에 이른다고 보도</p>	<p>이행의 상당한 진전, 군사분계선상의 북한 군사력 감축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연락사무소개설 이상의 對北관계 격상이나 무역투자장벽 완화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p> <p>○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核 검증활동 허용 촉구 * 제39차 정기총회 개막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核안전협정 체결과 함께 IAEA에 제출한 핵물질 보유보고서가 실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IAEA가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9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권력승계 올해 넘길 가능성 언급 * 한국법학원主催 조찬강연</p> <p>- 金正日이 오는 10.10 당 총비서직만 승계한다는 추측도 있지만 올해를 그냥 넘길 가능성도 있음.</p> <p>- 北韓은 구조적인 식량부족과 수해로 올해는 3백만t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임.</p> <p>○ 정부, 以北 5도지사 교체 인사</p> <p>- 황해도지사 李光魯 평안남도지사 金勳基 평안북도지사 張正烈(유임) 함경남도지사 全容鎭 함경북도지사 車相弼</p>	<p>○ IAEA 협상대표단, 핵시설동결 관련 문제 토의후 離平 (9.12~19)</p> <p>○ 외교부 대표단, 파키스탄 및 인도 방문차 평양 출발 * 단장 : 외교부 부부장 최우진</p>	<p>○ 陳健 中외교부 대변인, 對北수재지원 확인 * 뉴스 브리핑</p> <p>- 중국 정부내 관련 부처들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이미 집행했음.</p> <p>○ 고노 日외상, 對北 50만弗 유엔 통해 지원 발표</p> <p>○ 中, 對北 2백만불 수재지원 결정說 * 中 고위소식통 인용(9.20 중앙일보)</p> <p>- 중국정부는 유엔의 요청과 中·北韓간 우호관계를 고려해 2백만달러 규모의 對北 수재지원을 결정했음.</p> <p>○ 訪北 IAEA 대표단, 北핵시설 동결조치가 지켜지고 있다고 언급</p> <p>○ 獨, 對北 50만 마르크상당 아동용 구호 식량 제공 방침 * 디 벨트紙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0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 수해 지원 3차 북경회담후 검토 언급 * 중앙일보 창간 30주년 특별회견</p> <p>- 수해지원문제는 9.27 남북 3차회담에서 北韓의 태도를 지켜보고 여려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0 金太智 駐日 한국대사, 한국, 경수로 비용 75% 부담 언급 * 마이니치신문主催 강연회</p> <p>0 한국무역협회, 대규모 투자사절단 訪北 추진 발표</p> <p>- 40여개 기업 60여명으로 투자사절단을 구성하여 10.10 연변에서 열리는 두만강유역 국제투자포럼에 참석한후 10.15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할 방침임.</p>	<p>0 中央通信, 우성호문제는 北韓 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보도</p> <p>- 선박은 해상분계선으로부터 20.8해리 북쪽해상에서 나포되었음. 이 과정에 선박은 파손되고 일부 사상자들이 났음</p> <p>-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측 영해에 불법침입한 86 우성호와 불법행위를 지휘한 남조선 당국에 있음.</p> <p>- 남조선 당국과 여기에 가담한 86 우성호의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됨.</p> <p>- 86 우성호문제는 마땅히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p> <p>0 北·말레이시아 군사대표회담 (평양) * 참석 : 최광, 하지 오마르 말레이시아 군총사령관</p> <p>0 北·쿠바 의회대표회담 (인민문화궁전) * 참석 : 황장엽, 호르헤 페레스 의회 외교위원장</p>	<p>0 美·日 등 50개국, IAEA 총회에 對北 결의안 상정</p> <p>- 북한에 대해 핵관련 자료 및 정보의 유지 보존과 핵안전협정의 전면이행을 촉구</p> <p>0 訪北 슈미트 獨기사당 의원, 北, 수해로 수천명 사망 주장 언급</p> <p>- 北韓은 최근 홍수로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주장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1	<p>0 통일원 대변인, 北 중앙통신 보도 관련 우성호 측각 승환 측구 論評</p> <p>- 北韓측이 우리의 순수한 민간 어선을 나포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p> <p>- 北韓측은 이제라도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p>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수해 지원 심도있는 黨·政협 의 지시</p> <p>* 金潤煥 민자당 대표위원 주례당무보고시</p> <p>0 李洪九 국무총리, 월드컵 南北공동개최 희망 표명</p> <p>* '95 유럽·동아시아 경제 정상회의</p> <p>- 韓國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해 南北韓 지역에서 함께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함.</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기업인 대규모 방북</p>	<p>0 政黨·社會團體 연합회의, 박용길 구원투쟁위원회 결성</p> <p>- 위 원 장 : 여연구 부위원장 : 장재철 위원 : 김영호, 한영수, 정명희, 김경락, 김영도, 이천민, 백영호, 정춘경</p> <p>* '해내의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採擇</p> <p>- 박용길 여사에 대한 탄압은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횡포한 반역이며 모든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 행위임.</p> <p>- 전체 조선동포들은 박용길 여사를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김 0 0 일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임.</p> <p>0 노동신문, 『5.18특별법』 제정 운동 관련 남한정부 비난 論評</p> <p>0 北, 유엔군축포럼 가입</p> <p>* 유엔군축포럼 전체회의 승인</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과 담화</p>	<p>0 러 아무르州, 콜레라 유입 막기위해 北별목공 취업 중단 조치</p> <p>* 이타르 타스통신</p> <p>- 州경계내에 있는 北韓 별목장에서 일한 별목공의 취업을 당분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1	<p>불허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꺼번에 많은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p>○ 韓昇洙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임기중 남북관계 큰 변화 있을 것 언급 * 출입기자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2년은 굉장히 긴 기간으로 남북관계, 국제정치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까지는 안가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임. 	<p>○ 朝總聯 제1부위원장 이진규(77) 사망</p> <p>○ 朝總聯, 9월을 北수해지원기간으로 설정 * 조선신보 최근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수해와 관련, 중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9월 한달간을 수재동포지원 집중운동기간으로 설정 	
9.22	<p>○ 權寧海 안기부장, 北수해로 경제난 가중될 긴장 조성 가능성 언급 * 국회 정보위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수해피해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될 경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韓·日 국방장관회담 * 李養鎬 국방부장관·에토 日방위청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정전체제의 유지 및 양국간 군사교류 확대에 합의 	<p>○ 勞動新聞, 남북관계 개선 의사가 있다면 조문거부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孔魯明이 北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제쳤음. - 진정으로 北南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만고대죄를 사죄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北南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장벽을 철폐하고 해체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함. 	<p>○ IAEA, 對北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 제39차 정기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감을 표시하며 북한에 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함. - 북한에 대해 핵물질 보유량에 관해 IAEA측에 보고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할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2	0 軍停委 수석대표 李釋馥 소장 취임	0 『汎民聯』북측본부, 박용길 명보석 기각 비난 聲明 0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개최 (9.22~23, 북경)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나 정보등을 훼손치말고 보존해 주도록 촉구함. 0 日외무성, 北수재 50만弗 지원 발표 - 北韓에 50만달러의 긴급원조를 유엔을 통해 제공할 것임.
9.23	0 北韓 별목공 3명 귀순 - 러시아 시베리아 북한 별목장에서 탈출한 김광일, 김봉철, 허광일씨가 유엔 고등판무관의 주선으로 한국에 도착	0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회담 개막 (9.23~29, 평양) * 골드스타인 美국무부 북한담당관 참석 -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기술적인 현안들 협의 0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南韓기업 투자 불허 상응 조치 경고 (北京 기자회견) - 만약 더이상 남쪽 기업과의 계약이 불성실하게 이행된다면 생각을 달리할수밖에 없음 0 김일성의 국가계획위원회 당총회 지도 30돌 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이종옥, 한성룡, 최영림, 홍석형, 김복신, 윤기복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4		0 『여성동맹』중앙위,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 0 北·요르단 국회회담 (만수대의사당) * 양형섭, 사르 스루르 요르단 하원의장 참석	0 北, 아시아개발은행 (ADB) 가입 타진說 * 9. 25 세계일보 - 북한은 '93, '94년 ADB측에 비공식적 으로 가입절차를 타진해 온 것으로 9. 24 밝혀짐.
9. 25	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지원과 납북자 문제 연계 언급 * 국정감사 - 앞으로 對北지원과 북한 에 억류중인 납북자문제 등을 연결시켜 해결해 나 가겠음. - 북한 핵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공동해결하는 것은 내부 간섭이 아니라고 봄. - 북한의 현재 태도로 볼 때 정당대표의 訪北은 바 람직스럽지 않다고 봄. 0 孔魯明 외무부장관, 中,	0 拉北 우성호 선원 記者會見 (중앙방송) -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다시금 솔직히 자백하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과 이남 당국자 들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함. - 지금 우리들은 이남에서는 업 두도 낼 수 없었던 좋은 조건 에서 불편없이 지내고 있음. - 저희들의 죄과는 용납될 수 없고 마땅히 공화국의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고 인정함. - 사건현장에서 항해사인 심홍 광과 갑판장인 심재경이 사망 하였음. 이북에 들어와 이일	0 美·北, 임시영사보 호권 합의 * 한국 외무부 확인 - 양측은 연락사무소 를 개설할 때까지 임시영사보호권을 인정, 美는 스웨덴 이, 北은 駐유엔 북한대표부가 각각 행사하기로 합의 0 블릭스 IAEA 사무총 장, 北, 폐연료봉 플루토늄量 측정 거 부 언급 * IAEA 임시이사회 보고 - 북한은 폐연료봉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5	<p>美·北 평화협정 반대입장 통보 언급 * 기자간담회</p> <p>- 中國정부는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음.</p> <p>0 南北韓 조류학자, 자료교환 및 자연실태 공동조사 추진 합의 * '95 동북아 북태평양 환경포럼(日구시로市)</p> <p>- 元炳旵 경희대 교수와 北 국가과학기술위 국장 김상록 등 南北韓 조류 및 환경학자들은 새에 대한 정보와 자연보호 자료를 교환하고 비무장지대의 자연실태 공동조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p>	<p>용씨는 병사했음.</p> <p>0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회담 종료 (9.25~29, 평양)</p> <p>< '공동보도문' 要旨 ></p> <p>- 미국전문가들은 합의에 따라 평양주재 미국연락사무소로 이용될 스웨리에 대사관과 독일 이권보호사무소 구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p> <p>- 朝·美 대표단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미결문제들을 계속 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음.</p> <p>0 『범청학련』북측본부,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p> <p>0 朝總聯 제1부의장 이진규 추도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 박성철</p> <p>0 北·中 기상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합의서 調印 (평양)</p> <p>0 외교부장 김영남,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과 담화</p>	<p>방사선 측정은 받아들였으나 플루토늄양 측정은 거부하였음.</p> <p>0 하시모토 日자민당 총재, 對北수교 한국동의下 추진 언급 * 동아일보 회견</p> <p>- 對北관계도 한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형태로 일본이 행동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6		<p>0 密入北 정민주·이해정, 10.3 판문점통과 귀환발표 記者會見 (평양고려호텔)</p> <p>- 10.2에 강동군 대박산의 단군릉을 南北의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답사하는 투쟁을 벌이고자 함.</p> <p>- 이 투쟁을 마치게 되는 10.3 오후에 임수경과 박용길이 넘었던 그 분단선을 넘어 남북 백만학도의 품으로 달려갈 것임.</p> <p>- 우리는 치욕의 군사분계선을 밟아버리겠다는 각오로 판문점을 통해 돌아갈 것임.</p> <p>- 우리의 판문점 돌파는 국가보안법에 전면대응하는 투쟁이 될 것임.</p> <p>0 조선종교인협의회, 박용길 구속 비난 聲明</p> <p>0 黨·政간부들,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 관람 (만수대에술극장) * 참석 : 박성철, 최 광, 최태복, 양형섭, 김국태, 장 철</p>	<p>0 노로타 日농산상, 日·北 추가쌀지원 협상 9.30 북경개최 발표</p> <p>0 日요미우리신문, 北, 자유경제협력지대 설치 계획 보도</p> <p>- 김정우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는 별도로 일정범위내에 『자유경제협력지대』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p> <p>0 러 방산업체, 韓國과 첨단무기 공동개발계획 발표 * 인테르 팩스통신</p> <p>- 러 로스마루제니에 社는 레이더안테나 시스템, 잠수함 동력시스템, 이동식 대공포, 전술탄도 미사일 방위시스템 등을 한국과 공동연구개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7	<p>0 제3차 북경회담 개막 (9.27~30)</p> <p>0 李養鎬 국방부장관, 北, 核彈 1~2개 제조분량 플루토늄 보유 언급 * 국정감사</p> <p>- 北韓은 한두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시적 핵폭발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판단됨.</p> <p>- 방위비협상을 단순히 주둔비용 부담차원이 아닌 무역역조와 경수로 및 KEDO 지원 등 전반적인 한·미관계속에서 협상하는 전략을 추진중임.</p>	<p>0 외교부 대변인, 日·北 수교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관련 記者會見</p> <p>- 日本 외무성은 지난 3월 조선노동당과 일본 연립여당간 협정을 채택한 이후 몇번이고 공화국 외교부에 접촉을 가질 것을 요청해 왔음.</p> <p>- 회담재개를 위한 日本 입장을 받아들여 우리는 그 준비를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실무접촉 제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음.</p> <p>- 최근 양국 외교부간 接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본측 요청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접촉중 하나임.</p>	<p>0 셸리그 해리슨 美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北, 주한미군 장기주둔 양해 언급 * 중앙일보 회견</p> <p>-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이찬복 중장은 “궁극적으로 駐韓 美軍이 철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美國 동아시아전략상 하루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상한 것” 이라고 말했다</p>
9.28	<p>0 孔魯明 외무부장관, 북한 인권 보장 촉구 * 유엔총회 기조연설</p> <p>- 北韓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p> <p>- 韓國정부는 북한주민이 동포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음.</p>	<p>0 외교부 대변인, 제2차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협상 개최 관련 記者會見</p> <p>- 미국측이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의무이행을 태만한다면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핵동결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함.</p> <p>- KEDO측은 마땅히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하부구조 건설은</p>	<p>0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가스 수송관 北韓영토 경유방안 검토 언급 * 기자회견</p> <p>- 北韓은 러시아가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북한 영토에 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은 개혁과 사회 개방을 통해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함.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산가족이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때까지 최소한 서로의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p>○ 洪在馨 재정경제원 장관, 南北 화폐통합문제 연구중이라고 언급</p> <p>* 국정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 경제통합단계에까지 이르지 않는지만 현재 관계 전문기관에서 화폐통합문제에 대해 연구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론 공사전반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난 수십년동안 자립적 핵동력 공업 창설에 돌려진 우리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할 것임. - 소유자인 우리가 장차 자기의 것으로 될 경수로발전소가 똑똑한 것인가를 검토 확인해 보는 것은 마땅한 권리에 속하는 문제임. - 만약 美國이 제 할 바를 KEDO에 넘겨놓고 경수로제공협정 체결을 지금처럼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로서는 부득불 美國과 단독으로 마주앉아 정치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 <p>○ 駐러 대사 손성필, 金正日 공식승계 지연 시사</p> <p>* 이타르 타스통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는 권력상층부내의 변화는 계획되어 있지 않음. <p>○ 中放,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군 자동개입' 선언 보도 관련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해서 무력에 의한 전쟁의 방법으로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자는데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8		- 김 0 0 일당은 對北정책에서 무력에 의한 승공통일과 北을 개방해서 흡수통일하는 두가지 방법에 매달리고 있음. 0 장충성당·봉수교회, 박용길 구속 규탄대회	
9.29	0 金鴻來 공군참모총장, 北, 스커드 미사일 6백기 배치 언급 * 국정감사 - 북한은 현재 프로그 및 스커드 미사일 6백기를 작전배치했으며, 핵과 화학탄을 적재할 경우 심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임.	0 北, 美민항기 영공통과 허용 * 10.11 중앙일보 - 북한은 美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에 원산부근 등 평양비행정보구역(FIR) 통과를 허가했다고 보도 0 용문대굴 준공식 * 참석 : 최태복, 장 철, 김학봉	0 美국무부, 平壤 연락사무소 부지 외교단지로 합의 발표 - 현재 스웨덴 대사관과 독일 이익대표부가 위치한 외교단지를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음 0 日산케이신문, 北, 미국에 화력발전소 제공 요구 보도 * 美정부소식통 인용 - 북한은 경수로 도입과 병행해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는 火力발전소의 제공을 미국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보도 0 태국 외무부, KEDO에 30만달러 제공 발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30	<p>0 제3차 북경회담 종료 (9.27~9.30)</p> <p>< 남한측 주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성호 즉각송환, 비방중상 중지, 안승운씨 원상회복, 북한고위당국자의 발언 해명 등 南北協力を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력히 촉구 - 南北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회담은 한반도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쌍방 대표의 자격을 확실히 함으로써 南北대화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 - 對北쌀수송과정에서 돌출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수단보장 약속의 성실한 이행, 신변안전보장 장치 강화 등 보완조치의 필요성 강조 <p>< 북한측 주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성호 문제는 北韓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회담장소를 한반도내로 이동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결정되기 어려운 일로, 과제로 안고 가겠다는 입장 표명 <p>* 남측 수석대표 :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 북측 " :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p>		<p>0 KEDO · 北, 경수로 협정 체결 관련 제2차 전문가회담 개막 (9.30~, 뉴욕)</p> <p>* 세이모어 美국가안정보장회의 핵비확산담당관, 이용호 北외교부 부국장 참석</p> <p>0 日 · 北, 쌀추가지원 문제 협의 2차 회담 (9.30~10.3, 북경)</p> <p>* 다메스에 日식량청 업무부장, 北국제무역촉진위 서기장 김정기 참석</p>
	<p>0 李錫采 재정경제원 차관, 회담종료후 記者會見</p> <p>- 다음 회담의 장소·날짜 등은 합의하지 않았으나 문호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북한측도 우리의 제</p>	<p>0 平放, 84년 수재물자지원 선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p> <p>- 84년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5만석의 쌀과 50만미터의 천, 10만톤의 시멘트와 759지함의 의약품을 보내주는 우리의 동</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30	<p>의에 호응해 오리라고 기대함.</p> <p>- 북측은 쌀 추가지원을 가장 크게 희망했으나 우리측은 제3국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 협의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으며 회담의 장소 및 성격 등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p>	<p>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조치가 취해졌음.</p> <p>- 1천8백만달러분의 구호물자는 남조선 당국이 우방이라고 믿고 섬기는 미국과 일본의 2만, 10만달러와는 대비도 안되는 막대한 양임.</p> <p>- 우리의 동포애적 구호조치가 실현됨으로써 처음으로 北과 南사이에 서로 돕고 도움받는 훌륭한 선례가 마련되었음.</p> <p>- 우리 민족은 11년전 구호물자 인도인수과정에 있었던 선례를 잊지 말고 北과 南은 하나의 핏줄을 이은 한 형제라는 동족의식으로 더욱 합쳐야함.</p> <p>○ 金正日, 중국창건 46돌 즈음 강택민 중국주석에게 최고사령관 명의 祝電</p> <p>○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대변인, 韓總聯 단군릉 답사 투쟁 지지 談話</p> <p>○ 黨·政간부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관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이종옥,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최 광 外</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	<p>0 金泳三 대통령, 향후 2~3년이 국가안보 고비 언급 * 국군의 날 치사</p> <p>- 北韓은 『세계사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음.</p> <p>- 지금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음.</p> <p>-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2, 3년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p> <p>0 李錫采 북경회담 수석대표 4차회담 개최 관련 언급 * 귀국 기자회견</p> <p>- 북측 대표들이 귀국해서 회담장소를 결정, 통보해 오는대로 양측이 시기를 협의하여 회담을 재개하게 될 것임.</p>		<p>0 갈리 유엔사무총장, 南北정상회담 주선 용의 표명 * KBS 특별회견</p> <p>- 내년 3월 남·북한 동시방문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할 생각임.</p> <p>- 두 지도자간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성사되면 대화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		<p>0 북경회담 수석대표 전금철, 3차 회담 종료관련 북경 記者會見</p> <p>- 남측이 쌀회담에서 정치적 조건을 달지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왔으나 회담이 깊어가면서 정치적 조건이 살아 나고 정치 대결의 희생물이 되고 있음..</p> <p>- 갑자기 장소를 조선반도 내로 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논리비약임. 北南關係 및 대화 가 정상적 궤도에 오를 때 국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임.</p> <p>- 의제는 쌀 단 하나이며, 기본 의제에 충실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p> <p>- 우리는 쌀때문에 정치적 자주성을 희생하지 않음.</p> <p>0 金正日,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題下 논문 발표</p> <p>0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김정우, 羅津·先鋒에 증권거래소 설치 언급 * 교도통신 회견 (방콕)</p> <p>0 『범청학련』, 자주교류 쟁취 결의대회 (단군릉) * 참석 : 허창조, 정민주, 이해정</p>	<p>0 KEDO·北韓, 경수로 협정 체결 관련 제2차 전문가회담 속개 (뉴욕)</p> <p>0 프랑스, 제2차 핵실험 실시 (남태평양 판가투파 환초)</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3	<p>○ 孔魯明 외무부 장관, 우성호·안승운목사 사건 유엔 통해 해결모색 기자회견</p> <p>- 우성호와 안목사 납북사건에 대해서도 국제인권관계기관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임.</p> <p>-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용도 고려하고 있음.</p> <p>- 북한이 비동맹정상회의를 통해 '관련국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 중임.</p> <p>○ 不法訪北 정민주·이혜정, 판문점 통과 귀환</p>	<p>○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 국군의 날 치사 관련 論評</p> <p>-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임.</p> <p>- 北의 도발 가능성이니 뭐니하는 것은 저들의 대결과 전쟁 준비 책동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 낚두리임.</p> <p>○ 외교부 대변인, 팔레스타인 자치확대협정체결 환영 記者會見</p> <p>○ 단군제 거행 (단군릉) * 참석 : 유미영, 장재철, 박태호</p> <p>○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일본 방문차 평양 출발 * 단장 : 강영섭</p>	<p>○ KEDO·北韓, 경수로 협정 체결 관련 제2차 전문가회담 계속 (뉴욕)</p> <p>○ 日·北, 對北 20만t 쌀 추가지원 합의 * 北 국제무역촉진위서기장 김정기, 다메스에 日 식량청 업무부장 합의서 서명 (북경)</p> <p>- 20만t의 쌀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유상공급되며, 연리는 첫 10년간은 2%, 그후에는 3%씩 적용</p>
10.4		<p>○ 노동신문, 孔魯明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연설 관련 論評</p> <p>- 조선반도에서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김○○ 일당에게만 있음.</p> <p>- 우리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남조선을 美國의 생화학무기 저장</p>	<p>○ 머코스키 美 상원의원, 對北 강경법안 상정</p> <p>- 對北韓 정치·경제 관계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대화의 진전,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 실종미군 공동조사 등을 제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4		<p>고로 전락시킨 저들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술책임.</p> <p>- 진정으로 對話와 협력을 바란다면 반민족적 반인륜적 야만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콘크리트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대화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함.</p> <p>○ 황해남도 당책임비서로 김운기 任命</p>	
10.5		<p>○ 『법청학련』북측 본부, 정민주·이혜정 구속비난 聲明</p> <p>○ 金正日, 당창건 기념탑 시찰 및 만수대장작사 방문</p> <p>○ 노동신문, 정민주·이혜정 구속 비난 論評</p> <p>- 괴뢰들은 통일사절들에게 짐승보다 더 악독한 악행을 가함으로써 北南對話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음.</p> <p>- 우리는 파쇼도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 계산할 것임.</p> <p>○ 黨창건 기념 전국연구토론회 (인민문화궁전)</p>	<p>○ 中 외교부, 對北 30 억원 상당 긴급원조 제공 발표</p> <p>-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 3천만元(약30 억원) 상당의 긴급원조를 물자형태로 제공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5		* 참석 : 이종옥, 계응태, 최태복 양형섭, 장 철	
10.6		0 UN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 한 성열, 특별사찰 수용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언 * 美평화연구소 주최 세미나 (워싱턴) - 북한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을 허용할 수 없음. - 북한은 특별사찰을 받아들이 지 않을 것임. 작년 합의 당 시 특별사찰 수용을 약속한 적이 없음.	0 江澤民 중국가주석, 北·中 우의 불변 강조 * 北京주재 북한대사 관주최 연회 참석 연설 - 양국간의 우의를 부단히 공고히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中國 공산당 과 정부의 확고불 변한 방침임.
10.7	0 對北지원 쌀 마지막 수송 선 출항 - 對北지원 쌀 2천 5백t을 실은 『코렉스』호가 청 진항을 향해 동해항 출항	0 中放, 해군함정 3척 북측 영해 침범 주장 논평 - 10.6 괴뢰군 전투함선 3척이 황해남도 옹진군 재장리앞 마 학도 부근에서 항행하고 있던 평화적인 어선들을 납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급히 침입시 켰음. -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하나의 고의적이며 계획적 인 군사도발 행위임.	0 레이니 주한 美대사 美·北韓 핵합의로 한국경제 호조 주장 기자회견 - 미·북한 핵합의로 對韓투자를 억제하 던 불안감이 해소 되고 낙관적 분위 기가 되살아나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30에도 괴뢰들은 우리 측 영해에 86우성호를 불법침입시켰으며, 우리의 자위적 조치로 나포되어 지금 우리에게 억류되어 있음. ○ 『조국전선』 중앙위 확대회의 - 남한 당국의 『파쇼화와 대결책동』 저지 및 민족단합 촉진 대책 토의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장 金正日, 인민무력 부장에 최광 임명 ○ 黨중앙군사위·국방위, 최광·조명록 등에게 『원수·차수』 칭호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 : 최 광, 이을설 차수 :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 ○ 최고사령관 김정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군사』 칭호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사령관 명령 제0065호 - 김하규, 현철해, 김병률, 전기련, 리명수, 오금철, 윤종린, 김치관, 김형룡, 신동균, 최부일, 리주을, 강표영, 이경환 등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8		<p>0 노동신문, 『배신자들로부터 혁명의 수령을 응위할 것』을 강조 정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은 수령의 충직한 전사들에 의하여 전진하고 배신자들에 의하여 비극적인 좌절을 당함. -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된 나라들의 비극적 사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과 배신자들의 모략으로부터 혁명의 수령을 응위하지 못한 것임. - 혁명의 수령의 권위를 헐뜯고 당과 수령을 인민들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 반사회주의 책동의 첫째가는 전략임. - 혁명하는 인민들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자유화바람, 평화바람에 높은 각성을 가져야 함. <p>0 고려연방제 제시 15돌 평양시 보고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박성철, 김병식, 양형섭, 김용순, 장 철, 박남기, 유미영</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9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정상 회담 논의 시기상조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對話가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日本이 한국 너머로 北韓과 관계를 진전시킨다면 일본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것임. - 북한에 원수가 3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음. - 주석도 없으니 南北정상 회담을 할 시기가 아님. <p>0 李洪九 국무총리, 南北 언어 이질화 극복노력 강조 * 한글날 기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있어 우리의 말과 글이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南北간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p>0 金正日, 청류다리·금릉 2동굴 개통식 참석</p> <p>0 당창건 기념탑 준공식 진행</p> <p>* 참석 : 강성산, 이종욱, 김영주, 박성철, 김병식</p>	<p>0 람자우어 獨연방하원의원, 남한의 대북투자 상한선 철폐 요구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北중 김정우로부터 5백만달러 대북투자 상한선을 철폐하도록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0		<p>0 당창건 50주년 기념 열병식 및 100만 군중시위 진행 (김일성광장)</p> <p>* 참석 : 金正日,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운석,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을설, 백학립</p> <p>< 최광 경축사 要旨 ></p> <p>- 전체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여 우리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다그쳐 나가야 하겠음.</p> <p>- 우리 인민군대는 그 누가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임.</p> <p>0 노동신문, 金正日을 『오늘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호칭 (正論)</p> <p>0 노동신문·신문조선인민군·노동청년, 당창건 50돌즈음 共同社說</p> <p>* 『위대한 당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p>	<p>0 러 이타르 타스통신 『김영주, 金正日 지지 발언』 보도</p> <p>- 지난 9일 북한고위 당간부회합 자리에서 김영주 부주석이 金正日 지지 발언을 했다고 보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후계자를 모셔야 黨건설 위업이 승리적으로 완성되게 됨. - 金正日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을 金日成 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며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임. - 우리 黨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함. <p>○ 黨 중앙위, 당창건 50돌 즈음 경축 연회 * 참석 :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p> <p>○ 金正日, 『충성의 편지』 전달식 및 평양시 청년학생야회 참석</p> <p>○ 金正日,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수행 :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p>	
10.11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南北 정상통로가 없는 經協확대 곤란 기자 간담회</p> <p>- 南北간 정상통로가 없는 한 일정규모 이상의 南北 경협 추진은 어려움.</p>	<p>○ 외교부副部长 최수현, 美·北 평화협정 체결 주장 * 제50차 유엔총회 연설</p> <p>- 南北韓간 평화보장체계문제는 91년12월의 합의서 채택으로 사실상 문건으로는 마련된 것이나 다름 없음.</p>	<p>○ 국제선명회, 北韓에 밀가루 1천톤 상당 지원</p> <p>-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對北 수재 지원용 밀가루 5만포대(1천톤 상당)를</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1	<p>○ 權寧海 안기부장, 북한내 저항·비판세력 대두 언급 * 국정감사 답변</p> <p>- 北韓은 부분적 개방정책과 外資도입을 통해 경제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 제3차 7개년계획(87-93) 기간동안 -1.7성장을 보였다.</p> <p>- 이런 사정과 南韓 경제성장의 동경심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비판세력이 대두되고 있음.</p> <p>○ 北韓軍 상좌 1명 귀순</p> <p>- 북한군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소속 용성무역 합영부장 북한군 상좌 최주환이 최근 동남아 제3국을 통해 귀순</p>	<p>- 이제 남은 것은 우리와 미국 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p> <p>○ 北·KEDO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實務協商 참가 북측 대표단 평양 출발</p> <p>○ 외교부 부부장 최수헌, 제50차 유엔총회 연설</p> <p>- 우리는 북남대화의 좋은 분위기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p> <p>- 반인륜적인 대죄를 지고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현 남조선 당국자와 마주 앉는 것을 전체 조선인민들은 허락하지 않음.</p> <p>-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을 비롯한 모든 법률적 물리적 장애물들이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함.</p> <p>- 우리와 미국 사이의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대폭 완화되고 북남합의서의 이행도 순조롭게 될 것임.</p> <p>○ 『조국전선』서기국장 유호준 死亡</p>	中國에서 신의주로 수송 완료했음.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1		0 金正日, 당창건 50돌경축 대표들과 기념촬영 (10.11) * 참석 :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10.12	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우성호 송환·수해 지원연계 언급 * 국정감사 - 北韓의 수해지원 요청이 있더라도 우성호 송환과 南北대화 재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 경수로 추가부담 문제는 관례를 벗어난 추가부담은 없을 것임. 0 孔魯明 외무부장관, 무라야마 日총리의 한일합방조약 합법 발언 관련 駐韓 일본대사 불러 항의 전달 0 김중위 환경부장관, 南北 환경장관회의 제의 계획 언급 * 국정감사 - 적절한 기회를 봐 북한에 한반도환경공동체 구성과 南北韓 환경장관회의를	0 부주석 박성철, 비동맹정상회의 참석차 평양출발 0 金正日, 평양·향산 관광도로 개통식 참석 ※ 軍 인사개편 확인 -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2	<p>제의할 계획임.</p> <p>0 국방부, 韓·美 『95 독수리연습』 10.13~11.17 실시 발표</p>		
10.13	<p>0 國會 통일외무위, 『한일합방』 등 무효 決議案 채택</p> <p>*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勅約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p>		<p>0 KEDO 집행이사회 개막 (10.13, 뉴욕)</p> <p>0 美國무부, 유엔주재 北韓 참사관 한성열 발언 관련 논평</p> <p>- 북한이 특별사찰의 이행을 약속했음은 명명백백함.</p> <p>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韓, 폐연료봉 측정거부』 언급</p> <p>* UN안보리 제출 北韓 보고서</p> <p>- 북한은 IAEA 핵사찰단이 寧邊원자로 폐연료봉의 플루토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거부했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4	<p>0 金泳三 대통령, 日·北 쌀 교섭 통일 방해 언급 * 美 뉴욕타임즈紙 회견</p> <p>- 근래 日本은 한국의 어깨 너머로 북한과 쌀교섭을 하는 등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자세를 취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망언을 거듭하고 있음.</p> <p>- 南北韓 분단 원인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있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음.</p> <p>0 吳明 건설교통부 장관, 南北 고속도로·고속전철 연결 추진 언급 * 국정감사</p> <p>- 南北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간 장거리 대량수송을 위해 고속도로 4개축과 고속철도 2개축을 북한과 연결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p>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정상 회담 논의 시기 아니라고 언급 * 뉴욕타임즈紙 회견</p> <p>- 우리는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한 배반감과 실망만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은</p>	<p>0 金日成 조국개선 연설 50돌 기념보고회 (개선문광장) * 참석 : 이종옥, 김병식, 최 광</p> <p>< 이종옥 기념보고 요약 ></p> <p>- 金正日 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는 것은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대한 사업임.</p> <p>- 金正日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장군님의 영도밑에 하나같이 숨쉬며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음.</p>	<p>0 제11차 비동맹정상 회담 개막 (10.14, 콜롬비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4	<p>매우 다루기힘든 상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북한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 한국이 쌀 수송을 재개하고 화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납치한 우성호 선원들을 풀어주고 對南 비방방송을 중지해야 함. 		
10.15		<p>0 金正日, 조총련 축하단 대표들 접견</p> <p>* 참석 :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최용해, 허종만</p>	
10.16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의 현 지도체제 관련 언급</p> <p>* 加 글로브 앤 메일紙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과의 화해 가능성은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경협 北韓 태도따라 확대표명</p> <p>* 국회 시정연설</p>	<p>0 勞動新聞, '95독수리훈련 실시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불장난을 벌여 놓은데 대하여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음.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중지의 간판뒤에 그와 맞먹는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 	<p>0 KEDO·北,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제2차 고위급회담 개최 (뉴욕)</p> <p>0 나만가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 『北韓, 유엔평양사무소 허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에서 (원조 식량 배급을 감독할) WFP고위관계자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의 對北투자허용 등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 조치들은 북한의 자세와 태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음. - 남북 당국간의 회담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해 나갈 것임. <p>○ 國會, 韓日합방 무효선언 決議案 채택 * 국회 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는 1910.8.22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작성된 勸約이 원천무효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것을 촉구함. 	<p>는 우롱이며 도발임.</p> <p>○ 부주석 박성철, 제11차 비동맹 정상회의 참가차 콜롬비아 도착</p>	<p>가 근무할 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음.</p> <p>○ 하야시 日외무차관, 對北 쌀지원 한국과 밀접 협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상시 연락을 취해 왔으며 쌀문제에서도 그렇게 해왔음.
10.17	<p>○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 1명 사살 * 통합방위본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7 02:20경 경기도 파주군 임진강 하류 자유의다리 남쪽 1.5km지점에서 남측지역으로 침투하려던 무장 북한군 1명이 아군 경계병에 의해 사살 	<p>○ 中放, 金泳三 대통령 뉴욕타임스紙 회견 관련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신감이요 뭐요 하며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우리는 약속할 것도 없고 또 약속한 것도 없음. 	<p>○ 무라야마 日本총리, 韓日합방조약 합법 거듭 주장 * 참의원 예산위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합방조약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함.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등 향
10.17	<p>0 國防部 대변인, 무장공비 침투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임진강 수중 무장침투 사건은 명백한 대남도발행위로 우리 군은 이같은 북한군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 항의함. - 이번 사건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한 민족적 화해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수 없음. - 또 다시 이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우리 군은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성호로 하여금 공화국 영해 깊이 불법침입하도록 한 김00 역도로서는 배의 석방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음. - 할것이 있다면 우성호를 침입시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뿐임. <p>0 외교부 부부장 최우진,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침 외교부장은 김정일의 영도하에 전체조선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경제를 발전시키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 믿는다고 언급 <p>0 北韓, 유엔사의 무장공비 침투 항의서한 접수 거부</p> <p>* 판문점 연락장교 회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李釋馥 소장 명의로 항의 서한을 보내려 했으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전 협정과 관련한 서한을 받지 못한다』며 수령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도의적으로 판단해 實態論으로 말하면 대등하고 평등하게 체결된 것은 아님. <p>0 고노 日외상, 日本은 남북분단에 직접 책임 없다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분단의 직접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38선 당시의 논의는 누구나 기억함. <p>0 美 WSJ紙, 北韓 군부 반발로 연락사무소 협상 결렬 보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7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도 울수있는 나라는 韓國뿐』 이라고 강조 * 加 밴쿠버 교민 리셉션</p> <p>-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은 그들을 도울수 있는 나라 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와의 대 화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의 무 장공비 침투는 대남전략 불변 언급 * 밴쿠버 교민 만찬</p> <p>-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산 증거이 며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 할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대응해야 함.</p> <p>-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한계를 보 이고 있는 상황등을 예의 주시, 신중하게 대북정책 을 추진해 나가야 함.</p> <p>- 멀지 않는 장래에 남북통 일이 분명히 민주방식에 의해 이뤄질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7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韓 핵개발포기 위해 러시아 협조 촉구 * 韓·러포럼 연설</p> <p>- 북한이 핵과 미사일등 평화화를 위협하는 군사 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 노력해 줄것을 당부함.</p> <p>0 外務部 대변인, 고노 日本 외상 발언관련 聲明</p> <p>- 분단의 근본적 원인을 지시하지 않고 38선 설정의 단편적 측면만을 가지고 분단의 직접적 책임이 일본에 없다고 강변한 것은 역사를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저의를 나타낸 것으로 극히 유감임.</p> <p>- 日帝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통치가 없었더라면 38선 설정에 의한 남·북분단이 없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임.</p> <p>- 우리는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7	<p>0 金太智 주일대사, 야마사키 日자민당 정조회장에게 對北 수교협상 신중 촉구</p> <p>- 일본이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北·日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p>		
10.18	<p>0 『韓·러포럼』, 남북 대화와 정전체제 지지 『공동 합의문』 발표</p> <p>-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접촉과 협의가 근간이 돼야 함.</p> <p>- 남북간의 새로운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함.</p>	<p>0 외교부 대변인, 독수리 '95합동군사훈련 비난 담화</p> <p>- 미국이 본질상 틱스피리트의 재개나 다름없는 독수리 '95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임.</p> <p>- 이는 북남관계를 더욱 격화시키고 남조선 정권을 무력으로 뒷받침해주는 반평화적이며 반대화적인 행위임.</p> <p>- 미국은 이제 더는 북남대화 재개문제에 대하여 말할 체면조차 잃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p> <p>- 미국이 계속 협상거부적 행동을 취하면서 긴장격화로 나간다면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세를 대표하는 주된 요소인</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8		<p>케케묵은 정전체계를 뿌리채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임.</p> <p>0 『民民戰』방송, 무장간첩 사건은 날조극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 민중은 북으로부터 남파 무장간첩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에 접해 당국자들의 날조극이라고 낙인 찍고 비난하고 있음. <p>0 부주석 朴成哲, 제11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의 두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제)통일 국가는 대외정책에서 중립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대국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평화보장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게 될 것임. - 1991년 12월 북남사이에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북남사이에는 이 평화보장장치를 가동하면 되며, 남은 것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 뿐임.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9	<p>0 北韓 노동자 1명 귀순</p> <p>- 北韓의 수력기계공장 주물노동자였던 이원도(26) CIS지역으로 탈출후 귀순</p>	<p>0 노동신문, 金대통령의 日·北 관계진전 우려발언 관련 論評</p> <p>- 김 〇 〇 은 日本이 남조선에 앞서 북조선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음.</p> <p>- 이것은 분열을 추구하는 남조선 괴뢰들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임.</p> <p>- 日本이 日·朝교섭 재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자존심도 체면도 다 꺾버리는 것임.</p> <p>- 日本은 정치대국이 되려면 자주성도 있고 자기의 주권도 있어야 함.</p>	
10.20	<p>0 韓·加정상회담, 북한개방 촉진 협력 합의</p> <p>* 캐나다 오타와</p> <p>- 캐나다·북한간 관계개선 노력은 북한의 대외개방 촉진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긴밀협력키로 합의</p>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의 뉴욕타임스紙 회견 관련 論評</p> <p>- 김〇〇이 우리가 저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것은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임.</p> <p>- 북이 대남비방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것도 공연한 생트집이며 우리에게 대한 일종의 도발임.</p>	<p>0 제11차 비동맹정상회의, 제네바 합의 이행 대북촉구 『최종문서』 채택 (콜롬비아)</p> <p>-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와 팔라룸푸르 합의의 전면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IAEA에 대한 협조를 희망</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0	<p>0 李洪九 국무총리, 남북대화 관련 발언 * 국회 답변</p> <p>- 북한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때까지 남북대화를 제의하지는 않을 것임.</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 수해지원 신중 결정 언급 * 국회 답변</p> <p>- 對北 수해지원 문제는 북한측 태도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예정임.</p>	<p>- 우리가 괴뢰들에게 하는 말은 비방이 아님. 반역집단에 대한 온민족 온겨레의 원한과 분노를 담은 준렬한 단죄 규탄임.</p>	<p>0 갈루치 美國 核대사 對北공급 중유비용 부담 시사 * 미·북 핵합의 1주년 회견</p> <p>- 한국과 일본이 對北경수로 공급사업에서 큰부담을 지고있기 때문에 중유공급 재원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제사회가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함.</p>
10.21	<p>0 (株)大宇 기술진 5명 再入北</p> <p>- 기술지도 등을 위해 북한에 머물다 9.26 귀환한 (주)대우 기술진 7명중 5명이 10.21 재입북</p>	<p>0 노동신문, 우성호 송환 거부 論評</p> <p>- 공화국의 영해깊이 침범한 86 우성호의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p> <p>- 김○○ 일당이 석방이요, 뭐요 하며 감히 우리에게 삿대질하려 드는 것은 공연한 생트집이며 우리에게 대한 도발임.</p>	<p>0 KEDO·北韓,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고위급 회담 진전 발표 (뉴욕)</p> <p>* 공동 언론발표문</p> <p>- 고위급 및 전문가 회담을 내주에도 계속 개최, 공급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회담은 실무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부 주요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았음.
10.22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체제 불안정 언급 * 캐나다 CBC-TV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7월 김일성 사망 이래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 지도자 승계도 없음. - 북한의 무역이 현재 남한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승부는 결정났다고 보며 舊 소련과 동구가 몰락했듯이 北韓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임. 	<p>0 『 祖平統 』대변인, 『 '95독수리 훈련 』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 관계가 전례없이 악화되고 있는 때에 벌이는 것은 독수리 '95 합동군사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엄중하고 위협하다는 것을 말해줌. - 남조선 통치배들의 광란적인 전쟁책동은 그들이 떠드는 대화니 南北관계 개선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뿐임. - 남조선 괴뢰들을 무력으로 뒷받침해주는 반평화적이며 반대화적인 행위는 결코 美國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음.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3		<p>0 中放, 越北 한효수 중사 기자 회견 보도</p> <p>0 정무원 자원개발부장 김세영 死亡</p> <p>* 당중앙위 후보위원, 59세</p> <p>0 勞動新聞,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모략극 논평</p> <p>- 무장간첩 침투사건이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필요에 따라 어느때나 꾸며내는 계획적이고 상투적인 모략극임.</p> <p>- 미제와 괴뢰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 있는 투쟁기운을 무마하고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 하고 있음.</p> <p>- 사건조작과 때를 같이하여 사기와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 있는 정전기구에 사건을 제기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는 노릇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4	<p>0 金泳三 대통령, 평화정착 기본입장 제시</p> <p>* 미국유엔협회 세계지도자 賞 수상 연설 (뉴욕)</p> <p>-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임.</p> <p>- 첫째, 정전체제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확고히 유지, 준수되어야 함.</p> <p>- 둘째,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교섭되고 합의되어야 함.</p> <p>- 셋째, 南北韓은 상호관계를 대화를 통해 정상화함으로써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해야 함.</p> <p>-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0 勞動新聞, 독수리 '95합동군사 훈련 관련 논평 (10.24)</p> <p>- 朝·美 기본 합의문이 이행단계에 와 있는 때에 美國은 그 정신을 짓밟으면서까지 반공화국 군사적 소동을 벌이고 있음.</p> <p>- 미국은 朝·美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한 자기의 입장을 똑똑히 밝힐 때가 되었음.</p> <p>0 유엔 인도주의사업국 협조이행 대표단 평양 도착</p>	<p>0 KEDO·北韓,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고위급 회담 재개 (뉴욕)</p> <p>0 조총련 합영사업 추진위원회 부국장 박동수, 나진·선봉지역 토지 임대 제한 철폐 발언</p> <p>-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50년으로 규정했던 나진·선봉지역의 토지 임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면적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음.</p> <p>0 KEDO 경수로 부지 조사단 平壤 도착</p> <p>0 美 국무부, 남파 무장간첩 사건 관련 論評</p> <p>- 간첩들의 대남침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바란다는 북한측의 기존 주장과 맞지않는 도발행위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4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 민간교류·경협 확대 곤란 기자간담회</p> <p>- 북한은 남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가 없어 현단계에서 민간교류나 경협확대는 어려움.</p> <p>○ 황병태 駐中대사, 『中, 北 쌀지원 요청 거절』 언급 * 아태재단·중국외교인민학회 공동세미나(북경)</p> <p>- 북한이 최근 중국에 쌀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음.</p> <p>○ 무장 간첩사건 발생</p> <p>- 충남 부여 인근에서 무장 간첩 2명중 김도식(33세) 체포, 박광남 도주</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5	<p>0 韓·라오스 再修交 * 이시영 외무차관과 풍사 바트 부파 외무차관 서명 (서울)</p> <p>0 金泳三 대통령, 우성호 석방 약속 이행 대북 촉구 기자회견</p> <p>- 북한은 우성호 선원 석방과 대남비방중지 등 우리와 한 약속을 저버리면서 쌀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약속이 더욱 중요한 것임.</p>	<p>0 中放, 수재 관련 각국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구호물자 지원 결정 보도</p> <p>0 平放, 金泳三 대통령의 『北韓 체제 불안정』 발언 관련 論評</p> <p>- 우리 나라는 수십년의 역사에서 한번도 정치적 불안정과 동요가 있어본 적이 없음.</p> <p>- 주제넘게 불안정한 체제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北南대결을 고취하고 흡수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욕심이 깔려있음.</p> <p>0 中國지원군 참전 45주년 기념 연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이종옥, 김광진, 황장엽 장 철, 이성대, 교종회</p> <p>0 勞動新聞, 金泳三 대통령의 경찰의날 치사 관련 論評</p> <p>- 불법과 폭력을 단호하게 다스리라는 괴뢰역도의 폭언은 사대매국, 파쇼폭압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탄압하라는 폭압지령임.</p> <p>- 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과 학살에 미쳐 날뛰다가 제명도 못살고 저승에 갔거나 역사의 쓰레기장에 처박힌 선행 독재</p>	<p>0 美국무부, 北韓 수해 20만불 추가 지원 결정</p> <p>- 美국무부는 UN재난 구호기구의 요청에 따라 20만불의 수재구호금을 美대외 원조국(USAID) 과 UNICEF를 통해 구호 기금을 전달키로 결정</p> <p>0 美 의회, KEDO지원금 2,220만불 제공 승인 결정 (10.25)</p> <p>- 美상하 양원은 국무부 대외원조법안에 대한 절충에 성공, KEDO 지원금을 당초 국무부 요청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p> <p>0 美해리티지재단, 北 미사일 美본토 위협 경고</p> <p>- 北韓이 개발중인 사정거리 9,900km 가량의 장거리 미사일은 L나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덴버까지도 공격목</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5		<p>자들의 최악의 전철을 밟는 김○○역도의 운명도 달리 될 수 없음.</p> <p>○『韓民戰』중앙위 선전국, 5.18 문제 관련 김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발표</p>	<p>표로 삼을수 있음.</p> <p>- 늦어도 2,000년, 빠르면 금년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임.</p>
10.26	<p>○ 北韓 오진우 친척 오영남 귀순</p> <p>- 오진우 前인민무력부장의 친척인 오영남(32)이 중국에 파견돼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귀순</p>	<p>○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조선위대변인』김인서·김영태·함세환 송환 촉구 談話</p> <p>- 김○○일당이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대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대화니 교류니 하는 것을 떠들기에 앞서 김인서·김영태·함세환 노인들을 공화국 북반부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임.</p>	
10.27	<p>○ 吳隣煥 공보처 장관, 무장간첩 침투사건 관련 對北 聲明</p> <p>- 정부는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함.</p>		<p>○ 조셉 나이 美국방차관보, T/S훈련 취소 시사 기자회견</p> <p>- T/S훈련의 올해 실시 여부는 긴급한 현안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님.</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이같은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할 것임. <p>○ 도주 무장 간첩 박광남 射殺</p>		<p>○ 佛, 금년 세번째 核 실험 실시 * 남태평양 무루로아 환초</p>
10.28	<p>○ 외무부 대변인, 佛 핵실험 관련 유감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가 지난 9.6과 10.2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실시한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치못함. - 프랑스 정부가 국제 사회의 우려와 요청을 수용하여 더 이상의 핵실험을 일체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함. 	<p>○ 외교부 대변인, 韓·美·日 3 각 군사동맹 강화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北에 의한 남침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쌍무적 군사교류와 접촉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삼각군사동맹화를 더욱 더 강화하는 데로 나가고 있음. - 삼각 군사동맹화를 또다시 다그치고 있는 것은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의 막뒤에서 의연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힘의 정책을 추구해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줌.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화되고 있는 군사동맹화는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에 틈이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을 넣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0 黨·政 간부들, 전국인민예술 축전 종합공연 관람 (동평양극장) * 참석 : 이종옥, 박성철, 최 광 김영남, 전병호, 조명록 장 철, 윤기복, 전문섭 0 金正日 단군릉 현지 지도 1돌 기념보고회 (국립연극극장) * 참석 : 최태복, 장 철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韓 핵 반드시 저지 언급 * 서울신문 국제포럼 기조 연설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당국간에 협의·해결되는 것이 당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외교부 대변인, 日·北수교 접 촉재개 용의표명 기자회견 - 우리는 이번에 일본이 朝·日 회담에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임하겠다고 공식표명한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고 있음. - 朝·日 두나라 사이의 불미스런 관계를 청산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수립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확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릴리 前 駐韓 美대사, 北韓 핵폭탄 수 개 보유 주장 * 서울신문 국제포럼 - 북한은 핵폭탄 몇 개와 日本·韓國및 양국 주둔 美軍의 대부분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듯함.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30	<p>0 南北韓 천주교인 참석 공동 세미나 개최 (美 뉴저지)</p> <p>- 서울대교구 최창무 주교,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장 장재철, 海外 박창득 신부 등 17명 참석</p>	<p>- 朝·日회담 재개를 위한 현접촉실태를 놓고 불때 붙은 이제 일본측에 넘어가 있음.</p> <p>- 모든 것은 이제 일본측이 다음 걸음을 어떻게 떼는가에 달려있음.</p> <p>0 중방, 한국전쟁 당시 사망 영국군 유해 1구 영국측에 인도 보도 (판문점)</p>	<p>0 KEDO·北, 경수로 협정체결 관련 고위급회담 속개 (뉴욕)</p> <p>0 하야시 日외무차관, 日·北수교협상 조건없이 추진 기자회견</p> <p>- 韓國과의 관계는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이지만 국교정상화협상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日本의 기존 기본정책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임.</p> <p>- 韓國에게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음.</p>
10.31	<p>0 통일원 대변인, 불교인권위원회의 對北 접촉 不許 방침 언급</p> <p>- 불교인권위원회측(공동대표 眞寬스님)이 출소공산주의자들의 송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청한 북한 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p>	<p>0 平放, 남한의 大韓海峽 영해폭 확대 관련 論評</p> <p>- 남조선괴뢰들이 조선 해협의 영해폭을 일방적으로 넓혀 이 구간의 공해를 없애려는 것은 국제관례상 허용될 수 없는 문제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31	<p>호)과의 접촉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음.</p>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정책 신축성 필요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라는 상대가 대단히 까다롭고 북한 내부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對北정책은 신축성을 가져야 함. - 北韓의 도발이나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 - 南北韓 당사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에 대한 합의는 먼저 이루고 주변국가들이 새로운 체제에 협조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에는 특히 우리 공화국선박들의 항로 통과를 막아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숨어있음. - 우리는 김00일당의 범죄적인 조선해협 영해폭 확대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p>0 『祖平統』대변인, 무장간첩 침투사건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간첩사건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작자연극에 지나지 않음. - 남조선 통치배들은 간첩사건을 가지고 더이상 떠들지 말고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당장 견어 치워야 함. - 남조선 통치배들이 진실로 북남대화와 북남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애국 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		<p>○ 勞動新聞, 金泳三 대통령의 캐나다·유엔 방문 관련 論評</p> <p>- 김00역도의 이번 해외 행각은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 식민지주구의 구걸행각이었으며 반민족적·반통일적 행각이었음.</p>	<p>○ UN총회, 핵안전조치 이행 대북촉구 결의 채택</p> <p>* 北核문제가 포함된 IAEA 보고서 채택</p> <p>- 北韓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p> <p>- 北韓이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와 적극 협력하고 최초보고서의 검증과 관련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p>
11.2	<p>○ 孔魯明 외무장관·페리 미국방장관, 韓美 행정협정 '96.1까지 개정키로 합의 공동 기자회견</p> <p>○ 제27차 韓·美 안보협의회의(SCM) 개막 (서울)</p>	<p>○ 中·平放, '95 독수리훈련 비난 논평</p> <p>- 남조선은 하나의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고 조선반도 정세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접경으로 치달고 있음.</p> <p>- 독수리 95 합동군사연습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음.</p> <p>-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를 해치려드는 원수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음.</p>	<p>○ 엔도 日 경수로담당 대사, 아세안에 KEDO 지원 요청</p> <p>- KEDO 특사자격으로 태국을 방문, 태국이 KEDO 정회원국으로 가입, 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		0 광주학생사건 66돌 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보고회 (사로청중앙회관) * 참석 : 여연구, 백남준, 최용해 0 사회민주당 창립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 참석 : 김병식, 김중린, 유미영, 염태준	
11.3	0 제27차 韓·美 연례안보협회의의(SCM) 종료(서울) * 李養鎬 국방장관, 페리 美국방장관 참석 < 공동성명 要旨 > - 과거·현재·미래의 북한 核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NPT 및 IAEA 안전 조치 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 하였음. - 정전협정은 南·北韓간의 직접 협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데 합의하였음. - 韓國 정부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앞으로 3년간 매년 10%씩 증액하며 96년도에는 3억3천만	0 拉北『86우성호』선장 박재열, 남한 당국의 사과촉구 談話 (평방) - 86 우성호문제는 이남 당국이 올바른 대북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 - 이남 당국은 사건을 일으켜 南北간의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킨데 대해 잘못을 느끼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임. -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86 우성호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南北관계도 개선하려는 처사라고 인정함. 0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美軍 유골발굴 보상촉구 聲明 - 우리가 슬한 비용을 지출하여	0 국제사법재판소, 북한의 핵무기 사용 관련 입장 확인 - 북한은 95.5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낸 書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은 물론 UN헌장에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3	달러를 분담할 예정임.	<p>미군 유골을 발굴하고 미군측에 넘겨준 만큼 미군측이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도 온당함.</p> <p>- 미군측이 끝내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불 이미 조직되어 있는 유골 실무그룹을 해산해 버리고 합의서의 이행도 포기할 수 밖에 없음.</p>	
11.4		<p>○ 平放, 제27차 韓·美 연례안보 협의회의 관련 論評</p> <p>- 공동성명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남북간 직접대화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한것은 말도 되지 않음.</p> <p>-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는 이미 마주앉아 토론할대로 다 토론한 것은 말도 되지 않음.</p> <p>- 미국이 정전협정유지를 들고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와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반대하는 처사임.</p>	<p>○ 金日成大 교수 김수용, 『美기업, 北발전소 건설계약 체결』 언급</p> <p>* 11.4 日 니혼게이 자이신문 회견</p> <p>- 美國의 에너지 기업인 스탠턴그룹이 합작으로 北韓 경제특구에 발전소를 건설키로 계약을 체결했음.</p> <p>○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訪北(10.24~11.4) 조사후 귀국</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5		<p>0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황병대, 불교인권위원회의 판문점 접촉제의 不許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00파쇼일당이 남조선 불교도들의 판문점접촉제의를 불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김00일당이야 말로 한조각의 인간성도 없는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것임. - 김00일당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문제에 차단봉을 내리고 북남 불교도들의 접촉마저 끝내 가로막는다면 우리 불교도들은 물론 세계인민들의 더욱 큰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임. <p>0 中·平放, 在獨 작곡가 윤이상 사망 발표</p> <p>* 『조국전선』 중앙위·문화예술부·『범민련』 북측본부 공동 명의 訃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이상 선생의 생애는 조국통일을 위한 한길을 끝까지 걸어온 투쟁의 한길이었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생이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6	<p>0 大韓赤十字社, 北韓 수해 12만달러 상당 현물 지원 발표</p> <p>- 북한에서 현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십자자연맹의 요청에 따라 이미 확보된 지원금 12만달러를 현물(모포 5천장)로 선적해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수송키로 했음.</p>	<p>0 平放, 『金正日, 유네스코 국가·정부수반 선언문에 직접 서명』 보도</p> <p>* 10.30 제28차 유네스코 총회 북한대표 演說 인용</p> <p>- 金正日동지는 최근 기구창립 50돌에 즈음해서 발표하게 될 국가 및 정부수반들의 선언문에 친히 수표하여 주셨음.</p> <p>0 中放, 86우성호 선원 남한정부 사과 촉구 좌담회 보도</p> <p>* 참석자 : 기관장 김부곤, 조 기장 이병수, 선원 김용하, 윤경춘</p>	
11.7		<p>0 中放, KEDO·北 경수로 제공협정 체결협상 진전 보도</p> <p>- 협상에서는 경수로발전소 대상을 열쇠넘겨주기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하부구조건설비용부담 문제를 비롯한 일부 주요문제들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p> <p>- 쌍방은 경수로제공협정에 포함될 기타 기술실무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고 있으며 협정문 문안정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p>	<p>0 日 『經團連』간부 첫 訪北</p> <p>- 가도타 經團連 아시아 부장이 11.7~11日本내 대규모 상사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무역연구회』 訪北團 일행과 평양을 방문, 북한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의견교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7		<p>0 86 우성호선원들, 전국선원 노조연맹에 송환투쟁 촉구 放送 便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으로 하여금 저희들을 정치적 불모로 삼아 남북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행태를 그만 두도록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람. - 귀연맹은 이남 당국이 북쪽에 공식사죄하며 저희들의 귀향의 길이 하루 속히 열리도록 힘써주길 바람. <p>0 平放, 남한 당국이 우성호 선원들의 사죄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00일당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86우성호 선원들의 신변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 공화국에 사죄해야 마땅할 것임. - 86우성호 선원들은 부모처자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음. <p>0 中放, 제2차 KEDO 부지조사단 평양 출발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8	<p>○ 宋榮大 통일원 차관, 南北 경협 여건개선 강조 * 남북경협활성화조치 1주년 기념 세미나</p> <p>- 北韓은 우성호 선원의 송환을 비롯해 무장공비 남파등 대남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 남북경협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야 함.</p> <p>○ 外務部 대변인, 에또 日총무청장관 망언 유감 聲明</p> <p>- 일본 정치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p> <p>- 에또 장관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일본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함.</p> <p>○ 韓國,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p> <p>- 유엔총회에서 총유효투표 177표 가운데 156표를 얻어 96~97년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피선</p>	<p>○ 유엔아동기금(UNICEF) 협조이행 대표단 평양 도착</p> <p>○ 勞動新聞,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 관련 論評</p> <p>- 美國이 남조선에 대한 계속적인 핵우산제공과 신속억제전력의 증강을 확약하고 새로운 연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기로한 모의는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냉전정책의 연장임.</p> <p>- 美國이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남조선 괴뢰들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우리와의 교전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술책임.</p> <p>-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朝·美 기본합의문 채택 이전의 침예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p> <p>○ 駐 유엔대표부 대사 박길연,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입장 표명 * 유엔총회 의사발언</p> <p>- 韓國의 무의미한 안보리 이사국 진출시도는 한반도의 안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p>	<p>○ 에또 日 총무청장관 문제발언 취소</p> <p>-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발언을 취소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8		0 金正日노작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중앙연구 토론회 (동평양대극장) * 참석 : 이종욱, 황장엽, 장철	
11.9	0 孔魯明 외무부 장관, 日총무청 장관 妄言 유감 표명 - 11.9 야마시타 신타로 駐韓 日本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측의 적절한 조치를 강력촉구 0 金泳三 대통령, 유엔 안보리 진출계기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노력 강조 - 政府는 우리의 유엔 안보리 진출이 한반도문제를 유엔 현장정신에 따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것임. 0 國防日報, 『北韓 김정일·군부 집단체제 가능성』 보도 - 지난 10.10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을 볼때 北韓권력구조는 金正日을	0 中放, 에또 日총무청장관 망언 비난 論評 - 우리는 日本 총무청장관의 파렴치한 妄言에 대해서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단적규탄함. -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은 대죄를 어떻게 하든 무마, 약화시키고 보상과 배상을 회피하며 앞으로 있게 될 朝·日국교회담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데 그 속심이 있는 것임.	0 조셉 나이 美국방차관보, 한반도 유사시 대비 東아시아 美軍 현수준 維持 발언 - 美國이 냉전종식후에도 東아시아에 10만명 규모의 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한반도임. 0 카리신 러 외무부 대변인, 새 朝·러 우호조약 草案 북한 전달 언급 -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고 새로운 원칙에 기초를 둔 우호관계 기본 원칙에 관한 협정 草案을 北韓측에 전달했으며 북한측은 이에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9	<p>정점으로 한 軍部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p>		<p>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음.</p> <p>○ 美상원, 南北對話촉구 對北결의안 채택</p> <p>- 北韓이 남북대화 진전을 위한 약속들을 존중토록 압력을 가할 것을 클린턴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p> <p>- 결의안 발효90일후 남북관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후 매6개월마다 진전상황을 보고토록 규정</p>
11.10		<p>○ 나진·부산간 정기선박운행 개통식 (나진항)</p> <p>- 나진항과 연변항운공사사이에 나진·부산간 정기선박 운행 개통식이 나진항에서 진행되었음.</p> <p>○ 勞動新聞, 韓·美군사위원회 회의 비난 論評</p>	<p>○ 江澤民 中國가주석, 한반도 정전협정 유효 언급</p> <p>* 한국특파원 기자회견 (북경)</p> <p>- 새로운 평화협정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체제가 유효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이번 에 전쟁준비태세 확립이니 공 동노력이니 미군무력 강화니 한 것은 통일을 방해하고 영 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두자는 속셈임. - 美國은 朝·美기본합의문에 배치되는 행위로 초래되는 엄 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 임을 지게될 것임. ○ 北국제무역촉진위·日동아시아 무역연구회, 經協 확대 합의 공동보도문 발표 - 두나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 키기 위해 적극 노력 - 호상 편리한 시기에 조선국제 무역촉진위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 - '80. 9. 17 개정한『朝·日두나 라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을 빠른 기간내에 갱신 - 조선과 일본사이의 경제교류 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 기 위해 하루빨리 朝·日국교 정상화가 실현되기를 희망 	<p>○ 세계식량계획(WFP), 對北 880만불 수해 원조제공협정 서명</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1		0 平放, 세계식량계획, 對北수재 지원 합의서 調印 보도 - 세계식량계획에서 우리나라에 885만달러분의 쌀과 식용기름을 제공할 데 대한 합의서가 9일 平壤에서 조인되었음.	0 클린턴 美대통령, 北核억제위해 주한 美軍주둔 필수 연설 - 美軍의 확고한 한국주둔은 北韓核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임. 0 北, 세계복싱위원회 (WBC) 회원 가입 * WBC 총회 (태국 치앙마이)
11.12		0 金正日, 조선중앙통신사에 親筆書翰 - 『위대한 주체사상의 선전자들이며 당사상 전선의 전초병들이던 중앙통신사 동지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걷겠다는 굳은 결의에 대하여 당중앙은 만족스럽게 평가합니다』 1995.11.12 김정일	0 러 이타르 타스 통신, 억류 北韓行 무기열차 入北 보도 - 10.14러시아·北韓 접경 하산에서 억류된 북한행 무기수송열차가 11.12 풀려나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보도
11.13	0 江澤民 中國주석 訪韓 (11.13~17)	0 駐러시아 대사 손성필, 韓美日 군사동맹강화 비난 記者會見	0 에토 日 총무청장관 妄言책임 辭任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3	<p>0 홍콩한인천주교회(회장 이대영), 北수해 지원 성금 기탁</p> <p>- 최근 1만홍콩달러(약100여만원) 를 모금, 北韓 동포들을 돕는데 써 달라고 자선단체인 홍콩-카리타스에 기탁</p>	<p>- 미국·일본·남조선이 3각군사동맹화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에는 틈이 생기게 될 것이며 긴장완화과정과 朝·日국교정상화를 위한 움직임도 모두 냉전의 낡은 기틀속에 되말려 들게 될것임.</p>	
11.14	<p>0 韓·中 정상, 한반도문제 南北 당사자간 해결 의견 일치</p> <p>* 金泳三 대통령·江澤民 주석 정상회담(청와대)</p> <p>- 韓半島 문제를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하에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停戰協定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p> <p>- 日本측의 妄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의 똑바른 역사인식을 강력히 촉구</p> <p>0 江澤民 中 국가주석, 南北 韓 자주적 평화통일 희망 언급</p> <p>* 국회연설</p>	<p>0 勞動新聞, '95독수리훈련 관련 美國은 힘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論評</p> <p>- 전쟁행위를 방불케 하는 독수리 '95전쟁연습은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 평화에 대한 악랄한 도전임.</p> <p>- 美國이 힘이 강해야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것처럼 역설하는 것은 반동적 논리이며 힘의 정책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음.</p> <p>- 美國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광란을 계속 강화하는 경우 엄청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p> <p>0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발단 20돌기념 중앙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박성철, 최태복</p>	<p>0 陳健 中 외교부대변인, 中·朝 조약이 派兵조약은 아니라고 기자회견(신라호텔)</p> <p>- 中·朝친선우호협력조약은 파병의 조약이 아님.</p> <p>- 과거 中國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할수 있는 만큼 지원할 것임.</p> <p>0 무라야마 日本총리, 金泳三 대통령에게 과거사 문제 발언 사과 親書</p> <p>- 韓日병합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지역의 사람들에게 건디기</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4	- 中國은 남북 쌍방이 접촉과 對話를 통하여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함.		힘든 고통과 슬픔을 준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과를 표명함.
11.15	0 韓·日, 『역사공동연구위원회』설치 合意 * 孔魯明 외무장관·고노 外相 회담 (오사카)	0 외교부 대변인, 美상원의 '南北對話촉구 결의 채택' 비난 談話 - 이번 결의는 美국회가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과 朝·美 관계문제에 끼어들어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음모책동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北南대화가 계속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두나라 관계 개선의 조건부로 되고 우리에게 대한 정치적 압력의 공간으로 악용된다면 合意文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임.	
11.16	0 韓·美 정상, 對北 강력 경고 필요성 합의 * 金泳三 대통령·클린턴 美대통령 전화통화	0 외교부 대변인, 일본당국자들의 妄言 관련 談話 - 올해에 들어 과거 일제침략의 역사를 심히 왜곡하는 망언들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北韓상황으로 미뤄 韓·美양국이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北韓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 일치 	<p>이 현 日本당국자들의 입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은 덮어버릴 수도 뒤집을 수도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함. <p>0 평양학원 창립 50돌기념 인민 무력부보고회 (4.25 문화회관) * 참석 : 최 광, 조명록, 김광진 김영춘</p>	
11.17	<p>0 金泳三 대통령·키팅 豪洲 총리 회담, 한반도 문제 논의 (日 오사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상은 최근 북한내 부상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 - 키팅 총리는 南北관계 진전에 맞춰 對北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p>0 韓·美·日, 고위정책협의 회 구성 합의(서울) * 孔魯明 외무·크리스토퍼 미국무·고노 日외상 3자 회담(日 오사까)</p>	<p>0 勞動新聞, 金泳三 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핵문제라는 것을 계속 내두고 공동행동을 청탁하며 돌아치겠다는 것은 저들 자체의 핵무기 개발책동을 은폐·합리화해 보려는 수작임. - 김00역도의 이번 행각은 외세와 야합, 동족을 해치기 위한 민족반역의 행각으로서 외세의 비호밑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열한 구걸행각임. <p>0 金正日,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친필 書翰</p>	<p>0 英國 셸 퍼시픽社, 나진·선봉에 석유비축기지 건설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신 보도 - 셸 퍼시픽이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위해 1차로 2백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기지 건설부지로 용수리 지역의 땅10ha를 50년간 임차하기로 결정 <p>0 클린턴 美 대통령, 駐韓美軍 현수준 유지 示唆 * 일본기자단 인터뷰</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7	<p>- 3국간 對北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차관補 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정 책협의회 구성에 합의</p> <p>○ 孔魯明 외무부장관, 일본의 對北 원조제공 문제 기자 간담회 (오사카)</p> <p>- 日本은 北韓과의 수교 교섭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정부개발원조기금(ODA)을 北韓에 제공치 않을것임.</p>	<p>-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힘차게 온만방에 소리높여 울려 퍼지게 하라』1995.11.17 김정일</p>	<p>(백악관)</p> <p>- 駐日미군이나 駐韓 미군을 현단계에서 상당수 감축할 경우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함.</p>
11.18	<p>○ 韓·日 정상회담 개최 * 金泳三 대통령·무라야마 日총리 (오사카)</p> <p>- 金대통령은 일본의 對北 쌀지원은 북한의 韓日양국 이간전술에 일본이 말려들어서서 결과적으로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언급</p> <p>- 무라야마 총리는 對北수교교섭과 관련 i)韓·日 계를 손상치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추진 ii)남북 관계 진전과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iii) 修文이전에는 對北 경제 지원 배제 등 3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p>	<p>○ 勞動新聞, '95 독수리 훈련 관련 論評</p> <p>- 朝·美사이에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때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대규모적인 북침 전쟁 불장난을 벌여놓은 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우리의 성실한 평화애호적 입장과 노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임.</p> <p>○ 黨 후보위원 겸 중앙검찰소장 이용섭 死亡</p> <p>○ 신일본프로레슬링주식회사(회장 : 이노끼 간지) 일행 평양 도착</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등 향
11.19	<p>0 北韓 별목공 1명 귀순</p> <p>-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독립국가연합으로 탈출한 북한별목공 신명철 귀순</p>	<p>0 군사대표단, 파키스탄 방문차 평양 출발</p> <p>* 단장 : 최 광(인민무력부장)</p> <p>0 金正日, 노동신문사에 친필 서한</p> <p>- 『黨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노동신문은 항상 훌륭한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진실한 대변자로서 당중앙을 옹호하여야 합니다.』</p>	
11.20		<p>0 『汎民聯』 창립 5돌 기념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p> <p>* 참석 : 백인준, 여연구, 김영호, 한영수</p> <p>< 백인준 기념보고 요지 ></p> <p>- 지난 5년간 분렬주의 세력의 방해책동에도 『범민련』은 대중적인 통일운동 조직으로 장성 강화되었음.</p> <p>- 당면 목표로서 연방제방식의 통일실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관철, 주한미군철수 투쟁 적극 추진 강조</p> <p>0 아·태평화위원장 김용순, 이노끼 간지(신일본프로레싱 주식회사 회장) 면담</p>	<p>0 美 타임誌, 『北韓, 금년 겨울 군사도발 위험』 보도</p> <p>- 北韓내 경제상태가 최악에 접어 들고 있고 金正일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해 軍 강경파들에 의한 도발가능성이 있음.</p> <p>0 조셉 나이 美 국방차관보, 北 군사위협 대응위해 駐日미군 존재 언급</p> <p>* 日 아사히신문 인터뷰</p> <p>0 태국 록슬리社, 北</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0		0 인민무력부장 최광, 파키스탄 대통령 예방	나진·선봉지역 통 신사업 계약 체결 *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인용 0 유럽연합(EU), 北경 수로 건설지원 합의 * EU외무장관 회담 (브뤼셀)
11.21	0 金泳三 대통령, 對北 경계 강화 지시 * 李養鎬 국방장관에게 전 화지시 - 北韓은 극심한 경제난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군 사훈련과 對南 비방방송 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돌발사태에 대비, 국토방 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0 전국 사회안전일꾼대회 진행 (11.19~11.21, 평양) * 참석 : 계응태, 서윤석, 연형묵 백학립	
11.22		0 中放, KEDO의 중유납입이 일정 대로 진행 보도 - KEDO는 우리의 핵시설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 손실을 보상 하기 위한 중유를 일정대로 납입하고 있음.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0월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는 10만t의 중유 전량을 선봉항에 정확히 납입했음. - 최근 KEDO는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사이에 납입하게 될 첫 50만t 중유제공 일정을 통보해 왔음. - 미국이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한 우리도 자기 할 바를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임. <p>○ 中放, 金 대통령의 『日·北관계개선, 南北관계 개선에 도움되는 방향 추진』발언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하나 朝·日관계에 끼어들어서 훼방을 놓아보려는 얄은 속심에서 출발한 간악한 언행임. - 김○○ 역도는 그의 행적으로 보아 입이 열개라도 北南관계 개선에 대해서 할 소리가 없음. - 김○○ 역도가 아무리 아부재기를 쳐도 관계개선으로 나가고 있는 朝·日 두나라 인민들의 지향은 절대로 막지못할 것임.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3	<p>0 『韓赤』, 對北 수재구호품 남포항 도착 발표</p> <p>- 북한 수재민 지원용 모포 5천매가 北韓 남포항에 도착, 국제적십자사 요원에게 인수</p>	<p>0 中放, 金대통령의 『對北경계 강화 지시』관련 論評</p> <p>- 김00역도가 북의 동향이요 뭐요하며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우리를 걸고 들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흑백을 전도한 수작임.</p> <p>- 실제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은 남에서부터 북으로 가해지고 있음.</p> <p>-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놈들의 새전쟁도발 책동과 군사적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p> <p>- 김00일당은 무모한 전쟁책동이 저들의 종말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할것임.</p> <p>0 中放, 금수산기념궁전개관 100일 즈음 33만명이 조의에 참가했다고 보도</p> <p>0 北韓·불가리아, 외무협조에 관한 의정서 調印 (소피아)</p>	<p>0 日라디오 프레스 통신, 『北韓, 태국에 쌀50만톤 추가 도입 타진』보도</p> <p>- 北韓은 이달초 태국 농림장관에게 書翰을 보내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쌀 50만톤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하였음.</p> <p>0 세계식량계획(WFP), 對北 지원 쌀 1차분 5천t 인도 聲明</p> <p>- 11.24 쌀 5,140톤을 전달할 것이며 이는 880만달러 상당의 유엔 비상구호계획중 첫회분으로 러시아 선적의 화물선에 의해 남포항으로 인도될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4		<p>○ 勞動新聞, APEC회의시 韓美日 공동성명 발표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지연 우려요, 북조선의 문호개방 방도 토의요 하고 떠들어댄 것은 美·日·남조선 괴뢰들이 의연히 반공화국 책동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줌. - 남조선괴뢰들과 마주앉는다는 것은 對話를 모독하고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임. - 반통일분열주의자, 사대매국노, 부정부패의 왕초인 김○○ 괴뢰역도는 우리의 대화상대가 될 수 없음. - 美·日·남조선 괴뢰들의 3각모의는 남조선 괴뢰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발악과 양탈질의 산물임. 	
11.25		<p>○ 군사대표단, 파키스탄 방문 마치고 귀국 * 단장 : 인민무력부장 최광</p> <p>○ 美 종교지도자 니드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목사 아들)평양 도착</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6		<p>○ 中放, 對北수해지원 쌀 11.24 남포항 도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계획과 국제자원봉사 기구인 카리타스에서 우리나라에 인도주의적 협조물자로 제공하는 식량이 24일 남포항에 도착했음. - 세계식량계획에서 제공하는 1차분의 흰쌀 5,140t과 카리타스에서 제공하는 흰쌀1,400t을 우리나라에 채류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대표 트레보 페이즈와 카리타스 국제협조국장 카티 겔 웨제가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했음. <p>○ 전자자동화공업위 위원장 김창호(60세) 死亡</p>	<p>○ 日 아사히신문, 『美 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 파견 타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核의혹이 고조되던 '94.4 주일미군이 한반도 무력충돌시 日해상자위대의 소해정 등을 파견해 줄 수 있는냐고 타진해 온 사실이 밝혀졌음.
11.27		<p>○ 中放, 韓·美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서명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국 협정에 서명한 것은 외세를 남조선에 언제까지나 붙잡아두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승공통일 야망을 실현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 줌. - 우리는 김00 반역도당이 인민들에게서 짜낸 혈세까지 바쳐가며 美軍의 남조선 영구강점 	<p>○ 국제적십자사 조사단, 『北韓, 식량부족 심각 대규모 餓死者 발생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에로 실태 조사단장 訪北후 언급 - 많은 주민들이 대규모의 식량부족사태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에 대한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7		<p>을 애걸하고 동족을 해치려는 데 대해서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음.</p>	<p>쌀배급은 이미 지장을 받고 있음.</p> <p>0 레이니 駐韓美대사, 韓·美행정협정 日 수준 개정 언급 *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p> <p>- 韓·美행정협정 개정은 日本을 포함한 다른 우방의 수준에 맞추게 될 것이며 개정범위에는 韓國정부의 관할권 확대와 駐韓미군의 법적권리 향상문제가 포함돼 있음.</p>
11.28	<p>0 제20차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최</p> <p>- 金正日이 군부주도의 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北韓을 통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p> <p>- 北韓이 최근 對南 비방·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에 주목, 對北 경각심과 안보태세 강화</p> <p>- KEDO·北경수로 공급협상 관련 우리의 중심적 역할</p>	<p>0 勞動新聞, '95 독수리훈련 비난 論評</p> <p>- 모험적이고 무분별한 전쟁연습으로 최전연 일대로부터 부산에 이르는 남단까지 남쪽 땅이 온통 전쟁터구름에 휩싸였음.</p> <p>- 불몽치를 휘두르며 北에로 화살을 긋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침략전쟁준비 책동은 날로 더욱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8	<p>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韓 美日 긴밀협조체제를 바탕으로 다각적 대책 강구기로 의견일치</p> <p>○ 李養鎬 국방부 장관, 전군 對北경계태세 강화 지시</p> <p>- 국내적으로 軍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논란이 北 韓으로 하여금 誤判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軍은 굳게 단결해 對北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임.</p>	<p>○ UNDP 협조계획에 따라 과일생산 및 저장시설 완공, 조업식 진행 (평양과수농장)</p> <p>* 참석 :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김덕명, UNDP대표 윌리솔</p> <p>○ 니드 그레이엄 목사, 訪北 종료 離平</p>	
11.29	<p>○ 許陞 駐제네바 한국대표부 大使, 제5차 유엔고문방지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에 피선 (제네바)</p>	<p>○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개막 (4·25문화회관)</p> <p>* 참석 : 이종옥,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김기남, 서관희, 김복신, 장철</p> <p><김기남 보고 요지></p> <p>- 金正日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결정적 담보임.</p> <p>-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내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우리내부에 절대로 스</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9		<p>며들지 못하게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자들이 경제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정세가 복잡하게 조성되어 있는 오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 길밖에 없음. <p>○ UNDP 협조계획에 따라 저열탄 사용 『순환비등층보일러』 개발 연구시설 완공 조업식 진행</p> <p>* 참석 :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덕명, UNDP대표 윌리 설</p> <p>○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병식 포르투갈 訪問</p>	
11.30	<p>○ 具本英 과학기술처 차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백지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업도 3km이내 해저에서 최소 2개열의 활성단층이 최종 확인됐음. - 올 2월 이지역을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고시했던 것을 해제함. <p>○ 孔魯明 외무부 장관, 우도 벤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게 對北 첨단무기 수출</p>	<p>○ 中放, 전군 對北 경계태세 강화 지시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치도 우리가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아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흑백을 전도한 소리임. -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남침위협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괴뢰들의 상투적 수법이며, 이번 망발도 그런 위기수습의 연장선상에서 나왔음.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30	<p>자제 요청</p> <p>* 韓·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 (서울)</p> <p>- 지난 2월 북한에 대한 미 그 21 전투기부품 수출을 비롯해 최근 T-80전차 판매음직임등 우크라이나의 對北韓 각종 무기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p> <p>0 韓·美행정협정 개정 제1차회의 개최</p>	<p>0 제2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폐막</p> <p>* 김정일에 대한 맹세문 채택</p> <p>0 勞動新聞, 5.18 특별검사제 관철 투쟁선동 논평</p> <p>- 김 〇 〇 일당의 5.18 특별법제정조치는 남조선 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줄기찬 투쟁의 결실임.</p> <p>- 그러나 앞으로의 더욱 큰 투쟁, 더욱 큰 승리를 위한 첫 걸음을 떤데 불과함.</p> <p>- 남조선 인민들은 특별검사제 요구를 관철, 학살자 모두를 심판 처형하며 비자금사건의 주범과 공범자를 함께 역사의 심판무대에 세울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함.</p> <p>0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金正日에게 중국창건 46돌 祝電에 대한 答電</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	<p>0 金泳三 대통령, 北 대남도 발 가능성 단호대처 강조</p> <p>* 제29차 통합방위중앙회의</p> <p>- 북한이 우리의 정치·사회적인 분위기를 안보태세 악화로 오판, 대남도 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호 대처해 나가야 함.</p> <p>0 國防部, 북한군 전방 증강 배치 보고</p> <p>* 제29차 통합방위중앙회의</p> <p>- 북한은 사거리 25km의 2백40mm 방사포와 전투·폭격기를 전방지역에 증강 배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상치 않은 군사동향을 보이고 있음.</p> <p>0 서울지법, 밀입북 朴容吉 집행유예 3년 선고</p>	<p>0 부주석 이종옥, 金正日 내년 7월 이후 주석직 승계 시사</p> <p>* 日 도카이 TV 회견</p> <p>-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것이 북한의 관습임.</p> <p>- 金正日은 관직보다는 도덕을 중요시하는 혁명가로서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일은 안함.</p> <p>0 『祖平統』, 5·18 특별법 제정 관련 聲明</p> <p>- 김○○일당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민심의 압력과 대세의 흐름을 반영하여 반드시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 어느 위정자의 선심놀음이 아님.</p> <p>- 김○○일당은 광주 대학살 범인들을 처벌조차 할 수 없는 극히 상징적 의미를 가진 빈 내용의 공문서나 꾸며내려 하고 있음.</p> <p>- 남조선 인민들은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투쟁을 비밀자금 사건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광주 학살자들도 단호히 징벌하고 청와대의 김○○도적 무리들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		<p>0 中放, 金대통령의 통합방위중 앙회의시 對北 경계강화 지시 비난</p> <p>- 괴뢰도당이 우리를 걸고들면 서 전쟁연습을 고취하는 것은 인민들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려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 보려는 것임.</p> <p>- 김 〇 〇 역도는 부질없는 전쟁 광기를 부릴것이 아니라 비밀 자금사건의 공범자, 광주학살 범 비호자로서의 죄상을 고백 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 야 함.</p> <p>0 『汎民聯』北側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구속관련 聲明 채택</p> <p>- 김 〇 〇일당의 반통일적 탄압 책동을 결코 수수방관 하지는 않을 것임.</p>	
12.4		<p>0 勞動新聞, 訪北 박용길 징역형 선고 관련 論評</p> <p>- 김 〇 〇반역도당의 야수적 만행을 통일애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의 가슴에 칼질해나선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며 단죄 규탄함.</p>	<p>0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관리위원회 회의 개막 (뉴욕)</p> <p>* 참가국 :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p> <p>- 두만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5개국위원회 설립협정문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등 향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o o 일당은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만행을 견어치워야 하며, 박용길 여사를 비롯하여 부당하게 체포구속한 모든 애국자들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함. o 中放, 北노동당 창건50돌 행사 녹화테이프 남한재야 정치인들에게 배달 보도 * 구국의 소리 방송 인용 - 10월말과 11월초 두번에 걸쳐 재야 정치인사들과 여러 청년단체 간부들의 가정들에 녹화테이프가 소포로 배달되었음. - 녹화테이프를 시청하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남조선 각계 민중속에서 더욱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시임. o 勞動新聞, 유엔 안보리 거부권 철폐 지지 論評 - 남조선 괴뢰들이 현 5개 상임이사국들만 거부권 사용을 주장해 나선것은 유엔의 구조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양해각서 署名 예정 o 러 이타르 타스 통신, 獨 민간기업 평양에 대표부 추진 보도 - 벤츠, 지멘스 등 독일의 17개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는 독일 동아시아연합회가 북한에 대한 시장 조사를 위해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키로 결정 o 獨 슈피겔紙, 『北韓 핵탄운반 미사일 96년 보유 가능성』 보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4		- 거부권을 폐지하는 것은 유엔의 민주화에서 기본장애를 제거하는 것 뿐아니라 소수 강대국들의 전횡을 조장시키는 냉전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 것임.	
12.5		0 정무원 총리 강성산, 태국 국경절 즈음 실라파타 수상에게 祝電 0 부주석 박성철,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 임창영과 담화 (만수대의사당)	0 이집트 가제트紙, 『北韓 마약 대량생산 수출』 보도 - 중앙당 39호실이 金正日의 지시로 마약을 생산 수집해 해외공관에 공급, 현지 밀매조직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0 카라르 IOC사무국장 『北韓, '96 아틀랜타 올림픽 참가 거부』 기자회견 - 북한은 '96아틀랜타 올림픽 참가초청을 거부했으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북한측과 '개인적인' 회담을 갖고 있음.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5			<p>0 日 니혼게이자이, 네덜란드 합작은행 개설 보도</p> <p>- 네덜란드 ING은행이 70%, 북한 조선국제보험회사 30% 출자</p>
12. 6		<p>0 박용길 구원투쟁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평양)</p>	<p>0 샬리카쉬빌리 美 합참의장, 『北韓, 對南특수군단 유지』 언급</p> <p>- 북한이 韓·美양국 군사시설을 위협하고 한국사회의 파괴와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8만규모의 제8특수군단을 유지하고 있음.</p> <p>0 南·北韓 등 5개국, 『두만강개발협정』 서명 (뉴욕)</p> <p>- 南北韓,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은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동북아개발(TRADP) 협의위원회 협정문과 환경양해각서 署名</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6			<p>○ 고노 日외상, 北韓 식량난 심각 언급</p> <p>- 北韓이 지난 여름 대홍수로 농작물이 대량 소실돼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p>
12.7	<p>○ 국방부, 全軍동계작전태세 돌입 시달</p> <p>* 전군주요지휘관회의</p> <p>- 北韓의 무력도발에 대비, '96.4 까지 동계작전태세를 갖추는 것을 전군에 시달</p>	<p>○ 勞動新聞, 남한당국과는 절대로 대화 않겠다고 논평</p> <p>- 남조선 통치집단은 부정부패 분자, 통일의 악랄한 원쑤, 민족의 원쑤로서 이런 자들과 統一問題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음.</p> <p>- 우리는 현 남조선 괴뢰들과 마주앉으라는 것을 對話를 모독하고 민족의 통일열망을 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임.</p> <p>- 만약 미국이 김 〇〇 도적집단을 우리의 상대자로 계속 두둔하면서 朝·美 관계개선에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들고 정세를 긴장시킬 경우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에 심각한 후과가 미치게 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7		0 동남아 국가 대사 교체 - 인도네시아 대사 : 조규일 싱가포르 대사 : 유재한 베트남 대사 : 이영근	
12.8	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대화 전망 비관적 기자회견 - 北韓이 남한배제 전략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당국간 대화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0 서울高法, 북한 공민권 소지 중국교포에 한국 국적 인정 判決 - 北韓 공민권을 갖고 있는 李英順(56세, 여)씨가 낸 소송에서 憲法上 李씨는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인보호소 측은 강제 퇴거명령등을 취소하라고 판결 -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북한에서 발급한 공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0 勞動新聞, 유엔총회에서 南側 대표의 北인권문제 언급 관련 論評 - 괴뢰들이 유엔에서까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혈뜯고 중상모해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 우리 사회에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괴뢰들이 말하는 그런 인권문제라는 것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음. - 괴뢰들의 언동은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속망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우롱하는 범죄적 행위임.	0 카터 前美 대통령, 金正日에게 '96에틀란타 올림픽 참가 요청 書翰 - 北韓은 내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써, 나는 北韓이 不參결정을 재고해 올림픽에 참석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8	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		
12. 9		<p>○『조평통』, 비자금 사건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자금 사건은 남조선 집권자들이 우리의 대화상대자로서의 도덕적 권위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놓았음. - 北南對話의 마당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신성한 장소로,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민족 이익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애국자만이 나설수 있음. - 인민의 혈세를 긁어모아 권력을 가로채고 그 권력과 돈으로 일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남조선의 현집권자에게는 감히 대화와 통일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도 없음. - 우리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부패정치를 끝장내고 진정으로 민족과 통일과 인민을 위하는 새정치 새제도를 쟁취하게 되기를 기대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9	<p>0 『韓赤』, 對北 수재구호품 담요 3천장 추가지원</p> <p>- 담요 3천장을 남포항을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에게 전달</p> <p>* 11.23 담요 5천장 지원</p>	<p>0 中放, 국방부 동계작전태세 돌입 관련 論評</p> <p>- 남조선 군부우두머리들의 연이은 호전적인 망발과 괴뢰군의 동계작전태세돌입은 북침전쟁책동이 매우 무모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응당한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p> <p>- 괴뢰들이 우리를 보고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걸고 드는 것은 도적이 매를드는 것과 같은 황당한 궤변임.</p> <p>-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그어느때보다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남조선 괴뢰들의 군사적인 모험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p> <p>- 우리 인민군대는 선불질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자비심을 베풀지 않음.</p> <p>0 泰國주재 대사에 이삼로(前 인도네시아 대사) 임명</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0			<p>0 日 마이니치 신문, 『北韓 수재 지원쌀 군량미 비축』 보도</p> <p>- 韓國과 日本이 北韓에 지원한 쌀이 일반주민에게 전해 지지 않고 군량미 등으로 비축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p>
12.11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군부 권력 장악 언급</p> <p>*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午餐</p> <p>- 北韓은 김일성사망 1년6개월이 되도록 주석직 승계가 없으며 이는 군부가 권력을 잡았다는 뜻임.</p> <p>- 앞으로 북한이 어떤일을 저지르지 모르는 만큼 북한을 경계하고 환상적인 통일론을 버려야 함.</p> <p>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서 화해노력 악용 남북대화 추진 한계 언급</p> <p>*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p>	<p>0 勞動新聞, 『도적무리 때문에 통일문제 해결안된다』고 논평</p> <p>- 부정부패의 왕초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한 北南대화도 통일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p>	<p>0 트레버 페이지 WFP 北韓파견 단장, 北韓 饑餓직전 상황 언급</p> <p>-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원조 요청에 잘 호응하지 않고 있어서 饑餓 직전 상태임.</p> <p>0 中외교부 부부장 王英凡, 北·中 자동 군사개입조항 효력 상실 示唆 기자회견</p> <p>- 한반도에 어떤일이 발생해도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반대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함. - 北韓이 당국간 대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 긴장을 체제유지에 이용하려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는 한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北韓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개선없이는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함. <p>○ 統一院 대변인, 對北지원 쌀 군사용 비축 보도 否認 언론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마이니찌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 우리가 北側에 제공한 쌀은 하절기에 백미상태로 완전 도정을 하여 보냈기 때문에 北韓이 군량미로 장기 비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사이의 협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p>○ 가토 日자민당 간사장, 日·北 방위교류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일본과 북한이 방위 관계자를 교류, 서로 기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일본 방위비의 3분의 1은 삭감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p>○ 日 NHK 방송, 北韓 이상행동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軍이 최근들어 전시체제로 인정되는 조직의 변경과 부대의 전개등 한국동란이후 한번도 확인되지 않았던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2		<p>은 파렴치하기 그지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대화를 차단 동결시키고 북남관계 진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김 〇 〇일당이라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음. - 支援이란 말을 입에 올린 것 자체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임. - 金 〇 〇일당은 반공화국 모략 선전을 그만두고 北南대화와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가로지른데 대해 민족앞에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함. 	
12.13	<p>〇 제21차 통일관계장관회의, 경수로 공급 협정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표준형 원전 제공을 위한 기술적 제반규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 반영되었다고 평가 - 경수로 공급 범위 관련, 비용증가 요인을 최소화한 범위내에서 우수하고 안전한 발전소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p>〇 베르티니 WFP사무총장, 對北 식량원조 사업 중단위기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국가들이 北韓에 보낼 식량을 즉각 제공하지 않을 경우 '96.1.15를 기해 북한주재 사무소를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4	<p>0 韓·헝가리 頂上회담 개최 * 金泳三 대통령·줄라 호른 總理 (청와대)</p> <p>0 (주)기산, 국산차량 對北 수출</p> <p>- 중국 교포가 운영하는 연변용흥집단공사를 통해 수출기로 하고, 1차로 차량 18대를 12.19 부산항에서 선적 예정</p>	<p>0 中放, 캄보디아 국왕 시아누크 韓國과의 수교不願 보도</p> <p>-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을 인정하며 남조선과 그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임.</p>	<p>0 日 아사히 신문, 北 전시체제 유지로 군부 주도 강화 보도</p> <p>- 北韓은 金正日의 국가주석 및 당총비서 취임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부의 주도를 강화하고 있음.</p>
12.15	<p>0 권영해 안기부장, 北 대남도발 가능성 경고 * 國會 정보위 보고</p> <p>- 北韓내 체제 위기가 심화되어 올해말과 내년초 춘궁기는 한반도 위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p> <p>0 外務部 대변인, KEDO·北 경수로 공급협정 서명 환영 聲明</p> <p>- 정부는 對北 경수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며 이를 환영함.</p> <p>- 금번 공급협정을 통해 韓</p>	<p>0 중앙통신, 두만강 개발 협정 調印 보도</p> <p>- 두만강 지역 개발과 관련한 3건의 협정서들이 12.6 유엔 본부에서 調印되었음.</p> <p>- 우리나라를 비롯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관련 위원회 성원국 대표단 단장들이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과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하였음.</p> <p>- 두만강 연안국인 조선, 중국, 러시아 대표단 단장들이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 창설</p>	<p>0 KEDO·北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 KEDO 보스워스 사 무총장·北韓 허중 외교부 순회 대사 署名 (뉴욕)</p> <p><협정문 要旨></p> <p>- 상환조건 : 각호기 완공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에 걸쳐 무이자 연 2회 균등 분할상환(현물상환 가능)</p> <p>- KEDO 공급 범위 : 경수로 발전소 2기에 필요한 발전소 체계, 경수로 건설</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15	<p>國 표준형 발전소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2대 원칙이 재확인된 것을 평가함.</p> <p>- 향후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南·北한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p> <p>0 韓·보스니아 修交</p>	<p>에 관한 협정에 署名하였음.</p> <p>- 이에 앞서 12.4일과 5일에 걸쳐 뉴욕에서 유엔개발계획의 주관으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진행되었음.</p> <p>0 中放, 스위스에서 보낸 수재지원쌀 8천톤 남포항 도착 보도</p> <p>0 외교부 순회대사 허중, 경수로제공협정 서명후 記者會見</p> <p>- 경수로제공협정의 체결은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의 시작에 불과함.</p> <p>- 경수로제공이 잘되자면 동시 행동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경수로문제가 더이상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말아야 함.</p> <p>- 美國과 KEDO성원들이 진심으로 이번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선반도에서 무모한 정치 군사적소동을 즉시 중지해야 함.</p>	<p>에 필수적이고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전 하부구조, 부지조사·부지준비</p> <p>- 北側 의무 사항 : 부지확보, 경수로 원전 시운전을 위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기존항만·철로·공항시설에의 접근, 골재원 및 채석장 확보</p> <p>0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 경수로제공협정 체결 환영 論評</p> <p>- 이번 협정은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외정책의 승리임.</p> <p>0 포에만 美NSC 핵비확산 및 수출통제담당 국장, 北 핵무기 보유 가능성 경고</p> <p>- 北韓이 경수로공급협정 시작이전에 핵무기1~2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미리 확보해 놓았을 것으로 믿고 있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6	<p>○ 金泳三 대통령, 軍 對北 방위태세 강조 *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p> <p>- 北韓이 최근 군사적으로 심상치 않은 동향을 보이고 있음.</p> <p>- 우리 軍이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임.</p>	<p>○ 외교부 대변인, 경수로제공협 정체결 관련 記者會見</p> <p>- 늦게나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KEDO는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에 들어가고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에서는 새로운 진전을 예견할 수 있게 되었음.</p> <p>- 美國과 KEDO가 합의된 동시행 동원칙에 따라 경수로대상 실현을 일정대로 추진시켜 나가면 그에 맞물려진 우리의 핵 동결의무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임.</p> <p>○ 中放, 中國에서 보낸 구호용 섬유 1,118톤(2천만 元 상당) 신의주 도착 보도</p>	<p>○ KEDO 3차 경수로부 지조사단, 평양도착</p> <p>- 한국11명, 미국1명, 일본2명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p>
12.17			<p>○ 中, 北 수재 구호용 면사 112t 제공 * 中 신화통신 보도</p> <p>- 中國이 2천만 元(한화19억 원) 상당의 면사 112t을 北韓에 제공했으며, 96.1까지 추가로 1천만 元 상당의 면사를 보낼 계획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8	<p>0 統一院 대변인, 對北 쌀제공 접촉 보도 否認</p> <p>- 南北 쌀제공 극비접촉 제하의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p> <p>- 정부는 南北간의 쌀 추가 제공을 위한 비밀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식량제공과 관련한 계획도 검토한 바 없음.</p>		<p>0 佛, KEDO에 1천만프랑(2백만달러) 支援</p> <p>* 뒤멜라르 佛외무부 대변인 발표</p> <p>0 파리세티 ICRC 北韓 수해조사단장, 北주민 13만 飢餓 위기 상황기자회견(북경)</p> <p>0 美 프리덤하우스, 北인권 최하등급 평가</p> <p>* 인권평가 보고서</p> <p>- 北韓, 이라크, 수단 등 3개국은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권리를 완전 결여하고 있는 국가임.</p>
12.19	<p>0 金泳三 대통령, 北도발시 단호대처 강조</p> <p>* 전방부대 시찰</p> <p>- 北韓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해올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p> <p>0 외무부 대변인, 오자와 간사장의 反日 교육 발언 유감 論評</p>	<p>0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 협의 판문점 접촉 무산 관련 박준관 불교인권위원장에게 便紙</p> <p>- 남조선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판문점 접촉이 어려운 조건에서 가까운 제3국에서라도 서로 만나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문제를 협의할 것을 다시금 제의함.</p>	<p>0 WFP, 對北수해지원 평양사무소 폐쇄</p> <p>0 錢其琛 中외교부장, 北식량부족 위기상황 아니라고 언급</p> <p>- 北韓의 홍수피해가 큰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위기적 사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님.</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9	<p>- 韓國의 교육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反日 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유감스러운 일임.</p> <p>○ 李壽成 국무총리, 경수로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 국무회의</p> <p>- 구체적인 실무협상절차가 남아있고 세부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p>	<p>○ 中放, 美항공모함 인디펜더스 호 한반도 파견계획 비난 論評</p> <p>- 美國의 전쟁연습계획은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에 찬물을 끼얹고 그 진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될 것임.</p> <p>- 한쪽에서는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 다른쪽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양면성은 용납될 수 없음.</p> <p>- 美國은 우리 인민의 의지와 신념을 똑바로 보고 도발적인 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할 것임.</p> <p>○ 경수로제공협정 협상 北側 대표단 귀환</p>	<p>○ 카터 前 美대통령, 北韓 '96 애틀란타 올림픽 참여 가능성 언급</p> <p>- 北韓 지도부가 애틀란타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를 재고중임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왔음.</p> <p>○ 이스라엘 하레츠紙, 北韓 핵탄 4-6개 제조능력 보유 보도</p> <p>* 美랜드연구소 연구 보고서 인용</p>
12.20	<p>○ 權五琦 신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韓의 自力 개혁 지원 언급 * 기자간담회</p> <p>- 北韓이 개혁 당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統一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흡수통일은 좋지 않음.</p>		<p>○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 공격적 企圖 단호대응 언급 * 기자회견</p> <p>- 北側의 어떠한 공격적 기도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히 대응할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20			0 국제사면위 한국지명단 공개 * 『 '95년 북한관련 인권보고서 』
12. 21	0 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주민 포용정책 추진 방침 표명 * 취임사 - i) 세계화에 어울리는 통일 ii) 북한주민을 시야에 넣는 複眼的 통일 iii) 각론이 강화된 통일 3가지 통일정책 추진 지침 제시	0 中放, 金대통령의 對北방위 태세강화 지시관련 論評 - 김00역도가 당장 전쟁이 터질 것처럼 떠벌인 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서 응당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 - 조선반도에서 새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한 평화애호적인 정책과 인내성있는 노력 때문임. - 김00역도의 무분별한 행동은 오히려 파멸을 앞당기게 할 뿐임.	0 江澤民 중국가주석, 한반도 안정돼야 中國도 발전 언급 * 황낙주 국회의장 면담 - 中國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긴요함. - 中國은 이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임. 0 번스 美國무부 대변인, 北韓 동태 주시 언급 - 美國은 북한의 동태를 세밀히 주시하고 있음. - 최근 北의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뭔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있음.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1			0 미국방정보국(DIA), 北동향 경계 촉구 - DMZ주변 북한군 병 력의 활동이 증가 하고 있음을 주목, 北韓에 대한 경계 를 촉구 - 식량부족 사태등이 겹쳐 정세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분석
12.22	0 統一院 대변인, 우성호 선 원 송환관련 聲明 - 北韓이 비무장한 순수 민 간어선을 무력에 의해 나 포하고 7개월동안이나 억 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적십 자사를 통해 어선과 선원 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기회 있을 때마 다 조속 송환을 촉구해 왔음. - 늦게나마 北韓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스	0 北韓, 우성호 선원 12.26 송환 발표 - 우리의 해당기관들에서는 86 우성호 선원들의 엄중한 범행 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을 처벌 하지 않고 관대히 용서해 돌 려 보내기로 했음. -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리들 의 따뜻한 동포애의 표시로 되며 민족적 화해와 나라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평화애호적 입장의 발현으로 됨. - 나포된 배는 돌려보내지 않 으며 나포 당시 사망한 2명의	0 미국방부, 北 軍部 경찰기능 장악 示唆 * 국방부관리 언급 - 軍部가 최근 권력 장악을 강화하면서 경찰기능까지 떠맡 고 있어 北韓 체제 가 식량폭동 또는 민간소요를 우려하 고 있음을 시사함. 0 日민간단체, 北어린 이 구호품 지원 - 日本의 민간봉사단 체서 마련한 달걀 1만개와 사과 2만5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2	<p>럽게 생각하나,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유가족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임.</p> <p>0 종교계 지도자 33명, 對北 수재민 지원 촉구 聲明</p> <p>-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릉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 33명이 北韓수재민을 도울 것을 촉구</p>	<p>시체와 병사한 1명의 시체는 86우성호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화장해 보냄.</p> <p>- 86우성호 선원들이 설명절 전으로 고향에 돌아가 가족·친척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95.12.26 16시경에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으로 돌려보낼 것임.</p>	<p>천개를 선적한 배가 니카타항 출발</p>
12.23	<p>0 北韓軍 하전사 1명 歸順</p> <p>- 12.23 18:15경 강원도 인제 북방지역으로 북한군 하전사 최광혁氏(25세)가 귀순</p>	<p>0 金正日 최고사령관추대 4돌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p> <p>* 참석 : 이종옥, 박성철, 최 광 김영남, 전병호, 최태복 양형섭,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백학림 이하일, 김익현 外</p> <p>< 조명록 경축보고 요지></p> <p>- 美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에 대하여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사소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언제나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면서 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것을 요구하고 있음. - 회담에는 회담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임. - 모두가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p>○ 노동신문, 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취임사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문제의 본질이나 성격을 바로 볼 줄도 모르고 통일정책과 통일논의의 세계화를 떠드는데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할 수 없음. 	
12. 24		<p>○ 金正日, 조선인민군협주단 공 혼합창단 공연 관람</p> <p>* 참석 : 김정일,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이하일</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25		<p>0 金正日,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題下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세대들을 헐뜯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모독하는 것은 혁명을 모독하는 것이며 혁명의 원수들 앞에 아부굴종하는 것임. - 혁명 선배들을 헐뜯고 공산주의 도덕을 모독한 기회주의자들의 배신행위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반대 배격하여야 함. 	<p>0 日 방위청 대변인, DMZ 북한군 동향 면밀 주시 언급</p>
12. 26	<p>0 拉北 86우성호 선원, 판문점통해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0北韓에 나포당해 7개월간 억류됐던 우성호 선원 5명과 사망선원 3명의 유해가 12.26 16:00경 판문점을 통해 귀환 	<p>0 86우성호 선원, 평양출발 기자회견 (평양 고려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法행위와 인민군 경비정의 자위적 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데 대해 다시한번 깊이 사죄함. <p>0 김정일, 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p>	<p>0 가토 日외무성 아주국장, 對北 쌀 추가 지원 계획 없다고 확인</p> <p>* 韓·日아주국장 회의(외무부)</p> <p>0 美국무부, 우성호선원 송환 환영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우성호선원 석방 조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 조치를 환영함.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7	<p>○ 宋榮大 통일원 차관, 北韓 태도 변화후 쌀 추가지원 * 기자간담회</p> <p>- 對北 쌀지원 문제와 관련한 政府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p> <p>- 우성호 선원들의 송환과 對北 지원은 별개의 문제임.</p> <p>- 중요한 점은 앞으로 북한 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태도 변화이며, 이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임.</p>		<p>○ 노사카 日 관방장관 3차 對北 쌀지원 용 의 표명 기자회견</p> <p>- 平壤측의 요청이 있을경우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북한에 세번째로 쌀 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p> <p>○ 프랑스, 5차 핵실험 실시(남태평양 무르 로아 환초)</p>
12.28	<p>○ 李壽成 총리, 對北경계 태 세 강화 언급 * 당정회의</p> <p>-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국방에 만전을 기해 국민 이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음.</p> <p>○ 외무부 대변인, 佛 핵실험 유감 聲明</p> <p>- 프랑스가 국제 사회의 바 램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데 대해 깊은 실 망과 유감을 금치 못함.</p>	<p>○ 中放, 필그림 美공화당 상원의 원의 對北 선제타격 발언관련 論評</p> <p>- 경수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 되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개발을 운운하 면서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까 지 떠벌인 것은 상식 이하의 몰염치한 처사임.</p> <p>- 美國이 군사적인 대결의 길로 기어이 나간다면 美國과의 신 뢰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어차피 달라지고 종당에는 깨 질수 밖에 없음.</p>	<p>○ KEDO 4차 부지조사 단, 96.1.16신포 파 견 예정 * 경수로기획단 발표</p> <p>- 韓電 기술진 20명 파견, 신포지역에 대한 지질및 지진 반응 조사예정</p> <p>○ FAO·WFP, 北어린이 210만명 飢餓 직면 공동聲明</p> <p>- 21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50만명에</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한번 프랑스의 즉각적인 핵실험 중지를 촉구함. ○ 韓·키프러스 수교 * 박수길 대사·니코스 아카토클레우스 대사 署名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임. -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영공, 영해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파멸밖에 없음. ○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임시총회 * 참석 : 백인준, 김영호(사민당 부위원장) 	<p>달하는 임산부·수유모들이 가장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음.</p>
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 美본토 파견 훈련 실시 * 국방부 발표 - 96.2 한국군 1개중대 규모 285명을 美 텍사스에 보내 美 3군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李養鎭 국방부 장관, 中, 對北접경 경계강화 언급 * 당정회의 비공개 보고 - 中國 당국이 최근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北韓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對北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平統』,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석방 촉구 聲明 - 남조선에서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통일운동의 앞길을 차단하고 북남사이의 대결을 조장시키는 파쇼 폭거임. - 김○○일당은 범민련 남측성원들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에 걸어 부당하게 체포 투옥한 남조선의 통일애국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96.1 하와이에서 美軍유해 승환협상 접촉예정 * 고위 외교소식통 - 양국 대표단이 1월 초 하와이에 있는 美육군중앙신원확인연구소에서 만나 유해 감식과 발굴, 비용보전문제등 유해 승환과 관련한 기술적 사안을 협의할 예정임.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30	<p>0 孔魯明 외무장관, 對北 쌀 추가지원 조건 제시 * 기자간담회</p> <p>- 北韓의 식량사정에 대한 사실조사가 선행되고 지원되는 식량이 軍事的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에 쌀을 제공할 수 있음.</p> <p>0 政府, 우성호 선원 조사 결과 발표 * 정부합동조사반 발표</p> <p>- 86 우성호는 단독 항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몰다 고장난 나침반과 항해 미숙으로 北韓 영해를 침범했음.</p> <p>- 선원들의 北韓내 행위는 북한당국의 압력과 회유에 의한 강제행위로 일단 인정됨.</p> <p>- 5차례 이뤄진 선원들의 기자회견 좌담회 담화발표등은 미리 작성된 원고에 따라 수십차례 연습을 한다음 이뤄졌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31		<p>0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새해맞이 공연 진행 (만경대 학생소년궁전)</p> <p>* 참석 :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최 광, 김영남 계응태 등</p> <p>0 中·平放, 金正日이 中國 국가주석 강택민·쿠바수상 카스트로·러시아 엘친 대통령등 여러나라 수반과 연하장을 교환했다고 보도</p>	

南北對話 年表

(1995. 1. 1~12. 31)

發行日：1996年 1月 日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